

군포예술총 25년사

1996년 ~ 2021년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구로세계총 25년사

군포예술총 25년사

1996년 ~ 2021년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CONTENTS

- 04 **축시**
 - 박현태
- 06 **휘호 및 축화**
 - 김건석, 강희진, 이상훈, 백동열
- 10 **축하사진**
 - 성주희, 임효례
- 12 **발간사**
 - 강신웅 _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장
- 14 **축사**
 - 한대희 _ 군포시장
 - 성복임 _ 군포시의회 의장
 - 이학영 _ 국회의원
 - 이범헌 _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용수 _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장
- 25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 79 **외부논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예술인 _ 고영직
 -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과 방향 _ 염신규
 - 지역 문화 예술의 지향점 _ 김광철
 - 군포 예총의 진단과 향후 방향성 _ 장석기
 - 군포예총 25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_ 이영호
- 123 **군포예총 25년사 발간 기념 좌담회**
 - 1부 _ 군포예총의 태동
 - 2부 _ 군포예총의 초창기 활동

163 군포예총 25년사

- 01 _ 군포예총이 걸어온 길
- 02 _ 군포예총 연혁
- 03 _ 군포예총 역대 회장단
- 04 _ 군포예총 주요사업
- 05 _ 수상현황

235 협회별 25년사

- 01 _ 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
- 02 _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 03 _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 04 _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 05 _ 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 06 _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 07 _ 한국연예협회 군포지부
- 08 _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525 작고 예술인 조명

563 부록 _ 예술단체 소개

- 01 _ 군포시립여성합창단
- 02 _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청소년실내관현악단
- 03 _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04 _ 세종국악관현악단
- 05 _ 수리샘문학회
- 06 _ 사사모
- 07 _ 군포윈드오케스트라





이 영광 아름답게 빛나라

이 영광 참 아름답구나
군포예총 25년이 되었구나
1996년 그 해 화창한 날에
'군포예총' 이름패 달고 출발한 초심이
옹골차게 자라서 더욱 찬란하구나
예술문화 한 그루 풋풋하게 심구어져
세세연년 싱싱하고 튼실하게 자라나
우뚝하고 늠름한 아름드리 장송이 되었구나
어느새 튼실하고 창창한 청장년이 되었구나
이리하여 우리 모두 영광이게 하는구나
비바람 한서격랑이 어이 없었을까마는
의연히 이겨낸 세월이 형설로 빛나는구나
어느덧 일 백 년, 이 백 년의 역사가 되겠구나
지나 온 자취마다 쌓여진 행복의 심지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되겠구나
군포시민들이 사랑으로 키워내는 문화예술
자랑스런 군포예총 청사에 빛나겠구나!

박현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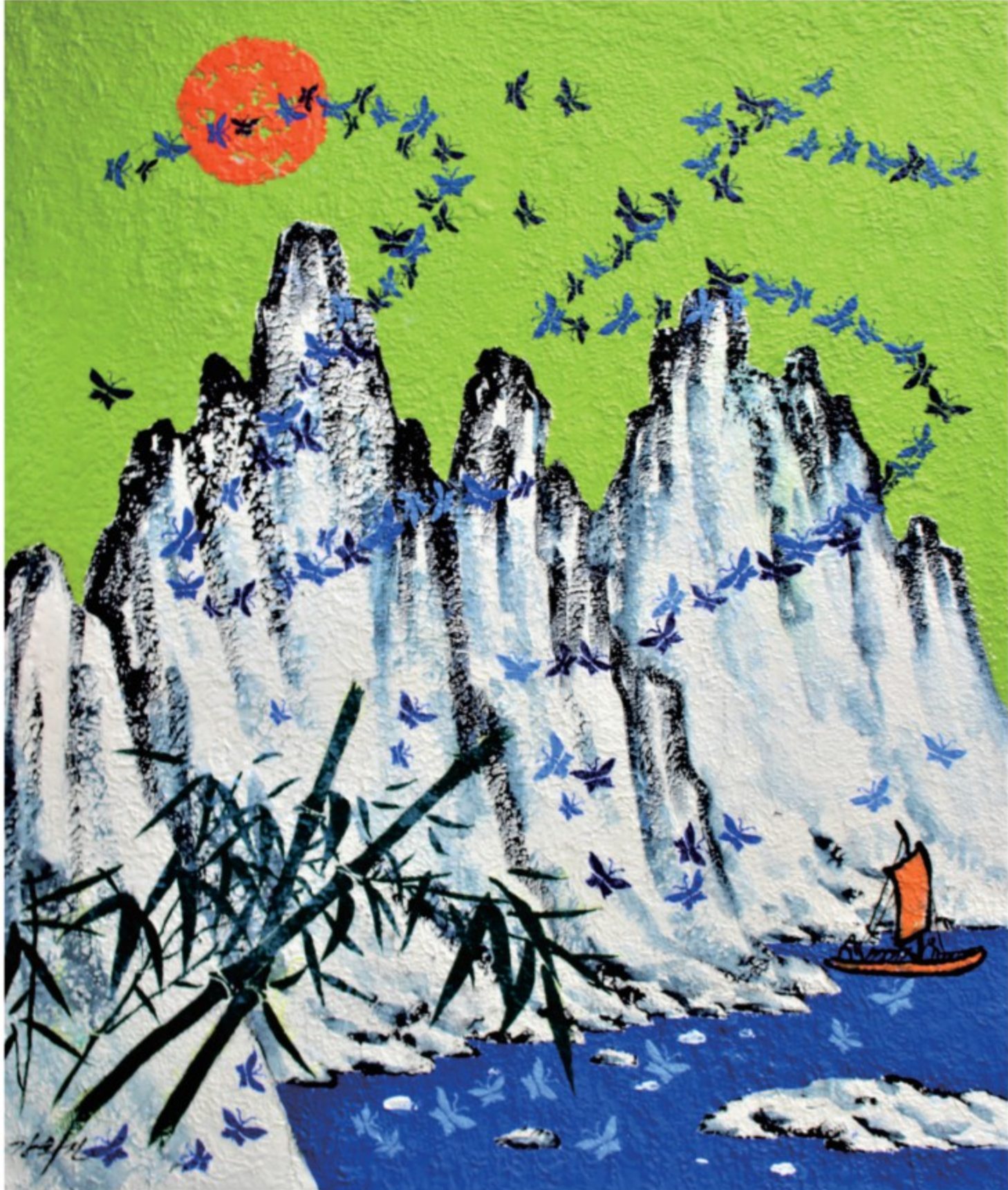
초대회장



游於藝

김건석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회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예술의 꿈 | 강희진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장 역임
연합작가회 지도교수

축화



기다림 | 이상훈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장 역임
수리청년작가회 회장



속달동 동래정씨 종택 | 백동열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회원
군포스케치 회장

축하사진



Love in the ice | 성주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장 역임



반월호수 | 임효례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장
군포500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라지는 마을 둔대리' 출간



강신웅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장

과거를 기록하고 정리함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코로나19시대를 겪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군포예총 예술인들은 한 시대를 정리하여 변화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군포예총 25년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예술의 불모지에 1996년 8월 27일 군포예총을 출범시키고 지켜온 선배 예술인들의 노고와 우리 예술인들의 땀과 노력이 군포예총 25년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군포예총에 속한 8개 협회(문인,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연예, 미술, 사진) 400여명의 예술인들이 군포지역 예술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융합이 요구되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8개 협회 회원들이 상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활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진과 그림, 시가 협업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타 분야 예술인들과 교류하여 서로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며 나누는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시대에 예술 창작 역시도 코로나 이후의 예술을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변화하며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예총의 25년은 문화예술인은 물론 군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군포시민의 정서함양에 일조해 왔으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창립이후 현재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으로 문화예술의 소통자로서 군포시민들과 활발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군포예술인들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모여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군포예총 25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

수 있는 예술인 회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 있지만 군포예총 가족 모두는 더 나은 예술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스물다섯 청년 군포예총은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찬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에 적극 협조 해주신 한대희 시장님, 성복임의장님을 비롯한 시·도 의원님들, 이학영 국회의원님,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분들과 예총 가족,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긴 시간 원고를 모으고 정리해주신 집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대희

—
군포시장

그간 군포시 문화예술의 큰 축을 담당해 온 군포예총이 어느덧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번에 25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군포예총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됩니다.

군포예총이 창립되었던 1996년 무렵은, 군포시가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여서 문화예술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춧돌을 놓듯 하나하나 문화예술의 기반을 닦아 오신 군포예총 회원 예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포는 작지만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조건은 각자 다르겠지만, 풍성한 도심 속 녹지 공간, 수리산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생태 자연환경 등은 군포의 자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우수한 창작활동과 그를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향유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문화예술이 인간의 삶이나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

군포문화예술의 소중한 아카이브, 군포예총 25년사

는 현재의 상황을 예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무대와 발표공간을 제한받고 있는 예술인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큰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통해 군포 문화예술의 역사와 기록이 온전히 정리되고 보존되어 후손에게 전해질 귀한 자료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강신웅 군포예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사



성복임

—
군포시의회 의장

태양, 물, 공기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문화예술'일 것입니다.

1996년에 창립한 군포예총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군포예총의 헌신 위에서 군포는 문화예술 도시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군포예총의 활동내용과 자료들을 엮어 『군포예총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 페이지마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군포예총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단체를 넘어 군포 문화예술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과 함께 시작되고 성장해 온 군포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이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그동안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이처럼 귀중한 자료를 발간해 주신,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님을 비롯한 각 협회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군포예총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군포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길에 군포시의회도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학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입니다. 군포예총의 창립 25주년과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포예총 8개 협회(국악협회, 문인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의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는 매우 바람직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군포시민의 곁에서 군포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은 그동안 걸어온 역사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군포 문화예술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뜻깊은 일입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문화·예술의 방향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도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공연계를 비롯해 무대나 전시장 등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의 힘으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현실을 깨부수는 망치다.”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군포예총

예술인의 내면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현실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갑니다. 어둡고 험난한 현실을 깨부수고 잠시나마 예술의 세계에 폭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시민들에게 환난 가운데 힘과 용기가 되는 예술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예술 활동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군포예총의 창립 25주년과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군포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헌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21세기에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예술 콘텐츠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여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을 고려한 형태의 예술창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예술은 위기 속에서 그 빛을 더욱 발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1,2차 세계대전은 그것을 거름 삼아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예술콘텐츠를 창조해낼 것이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 보존함으로써 예술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에 2021년 군포예총에서 준비한 『군포예총 25년사』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포는 도시의 면적이 작는데 비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유독 충만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과 높은 교육수준, 안정된 생활기반 등이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가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문화예술이 곧 경쟁력이다

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군포예총의 노력 또한 타도시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예술과 창작 및 전시 등의 콘텐츠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곧 군포는 문화예술이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포예총 25년사』의 발간에 즈음하여 군포예총 창립 25주년을 축하드리는 한편, 군포문화예술계의 역사가 담겨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편찬하신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군포예총 25년사』는 군포를 넘어 대한민국의 예술자산으로 후대에 전하는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용수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장

군포예총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군포시 예술 문화의 현 상황을 기록하고 군포시 예술 문화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군포예총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6년에 창립된 군포예총은 창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군포시 예술 문화의 발전과 군포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2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뿌리를 지켜오며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군포예총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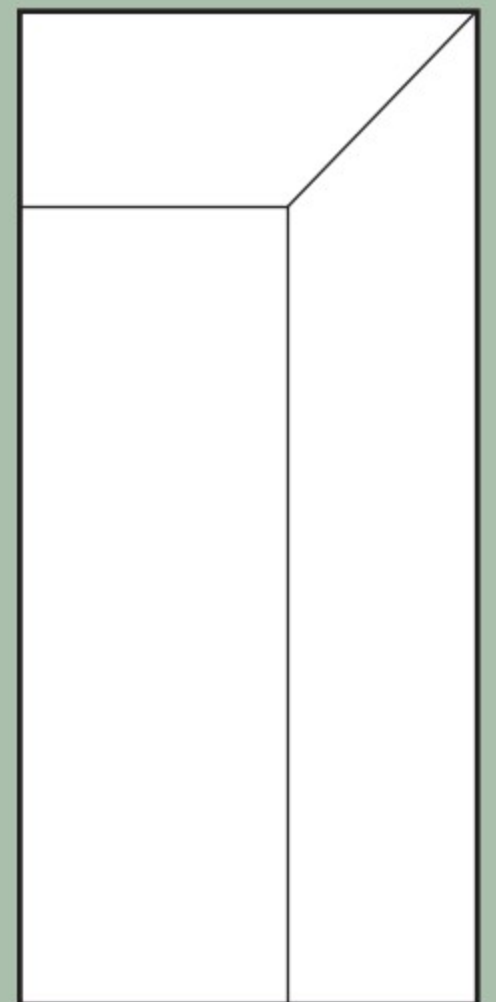
우리 경기도의 지역 문화와 예술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유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지속되어왔음에도 그 역사가 기록되어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자료는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각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연대기 자료가 많지 않고 지역 문화 예술의 주체가 되는 지역 예술인들의 뜻과 열정이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포시 예술 문화의 사료화를 목적으로 한데 모여 향토 사료를 발굴하고 군포시 예술계의 현 상황을 조사, 정리 기록하여서 후세에 전승하려는 군포예총의 노력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군포예총의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은 향후 군포시 예술의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경기도를 넘어 한국 문화예술의 한 축으로서의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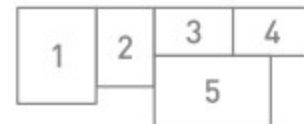
유방백세(流芳百世 ‘향기가 백대에 걸쳐 흐른다’) 라는 말처럼 오늘 발간되는 『군포예총 25년사』도 그러한 향기가 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리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님을 비롯한 편집 위원, 집필 위원, 편찬 위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총 25년사**





예총 창립

군포예총 현판식

07. 10 제2회 수리음악콩쿨 입상자음악회

07. 23 군포예총창립 기념공연

11. 13 군포예총창립기념 시민예술제 개막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1	4	5	
2	3	6	7

- 02.01 사무실이전(중심상가 금정동 일신빌딩 B1)
- 05.17 군포태을예술제 개막식
- 05.17 군포태을예술제 개막식 및 전야제
- 05.24 군포태을예술제 범시민걷기대회
- 05.30 군포태을예술제 폐막식
- 11.15 군포예총 문화 기행
- 12.20 송년예술제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총 25년사**





1	2	5
3		6
4		7

- 02. 28 제1차 정기총회
- 05. 07 군포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
- 05. 21 사무실이전 (군포문화예술회관)
- 05. 21 군포예총 현판식
- 06. 13 제3회 군포태을예술제 - 태을산제
- 06. 13 제3회 태을예술제 개막식 및 전야제 _ 시민회관
- 12. 18 송년의밤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2	5	7
	3	4	

- 제4회 군포태을예술제
- 05.07 현수막
- 05.07 개막
- 05.11 사진전시회
- 05.13 시민가요제
- 05.13 폐막식
- 10.30 제1회 군포예총 임시총회
- 12.31 밀레니엄 축제 _ 시민소망기원제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2	3
4		5

- 01. 20 제2대회장 이취임식
- 02. 18 군포예술인 척사대회
- 02. 19 제1회 정월대보름맞이 달맞이굿
- 04. 29 제5회 군포태을예술제 개막식
- 09. 23 군포예총 문화기행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2	4
3	5	

- 02. 07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 05. 19 개막식
- 05. 19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군포수리문화예술제
- 05. 21 찾아가는 우리마을 작은 음악회_수리문화예술제음협





1	2
	3

- 2002 철쭉음악제
- 02. 23 제3대회장 이취임식
- 12. 23 장석기회장 경기예술대상수상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 25년사**





1	3	4
	2	5

- 04. 17 제1회 철쭉동산축제
- 04. 26 군포시민대축제
- 04. 26 군포시민대축제 전야제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 02.05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_ 대야미 예총주관
- 02.12 4대회장 이취임식
- 04.24 철쭉동산축제
- 04.24 군포시민대축제
- 12.10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1	4	5
2	3	6
		7

- 04. 23 군포시민대축제 길놀이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 08. 17 숲속 푸른 음악회
- 12. 16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연극)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무용)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국악)
- 12. 19 군포눈꽃축제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2	5
3	4	6
		7

- 01. 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 02. 11 제5회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 04. 27 철쭉동산축제 봄밤의음악회
- 05. 08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 08. 09 숲속 푸른 음악회
- 09. 15 군포예총 10주년 기념식
- 11. 29 문화예술인 워크샵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4	5	6
2	3	7	

- 01. 10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 03. 03 제6회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
- 04. 20 군포태을제 아트플래그전
- 04. 25 군포태을제 공단음악회
- 04. 28 군포태을제 개막공연
- 05. 02 군포태을제 산사음악회
- 08. 11 한여름 쿨페스티벌 삼색테마콘서트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1	3	5	
2	4		7
	6		

- 03. 22 제5대 회장 취임식
- 05. 01 군포태을제 아트플래그전
- 05. 02 군포태을제 전야공연 환타지아 군포
- 08. 09 숲속푸른음악회
- 08. 13 삼색테마콘서트
- 09. 28 제6회 군포예인예술제
- 10. 10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1		5
2			
	3		6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 05. 01 군포시 수리수리마법축제 개막식
- 05. 02 제2회 군포시 수리수리마법축제
- 08. 14 제7회 군포예인예술제
- 12. 19 제1회 동아리경진대회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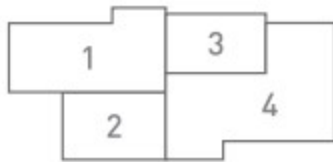




1	3	4
2	5	6

- 05.04 태교음악회
- 07.31 한여름쿨페스티벌
- 09.04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09.18 제8회 군포예인예술제
- 10.08 제22회 군포시민의날기념 음악회
- 10.30 문화예술인 워크숍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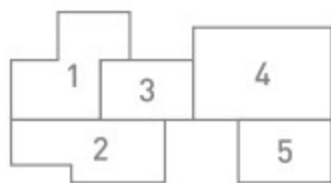
- 04. 30 군포철쭉대축제
- 05. 10 군포시철쭉대축제
- 10. 22 문화예술인워크숍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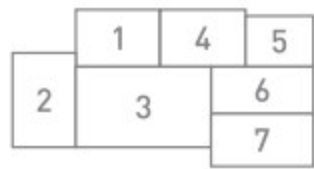




- 03. 02 제6대 회장취임식
- 05. 04 군포시철쭉대축제
- 05. 05 일요예술무대
- 05. 10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08. 11 한여름쿨페스티벌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 05.01 일요일예술무대
- 05.05 군포철쭉대축제(무용)
- 05.05 군포철쭉대축제(국악)
- 08.15 군포예인예술제
거리로나온예술
- 11.06 문화예술인 워크숍
- 11.09 제4회 동아리경진대회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5	6
2	4	7
3		

- 07.08 한여름밤영화산책
- 07.13 일요일예술무대
- 08.10 한여름쿨페스티벌
- 08.15 제12회 군포예인예술제
- 08.20 한여름쿨페스티벌
- 09.21 일요일예술무대
- 11.19 문화예술인 워크숍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1	3	4
2	5	6
		7

군포철쭉대축제 버스킹에 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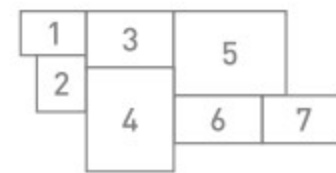
- 04. 26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05. 03 군포예술무대
- 05. 17 일요예술무대
- 09. 04 문화예술인 워크숍
- 09. 05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11. 15 제6회 동아리경진대회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 03.05 제7대 회장 취임식
- 05.10 철쭉대축제 사무국
- 08.14 한여름쿨페스티벌
- 08.19 책나라군포예술무대
- 08.26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11.01 문화예술인 워크숍
- 11.28 군포예총산악회 출범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 25년사**





1	4	6
2		
3	5	7

- 04. 23 군포철쭉축제 개막식
- 04. 23 군포철쭉축제
- 04. 23 철쭉예술무대
- 04. 25 군포철쭉축제 미술관전
- 09. 08 거리로나온 예술
- 09. 30 행복한 동행
- 12. 06 문화예술인 워크숍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 25년사**





1	2	5	
3	4	7	6

- 07.27 한여름밤영화산책
- 08.03 자매도시방문(일본아츠키시)
- 08.12 한여름야외음악회
- 09.01 거리로나온예술
- 10.14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음악회
- 11.28 문화예술인워크숍
- 12.31 제야행사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총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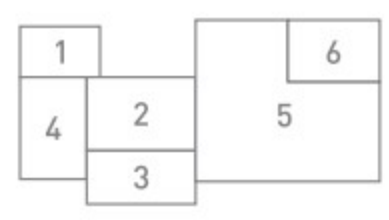


1	5	6
2	4	7
3		

- 03. 30 군포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 06. 16 군포예총산악회(수리산)
- 08. 11 한여름야외음악회
- 10. 10 전국노래자랑 예심
- 10. 26 산사음악회
- 11. 24 경기꿈의학교 수료식
- 12. 31 제야행사



사진으로 보는 군포예술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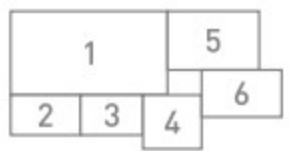
- 07.01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줌인
- 07.16 군포예인예술제 개막식
- 07.16 군포예술상 시상식
- 07.18 경기꿈의학교
- 08.15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공연
- 09.11 자동차극장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클러스터**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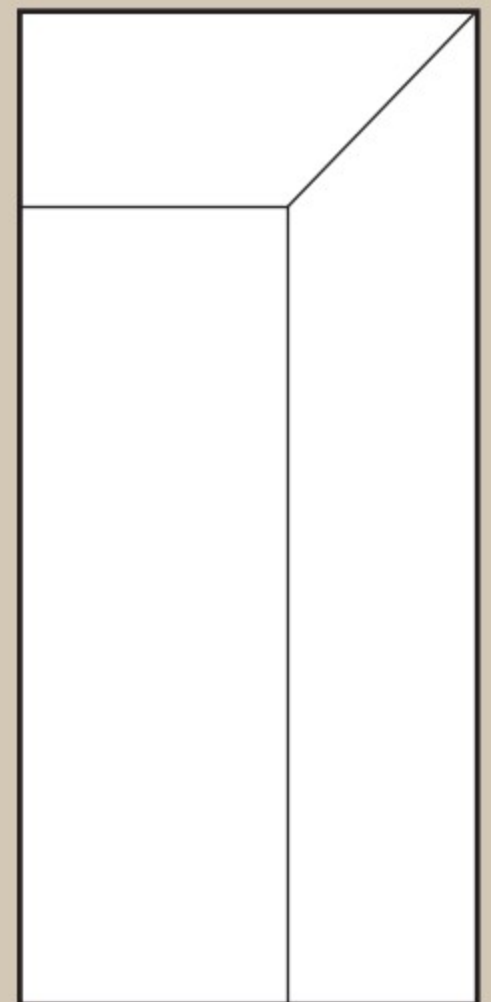




- 03. 31 군포 3.31만세운동 전시
- 04. 14 시장님 간담회
- 08. 04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
- 08. 21 자동차극장
- 09. 11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 10. 09 거리로나온 예술

외부논단

- 80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예술인 _ 고영직
- 90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과 방향 _ 염신규
- 100 지역 문화예술의 지향점 _ 김광철
- 107 군포예총의 진단과 향후 방향성 _ 장석기
- 114 군포예총 25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_ 이영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예술인

고영직

문학평론가.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아르떼365》 편집위원장, 《팟(pot)》 편집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문적 인간』,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을 출간했으며, 최근 『생애, 전환, 학교』를 기획하고 출간했다.

1. 파국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의 시대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문학과 예술은 기존의 상투적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페스트가 창궐했던 저 중세 시대 보카치오가 『데카메론』(1351)을 집필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문학인과 예술인들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는 예술의 위기, 예술가의 위기, 예술장(場)의 위기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위기’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코로나19 시대 예술인들 또한 누구보다 ‘세 가지 생태학’(펠릭스 가타리)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기서 세 가지 생태학은 자연생태학, 사회생태학, 마음생태학을 의미하는데, 이중 가장 큰 위기는 마음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 또한 코로나 블루(우울), 코로나 레드(분노)를 넘어 코로나 블랙(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반지성주의’의 득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소셜 딜레마>(2020)가 잘 보여주듯이,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흐름은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장르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최근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징후적이다. 코로나19

시대 지구(地球)를 걱정하며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시인 이문재의 시집 『혼자의 넓이』(2021)를 비롯해 스스로를 ‘환경운동하는 작가’라고 부르는 소설가 최성각의 산문집 『욕망과 파국』(2021), 이영광의 시 「검은 봄」(2020)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백무산의 시집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2020), 김해자의 시집 『해피 랜드』(2020), 이산하의 시집 『악의 평범성』(2021), 그리고 김초엽의 소설 「오래된 협약」(2020), 신예작가 김강 소설집 『소비노동조합』(2021) 같은 작품들은 지금까지의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로 가득한 작품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시대 십여 년 전 쯤 실상사 도법 스님이 청소년들에게 했다는 특강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법 스님이 청소년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니까?” “빌 게이츠요.”

“그럼, 빌 게이츠는 자기가 최고 부자라고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세 끼 먹습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15일쯤 굶었다고 칩시다. 빌 게이츠가 굶은 뒤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뜯어 먹습니까?”

“아니요, 밥을 먹습니다.”

“그럼, 밥은 누가 만듭니까?”



“농부가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밥을 만드는 일과 컴퓨터를 만드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위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소위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대문명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문명’은 밥보다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문명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자연의 역습으로 간주되는 코로나19의 엄습은 문명의 ‘변침(變針)’을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시대는 이코노믹(economic)에서 에코(eco)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문학과 예술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작품실천으로 탐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코로나19 시대와 문학 생태계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어두운 터널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누구나 포스트 코로나를 희망하지만, 최근 수도권 4단계 격상에서 보듯이 위드(with) 코로나의 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피로(疲勞)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김수영, 「긍지의 날」)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나와 우리의 ‘생활’이 지탱가능한 것이었는지 성찰하며, 지금까지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려는 라이프스타일 혁명을 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노력이 없는 한, 이른바 ‘뉴노멀’은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가 역설적으로 환기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이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 지고 ‘민폐’ 끼치며 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 어느 철학자가 “우리는 서로 어깨를 걸기 전에 먼저 서로를 마주보아야 한다”(레비나스)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나보다 더 약한 타인의 소리 없는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시인(예술가)의 마음이 요청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타인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힘’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에게 신세 지고 민폐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의 관계망이 그래서 필요하다. 어느 시인이 “가난한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로 확장”(안현미, 「생각보다 흰」)된다고 썼던 데에는 그런 ‘기적’의 비밀이란 서로를 마주 볼 줄 아는 사회적 유대에 있었다고 파악한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피로도, 긍지도, 우리가 만드는 법이다. ‘긍지(矜持)’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창(矛)을 지금(今)을 지니고(持)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긍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너’라는 사람과 끈끈한 신뢰의 사슬을 형성하고, 단단한 사회적 유대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문제는 코로나19 시대 문학하는 삶의 안녕과 평화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상력의 빈곤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읽고, 쓰고, 사유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학하는 삶의 안녕과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문학(예술)의 문학(예술)됨을 말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의 인간됨을 주장하기 힘들어진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시대가 장기지속될 것이라는 현상에 편승해 약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에 창궐하는 현상을 보라. 이러한 반(反)지성주의의 득세 현상은 고립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되, 현실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를 지키려는 시인을 비롯한 (인)문학인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사회’(the social)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하는 삶의 안녕과 평화는 반(反)지성주의와 먹고사니즘이 득세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상상력’에 대한 지원활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리라. 우리 시대 어둠을 밝히는 상상력의 불이 꺼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코로나 강점기’와 문학하는 삶

코로나19 시대 문학하는 삶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인 이병철의 「‘문학하는 삶’의 평화에 대하여」(도봉문화재단, 2020)라는 연구 보고서가 잘 요약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표현은 ‘코로나 강점기’라는 표현이었다. 이 말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상 ‘강점기’라는 말에 값할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업이 멈추었고, 사회가 멈추었으며, 우리의 일상 또한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자가격리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고립이 아니라 다분히 ‘강요된’ 고립이라는 점에서 강점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

이병철은 연구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강점기라는 문제의식 아래 문학하는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여섯 가지의 질문을 품고 온-오프라인에서 시인, 소설가, 평론가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여섯 가지의 질문은 문학하는 삶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질문 구성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문학 현장에 있는 문학인들의 답변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서도 생각할 지점들을 제기하는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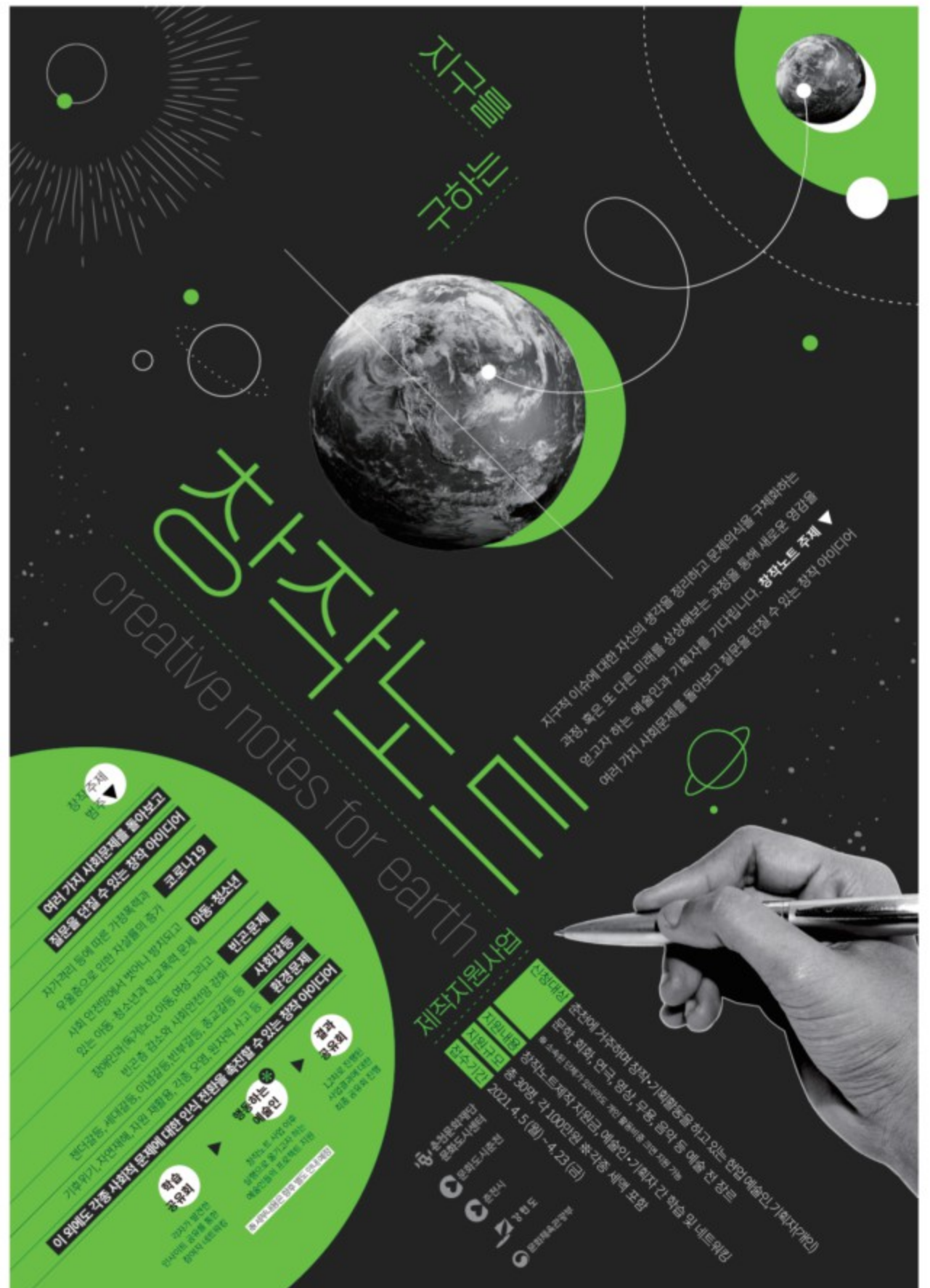
나는 특히 이병철의 보고서에서 “문학을 위한 시간이 아닌 생계를 위한 시간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문은강 소설가), “차분히 의자에 앉았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조수경 소설가)처럼 문학인들의 ‘육성(肉聲)’을 잘 끌어내면서 70%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 곤란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잘 전달한 점이 소중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현장 문학인들의 이러한 육성들은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이되, 코로나 강점기 시대 ‘일상성’과 ‘지속성’의 가치야말로 가장 소중한 문학하는 삶의 안녕과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목소리라는 점을 그대로 말해준다. 다시 말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평화라는 점을 잘 전달해준 것이다.

물론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 문학 창작의 내용은 달라져야 하고, 실제로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병철은 창작하는 시인으로서 이 점에 대한 사유 또한 놓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 ‘평화’가 반드시 인간의 편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자문하면서, 코로나 이후 자신의 ‘문체(文體)’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작가 지식인의 변화는 문체의 변화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던 대로’ 쓰려고 하는 관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획득 가능한 평화와, 인간이 인간과 연대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함께 노래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 또 개인으로서의 자발적 유편이 자연에게도 인간에게도 모두 축복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문학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 싶다.” 나는 이병철의 문장에서 자신이 세계-내-존재로서 ‘시인-

시민'이고, '시민-시인'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창작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는다.

이와 관련해 나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치는 미국 작가 레베카 솔닛이 언급한 바 있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사람이 외부에서 큰 사고를 겪으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꼭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 하고 진화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개념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그 가능성을 얼마나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것은 예전처럼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예전 그대로 돌아가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마음으로는 새로운 뉴노멀의 삶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당시 루소는 「리스본 재난에 관한 시」에서 “오라, 모든 게 잘될 거라 주장하는 철학자들이여, / 이 세상의 폐허를 응시하라. / 당신 종족의 파편들과 재를 보라.”라고 격문(檄文) 형식의 작품을 썼다.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학과 예술은 루소의 경우처럼 새로운 '개안(開眼)'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혁명을 촉구하고 추구하는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속담은 딱 의미심장하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학과 예술은 ‘기후행동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관점 아래 삶의 전환, 문명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작품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4.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는 예술

코로나19 시대는 예술의 위기, 예술가의 위기, 예술장(場)의 위기, 그리고 ‘삶의 위기’였다.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인들 또한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생활 이전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시대 예술인지원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시대 예술인지원행정은 여전히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종 지원정책에서 가난과 사회적 기준의 무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예술인지원제도는 예술인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다. (예술)행정은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당신의 ‘무능’을 숫자화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법과 제도가 예전보다 진화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현장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품위 있는 사회’(A.마갈릿)는 요원하다. 마갈릿은 어떤 제도가 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회는 결코 ‘품위 있는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19 문학분야 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문학과 문학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철학이 빈곤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문학 분야 예산이 지역의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14억원’이 전부였다는 대목은 ‘문학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문학 장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 문체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문화재단)의 긴급예술지원을 보면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의 관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시대 예술지원은 ‘긴급’이라는 문구를 표방했지만, 여전히 ‘공모-경쟁-선발-사업-평가-정산’이라는 과정을 풀코스로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 예술인, 프리랜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추진한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은 ‘사람 없는 예술지원’의 대표적 졸속 사례일 것이다.

어느 작가는 “문학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사카구치 안고, 坂口安吾)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코로나 강점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학·예술 지원정책은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직접지원 형식보다는 ‘대출’을 권유하고, 끝없이 ‘가난’을 증명하라며 현장 예술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지금의 문화예술 행정은 명예로운 지원정책이 절대 아니다.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돌봄찬 사회를 지향하며 ‘돌봄전환사회’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편적 돌봄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문학을 비롯한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 시인 브레히트가 말한 것처럼 “예술가는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예술인들이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시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은 이 사회에 이의(異議, objection)를 제기하는 존재들이고, 지금이야말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문학인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금 제도보다 좋은 문학작품 및 원고에 대해 ‘시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문학인, 예술인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을 촉구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자기 작품의 상투성을 비롯해 ‘좋은 옛것’이 아니라 ‘나쁜 새것’을 추구하려는 꾸준한 저항과 작품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문학하는 삶의 평화는 결국 차분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분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최근 한 칼럼에서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한겨레, 2021.5.10.)라고 언명한 것처럼, 철저히 개별자로 ‘고립’된 시민들은 외로운 군중이 되어 각자도생의 윤리를 내면화하며, 능력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공유지를 파괴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런 시민들의 능력주의는 결국 사회 통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고,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를 당연시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해 ‘사람의 자리’가 점점 희박해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학인,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더 이상 불꽃이 꺼지기 전에 심지를 돋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과 방향

염신규

—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며 예술 분야에
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예술 정책활동가를 거쳐 현재는 도시문
화 및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다큐이야기 연출부, (사)한국
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경
영지원팀장을 거쳐 국회 도종환 의원실에서 문화정책 입법을
돕다가 2015년부터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인천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문화정책과 지역문
화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1.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기원과 흐름

최근에 몇몇 문화연구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매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의 문화연구, 특히 하위문화를 포함한 도시문화연구에서는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쌓으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이었다. “염 선생,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해외의 주요국가 중 특히 어느 나라로부터 받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니까? 프랑스로 봐도 될까요?”

식사 자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참을 고민해야했는데, 아주 또렷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던 것 같다. 나름 문화예술정책 현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고, 특히 정책연구와 문화연구를 병행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형성된 과정은 앞서 근대적 국가를 만들어 발전시켰던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복잡하게 섞여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영향들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 땅에 들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변화,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내재적 원인들과 맞물리며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으로부터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화예술정책·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역사, 정치적 상황, 사회적 환경, 경제 수준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 혹은 정부와 시민, 예술가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강도나 방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문화예술정책을 훑어봐도 이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국가, 특히 한국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정책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다소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에 아예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문화 관련 부처

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 정책들은 각 주에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연방주의 국가이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 근간이다.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 관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당한 부분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미국연방예술기금(NEA)과 같은 공공 예술지원기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NEA를 통한 예술지원조차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화부를 통해 이런저런 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술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과는 매우 결이 다르다. 요약하자면 미국식 문화예술정책은 민간 중심과 자율성이 기본적인 기조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하고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강하게 강조하는 국가였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앙드레 말로(1958년~1969년)와 자크 랑(1981년~1993년)과 같이 아주 오랜 기간 장기집권(?)하며 강력하게 정책을 끌고간 유명한 문화부장관들이 존재할 정도로 문화부의 권한과 위상이 대단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강력한 정부 주도 문화정책은 앙드레 말로 장관 시절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나 자크 랑 장관 시절의 “문화민주주의” 정책과 같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문화정책의 담론을 생산하였다.

미국과 같이 민간자율을 중심에 둔 문화정책이나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문화부처 중심의 정책 시스템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델 중 하나였던 예술위원회(art council)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각각 두고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래 1946년에 만들어진 그레이트브리튼 예술위원회로 시작했지만 1994년 4개의 연방으로 나뉜 썸인데 각각 문화매체체육부, 스코틀랜드청, 웨일즈청, 북아일랜드청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영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영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의회 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예산집행 방향과 지원정책기조의 상당한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예술지원정책의 금과옥조처럼 되어있는 팔길이원칙(Arm's-Length Principle)이 시작된 곳이 바로 영국인데, 실은 영국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원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의외의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영국에서 의회정치가 예술지원정책에 간섭하려 했던 경우가 은근히 많았다는 것

이다. 영국에서 팔길이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정치권력이 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지원을 무조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과 예술계가 사이에 일어나는 예술자율성에 대한 견제와 저항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비무장 지대와 타협점이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 특히 예술정책이 국가권력과 맺는 관계를 살짝 들여다본 것은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에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매우 복잡하게 복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예술정책은 정부의 성격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오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 이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완전히 무효로 돌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던 사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심지어 정부 수립 당시에도 그랬다. 일제 시대가 끝나고 미군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수립되었지만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제도나 정책을 모두 폐기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상당한 부분이 일제 시대에 일본 정부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내려왔다. 예컨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정확히는 반관반민의 형태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술계 행사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문화정책의 하나로 개최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유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법이라던가 출판법 등 주로 초창기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문화예술관련 법령이나 제도들의 원형들은 대부분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 시기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점령 초기 미군정은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영향 제거와, 미군 점령 정당화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화 정책을 폈다. 즉 일제 시대 말미 전시파시즘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극단적 국수주의와 군국주의, 군사주의가 조선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적 보편가치와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1947년 5월 미군정은 공보원(OCI, Office of Civil Information)을 설립하여 미군정 종료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OCI는 문화의 교류를 위해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네 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였다. 주로 활용된 매체는 영화(기획영화, 보도영화), 잡지, 라디오방송, 전시회 등이었다. 놀라운 것은 당시 미군

정 공보원에서 진행했던 문화프로그램들은 이후 한국 지방문화원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기구들에서 진행하는 향유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문화프로그램의 원형적 형태가 실은 1940년대 후반 미군정 공보원을 통해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일제 시대의 총독부의 문화통치정책과 미군정의 문화정책을 근간으로 한 문화예술정책은 한국 정부 문화정책의 원형적 뿌리가 된 셈인데 여기 한두가지 이념적 지향이 더해졌다. 그 한 가지는 여전히 헌법에서 공인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다. 문화국가의 원리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가가 문화의 중심인 동시에 책임지는 주체이며, 보호자(후원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문화 발전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의미다. 얼핏 이런 문화국가의 원리를 설명하면 “문화예술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들곤 한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기 시작한 역사는 생각보다 무척 짧다. 근대국민국가(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시작된 흐름이며 특히 문화국가를 국가의 운영원리로 내세운 것은 1910년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유래한 영향이다. 당시 독일을 포함하여 근대국가로 새롭게 등장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예술과 학술을 국력의 원천이라고 여겼으며 민족예술과 국가적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붙인 논설문 “나의 소원”에서 밝혔던 문화 발전에 대한 강조(“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역시 백범의 혜안을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 신생 근대국가들이 대부분 문화국가에 대한 지향을 강하게 내비쳤다는 것과 맥락적으로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다. 문화국가에 대한 지향 못지않게 강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은 민족문화중흥에 대한 이념적 강조다. 민족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다소 위험한 근대의 이념적 지향(파시즘)과 연관된 측면도 있었다. 물론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념 지향이 지닌 편향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긴 했지만 역시나 지난 한국 문화예술정책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가 지닌 폐쇄성이나 지나친 국가주의는 21세기 이후에는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그리고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며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주의적 관점의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이 비판을 받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자율

로, 중앙 부처 중심에서 지역문화분권으로, 민족문화중흥에서 문화 분권의 확대
로,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문화다양성의 원리로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이 이동하
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신생 근대국가가 아니고, 개발
도상국가도 아닌 선진국가이며 특히 한류 문화(K컬처)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무시못할 수준에 이르른, 이른바 문화주도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피치 못할 변화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2.

문화정책과 행정의 변화와 딜레마

특히 2016년 이후로는
문화 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들이 문화정책 담론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1990년대 초
반(1991년 지방선거)부터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부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는 오랜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국민의 정부 이후 조금씩 확장되어가던 문화분권과 협치의
기조는 MB정부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정체상태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 통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 부
작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된 “새 예술정책”(2018~2022)의 4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가 “자율과 분권의 문화행정 혁신”이란 점은 이런 구시대적 퇴행에서 벗
어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 분권의 지향은 8대
핵심과제 중 “2.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에 담겨 있다. 비록 “새
예술정책”이 문화정책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예술정책, 그
중에서도 예술지원 정책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틀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핵
심과제의 주요한 항목으로 주무부처의 역할 조정(“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기
능 조정”)이 언급되고 있고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를 하겠다고 명시되
어 있다. 이런 협치체계 구축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
고”를 거론하고 있다. 비록 지난 5월에 발표된 “새 예술정책”이 완성된 버전이

아니며 그래서인지 목표와 지향에 비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행정에서의 협치와 분권을 주요한 지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예술지원의 주체는 국가(정부)였다. 대략 20여년 전부터 공공(public)지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많은 후발 민주주의국가들이 그렇듯 공공과 정부의 개념이 거의 일치해왔다. 물론 공공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던 이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공적인 활동의 유일무이한 행위자에 가까웠으며 이 구조에서 엘리트 관료집단들이 많은 공적 행위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해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근 30여 년간 여러 가지 공적영역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때로는 심각한 갈등 형태로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 것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일종의 수업료였다. 한국의 제도권 예술지원 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정부 주도성과 국가주의의 흔적이 잔존해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근대화 모델이 국가주도 성장으로 중앙집중적이고 국민총동원적인 방식으로 매우 압축적인 산업성장 방식을 택했던 탓에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와 행정의 작동방식은 여전히 다원성보다는 집중을, 분권적 가치보다는 중앙을 향해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문화정책은 주로 국가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국가 중심의, 중앙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으로 일원화되어있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되었는데 정부는 민족문화중흥이라는 이념 하에 사회의 문화를 단일성으로 사고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문화의 개념이 사회적 단일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지점에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문화는 문명과 대비되는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열이 아닌 차이의 지점에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이다. 문명이 야만에 대한 비교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발전이나 성장, 지배의 관점이 투영되어있다면 문화는 문명과 야만이란 이분법을 벗어나 실존하는 인간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한 인정을 기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문화중흥이라는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문화정책은 문명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거나 문화에 대한 우열적 관점을 전제했던 매튜 아놀드나 리비스주의자들의 케케묵은 문예학 관점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대의 문화연구나 문화정

책에서는 이렇게 문화에 대해 서열을 두거나 단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폐기한 지 오래다. 문화가 갖고 있는 개별성과 다양성과는 동떨어진 인식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의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자면 국가 주도의 공급형 문화정책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국립 규모의 거대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국립 예술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모사한 시설과 단체, 콘텐츠를 지방에 뿌리는 것이 국가 주도 문화정책 시대의 한 흐름이었다. 그 결과 각 지역이 갖고 있던 문화적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문화적으로 연결하고 자생적 저변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뚜렷하게 된 것이다. 즉 지방문화라는 관점은 국가 주도 중앙 문화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서의 지역을 사고하게 만들며 중앙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생산물을 지역에서 수혜적으로 향유하거나 고작해야 지역은 중앙의 문화에 자산이 되는 자원 이상으로 사고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문화가 아닌 지역문화로 관점을 옮겨가게 된 것은 중앙의 하위범주로서 로컬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적 주체로 지역과 사람과,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흐름은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통해 문화정책적 목소리로 모여지기 시작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2013년 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단순한 중앙재원의 지역배분 이상으로는 이뤄지지 못한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몇 가지 내외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혹은 자발적인 문화예술생태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형성이 지체되었던 것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지금까지 문화정책이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정부주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본격적인 문화예술정책은 1972년에서 73년의 시기에 시작된 문예정책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1973년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법·제도(문화예술진흥법) -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 - 집행기구(문예진흥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스템이 주무부처에 의해 관장되는 시스템은 이후 본질적 차원에서 프레임이나 논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예지원의 근거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의 문화예술 인식(“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그 근간에 국가

주의 및 성장주의를 담고 있으며 문화정책을 국가 통제의 영역에서 정부 주도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관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문화예술 정책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문화예술정책에 정해진 답은 없다.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며 인간의 삶의 양식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문화를 둘러싼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문화환경을 매우 큰 폭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물론 소위 근대국민국가 체제가 출발한 시점에서 예술의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지원하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복지국가담론과 함께 일종의 탄탄한 근대사회의 조건으로 자리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 그 신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중산층 교양의 확산”이라는 리비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문화의 민주화”나, 대중들의 자발적 문화 역동성을 강조한 입장이 “문화민주주의”의 입장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다소 낡은 이야기가 되어가는 측면도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실은 대놓고 따라왔던 서구사회의 문화정책 역시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간신히 프로파간다 중심의 국가주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주도 문화향유, 예술인들의 권리와 같은 복지사회 담론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미흡하게나마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데 현실은 훨씬 더 먼저 앞질러서 미끌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근대적 이미지가, 우리 입장에선 솔직히 보편 정서 속에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역설적 상황의 또 다른 재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명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문화정책의 성과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포장해내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체감되는 아주 기초적인 예술과 문화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인 관찰과 탐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화기관들이 주도하는 지원사업 위주의 문화향유사업이 일반적 의미의 문화향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

은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수혜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관의 문화향유사업이 잠재적 수혜대상인,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규모의 사회집단의 자발적 문화향유를 활성화 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맥락과 인과 관계, 경로, 사회적 공감에 이르는 파생적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문화 향유가 시민 개개인의 생애 어떤 변곡점이나 계기를 형성하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하여 정책가나 행정가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 심상의 서사를 형성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지원, 아니 단순히 예술지원을 넘어 사회에서 예술가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공공정책의 개입과 고민을 아주 밑바닥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지향점

김광철

—

PH/D 교수
세한대학교 교수



예술인 복지 및 창작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정책

위대한 문화는 항상 세계성을 띠고 있으며 우위의 문화는 항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같이 자연적으로 하위 문화권으로 흘러 들어가 기 마련이라고 한다. 지역 문화예술의 지향점은 문화복지·향유·평생 교육·재정지원·지역문화행정과 정책으로 나뉘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락물은 개인의 가능성,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의 오락물은 정말로 자유로운 창작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독창적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래야 눈을 씻고 보아도 이런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월트 디즈니사 회장의 마이클 아이스너가 미국의 창의적인 문화 전반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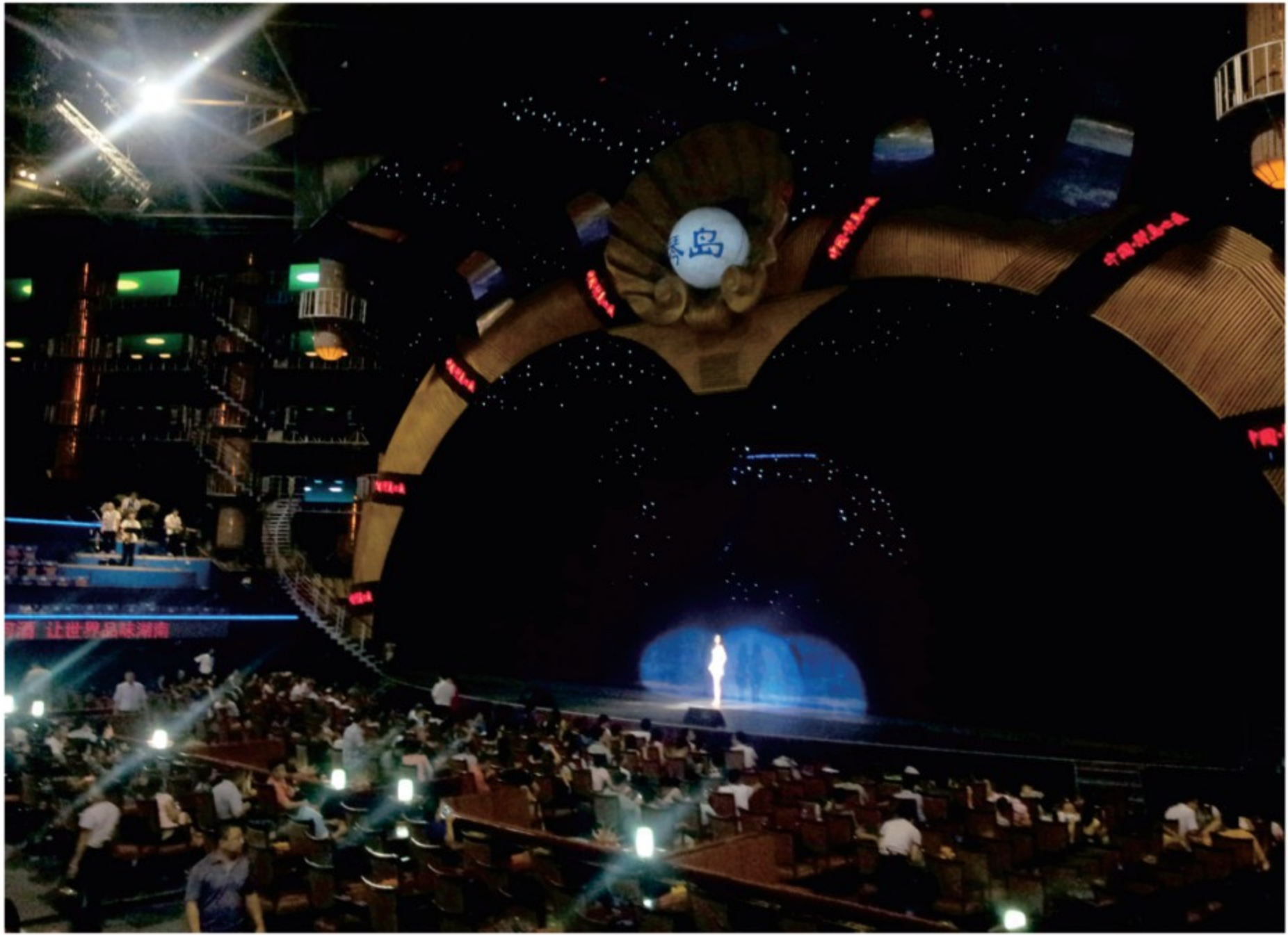
창의적 문화사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 문화가 사회의 중심 가치로 창의력과 상상력, 문화적 감성이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매김한 사회를 일컫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창의적 문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상력, 이야기, 창의성, 감성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를

거쳐 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미래 문화행정은 시민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경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90년대 중반에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 체험의 확산에 초점을 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보다는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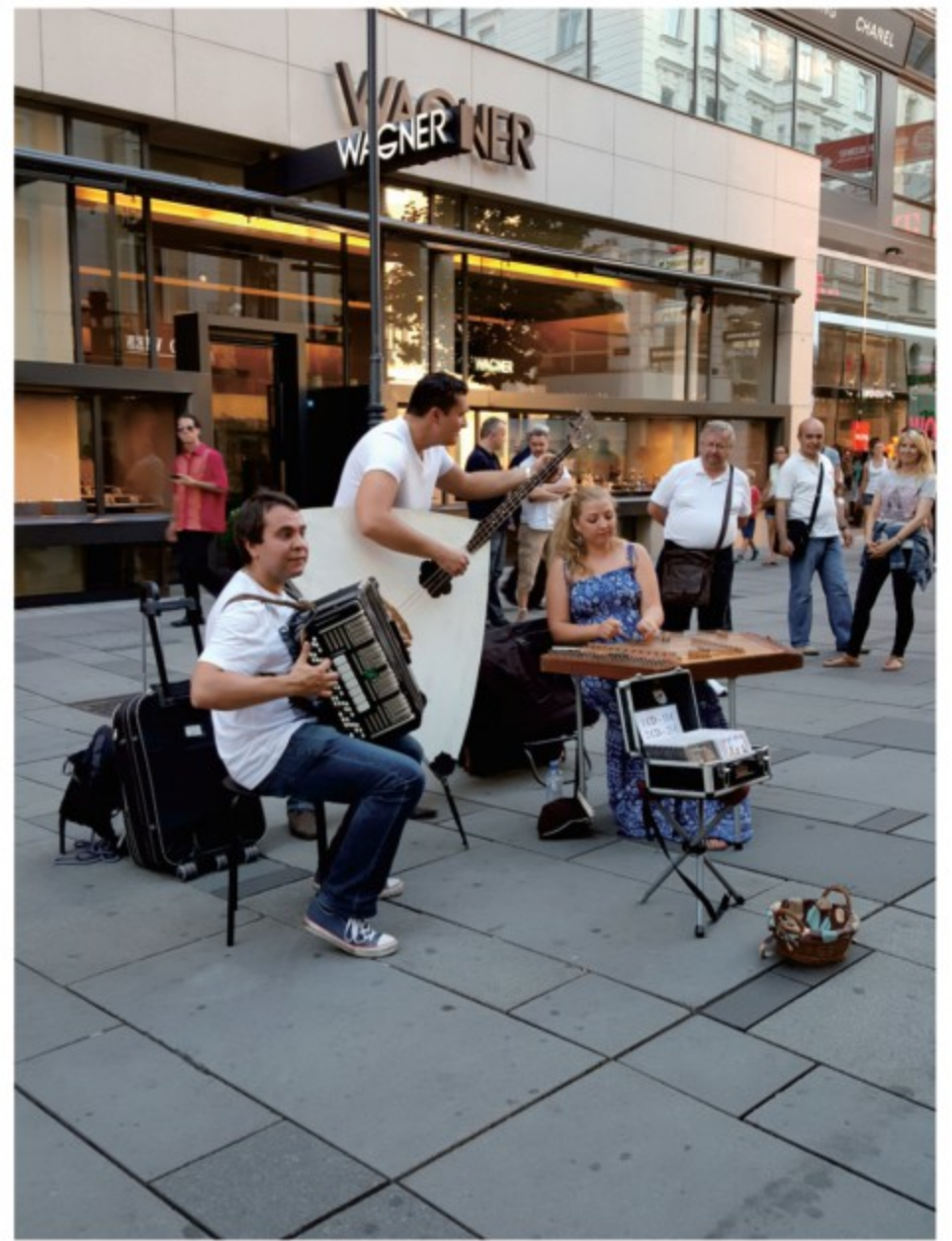
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이념이 더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평생 문화학습 환경의 조성이다. 예술 활동이란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심미적 활동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문화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문화공간의 교육기능 확대, e-learning 문화학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포시는 그동안의 민관의 노력을 통해 다른 중소도시보다 모든 문화예술분야의 시스템들은 잘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들을 경연하고 기획하는 데에는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의 부재와 끼리끼리의 문화로 인해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시민향유, 생활문화 등 삶의 질 차원의 문화정책

군포시는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군포시로 거듭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군포를 방문한 1999년에는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관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타시보다 먼저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시 산하의 문화재단 등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재단은 공공지원의 근거로서 국가의 과중한 역할로 인해 수요에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예술교육제공, 전문화된 예술경영제도 정착과 행정, 다양한 재원을 찾는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가 그리고 향수자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창의적, 기획적 행정공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행정 재단에서 문화복지는 모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의 조성,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중심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문화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유망한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는 지역을 토대로 창조되고 소비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생력이 갖추어질 때 지역 간의 문화 소통이 창의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관점



에서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함께 나누는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바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도 이러한 지역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할 때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은 콘텐츠와 문화상품으로 전환되어 지역발전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방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한정된 것이었다.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소위 <지역문화의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5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에 대한 환경으로서 하드웨어 측면을 살펴본다면 문화시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문화시설 경영능력, 프로그램 기획력, 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능력 등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이전에 비해 그 위상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문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과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흡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 시설 경영능력과 프로그램 기획능력 및 운영능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이

고 전문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 관 주도 예술단체 및 지역 예술단체, 수리공쿨 등과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 등 지역 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 창작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역의 문화 예술과 창작에 따른 인프라는 문화 예술과 문화콘텐츠 등의 기획, 창작, 가공, 유통, 소비와 관련된 기반 구조로 전문 인력, 기술, 정보, 문화 시설과 기자재, 창작소재,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따라서 문화 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과 문화프로그램 기획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도 기획, 시나리오, 유통 및 마케팅, 경영, 자금관리,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관내 한세대학교)의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하며, 관/학 연계 강화 및 재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콘텐츠기술(Culture Technology)을 개발하여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문화콘텐츠 기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화 복지 생활에 필요한 기초 공간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전문화하여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이러한 차별화, 특성화 접근을 통해서 확보된다.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게임박물관, 만화박물관, 캐릭터 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디지털콘텐츠 갤러리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공간이 필요하다. 군포시가 밀리터리 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중소기업 박물관, 소극장 공연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사이버미술과, 사이버도서관 등 전문 사이버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계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정책은 시설, 인력, 기술, 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문화 복지를 위해서는 민/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정착되었고 지역의 문화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문화 사업이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문화행정은 단순한 시설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경영과 네트워크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관청의 창의성과 기획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행정의 자기혁신과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 및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와 자발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도화, 개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를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행정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지역문화 행정이 과거의 시설건설 중심에서, 예술경영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일방향 &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 &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환경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신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과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정책이 분권화 되어야 한다. 정치적 분권화, 재정분권화, 문화자원 분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의 분권 패러다임에서 기획기능, 의사결정 권한, 재정의 분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지역 확산에 초점을 둔 문화의 민주화 이념보다는 문화민주주의, 커뮤니티문화, 문화자생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예술가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있다. 그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군포예총/제8대 회장 강신웅)는 군포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단체로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의 군포지부로서 1996년 첫 설립을 하여 현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악, 음악(서양음악), 무용, 연극, 연예예술, 문인, 미술, 사진의 8개 지부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군포예총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권익보호, 문화예술 교육, 철쭉 축제, 공연활동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이 취임사에서 했던



“그래도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모범이 되는 예술인들의 단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군포예총 25주년을 축하하는 바이다.



군포예총의 진단과 향후 방향성

장석기

—

예술 경영학 Ph.D
경기도음악협회 부회장

2021년 올해는 군포 예총이 스물다섯 성년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해이다. 뜻깊은 이때 우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경제·문화·예술 등에서 변화와 혼돈의 상황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함께하며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술인들의 아픔을 아우르는 예총의 역할 또한 시대적 가치와 의식의 제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1996년 문인, 무용, 음악협회 등 3개의 지부를 시작으로 창립한 군포 예총이 지금은 8개의 장르로 발전해오면서 군포 예술문화 창작발전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도시 군포를 위한 예총 회원단체의 수많은 예술인의 그간의 노고와 열정 그 예술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군포 예총 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5살 젊은 예총의 자존심과 가치를 키우고 목표를 크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욕구와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의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도 요구된다. 예술인은 자신의 창작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여 가야 한다. 예총의 구성원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인이 되고 예술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예총의 전략목표이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인인가?

자랑스러운 예총의 회원인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는가?

예총의 각 협회가 주관한 행사들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이었나?

청년 예총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총은 지역 예술문화의 창조와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자존심이다. 자신의 예술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된다. 예술행사에 꼭 필요한 기획,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술인들은 지역 예술행사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한다. 잘 기획하고 준비해 놓은 작품을 시민들이 함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예술인들의 몫이다. 예총 회원단체 간의 친목과 소통도 지역 예

술의 창조적 동반자로서 필요한 덕목이다. 서로 다른 장르의 협회 회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참여가 필요하다. 친밀감과 지역정서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시민들의 생각이 경제적이든지 지역 문화예술 수준이든 간에 지역문화 예술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역문화 예술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때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도 기대될 것이다. 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술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장르에서 수준 높은 예술세계를 창조하고 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예술의 자생력을 키워가야 한다. 예술인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도 있다. 실질적인 것은 생계난 해소와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있는 점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술인 지원방안도 절실하다.

예술인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예술인 일자리 이대로 괜찮은가? 대다수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다.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4대 보험에서 제외된 예술인들을 생각해 본다. 예술인 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문화국가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는 중

요한 요소이다. 예술인들의 미래와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서 예술계 지원을 위한 ‘예술계 직업 창출 프로젝트’의 연구를 제안한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예술인들의 사회적인 현실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해 보지 않은 제안이기에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예술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되기를 바란다.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2020년 1월 시작한 COVID-19로 인한 예술계의 현 상황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닥쳐 있으며 그 피해가 크다. COVID-19의 팬데믹은 공연·전시 등 예술시장의 성장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예술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20년 1~8월까지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의 피해 금액을 2,646억 원으로 추정했고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 금액은 1,260억 원으로 추정했다. ‘공연예술 분야 피해 현황조사’(2021)에 따르면, 경영 또는 운영상 피해를 받은 공연예술 기관이 82.4%로 나타났다.

공연 공급의 관점에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KOPIS)의 월별 공연 상연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정도 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7~8월의 공연 건수가 총

2,390건인 것에 비해 2020.7~8월의 공연 건수는 총 1,389건으로 동일 기간 기준 1,001건의 공연이 감소하였다. KOPIS의 2020. 1. 20. ~ 8. 17의 자료를 보면 공연예술시장의 피해액은 2,457억 원으로 콘서트를 제외한 클래식,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복합장르의 피해액은 1,14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공연예술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피해가 더욱 크다. 이외도 수치화되지 않은 공연예술인의 피해는 더 늘고 있다. 공연예술인과 종사자의 경우 공연콘텐츠 공급 축소 혹은 중단,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기간의 축소, 고용피해로 인한 수입의 급감으로 예술가들의 일상이 힘들고 창작의 저하 및 생계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악순환을 보인다. 예술인들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어딘가에 소속된 인원이기보다 단기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기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분야 정책 대응을 보면 국가별 문화예술 생태계, 제도적 특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대체로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동성 위기에 처한 예술단체·기관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보다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과 유동성 문제가 있는 문화예술 기관·단체들의 존립을 돕는데 집중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입국 제한, 국경봉쇄, 예술의 본질인 예술적 가치를 관람객에게 전달 제한 및 축소, 글로벌 공급망 문제, 교역 위축, 세계

경제의 부진 등 제약이 많다. 문화예술 활동이 부분적 재개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으로 그리 녹록지는 않다. 문화예술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를 외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지속해서 살피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도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예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가?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생활의 여러 분야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비대면 관람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실감한다. 관객과 소통하면서 펼쳐지는 예술이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지며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재택근무, 미디어 콘텐츠, e-커머스 등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축적으로 통신기술의 발달,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가 일상생활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시장의 관람방식, 관객의 의지와 관람 결정요인이 바뀌고 있다. COVID-19의 팬데

믹은 초연결 사회·초지능 기술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며 예술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공연예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연제작방식의 변화, 영상 콘텐츠의 개발, 마케팅의 변화, 관객의 성향과 요구, 관객개발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COVID-19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예술방식도 변화되어 비대면 영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활용 영역의 경계가 확장되고 장르의 융합 현상이 나타났다. 현장에서 협업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장르의 속성을 허물고 결합을 통하여 질을 향상하는 고품격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영상미디어는 정보를 가공하고 구현하는 디지털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변화와 질적인 향상에 가속도를 더해 새로운 영상생산방식으로 발전된다. 한정된 공간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공연예술 무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과 높은 보급률 때문이며 물리적 한계가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에 비해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검색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COVID-19 팬데믹의 대표적인 현상은 언택트의 대중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업무를 하고 ‘줌(Zoom)’ 등 실시간 온라

인 앱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한다. 언택트는 연령층이나 직업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겪는 공통의 경험이 되고 있다. 언택트는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되어 무관중·온라인 공연으로 예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메트 : Live in HD',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의 'Digital Concert Hall', 예술의전당의 'SAC on Screen' 등 공연 영상화사업은 고화질 온라인 영상방식을 채택하여 공연예술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 영상화 편수와 이용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사업대상이 전시영역까지 확대되는 등 점진적 성장을 하는 사례이다. 고화질·고음질로 촬영된 공연 실황 라이브의 중계는 장소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예술시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술 및 디지털 융합과 같은 변화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예술 생태계의 변화는 국내 공연예술 시장의 수요 창출과 소비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염려도 따른다. 변화의 추이와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새로운 예술창작 및 유통 방식 등을 논의하고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새로운 소비 욕구 변화, 공연방식 및 공연장 시스템의 변화, 공연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른 비대면 예술 관람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분석과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관람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도 따라야 한다. 공연 영상화에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플랫폼 공유 전략, 관객의 성향에 따른 비대면 공연은 무대와 차별되는 공연영상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 제작을 위한 여건, 온라인 전용 극장의 도입 등도 과제다.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발전을 위한 예술인 역량 강화도 필요한 요소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예술 지원에 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의 영상예술은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예술 장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준비와 훈련이 부족하여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점도 현실이다. 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장르별이나 작품별로 각각에 필요한 영상 시스템 및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며 향후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준비이기도 하다.

예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제공을 위한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 공연 영상화를 위한 언택트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연자, 제작자, 공연단체는 이에 필요한 준비와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대면 공연을 위한 영상 장비, 기술, 재정,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 예술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예술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세대별, 단체별, 장르별 지원 정책과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술의 본질인 예술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역량 및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술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예술의 본질을 찾고 예술적 가치를 계승하고 전승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술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청년 예총의 앞날을 밝혀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술인으로서 시민들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지역 예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오늘의 예술문화가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가꾸어 가는 창의적인 예술문화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자산이 되어 고유의 지역문화 형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르게 한다. 예술의 가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군포의 특화된 예술 콘텐츠의 개발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예술 활동의 일상화,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 작품 발표,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예술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 신세대 청년 예술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지원을 위해 군포 예총의 예술창작발전소 역할을 기대한다.

군포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의 열정과 함

께 군포문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문화재단의 당위성은 문화예술의 사령탑 역할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지방정부에서 독립적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견인 및 지원을 수행하기 위함이 설립 목적의 하나이다. 문화예술을 실천하는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지원, 창작 활성화, 시민 행복감 제고로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문화 예술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과 행정의 효율화와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지원, 기획, 연구, 정책 개발 등의 관점에서 문화재단과 예술인들은 서로의 역할 정립과 문화재단 설립 목적의 기본적인 이해 및 재단의 자율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 예술문화의 창작은 예술인의 일생과 함께 하는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을 향해 가는 미완성의 과정이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문화도시 군포를 지향하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주고 거름을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예술경영은 ‘To the Arts’ 예술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For the Arts’ 예술을 위한 경영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와 인간성이 중시되는 예술문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현상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발전되고 확대되어 간다. COVID-19에서의 예술 패러다임 변화가 새로운 문명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망과 대응에 관한 지혜로운 대처와 방안의 연구를 요구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디지털의 획기적인 서비스가 중심

이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며 시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예고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의 모습을 대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예술계 전반에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 한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노력은 또 다른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삶을 살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가며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1996년 태동부터 2021년
군포문화예술계 만형 정착까지의
빛과 그림자

군포예총 25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군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약칭으로 군포예총이라고 불리우는 군포지역 400여명 문화예술인들의 연합체가 창립25주년을 맞이했다. 1989년 시로 승격된 군포시에서 각 분야 단체가 구성되는 등 실질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산본신도시 입주와 함께 해 1996년 7월 11일 창립된 군포예총의 역사는 곧 군포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에 25년이란 풍상을 거치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지주 역할은 물론이고 지역예술을 선도하여 군포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론 구성원간 알력으로 내부의 진통을 겪으며 성장 발전해온 군포예총의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영호

—

군포신문 대표

1995년 5월 창간한 군포신문(구. 군포문화신문)은 군포예총의 태동부터 변화 성장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적 움직임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왔다. 남기고 싶은 얘기는 두고 두고 자랑으로 후세에 전하고 아쉬운 점은 향후 개선방안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포예총 25년을 반추해봤다. (본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군포예총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군포예총 탄생의 뒷얘기

1995년은 군포시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군포시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가 실시됐는데, 초대 민선 군포시장으로 군포초등학교 출신의 조원극 전 수원부시장이 당선된 후 98년까지 3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이 시기 군포에는 산본신도시 각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도 완료돼 서울, 수원 등 각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모여들기도 했다. 군포신문은 1995년 5월 1일 군포문화신문(이후 2002년 군포신문으로 제호를 변경)이란 제호를 달고 창간한 덕분인지 군포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독했고 그만큼 문화 관련 소식도 많이 다뤘다. 어쩌면 군포예총의 창립 과정을 소상히 알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처음 군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가맹단체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러던 중 당시 군포시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던 A과장은 매사에 의욕이 넘쳤는데, 신도시 입주로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점에 착안해 각 장르별 단체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가

장 먼저 구성에 착수한 단체가 군포문인협회이다. 필자가 당시 취재기자로서 군포시 등을 출입하며 파악한 바로는 이 A과장이 각 동사무소 협조를 구해 산본신도시 입주민 중 시인, 소설가, 수필가, 아동문학가 등 등단한 작가 명단을 수집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군포여성회관에서 문학강좌를 진행하던 김상일 문학평론가 주관하에 군포문인협회 발기인 모임이 이뤄졌고 초대 회장에 박현태 시인이 추대됐다. 군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식 예술문화단체를 창립한 것이다.

이후 군포음악협회와 군포무용협회도 발족하게 되었다. 예총의 정관상 지부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단체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했으므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문인, 음악, 무용협회가 창립하면서 군포예총도 태동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군포시 문화예술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연을 주도해야 할 군포예총이 문화인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관청 주도하에 창립의 기초를 다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산본신도시 입주로 모든 것이 낫설고 이질적인 시기에 정보력과 예산을 쥐고 있는 군포시청이 나서지 않았다면 군포예총 창립이 더 지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니 그나마 문화예술단체 구성에 관심을 가져준 공무원이 있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군포신문 1996년 7월 22일자, 9월 21일자)

군포예총 회장단 동반 사퇴 파동

예총 창립 초기 군포에서는 문화원 주관 전통문화예술제와 예총 주최의 태을예술제가 진행되었고 1998년 7월 김윤주 시장호 출범 이후엔 향우회 연합체인 군포시민연합회 주관 한마음예술제에도 예산을 지원, 3개의 행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차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고



2001년 5월 군포시에서는 우선 문화원의 전통문화예술제와 예총의 태을예술제를 합쳐 제 1회 수리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소외시키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는 등 형식만 민간 주도 지역축제이지 실상은 시 주도 유명공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군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도 군포예총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군포시 당국의 지역문화단체 경시

풍조가 만연했다.

급기야 장석기 회장, 안영숙 부회장, 양대승 부회장이 “군포시의 지역예술문화단체 경시 풍조를 즉각 시정하라”며 사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포예총의 반발은 행사비와 운영비를 전적으로 시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문인,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국악 등 7개 가입단체 지부장들이 장석기 회장을 재추대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군포시 당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대하는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이보다 앞선 1997년 미술, 서예 등 지역예술인들이 유일하게 전시장으로 쓰던 군포시청 민원실 앞 다목적실을 군포시가 예총 등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했던 일방통행에 이어 두 번째 ‘예총 패싱’이 일어났던 것이다. 군포문화예술회관이 1998년 개관되기 전에는 시청 다목적실이 미술 동호회와 서예, 사진, 꽃꽂이 등 각종 단체들에게 단 하나 밖에 없는 전시공간이었던 점에서 시의 예총 무시 행태는 문제가 컸었다.

그러나 군포예총 등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당시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데다가 결속력이 부족한 탓인지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항의 한번 못하고 유일한 전시공간이 없어지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당시 군포시의회에서 김주삼 시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시청의 입장은 “군포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당사자들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정도였으니….

(이와 관련 조원극 초대 민선 군포시장은

2002년 6월 7일 군포예총 주최로 열린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2001년의 군포예총은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공식 인준지부가 3개에서 7개로 늘어난데다 회원 숫자도 3백여명을 넘어서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군포예총은 시의 일방통행식 문화정책에 회장단이 동반 사퇴하는 결기를 보이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군포신문 2001년 8월 20일자)

**군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후유증을 앓다**

군포예총은 초대문인협회 회장이기도 했던 박현태 시인이 1대 회장을 역임하고 2대 장식기 회장(작곡가)에 이어 후임 3대 회장으로는 조치영 전 경기도의원이 취임했다.

세 번째로 민선 군포시장을 뽑은 2002년에는 가맹단체도 문인, 음악, 무용협회에서 미술, 연극, 연예, 국악협회가 추가돼 7개 단체로 늘어나 명실상부 군포지역 문화예술인 결집체가 돼 있었다. 의욕을 불태우던 조치영 회장은 2002년 6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신문과 공동으로 군포시장 후보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한나라당 조원극 후보는 1995년 초대 민선시장으로 3년간 재직한 후 1998년 2회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윤주 후보에 패하고 4년을 와신상담하고 탈환을 노리고 있었다.

4년만에 현직 군포시장인 새천년민주당 김윤주 후보와 두 번째로 격돌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윤주 후보와 복귀를 노리는 조원극 후보간 대결은 매우 치열했다.

이러한 와중에 비록 문화예술정책 분야에 국한되지만 시장후보 토론회가 열린 만큼 행사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다. 후보자 정견 발표-패널 질문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토론회는 중간에 사회자인 조치영 의원이 각 후보들에게 “평소 좋아하는 애송시가 있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낭송해달라”는 가벼운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 김윤주 후보가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토론회 내내 단원미술제 등 인근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문화행사들과 군포시가 비교되는 것에 당시 현직 시장인 김윤주 후보가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표출한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진행된 선거에서는 김윤주 시장이 당선돼 조원극 전 시장과의 대결에서 2전 전승을 거뒀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군포예총은 직간접적으로 시의 견제를 받았고 조치영 회장은 구주공아파트(현재의 삼성래미안하이비스) 재건축 조합장을 맡아 바쁘다는 핑계로 회장직을 사퇴했다. 시중에서는 문화정책 토론회 때 조원극 전 시장에게 다소 편향된 진행을 했다고 여긴 김윤주 시장 측근들이 직간접으로 조치영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장면도 군포에서는 하나의 역사로 남아 있다.

(군포신문 2002년 6월 11일자)

군포문화원과의 문화예술 진흥기금 갈등

군포시가 2000년 제정한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처음부터 당시 군포문화원 송윤석 원장, 박윤희 사무국장 등이 주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모범으로 시에 건의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탄생했다.

실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서두에는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었고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에도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



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지원대상 사업을 군포문화원장 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군포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의 이자 수입(연평균 4천만원)으로 지원하던 사업은 문화원에만 집중돼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군포신문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연속 냈고 군포예총 4대 집행부를 맡아 맹활약중이던 곽상원 전 군포음악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군포시에 공식적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면서 군포문화원과 군포예총 간 예산 쟁탈전이 벌어졌다.

군포예총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누구나 사업에 응모하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고 군포문화원은 처음 조례가 문화원법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므로 문화원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군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14개 시군 사례를 분석, 기금 조성 취지가 문화예술의 육성·보존 등으로 규정하고 모범은 문화원진흥법으로 삼은 곳은 군포시가 유일하다는 점과 조례 제정시에 시의원으로서 활동했던 최진학 당시 경기도의원이 기금 운용이 조례제정 취지와 다름을 지적하자 조례를 개정해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기금 사용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화원측은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에 의견서를 제출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눠주기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시민에게 더 유익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개인·문화예술 단체에게 기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이유다”는 군포시의 강력한 입장표명에 힘입어 2007년 12월 3일 개최한 제 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침내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포예총, 군포문화원 소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었던 군포시 문화

예술진흥기금 조례는 이자 수입의 감소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2018년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그 자리를 2015년 제정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대신하고 있다. 이 조례는 기금 대신 일반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조례보다 훨씬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개정 운동은 군포예총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나타낸 ‘정당한 자기 권리 찾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군포예총은 광상원 회장 재임 시절 군포문화원과 예산 내지 사업영역 조정도 시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군포예총이 맡아 진행하던 정월대보름 행사와 군포문화원이 맡아 진행하던 어린이 사생대회를 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기존 수행하던 사업을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군포예총의 제 자리 찾기란 측면에선 긍정적이었다. 군포문화원과 군포예총 두 단체의 갈등은 송윤석 문화원장과 광상원 회장간의 논쟁과 협의를 거치면서 점점 각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갔고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되었다.

(군포신문 2007년 12월 6일자)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지정을 둘러싼 이야기

‘과연 인구 30만도 안 되는 소도시 군포에 오케스트라가 꼭 필요한가?’ 지금은 군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오케스트라로 인정받는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화를 두고 시민단체 군포경실련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낸 건의문의 일부이다.

2000년대 초 겨울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격상시키되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할 때 ‘군포’ 프라임오케스트라 명칭을 사용하고 시의 중요 행사 때 무료공연을 하자는 군포시 문화예술과의 예산편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군포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심성 예산’이라며 시의회가 삭감할 것을 주장했고 시의원들은 전시성 일회성 예산으로 판단하고 3년 연속 삭감했다.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사실상 시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였다.

하지만 김홍기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은 포기하지 않고 4년 넘게 군포경실련, 군포시의회 등을 열심히 방문해 준(準) 군포시립 오케스트라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홍기 단장은 프라임필하모닉에 3억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음악 전공 수준

급 연주자 50여명으로 구성된 프라임 필하모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협연할 정도의 실력이며 ▲단원들 대부분이 군포시로 전입해 군포시민이 되었다 ▲이와 같은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전국 각지에서 공연할 때 ‘군포’란 명칭을 사용하면 군포의 대내외적 이미지도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군포시민의날 전야제 등 군포의 중요 행사 때 무료 공연으로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인지 수년 후 마침내 군포시의회에서 프라임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예산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는 세종국악관현악단(당시 단장 박호성)도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인정받았다.

2000년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며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군포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8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약 2,100여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하는 매력적인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포예총은 이 두 단체의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화를 바라보면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서운한 느낌도 있었던 듯하다. 그 중에서도 양대승 군포무용협회 회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은 배제하고 외부 공연단체를 군포에 유치해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양대승 무용협회 회장은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단을 準시립화 한 만큼 시립무용단도 창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배우자가 가수 현미의 조카이자 노사연의 사촌동생인 관계로 예술가 집안으로 통하기도 했던 양대승 무용협회 회장은 이매방 선생의 전수자로 치열한 삶을 살던 남자 무용수였다. 고 양대승 회장의 춤에 대한 열정은 2004년 박병천 선생(인간문화재 72호)의 진도복춤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는 결실을 맺었고 살풀이 인간문화재인 이매방 선생의 전수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승무 이수자 시험까지도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2년 겨울 군포시립무용단 창단이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48세의 젊은 나이에 병고로 요절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군포예총으로서는 매사 의욕적이고 누구보다 군포문화예술을 사랑했던 인재를 잃고 만 것이다.

(군포신문 2012년 12월 13일자)

군포문화재단 출범 이후 군포예총 역할 재정립 필요

군포예총에 있어 군포문화재단의 존재는 ‘양날의 검’이다. 2012년 정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2월 28일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군포문화재단은 그동안 군포예총이 해 오던 철쭉축제 등 상당 부분을 직접 주관하면서 예총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공무원들이 운영(군포문화예술회관)하던 시설과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군포 청소년수련관, 군포평생학습원 등)하던 시설을 군포문화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체계적인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측면도 없지는 않고 그 결과물이 군포예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포예총 단체들이 문화예술사업 관련 예산을 군포문화재단과 협의하고 시설이 용 또한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군포문화재단 출범 이후 대내외적으로 군포예총의 역할과 그 위상이 감소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쉬운대로 문인,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등 8개 전문 예술가 단체 4백

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예총의 구심점인 예술인센터가 군포문화재단 관리 군포문화예술회관 내 2021년 개관돼 지부 소통 공간을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군포시에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회관이 존재하는 현실을 볼 때 미흡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군이 한 예총회관을 보유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방문해 작품을 구상하고 연습하는 인근 도시의 예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군포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총회관 정도는 진즉 확보했어야 한다.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해주고 군포지역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군포 문화예술가들의 구심점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경주해야 한다.

자체 사무실과 연습실이 확보되면 군포예

총 주최 시민예술대학이 운영돼 더 많은 군포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군포시민들의 정주의식과 공동체의식 고양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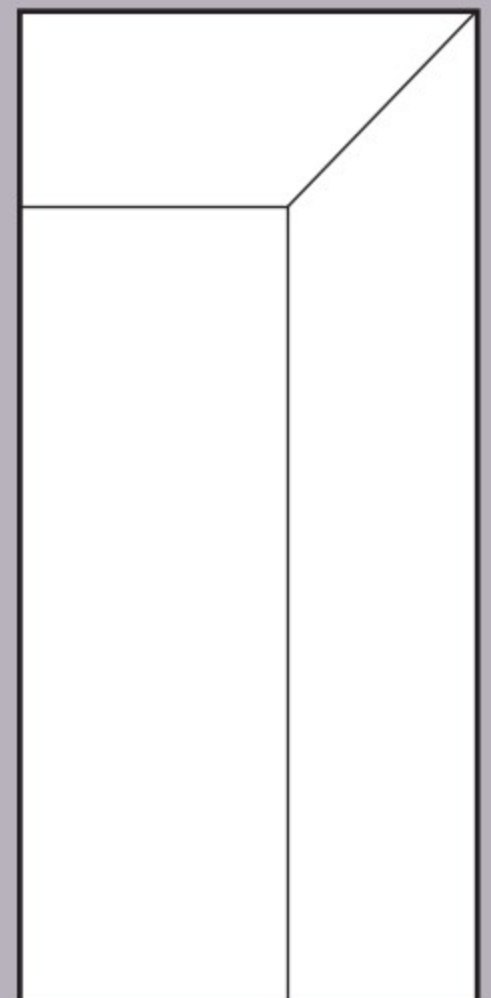
맺으면서

예총은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린 후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예술정신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25년 역사를 가진 군포예총의 400여 명의 예술인 또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여 군포의 문화부흥에 기여하고 예술가로서의 자존과 품격을 지켜왔다고 본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상황에 예술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예술인으로서 변화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5주년을 맞이한 군포예총이 진정한 군포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군포예총 25년사 발간 기념 좌담회

- 126 1부 군포예총의 태동
- 146 2부 군포예총의 초창기 활동





군포예총 25년을 돌아보다

올해로 군포예총이 창립된 지 25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예술지 발간 외에는 예총이나 각 지부의 역사를 정리할 기회를 따로 갖지 못하였다. 20년사가 발간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흘러왔고, 이제 30년을 기다리기엔 많은 기억과 자료의 소실이 염려되어 25년사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초창기 군포예총의 창립과 태동기의 역사를 수집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군포예총과 각 지부의 창립 과

정에 참여했던 초창기 회장단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정리된 내용 중에는 세월이 오래 되어 충분한 확인이나 검증을 거치기 어려운 부분도 다소 포함되어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문화 불모지에서 군포예총을 설립하고 기반을 닦은 초기 예술인들의 열정과 의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을 것이다.

- 일 시** 2021. 4. 6.(화) 14: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
- 참석자** 강신웅 _ 현. 군포예총 회장 _좌장
박현태 _ 초대 예총 회장
장석기 _ 2대 예총 회장
김영철 _ 초대 음악협회 지부장
김은령 _ 양대승 초대 무용협회 지부장 부인
조동관 _ 초대 연극협회 지부장
이선형 _ 3대 국악협회 지부장
안영숙 _ 초대 연예협회 지부장
홍순창 _ 초대 예총 사무국장
전현하 _ 현. 문인협회 지부장
임효례 _ 현. 사진협회 지부장

예총25년사 편집위원

- 최남희 위원장 박소명 위원
- 이진옥 위원 오은희 위원

예총 사무국

- 이숙진 국장 이상훈 차장

정 리

- 최남희 편집위원장



1부

군포예총의 태동

강신웅



군포예총의 초대 역사이신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얼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철 지부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거 같고, 안영숙 지부장님은 15~6년 되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가끔씩 스쳐 가며 뵙기는 했습니다. 1996년도에 군포예총이 창립되어 올해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타 시군예총들은 20년사, 30년사, 50년사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우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예총회장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했었고 작년에 또 자리를 맡게 되었죠, 돌이켜 보니까 군포예총이 전대에서 20년사가 한번 만들어 졌다면 그 역사가 좀 남았겠지만, 이제 우리들의 기억도 점차 잊혀져가고 갖고 계신 자료들도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시 당국에 25년사를 만들겠다고 건의를 했고 어렵지 않게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군포예총의 역사적 의미, 아카이브적인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태동기 때 관여하신 관계자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2대, 3대 관계자들 모임을 갖고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기에 문인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3개 지부가 모여 예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미술, 연극, 국악, 연예 지부가 생겼고 사진협회는 생긴지가 얼마 안됐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을 모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촬영과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 예총회장 및 초대 문협회장을 역임하신 박현태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해서 예총을 만들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태



반갑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오늘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마련하느라고 예총 집행부에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렀네요. 우리가 예총을 만들자고 뜻을 합쳐 출발을 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내가 50대 초반에 군포에 내려와서 지금 뭐 60이 넘었습니다. (웃음) 오늘 이 자리는 격식 없이 술자리에 앉아서 얘기 나누듯 자유롭게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지나고 보면 아름다움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출발할 당시 그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어렵고 어려운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인들 특히 김영철 지부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이왕이면 그때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조목조목 잘 챙겨서 이런 계기가 빛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웅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총보다는 문인협회가 최초로 먼저 생겼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박현태 제가 92년도에 산본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93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시청 공보실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도시에 문인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인들이 몇 분이나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론 지금 7, 8명이 여기서 산다. 그럼 서둘러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각 동의 등단 문인들을 찾아보니 열두 명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자리를 만들고 발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한국문단의 유명한 분들이에요. 김우중, 신동한, 임현영, 박순녀, 이경희 등 한국문단에서 꼽히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날짜를 받아서 아마 산본도서관인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열두 명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꿈을 제대로 꿔지요. 지방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문인들 특히 문학이라는 게 시민들의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최대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보자, 아주 심기일전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잘 됐어요.

그렇게 일 년 정도 끌어가는데, 어느 날 김영철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총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시청앞 다방으로 나갔더니 김영철씨하고 양대승씨가 계시더라고. 나는 좀 당황해서 예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물어봤더니 3개 지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죠. 고 양대승 지부장이 굉장히 성품이 적극적이에요. 내가 맡아서 일들을 다 하겠다,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두 분은 동참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총 발족이 시작 됐는데 초창기에 고 양대승 지부장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고. 김영철지부장 역시도 굉장히 사람이 튼실하고 꼼꼼해서 양대승씨 보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나는 뭐 없혀서 어울렁더울렁 발족을 하게 됐는데,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것도 일들은 두 분이 다하고 내가 단순히 나이가 많더라는 그 하나 명분 때문에 회장을 맡았죠. 말고 난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시다마는 나중에 또 차례가 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씨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김영철 과정은 박 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고요. 저도 군포 산본 신도시를 분양 받아서 91년도에 왔어요. 원래는 제가 과천에 클래식음악사랑회, 수리오페라단이라는 단체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포에서도 음악적인 활동들을 좀 했어요. 오페라를 제작한다든

김영철



지 음악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때는 (군포에 인프라가) 아무 것도 없었
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청 대강당에 의자 깔고 피아노 갖고 가서 공연하
고. 심지어 거기서 제가 오페라 마술피리를 했던 기억이 지금 선하네요.
그러다가 불이 꺼져가지고 악보가 없어져 가지고 랜턴 가지러 막 뛰어

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엘림복지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회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시 공보과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시
는데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할 테니, 이걸 정말입니다, 음악협회를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떻
겠느냐. 그래서 (클래식음악 사랑회)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다
른 협회가 있는지 어쩐지는 몰랐죠. 그런데 공연 일을 하다 보니까 양대승 무용학원이
라고 양대승 원장이 춤도 잘 추고 한다고 해서 만나보니 거기도 무용협회를 만들었다
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또 그 과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무용협회도 있고 문인협회도 있고 3개 협회가
있으면 예총을 만들 수 있다더라. 그러니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총을 만
들면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들기를 권하고 양대승 지부장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며 그다음에 문인협회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래서 양지부장을 만났더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강한 분이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문인협회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알아보더니 박현태 지부장님이 계
신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시집을 좀 읽었는데 우리 지부장님 시도 제가 봤
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만나 뵙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예총 초대 회장직을 맡아주십시
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총
이 만들어 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저는 제 일신상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초창기만 좀 하다 활동을 계속 못했어
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좀 뭣하지만 하여튼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예총이 이렇게 좋은 모양을 갖춰나
가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강신웅

그때 당시에 음악협회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김영철

협회는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클래식음악사랑회'를 만들었을 때 이
미 그 안에 군포에 사시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신웅

이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김영철 박정희씨, 임정순씨, 전소녀씨 그다음에 나중에 장석기 회장님도 들어 오셨고, 안재찬 군포고등학교 선생님 등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음악협회는 아니지만 클래식음악 사랑회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협회를 만들기가 쉬웠죠.

강신웅 그럼 그 초기에 협회 회원들 몇 명 정도로 시작하셨을까요?

김영철 그래도 군포 사시는 분들이 15, 6명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는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클래식음악사랑회에는 그 외에 타지에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강신웅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아주 유명해진 수리음악콩쿠르를 초창기에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 네, 그건 맞습니다.

박현태 수리음악콩쿠르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인협회도 그렇고 음악협회도 그렇고 시에서 권장해서 발족을 했는데 시의 지원이 생각보다 전혀 없었어요. 돌아가면서 차츰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태을제 예산도 하나도 못 받았고, 내가 회장을 맡아서 예총 사무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초대 사무국장을 홍순창씨한테 부탁을 하고 시청 건너편 쪽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일이 시작이 됐어요. 홍순창씨한테 그 당시 에피소드를 한번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가봅시다.

홍순창



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슬슬 떠오르네요, 얘기를 듣다보니까. 세 분이 합이 참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양대승 지부장님, 김영철 지부장님, 박현태 선생님 제가 보기엔 캐릭터 겹치는 것도 없고요. 양대승 지부장님이 행동력이 좀 있으시고 뭔가 진행을 잘하고 끌고 나가시는 게 있고, 김영철 지부장님은 그야말로 지금도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브레인이셨죠. 기획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셨고. 박현태 선생님은 행정이라든지 시 쪽하고의 교섭 섭외력 같은 것들, 박현태 선생님의 중후한 그런 힘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아마 두 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 분의 합이 잘 맞아서 나름대로 예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런데 지금 박현태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제스처는 취했지만 막상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이유를 다는 거예요.

사실 예총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스타일은 당시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랬죠. 태을제에 관한 부분은 제가 태을제까지 행사를 진행 하고 그 다음에 2대 사무국장으로 김창배 화백이 맡아서 고생을 해주셨어요. 태을제 고생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방치 아니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다 각자 조그마한 스폰을 찾아서, 큰 후원이 아니고 동네 중국집에서 후원을 받을 그럴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 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건 그전 이야기인데 군포문인협회를 만들 당시, 산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중에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특히 대학 교수님 출신이라든지 저명한 원로 소설가, 시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정치같은 것, (단체)만들고 하는 것들에 능숙하지 못해서 아마 시에서 나서서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저도 뭐 어찌다가 그 속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 사실 저야 문인협회 활동만으로도 그 당시는 굉장히 보람되고 할 일도 많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총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양대승 지부장님, 김영철 지부장님, 박현태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도와드리게 되면 박현태 선생님 뒤에서 뒷받침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뒤에 있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사무국장을 맡으라고 하셔서 서울에서 하고 있던 출판사 사무실을 군포로 옮겨버렸어요. 아, 내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는 이 일을 못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고 한테 어설프게 하다가 예총이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이건 도시 전체의 어떤 문화 기틀을 잡는다는,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을 옮겨서 그 사무실을 예총 사무실로 겸해서 썼었어요. 그 정도로 세 분의 예총 사랑, 그리고 저도 뒤에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명감 같은 게 그 당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분위기는 치열했지만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합,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슴 벅차게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싶고 하지만, 지금 양대승 지부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양대승 지부장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래요.

박현태

막상 서울에서 직업을 가지고 출판사를 하는 친구를 군포로 오시라고 했는데 사무실도 자기 돈으로. (얼고) 그래가지고 아성원 건물인가 거기였는데, 사무국장 월급도 못주면서 초창기에 내가 또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다그치는 성격이 있어요. 전혀 도움도 못주면서 월급도 못주고 이런 사무국장을 아침마다 불러다 놓고 왜 이


렇게 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엄청 내가 미안해요. 그때 홍순창씨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안 했으면 아마 초창기 예총이 힘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태을제 하면서 나는 그때 굉장히 건방지가 꼭 차 있었어요. 시장 아니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뭐든지 바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태을제 한다고 펼쳐놔 놓고 강당 하나 빌려달라고 하니까 본인은 예총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예총이 뭐하는 곳이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순창씨하고 나하고는 긴밀하게 서로 진행하면서 일들을 나눠서 하는데 아직도 내가 그게 미안해서 지금 새삼 사과드립니다.(웃음)

홍순창 (봉급) 주시려면 지금이라도 주시면 받겠습니다.(웃음) 그 때 예산이 부족했어요. 시에서 지원은 없었죠. 인쇄물을 만드는데 돈을 아끼려고 포스터하고 초대장을 같이 한 판에 인쇄를 해서 잘라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면 종이 두께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포스터는 너무 두껍고 초대장으로는 너무 얇은 뭐 그런 이상한 홍보물이 나왔죠. 돈이 없어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강신웅 그럼 그때 당시에 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비로 하셨나요?

박현태 3년 동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강신웅 태을제가 몇 년도에 처음 시작됐는지 기억나세요? 예총 창립이 96년 7월 20일이거든요.

장석기  그(창립) 기념으로 태을제를 하자고 했어요.

강신웅 그러면 바로 그해? 그렇다면 태을제가 96년도네요. 96년도부터 99년까지 인가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무용협회, 양대승 지부장님은 고인이 되셔서 안 계시지만 옆에서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부인이신)김은령 군포문화재단 팀장님께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은령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가) 이런 중대 사안이었구나 싶네요. 저는 95년도에 양대승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바로 무용협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저희는 결혼 전이니까 저는 많이 같이 있고 싶었죠, 그 분이랑. 그런데 김영철 선생님이 매번 오셔 가지고, 저

는 정말 그때 여기 있는 분들, 박현태 회장님 다 미웠어요. 거기에 안영숙 선생님까지 나중에 합류 해가지고.(웃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매번 뭘 저렇게 하시는 건가 했는데 늘 예총, 문화예술, 군포의 문화 이러면서 술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심부름은 제가 다 했어요. 서류 떼어 오는 거 같은 거요. 그렇게 김영철 선생님과 두 분이 얘기 하시다가 또 박현태 회장님 성함을 듣게 되었어요. 회장님으로 하시게 하자 이런 얘기로.

우리가 95년도에 만났으니 태을제는 그 다음해 96년도가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포스터를 갖고 와서 다 잘라 가지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무용협회는 이만큼만 쓰라고 해서 가위로 다 잘라서 무용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무용협회는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예술장르 중에서 무용이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양대승 선생님이 당시 서울시립무용단에 계셨는데 거기를 통해서 군포지역에 있는 무용하는 분들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한참 어렸을 때여서 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늘 일에 항상 매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용협회가 생기고 바로 예총이 발족되었어요. 태을제를 하는데 무대도 하나도 없고 시멘트 바닥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 생각나요. 그런데도 다들 푹푹 뭉쳐서 늘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신웅 당시 무용협회 회원은 몇 명 정도로 발족했는지 기억나세요?

김은령 저희 그때 10명은 넘어셨던 것 같아요. 힘들게 알음알음으로 군포 쪽에 있는 무용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강신웅 지금 산본시네마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공연장인가 하셨죠.

김은령 아, 산본아트홀이요. 그때 조현건 지부장님 오셔서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 역할을 맡아 주셨어요. 산본아트홀은 양대승선생님이 여기(군포에) 작은 공연장이 없다면 공연장을 만드신 거죠. 예산도 많이 없으니까 허정씨라고 서울시립무용단에 같이 계셨던 분이 오셔서 거의 수작업으로 재료 사다가 다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산본아트홀에서 연극이랑 굉장히 많은 공연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강신웅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립일 기준으로 미술협회 순서인데 미술협회 장미희 전 지부장님이 사정상 오늘 불참하셨네요. 미술협회가 97년 2월 11일 이구요, 국악협회가 97년 6월 30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에 『Human & Art』 (군포예

술지 1호) 만들 적에 연보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국악협회 초대 및 2대 지부장님은 사정상 참석이 안 되셔서 3대 이선형 지부장님께서 그동안 들은 바와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연극협회 조동관 초대 지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연극협회가 98년 12월 12일, 연예예술인협회가 99년 7월 1일입니다.

이선형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있을 자리인지 좀 그렇긴 한데요, 초대 지부장님은 연락이 안 닿으시고 2대 지부장님은 고인이 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3대긴 한데, 여기 계신 초대 회장님, 지부장님들께서 다 다져놓으신 터전에서 마음껏 예술 활동을 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신웅 몇 년도에 지부장 하셨어요?

이선형 2006년에 지부장을 했구요. 저는 국악협회가 97년 6월에 창립된 것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지부장이었는데도.

강신웅 어쨌거나 국악협회도 그 전의 초창기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말이죠.

박현태 내가 알기로는 초대 지부장이 전순택씨라고, 당시 젊은이였는데 시청 앞에서 국악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3개 단체로 예총을 하려니까 너무 조직이 약해서 미술협회 하고 국악협회를 만들라고 계속 종용을 했지. 몇 분이랴도 되거든 빨리 결성을 하면 좋겠다. 전순택씨가 그러면 국악도 (결성)하겠다면 나를 한 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알던 전순택씨는 굉장히 사람이 열정적이었어요. 키도 자그마하고 사람이 다부지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창기 예총 활동 할 때 적극 참여를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선형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는데 어디 계시는지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군포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 아까 박현태 회장님이 말씀하신 학원이 산본에 있었어요. 거기에 갔을 때는 배기철 지부장님이 지부장을 하고 계셨는데, 몇 달 운영을 하다가 사무실 월세가 비싸서 운영이 안 돼서 거기를 접고 노루목주유소 부근 지하로 옮겨서 거기서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순택 지부장님 처음에 공연 활동을 하실 때는, 아까 무용도 그렇지만 국악도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활동 하셨던 어르신들이 연배가 되면서 중간에 맥이 끊기고, 학교에서는 아직 국악 교육

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국악인들은 (인구수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았고 협회 회원으로서 공연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그랬죠.

초창기 군포에도 전문인, 국립국악원이나 시립에 계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니까 협회활동은 안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꾸준히 활동해오다가 젊은 국악인들이 (프로그램을)자꾸 발굴을 하면서 실내악단도 만들고 사물놀이팀도 만들고 대북 연주하는 팀, 유형렬지부장님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전문인들이 협회에 들어와서 협회 회원으로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점차 그런 형태로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전순택 지부장님이 계실 때 시청 앞에서 공연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 계셨던 분들도 같이 연합해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강신웅 배기철 지부장님은 제가 뵈는 것도 기억나고 노루목주유소 사무실에 계실 적에 기억도 나는데 국악협회 역사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우리 전순택 선생님을 찾지 않는 이상은...

김은령 꿩과리 하셨던 분 아니었나요? 그때 처음으로 콜라보가 이뤄졌던 거 같아요. 96년도인가? 공연을 하는데 무용이나 국악이나 원래 동료들을 데려와서 악사로 쓰시는데 그 때는 동네 분으로 하셨어요. 전순택 선생님이랑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연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무용이랑 예총 지부들이 같이 협업하는 게 생긴 거 같네요.

최남희



아까 이선형 지부장님 말씀하신 중에 학원이 중심 상가에 있다가 노루목주유소 쪽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는 배기철 지부장님이 그 학원을 운영하셨을 때인가요?

이선형

네. 당시는 배기철 지부장님이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악협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부장직을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지부장을 하게 되었죠.

최남희

안소라 선생님도 같이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분은 언제쯤 합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이선형

안소라 선생님의 경우는 2004년인가 2005년 그 때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국악협회 지부장을 했거든요. 그 때 안소라 선생님은 국악협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배기철 지부장님은 계셨는데. 저는 안소라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국악 협회에서 활동한지는 몰랐어요.

최남희

그 때 평생학습원 상상극장에서 공연도 하시고 그럴 때만 해도 계셨었잖아요. 안소라 선생님이.

이선형

그 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상상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때 안소라 선생님을 배기철 지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부지부장으로. 아마도 2006년인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부지부장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리지도 수업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강신웅

다음에 (원주에서) 오실 때는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봐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형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지부장 할 때 만든 카페여서 자료들이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웅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극 협회가 98년도 12월 11일이죠. 제가 2008년에 예총회장 되고 예술지 『Human & Art』를 발간했습니다. 군포예술지 초창기 이름이죠. 그걸 만들면서 1차로 연보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2호부터는 『군포예술』로 제목을 바꿨죠. 그 연보 순서에 따라 조동관 초대 연극 협회 지부장님께서 연극협회 창립시절과 같이 어울렸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관



당시 저는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일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군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 찍었던 영화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인데, 그 영화를 찍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때 안양에서 연극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연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앞으로는 연극을 안 하겠다 하고 군포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연극협회 지부장을 하고 있는 조현건씨가 당시 용인에 살면서 여기 소극장 산본아트홀의 기획실장으로 있었어요. 민중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군포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 뿌리를 내린 연극인 중에 김송희 씨라고 있어요. 김송

희씨가 아마추어 연극을 하고 있었죠. 김송희씨는 안양에서 연극할 때 같이 작품을 했던 친구고요

강신웅 김정숙씨는요?

조동관 김정숙씨는 (김송희씨와) 같이 회원으로 있었던 분이죠. 조현건씨는 민중극단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어느 날 산본역을 지나다가 조현건씨를 만났는데 잠깐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다면서 연극협회 지부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현건씨가 산본아트홀에서 연극협회 창립총회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연극협회에서 인준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는 좀 사정이 있었지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다가 당시 안양에서 연극을 하고 있던 제가 거론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6, 7개월만 하려고 시작해서 일단은 수락을 하고 경기도의 인준을 받았죠. 그 때가 12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999년 1월에 (군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신년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박현태 회장님과 다른 분들을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총에 대한 대우가 많이 낫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총회장을 소개 시켜주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시 한국예총회장은 당연직 국회의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군포에 왔더니 이런 저런 사회단체장 다 하고나서 거의 스물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에 예총 회장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눈이 펄펄 쏟아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박현태 회장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있는 한은 5위, 적어도 열손가락 안에 예총이 들어가도록 신경을 쓰겠다고요.

1999년 12월 31일에 밀레니엄 축제를 하면서 제가 그 총괄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전의 태을예술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요. (지부장이 되고 나서) 1년 동안의 일들은 얼핏만 기억하고 그다음에 밀레니엄 축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총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웅 밀레니엄 축제를 진행하면서 지원금으로 300만 원 받으셨다고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동관 그건 아니구요, 밀레니엄 축제는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원

래 예산을 1,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500만원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방을 세 번 썼습니다 (세 번을 그만두려 했다는 말). 그렇게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예산이 7,500만원이 됐어요. 예총이 처음으로 이런 큰 행사를 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당시 이선복씨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 때가 박현태 회장님에 이어서 장석기 회장님이 2대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계획을 짜서 시청의 담당 과장과 계장을 만났는데 돈에 비해 행사 규모가 너무 작다며 더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들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의견이 도저히 안 맞아서 그만 두자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 시에서 원하는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시에서)원하는 출연진들을 섭외하려고 보니 예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중에는 예산이 7,500만원이 된 거죠.

박현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네.

조동관 모르셨죠? 장석기 회장님은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센 출연진들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경찰대학교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는 그때 KBS 오케스트라를 부르려고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시청에서 경찰대 오케스트라를 불러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들은 학생인데 초대가수 인순이를 그쪽으로 연습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시청하고 또 부딪치고 결국에는 경찰대 오케스트라가 오긴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문예회관에서 1부행사를 하고 2부는 시청 앞에서 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번개탄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탄. 제가 영화를 하고 있어서 특수효과 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번개탄 두 개를 사왔어요. 그런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워낙 쫓기다 보니까 신고를 못 했어요. 열두 시가 땡땡땡 하면 그 번개탄이 밑에서 팡 튀면서 획 하고 올라와서 공중에서 확 퍼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소품 담당했던 친구가 자기가 터뜨리겠다고 12시가 되어서 탁 쳤는데 이게 안 터졌어요. 불발탄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스태프가 달랑달랑 들고 다니다가, 1부가 끝나고 2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시청 앞에 맨발의 청춘이라고 자주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장석기 회장님, 양대승 지부장 그리고 전순택 지부장, 조현건씨, 그 스태프 이렇게 5명이 거길 간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좌판을 벌려 놔는데, 번개탄이 얼어서 안 터졌던 게 (터

1부 군포예총의 태동

뜨린다고) 충격을 한 번 받았으니까 이게 따뜻한 실내에서 열린 거예요. 뭐가 빨간게 바닥에서 휘익~~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번개탄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가스관인 줄 알고 전부 다 놀래 가지고 튀어 나왔어요. 공연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인데 조현건씨가 왔어요. 입고 있던 옷에 분말 가루를 뒤집어 쓴 상태로, “형님 큰 일 났습니다. 번개탄이 터졌습니다. 식당 바닥에 분말가루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행히 번개탄은 불이 안 난답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냥 소화되는 것이지 불꽃이 튀기고 이런 것이 없답니다. 제가 삼 일 동안 그 식당 바닥 청소 해줬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연휴 때요.(웃음)

강신웅 연극협회 창립하고 밀레니엄축제 뒷얘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1999년 7월 1일에 연예 협회가 창립됐거든요? 어떻게 만들게 됐나, 초기에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숙



제가 90년대에 군포로 왔는데요. 당시 노래교실이라는 게 한창 유행되었을때인데, 제가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노래교실을 운영했어요. 초창기 노래교실은 노래를 한번 부르러 가려면 동전 500원짜리를 거슬러 가지고 노래 기계에 넣고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노래 교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인원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연 같은 것도 하게 되었는데 양대승씨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양대승씨가 무용을 해야 되는데 공연할 무대가 없으니까 제가 가요제 같은 걸 하면 시작하기 전에 식전공연으로 무용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양대승씨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중심상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노래교실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 쓰거나 우리 장소를 쓰곤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총이란 게 생겼다고 말을 해줬는데, 당시 저 역시 예총이 뭔지도 몰랐고, 연예협회라는 것도 몰랐어요.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100명 정도 되었죠. 뷔페가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노래교실을 했던 거죠. 지금 신한은행 건물에 은행이 막 들어오려고 하던 무렵인데, 5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장소를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 했더니 5층을 빌려 주어서 거기서 노래 교실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노래교실이 발전되었는데 양대승씨가 같이 예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노래 가르치는 강사들하고 이런 분들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연예협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수분과도 있고 연기분과도 있고 연주분과

도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회원들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우리 노래교실 선생님들,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나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향토가수라고 하나? 위금자씨라는 분이 그 때 한참 향토가수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해서 서울로 갔죠. 그 당시에는 남진씨가 연예협회이사장이었어요. 가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와라 해서 시작했는데, 이선복씨를 만나게 되어 그 분이 연예협회 사무장으로 일을 했고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예총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군포에 와서 예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장석기 회장님이나 조동관, 양대승씨는 매일, 특히 양대승씨는 정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때는 결혼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로.(웃음) 적극적이고 뭘 하면 꼭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아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총이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연예협회를 만들게 돼서 하다가 나중에 이선복 씨한테 넘겨주었죠. 그 당시는 장석기 회장님이나 조동관 지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예총을 위해서 움직였던 분들이세요. 박현태 회장님이나 김영철 지부장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임기를 맡았던 때는 제일 큰 행사가 밀레니엄 축제였어요. 시청에 사무실을 만들어 줘서 아침마다 거기로 출근을 해서 축제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총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 갖고 있는 건 밀레니엄 축제죠.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까 농담 비슷하게 가방 몇 번 찼다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 담당부서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자꾸 바뀌면서 문화예술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던 분들도 오게 되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예술이 얼마나 대단해? 이런 뉘앙스를 받기도 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됐죠.

그래도 우리가(예총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초대 박현태 회장님, 양대승 지부장님, 김영철 지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뒷받침 해주신 덕분인데, 여기에서 제일 큰 역할은 양대승씨예요. 양대승씨가 적극적으로 예총 일에 도움을 주었죠. 그 뒤에 장석기 회장님이 2대 회장, 저와 양대승 지부장이 부회장이 되었고, 밀레니엄 축제를 진행하면서부터 우리가 시로부터 문화 예술 단체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에서 물러나니까 정말 제가 예총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던 태을제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 당시 태을예술제 할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 자리를 떠나니까 예술제를 언제 하는지, 길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관심을 다 놓게 되었네요. 제가 연예협회 할 때 장애인가요제도 만들어서 장애인협회에

(넘겨)준 거고요, 그 당시 그 협회에서 10월 예술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장소도 제공을 했어요. 우리가 2대 회장님 계실 때 조원극 시장님이 현재 예총 사무실로 옮겨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박근식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최남희씨가 사무국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총이 이제 틀을 잡고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총에서 행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태을예술제든 뭐든.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초대회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오셔서 좀 빛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장석기 회장님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 전화번호를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게. 조동관 씨는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있더라구요. (웃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초대 회장님들이 예총에 관심을 갖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총에 대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신웅 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구요, 연예협회 관련 질문입니다. 그 당시 이선복씨 하고 또 생각하시는 연예협회 회원 이름들 좀 말씀해주세요. 활동하시던 분들. 백건아씨라고 있던데요.

안영숙 백건아씨요? (활동)안 했어요

강신웅 제가 막 지부장 됐을 적에 전 집행부에서 부지부장 하셨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안영숙 아마 저 그만두고 나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조동관 백건아씨는 연예협회 행사던가, 거기서 무대에서 기타치고 상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신웅 근로자가요제요?

안영숙 근로자가요제.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청소년락페스티벌 하구요.

조동관 1등을 해서 이선복씨와 만나게 되어서 자동으로 회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강신웅 이선복씨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 안영숙** 네. 그 때는 이선복씨가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하고 있었고, 사무국장을 하다가 지부장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있을 때는 이선복씨하고 안재문씨라고 있었어요. 개그 하시던 분.
- 강신웅** 아, 안재덕.(웃음) 그럼 안재덕씨도 안지부장님 계셨을 때 회원으로 있었네요?
- 안영숙** 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위금자씨가 들어 왔구요. 그 다음 악기 하시는 지수만씨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의 일행이 5인조로 해서 다섯 명이 들어와서 그분들과, 우리 노래교실의 노래 좀 하시는 분들과 해서 연예협회를 시작한 거죠.
- 강신웅** 지수만 선생님은 연락이 안 되시나요?
- 안영숙** 저하고는 연락이 돼요. 얼마 전까지도 행사할 때 모시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활동은 못하시고 그분 밑에 있는 분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어요.
- 조동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밀레니엄 축제 때, 행사가 끝나고 밀레니엄 축제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오게 됩니다. 밀레니엄 축제의 결과를 당시 시장님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그 과장님이 국장급 대우로 승진을 하면서, 예술회관 관장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 강신웅**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네요. 예총과 시당국과의.
- 안영숙** 네 그렇죠.
- 강신웅** 네, 그렇게 연예협회 초대 안영숙 지부장님이 2004년 2월까지 하셨고, 그 다음 2대 지부장이 저 강신웅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 드리자면 현재 예총에는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사진협회가 창립이 몇 년도죠?
- 임효례** 2014년입니다.
- 강신웅** 벌써 7년이 되었군요. 사진협회는 사실 초창기에서 한참 지나서 결성이 되었죠.
- 안영숙** 아니에요. 저희 있을 때에도 사진협회가 있었어요.

1부 군포예총의 태동

박현태 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주승철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김은령 아, 주승철

강신웅 와, (그 당시의)얘기가 또 나오네요.

박현태 그 분이 예총창립 당시부터 같이 다녔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사진협회를 창립하려고 하니까 회원 수가 부족한 거예요. 회원이 열 명인가 되어야 하는데 군포에는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창립하려고 참 열심히 했었는데.

임효례 저는 안양에서 활동했는데 그 때 주승철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조동관 사진협회가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때 군포에 사진 찍는 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재수씨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진협회가 자격을 주는데 어느 대회에 가서 상을 타면 몇 점을 주고 해서 40점인지가 되어야지만 정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등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주승철씨도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협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다보니 고생만 많이 하다가 군포를 떠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회원 자격이 그랬어요.

강신웅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회원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예총이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홍순창 유독 까다로운 협회가 음악협회하고 사진협회.

최남희 미술협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강신웅 비교적 협회 가입이 쉬운 곳이 국악협회, 연예협회죠. 연예협회가 좀 날라리 협회라고 하죠.(웃음) 군포에서는 공산당협회가 3개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는 다 민주적인 협회인데 연극협회, 연예협회, 무용협회가 그렇죠. 거의 지부장이 한번 되면... 저는 그래도 이번에 예총회장을 하기 위해 지부장을 넘겼지만요. 아마 그건 각 협회별 중앙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각 협회의 지도부나 지부장님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데 유일하게 공산당협회는 잘 안 바뀌죠. 이걸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웃음)

강신웅

아까 안영숙 지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거, 태동기에 우리 예총을 만들어 주신 회장님들은 제가 작년 2월에 당선이 되고서 코로나만 없었으면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모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걸 제가 하겠다고 그런 거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 이 자리까지 마련된 건데, 1년에 한 번 군포예술인의 밤을 개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연관이 되는 회원분들도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문제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흘렀네요.



박현태

2대 사무국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얻었다가 문예회관으로 옮기고 한 부분에서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조동관씨가 밀레니엄 축제 때 7,000만원 그랬는데, 내가 예총회장 4년을 하면서 3년 차에 처음 시청 지원받은 게 820만원이었어요. 태을제 3년 차에. 처음에는 2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820만원이 결재가 났다고 공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1대 사무국장 생업이 안 되는 거야. 출판사는 서울서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회사도 안 되지, 월급도 안 나오지. 그래서 2대로 바뀐 사람이 김창배 화백이에요. 회원들에게서 회비가 나오길 하나, 시에서 도움을 주나, 그래서 사무실을 김창배씨 화실로 옮겼어요. 김창배씨가 굉장히 야무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예요. 태을예술제를 하는데, 지금 철쭉제도 며칠씩 하지만 그때도 3박 4일씩 오래 했어요. 돈도 없는데 일을 벌여놓고 말이죠. 그런데 김창배씨 하고 돌아다니면서 스폰을 많이

받아 오는 거예요. 능안공원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티셔츠 500장씩 마련해서 코스를 갔다 오면 한 장씩 나눠주고 했어요. 참가자들이 많아서 티셔츠가 모자라 다음에 주겠다고 도장도 찍어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문예회관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총 사무국 절반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제법 넓잖아요, 회장실도 따로 있고. 당시 문화원이 예총보다 한 해 먼저 생겼거든. 초대 문화원장이 서정선씨이고 내가 예총회장이고. 절반을 딱 잘라 가지고 앞에는 문화원, 그리고 예총을 주었지. 그래서 현판식에서 내가 한 마디 했어요. 너무 비좁아서 책상 2개도 못 놓는다고. 그 때는 나도 젊어서 속에 있는 얘기가 바로 나왔죠.

아까 얘기한 시청 신년인사회에서 예총회장 대우 같은 것도 그래요.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거 뭐 예총회장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도시 성남이나 안양 같은 데 보니까, 다섯 번째 서열에 예총회장을 놓더라고. 그래서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한테 그랬지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해주면 참석도 안 할 거고 시에도 항의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순위를 올려주더라고. 말이 쉽게 농담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4년 동안에 군포예총의 터를 닦고, 태을예술제를 할 때도 새벽같이 상연사 주지하고 태을봉까지 돼지머리를 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고 그랬거든. 적어도 향토제 비슷한 뿌리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했죠. 내 임기 마지막 무렵에는 시와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총이 예산도 늘어나고 철쭉축제도 주관을 하든, 도움을 주든 예술인 위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금석지감이 듭니다.

차제에 우리도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든 문화의 뿌리를 심든 허허벌판에 씨앗을 뿌리고 닦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돌아보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

게 다루어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해관계 이전에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라는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줘야 합니다. 한마음축제니 밀레니엄 축제니 바뀔 때마다 예술인들이나 예총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싶은 거예요. 25년 동안 태을예술제를 지탱해왔다면 (안산)단오제니 (제주)탐라제니 그런 것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게 자존심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란 말이죠. 그냥 뭐 우리가 공연이나 한 번 하고 그림이나 하나 그리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혼을 끌고 가야 되겠다, 군포의 문화예술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내놓고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신웅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2대 회장님 말씀도 듣고, 또 아까 수리음악콩쿠르가 어떻게 만들어 졌나 그런 말씀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2부

군포예총의 초창기 활동

강신웅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음악협회 수리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2대 회장님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철



다들 하시는 얘기를 듣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니 박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을예술제를 2회까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뒀는데, 양대승 지부장이 그만 두지 말고 예총을 같이 하자고 새벽 4시까지 저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얘기했죠. 지금 하던 일을 다 뒤로 미룬 상황이라고. 그렇게 2회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회장님이 받던 대우라고 할까, 원래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예총은 한국예총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관변단체예요. 관변단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조직하고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해달라고 했지.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결성하고 그 대신 예산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들 이유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기들끼리 잘 활동하고 있는 데 와서 만들자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 회장님한테 하는 대우를 보고 속이 뒤집어 졌죠. 당시 회장님 성격이 직설적이니까 막 들이받고 그러셨죠. 초기에도 (태을제)예산 조금씩 준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때 심정에 치사하게 그거 안 받고 스폰 받아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때 스폰 꽤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예총을 만든 사람으로서 어쨌든 중간에 물러나서 그 다음의 어려운 시절들을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리음악콩쿠르를 만들게 된 계기는, 클래식음악동호회로 여기저기 군포, 안산, 과천 등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음악협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원극 시장님이 처음 민선시장이었었는데, 그 전에 관선시장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분이 군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음악행사를 하나 기획을 해보라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시에 음악 콩쿨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유명 콩쿨을 비롯한 여러 콩쿨 관련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입김이 작용

해서 당선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콩쿠르를 한번 기획해보자. 음악을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연관성이 없을 거 아니냐.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게 되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가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해버리면 그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최고로 공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심사위원을 무조건 7명으로 한다. 그 다음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표를 바로 현장에 붙인다. 모든 학부형들의 관람을 허락 한다. 예선 본선까지 모두 그렇게 한다.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였나봐요. 그 안이 통과가 돼서 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됐죠. 그 때는 아직 음악협회가 아니었고 클래식음악사랑회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박병용, 바리톤 박홍우 그리고 저, 셋이 유럽의 콩쿨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안을 만들었어요. 그 때는 피아노하고 성악 부문만 있었죠.

피아노 음악과 음악저널에 1회 콩쿠르 광고를 내보냈는데 솔직히 군포를 잘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각 예고에 공문을 발송하고 음악과장들한테 전화를 하면, 서울예고나 선화예고 같은 데는 “군포수리음악콩쿠르요? 우리 그런데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두고 봐라. 나오게 될 거다.' 1회 때는 서울예고에서 진짜 안 나왔어요. 선화예고에서 좀 왔고. 한 280여 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해요. 안양 등 인근에서 많이 왔어요. 1회를 그렇게 마치고 결과가 발표되어 조선일보 등 중앙 언론에도 났던 기억이 납니다. 2회가 되니까 서울예고 애들이 교복 입고 오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와서 상을 다 쓸어갔어요. 그래서 4회부터는 교복 입고 오지 마라,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정이 생겼고 상금도 더 올렸죠. 4회까지 제가 했거든요. 4회 때는 580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처음에 안 온다던 친구들, 서울예고 아이들이 2회 3회 4회 상을 많이 쓸어갔죠. 워낙 우수하니까. 이렇게 태을예술제는 2회까지 했고, 수리음악콩쿠르는 4회까지 하다가 그만 두고 후배들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수리음악콩쿠르가 출발했던 과정은 그렇습니다.

강신웅 그러면 클래식음악사랑회가 몇 회까지 주최한 거예요?

김영철 2회까진가 그래요. 제 생각에는 1회인가, 2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음악협회랑 공동으로 했어요. 그때는 시에서 협회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어요. 음악협회와 클래식음악사랑회 이렇게 같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최만 했지 예산을 그 사람들(시청)이

관리했어요. 그렇게 4회까지 진행 했습니다.

강신웅 연보를 보면 5회부터 음악협회가 주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철 단독 주최는 그렇죠. 아마 그때는 음악협회에 예산도 직접 줬을 걸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강신웅 그 때 클래식음악사랑회로 받았을 때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김영철 300만원인가? 200 얼마였던가 나왔는데요. 돈이 남아가지고 얼마를 반납했어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참가자들에게 돈을 받았으니까요. 2회 때도 아마 반납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5회 때부터 음악협회라고 되어 있나요?

강신웅 네 연보에 보면 99년도 5회부터 제5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개최 음악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총 25년 역사상 단위 협회에서 한 행사로서 기획력과 성장과 지금 현재 전국 5대 콩쿠르 안에 들어 간 것, 거기에는 초대 김영철 지부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초기의 기획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총 25년 역사 중에서 한 단위협회 행사로서는 최고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뒷얘기에 대해 귀동냥을 많이 했어요. 수리음악콩쿠르를 모태로 해서 수리미술대전, 수리무용콩쿠르가 시작되었고, 그후에도 수리창작연예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리음악콩쿠르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각 단위협회마다 ‘수리’자를 붙여서 행사를 만들려고 2008년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었네요. 어쨌든 김영철 초대 지부장님의 역할이 컸고, 그 역사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그 때 씨앗을 뿌려놓고 심은 것이 지금은 열매가 달렸죠. 제가 예총회장일 적에 예총에서 수리음악콩쿠르를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국제콩쿠르로 발돋움을 할 때인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집안 잔치가 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쿠르 운영위원을 모두 음악협회 회원들이 다 잡고 가려고 했고 놓지 않았죠. 당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그때부터 시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줬거든요, 8,000만원으로. 지금은 더 인상되어서 참가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이 돼요. 그 정도 되니까 클 수밖에 없었죠. 행사가 외부에서, 클래식 음악계에서 많이 알려지니까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 5대 콩쿨에 올랐으면 국제 콩쿠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총회장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김영철 초대 음악협회 지부장님의 훌륭한 업적은 음악협회 역사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다음 얘기는 2000년도 밀레니엄을 맞아 제2대 예총회장을 장석기 회장이 맡게 되셨습니다. 맡기 전과 후의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기



오늘 반가운 얼굴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하자니 지난 20년이 그제 같습니다. 오랜만에 본 조동관 지부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같구고(웃음). 나를 얼마나 같겼는지, 예총회장을 시켜 놓고 지부장들에게 달달 복인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웃음) 매일 복이

고 나서 산본중심상가에 가서 같이 술 먹고, 술 먹을 때도 복이기는 복였지. 같이 그렇게 옆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2년 동안 매일 술 먹으러 다니고 매일 복이고 찢어지고 이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99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엄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21세기를 시작하는 기점이었죠. 그래서 대희년이라고 했는데, 천년에 한 번씩 맞는 희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박현태 회장님 임기 마지막을 맞아 1대 예총의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도 되었죠. (밀레니엄 축제는)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큰 행사로 진행 되었는데, 그 행사까지 박회장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12월 마지막날 무척 추워서 별별 떨면서 카운트다운을 한 기억이 납니다. 대개 화두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21세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다들 문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당시 신도시가 생긴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 군포를 모르는 서울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산본 신도시는 아는데 군포는 모르고, 군포에 산다 하면 저기 어디 시골에 서 온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의 세기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축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축제의 도가니 속에 빠진 듯이 축제 개발에 고심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군포시에서도 시의 위상이나 군포를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도 수리문화예술제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간 예총에서 해오던 태을예술제가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박현태 회장님이 늘 예총이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예술제를 지켜내지 못한 것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시와 예술인들과의 그 때 대화(협의 과정)에서 종합예술제라고는 하지만, 예술제 성격보다는 가시적이고 자치 단체장들의 보여주기 식 행정의 일환으로 바뀐 측면이 있어요. 군포만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다 똑같습니

다. 서로 베끼고 카피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천편일률적인 그런 축제 모습을 오늘날 까지 가져 오게 되는데, 그 태동이 2000년도의 축제 개발에 대한 명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신웅 잠시만요. 여기 연보에 보면 2000년도까지는 태을제로 되어 있구요, 2001년도에 제 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석기 네, 그렇군요. 지나고 나서 안타까운 점이라면 군포만의 고유한 축제개발을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수리문화예술제는 당시 시의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그 속에 예술이 빠지고 거의 이벤트성의 축제를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은 지역 예술, 군포의 예술이라 하면 군포예총 중심의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하면서 매년 보여주는 뿌리 깊은 예술의 향기가 존속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총 자체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할 수 없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수리문화예술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2000년도에 제가 처음 회장을 맡고 시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깎듯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대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엔가 몇 년 사이에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전에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예술인들을 상대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예술인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예술인들을 속속들이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술인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한 직원이 예총 전체의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드러났죠. 모든 행사를 자기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의지대로 예술인들이 따라오게 하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초기 예총의 모습에서는 박회장님 4년 동안 처음 시작해 놓으신 그 텃밭을 2대에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같이 곁들여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랄까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각 지부에서 많이 표출이 됐고, 그래서 예총에 좀 더 강력한 회장단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 도의원 출신 조치영 회장이 거명이 되었죠. 그 분이라면 시 당국과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치영 회장

이 3대 회장으로서는 제 2년 뒤의 남은 임기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치영 회장이 이야기를 받아서 해줘야 하는데...

조동관 그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강신웅 장석기 회장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요.

장석기 좀 이따 나중에 할게요.

조동관



장석기 회장님이 힘을 받아서 당겨 올라가야 하는 그 시기에, 2000년도 밀레니엄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가)사회단체와 같이 혼합이 돼버렸습니다. 밀레니엄 축제를 할 때는 예산을 예충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01년도 되면서 예산이 시에 묶였습니다. 일일이 타서 써야 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충에는 어떤 힘도 없었고 거기에 다양한 성격의 사회단체들이 (축제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박헌태



제가 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두면서 장 회장하고 둘이 만나서 예충 4년을 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히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공무원들한테 너무 낮은 자세로 대하면 우리는 영혼까지 뺏긴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충회장하고 시 당국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늘 주장이 시에서는 지원하고 모든 시행은 예충한테 맡기라는 거였죠. 그런데 계획과 섭외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장 회장이 2년을 하고 그만두면서 조치영씨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도의원까지 했으니 까 이 친구는 좀 힘이 있지 않겠나 싶었죠. 그래서 조치영씨를 만나서 시청하고 강력히 좀 대처해 달라 하고 장회장이 조치영 회장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조동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장석기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외부로 풀어낼 수 있는 여건이 예충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장 회장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속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축제운영위원회에) 예술인(예충)인원보다 사회단체가 더 많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치게 했고,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충이 흔들리

기 시작했어요.

조치영씨가 오게 된 동기는 양대승 지부장하고 안영숙 지부장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조 회장님이 합류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이 있겠느냐 하다가 기자회견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예총사에 처음 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저도 발제자로 올라가서 1시간 3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우리가 했던 얘기 들을 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노트북을 켜 놓고 전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뒤에서 보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힘들었고, 우리가 (힘들다고)소리를 질러도 시와는 그런 얘기들이 소통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예술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최고 암울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박현태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시 당국하고 뜻이 안 맞은 건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능력과, 예술혼으로 자립적으로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겠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계속 시와 화합이 안 되고 점점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총과 시당국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조치영 회장도 (본인의 일도 있고 해서)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년을 조금 남기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존재감이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모든 것을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단체들을 끌고 가면서 한 묶음으로 우리를 넣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동관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건으로 연극협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 마음으로는 군포에서 예술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술을 하면 안 되겠다. 예술인들의 존재 가치가 너무 없다. 제가 번번이 주장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군포도 스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무대에 올라서는 무용협회, 음악협회 이런 공연지부에서 스타를 만들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무대에 세우고 천천히 그 사람을 군포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시의 세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우리 예산으로 우리 사람을 지킬 수 있고, 키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신웅 그때가 몇 년도예요?

조동관 2002년도?

강신웅 장석기 회장님 재임 중이셨을 때 인가요?

조동관 아니요, 조치영 회장님 때입니다.

강신웅 그러면 그때 당시는 연극협회 지부장님이셨군요.

조동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영구제명이 됐죠.

강신웅 안영숙 지부장님도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중에 '왕중왕 가요제'도 있고 연예협회 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영숙



당시 지금 여기 계신 예총의 지부장님들도 힘이 조금 모자랐던 건 사실 이었고요. 그런데 그 모자란 만큼 시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군포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모아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큰 행사를 하다 보니 예총 역시 그 중의 한 단체로 끼어 있게 된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총도 점점 어두워진 거구요. 장석기 회장님에 이어서 조치영 회장님을 앞에 세우고 우리도 한 번 정치적으로 가보자 한 건데, 그분이 지금 삼성 래미안 옛 구주공 재건축 조합장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계속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죠. 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총이 점점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총이라고 하는 조직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진 예술이라는 능력만을 바탕으로 시작을 한 건데, 시에서 공적인 지원이 없으면 계속 유지해나갈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축제가 변형이 되면서 '태을제'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신웅 말씀을 쪽 들어보니까 1999년까지, 밀레니엄 전까지는 자생적으로 예총에서 행사들을 했고, 시에서 보조를 하는 순간부터,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순간부터 시당국의 입장과 우리랑은 많은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이네요. 제가 들은대로 판단해 보면 장석기 회장님, 그리고 조치영 회장님 때 갈등이 극에 달했던 거죠. 보조금을 주고 바라는 바가 없

으면 최고인데,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적인 입장과 예술적인 입장이 차이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시는 기억들 없으신가요? 홍순창 사무국장님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단락도 좋구요. 맥락과 관계없이 생각날 때 말씀해주세요.

홍순창



사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좀 있고 도와주는 시측의 입장, 또 우리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었죠. 현재는 원활하게 되고는 있지만 완벽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특히 힘들었던 거는 아마 그 초창기에 시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좀 달랐고, 시도 초창기다 보니 담당자들이 지금과는 문화 마인드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들 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화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소통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김영철 선생님이나 양대승 지부장이 힘들었냐 하면 11시, 12시 가까운 시간에 술을 마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얘기하다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설득하고 만나서 주장하고, 그러다가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만나서 우리끼리 또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서 술집에서 매일 술 마시고 그런일이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실 때 나눈 이야기나 이런 에피소드는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고, 늘상 저녁 때 자정 무렵이 될 때까지 통음을 했던 (웃음)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현태

문협 백일장도 초창기에는 봄, 가을로 하면서 내가 시 당국과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군포문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게 백일장인데, 진주 개천예술제 백일장처럼 크게 키워보고 싶으니 예산을 좀 더 늘려 달라고. 장원에게 100만원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가 300만원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런식으로 계속 시 당국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죠. 장회장이나 조 회장이 계속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회원들은 많지, 지부들은 전부 (회장만) 쳐다보고 있지 이런 식이에요. 25년 흘러 간 게 간단한 세월이 아니라고. 지금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래도 회장실도 따로 있네요. 그 정도면 대접받는 거지.

강신웅

회장실이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웃음) 이번에는 집필위원장이신 최남희사무국장님이 3대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나 갖고 계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동관 3대가 아니고 4대 아닌가요?

강신웅 아니 3대인데요. 조치영 회장님 때 하신 거 아니에요?

박현태 아니 또 있었어.

조동관 공무원 (출신)이 한 분 왔었는데.

안영숙 음악협회 성악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최남희 박근식 사무국장님이 제 전에 사무국장님이셨어요.

강신웅 아, 그러면 연보가 잘못되었네요. 여기 연보에는 2대 장석기 회장님 때 김창배 사무국장님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박현태 김창배 사무국장은 나 있을 때 그만두고, 미술협회 장미희 지부장이 소개한 키 크고 공무원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장석기 홍순창 사무국장님 그만 두시고, 김창배 사무국장님 하시고.
내 임기 끝나기 전에 김창배씨가 나갔어요. 그러다가 공보과에서 공무원 하던 분이 사표를 내고 사무국장으로 왔어요.

강신웅 성함은 모르세요?

최남희 그 분이 장석기 회장 초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근식 사무국장으로 넘어 갔어요.

강신웅 그러면 홍순창 사무국장님이 1대, 김창배 사무국장님이 2대, 3대가 남자 공무원 출신이신 분.

최남희



그 분이 아마 황성근씨였던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총에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관내 홍보기획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예총사무실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어요.

조동관 맞아요. 황씨 성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창배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잠깐 있었어요. 오래는 안 있었고 한 6개월 정도?

안영숙 그 다음에 박근식 사무국장이 왔죠. 박근식 다음에 최남희 국장이 왔고.

최남희 예, 제가 2002년 2월인가 그 때 사무국장으로 왔습니다. 조치영 회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들어왔어요.

강신웅 그러면 5대 사무국장으로서는 그 언저리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최남희 예총 초창기 이야기는 잘 몰라요. 얼핏 듣기만 했구요. 아까 말씀하신 2002년 수리문화 예술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총의 태을제와 문화원의 옷내골문화제, 그리고 시민연합회에서 하던 한마음축제 3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 축제로 키워 보자라고 시 공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제1회 수리문화예술제가 2001년도에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신웅 아, 그럼 예총에서는 태을예술제를 모태로 했고, 문화원에서는 옷내골문화제, 시민연합회에서는 한마음축제 이 세 개가 수리문화예술제로 통합되었다는 거죠?

최남희 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제2회 수리문화예술제가 태풍 '루사'로 인해 가을로 연기되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었구요. 2003년부터는 축제 이름이 다시 군포시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장석기 그러면 수리문화예술제는 한 번 밖에 안했네요?

최남희 네, 맞아요. 2회는 태풍으로 취소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군포시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몇 년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는 아마 2007년도인가 부터 예전태을제의 전통을 다시 되찾자는 의미에서 군포태을제라는 이름으로 2회 정도 진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노재영 시장님이 되시면서 축제이름이 수리수리마법축제라는 이름으로 1회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수리수리마법축제가 제2회가 된 것은, 2008년 시민의날 축하행사를 제1회 수리수리마법축제라고 명명하고 일종의 선포식을 한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제2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포철쭉대축제라는 이름으로 2011년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철쭉대축제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는

2003년에 철쭉동산에서 철쭉동산축제라고 시민대축제의 일환으로 자그마한 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랬다가 철쭉동산축제도 시민대축제에 통합이 된 거죠. 축제의 역사는 제가 예전에 정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웅 지금 문화재단에 축제팀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축제백서를 올 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동기의 내용들을 거기 넘겨줘야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꼭 축제만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얘기들을 기억나는 대로 해주세요.

최남희 제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각 지부별로 개별 행사들이 약 2건 정도씩 있었어요. 매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예산이 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 중 하나는 매칭 예산이었는데 경기도에서 300만원, 시에서 300원씩 지부별로 600만원씩 고정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 문협에서는 시민문학 발간, 시화전 개최 등의 사업이 있었구요, 이렇게 지부별로 2~3건씩 총 예산은 약 1,000만원 안팎의 고정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총의 경상비 지원도 연간 2,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신웅 예총 경상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에서 받기 시작했을까요?

최남희 글썽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조동관 그게 아마 이쪽(예술회관)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박현태 장 회장 때도 못 받았을 텐데.

최남희 이게, 장 회장님 때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석기 내 마지막 때부터 받았을 걸요.

조동관 아니, 그 이전부터 박회장님 때도 받았을 거예요. 그걸로 사무국장 월급을 줬다니니까요.

2부 군포예총의 초창기 활동

- 박현태 아, 김창배 사무국장 마지막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 강신웅 1999년도 쯤이겠네요.
- 조동관 네, 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닐까 해요.
- 강신웅 문예회관에 언제 들어온 거예요?
- 조동관 1998년도...
- 강신웅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사로 남겨야 하니까.
- 최남희 그건 아마 예술회관의 완공 시기를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회관 연혁에 나와 있어요.
- 최남희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재미있는 기억이, 예총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세를 2년 동안 밀렸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예술회관 담당 주사님이 저를 찾아 와서 빚독촉 하듯이 이거 언제 낼 거냐, 2년을 밀렸다 이 얘기를 계속 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2000년도나 1999년도 말이나 그쯤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 조동관 예술회관이 1998년도에 생겼으니까 98년도에 들어 왔을 거예요.
(※ 편집자주 : 간담회 이후 확인 결과 1998. 5. 7 군포시민회관 개관식에 이어 5. 21 한국예총군포지부 현판식과 함께 입주하였음.)
- 안영숙 그런데 그 전에 박근식 사무국장이 계실 때에는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처음엔 안 받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받는 바람에 그 때부터 임대료가 밀렸다는 소리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안 받다가 별안간 어느 날부터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서 공문이 날아 온 적이 있었어요.
- 장석기 내라는 통보를 받고 안 내고 제꼈을 거예요, 아마.
- 최남희 제가 그 때 지부장단회의에서 듣기로는 안 내고 버텼다고 들었어요.

- 박현태** 시의 조례가 있는데 공공임대(시설)는 (임대료를)무조건 내게 되어 있어요. 군포문협이 산본 도서관에 서너 평짜리 조그만 공간에 있었는데 그것도 세를 내라고 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3년간 못 냈어요. 그래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3년간 밀린 것을 없애 주면 나가겠다고. 결국 떼먹고 나왔지.(웃음) 여기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안 냈더라도 내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 최남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어요.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들에게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돼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지부장단회의에서 '예술회관 사무실에서 밀린 임대료를 내라고 자꾸 재촉을 하는데요' 하고 보고를 했다가 박현태 지부장님한테 혼났어요. 아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 문협은 3년 있다가 안 내고 나왔다! 그것도 못 버티고 뭐 하노!' 하구요. (웃음)
- 장석기** 초창기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안 내던 걸 내라고 하니까 예총이나 어느 지부나 탐탁지 않았죠. 집세까지 내면서 우리가 예술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 박현태** 지금도 내나요?
- 최남희**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에 무료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경상비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겠죠, 시에서는.
- 안영숙** 처음 들어갈 때는 안 냈는데 어느 날 공문이 날아 왔어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것까지 내 가면서 해야 하느냐 하면서 안 냈어요.
- 장석기** 아마 (내)막바지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조치영 회장한테 넘어갔구만.
- 안영숙** 우리가 안 내고 나오니까 최남희 사무국장님이 시달린 거죠.
- 장석기** 전 세입자가 안 내고 나가버렸어.(웃음)
- 최남희** 그래서 결국은 지부장단회의를 통해서 각 지부에서 일정 금액씩 예총에 회비 성격의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그걸 모아서 연말에 다 갚았습니다.

2부 군포예총의 초창기 활동

- 안영숙** 그런데 우리 때는 각 지부에서 예총에 얼마씩 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안 내고 나왔을 때는 예총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예총에 좀 보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다들 그냥 도망 나온 거죠.(웃음)
- 장석기** 그런데 각 지부에서 예총에 돈을 낼 그런 형편이 안됐어요, 어느 협회나. 그래서 예총 회장이 술값 많이 나가는 이유가, 매일 저녁 술을 먹는 거야. 그럼 술값은 예총회장이 다 내잖아요. 그러니 집세 낼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 강신웅** 술 먹느라고 집세를 못 낸 거네요.(웃음)
- 장석기** 예총회장은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었고.
- 안영숙** 네, 없었어요. 그리고 각 지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 끝나고 조금 아낀 돈 가지고 뒷풀이라도 조금씩 하는 거지, 예총에 얼마씩이라도 낼 그런 형편이 안 됐었어요.
- 조동관** 어찌 보면 시 지원금 그 예산 갖고도 행사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일부 떼어서 회비를 낼 정도의 여유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초창기다보니 그런데까지 신경 쓸 정도로 (행정 에)깊게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예산으로 행사하는 것만 신경 썼지 무슨 시에 임대료를 내고 이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 그 예산(경상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준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누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겠어요.



강신웅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각자 얼마큼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얘기하시다 보면 점점 생각이 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태동기 모임은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갖고 계시는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음 모임 때 갖고 오시면 디지털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찾아 주시면 우리 예총 25년사에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다음 회동 때까지 기억도 좀 더 더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태동기 이야기 중 빠진 얘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장석기 예를 들어서 제가 93년도에 산본에 왔는데 그 때 막 신도시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예요. 도시가 완전히 반짝반짝하는데 그 사이로 노란 버스가 많이 다니는 거예요. '양대승 무용학원'(웃음). 가는 데마다 양대승 무용학원 버스가 있어요. 그 때는 양대승을 내가 모를 때야. 양대승은 몰랐는데 양대승 무용학원 차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음악협회에 왔더니 그 양대승이 예총의 부회장이예요. 처음 만남에서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양대승(이란 글자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올 때도 태동기니까 양대승을 많이 이야기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신도시에 와서 처음 무용학원을 하면서, 학원도 살려야 하는데, 또 예총도 태동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대승 지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현태 그 분은 군포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이 커요. 내가 (예총회장을)그만두고 한국예총에서 연락이 와서 공로상을 받았어요.

안영숙 네네. (우리도)갔었죠.

박현태 그 때 와서 사진도 찍어 주고 했어요. 그 공로패가 예총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사실 공로도 하나도 없는데 공로상도 받고. 그런 상을 양대승씨가 받아야 하는데 말이지.

장석기 1대 회장을 한 공로로 한국예총에서 상을 받는데, 우리 2대가 같이 가서 아름답게 사진도 찍고 그랬죠.

강신웅 최남희 국장님, 말씀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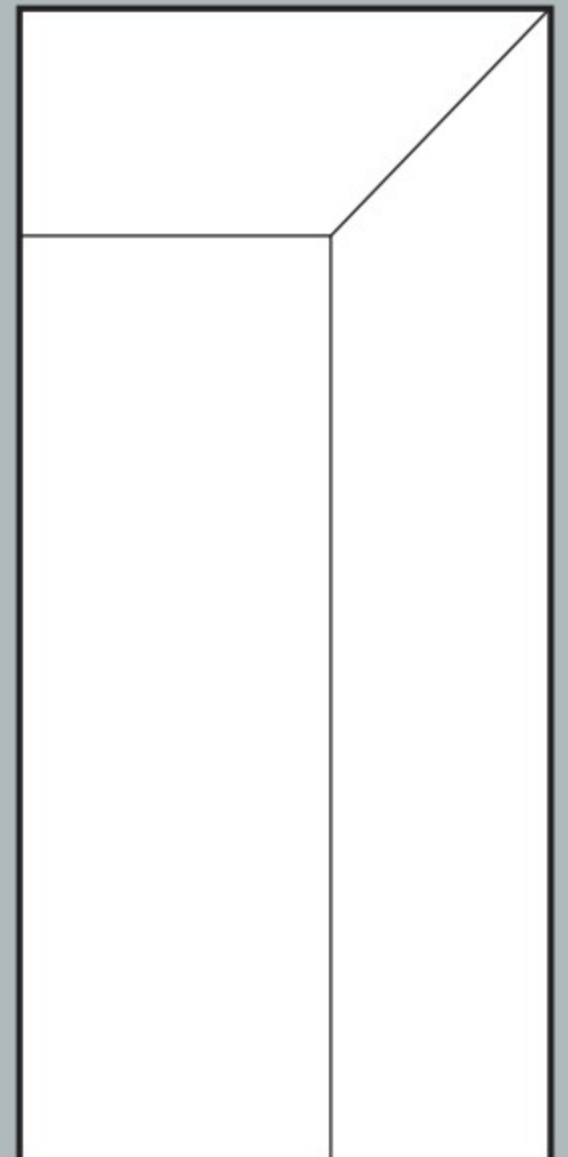
최남희 지금 얘기를 쪽 들어 보니까, 초창기 지부장님들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간기가 제가 근무했던 기간인 것 같구요. 그 중간기

부터는 시와의 파트너십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가면서 축제 때 축제사무국을 설치하면 예산이나 행정은 시에서 담당했지만 프로그램 등은 예총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운영방식이 그때 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요즘 예총의 위상을 보면 완전히 문화예술 분야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쪽 얘기를 들으며 그 흐름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초창기 우리 회장님, 지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신웅 이 초창기 모임은 예총25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남아 있는)자료는 점점 적어집니다. 초창기 자료가 제일 적고, 최근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태동기의 자료 수집을 위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갖고 계신 사진자료, 홍보물 같은 것을 좀 찾아 주시면 디지털 작업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 긴 간담회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자리를 마치고 함께 식사 하시면서 못 다한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예총 25년사

- 164 군포예총이 걸어온 길
- 200 군포예총 연혁
- 218 군포예총 역대회장단
- 220 군포예총 주요사업
- 232 수상현황



01

군포예총이 걸어온 길

초대 ~ 3대
집행부

—

1996. 8 ~
2003. 12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외곽의 팽창에 따른 공장이전 등으로 군포시 당정동에 공업지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산지와 농지로 이루어진 조용한 농촌지역 시흥군 군포읍 일대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74년 경부선 군포역으로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1988년 4호선 금정~안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지역의 발전은 점차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시흥군이 폐지되면서 군포지역이 시로 승격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군포시'라는 고유의 명칭을 얻게 된 이 지역에서 비로소 독립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1990년대 초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산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군포시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대변혁을 이루며 농촌이 아닌 현대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서울을 비롯한 인근 경기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교직자 등 지식인층도 많이 이주해왔다.

하지만 갓 태어난 신생도시 군포에는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예술인들의 모임과 같은 조직적 움직임은 아직 보



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무용, 음악 등 공연 장르의 예술인들이었다. 예술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은 시의 담당부서(문화공보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95년 봄 무렵, 시청의 공보과장이 먼저 지역의 예술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예술 단체의 결성을 독려했다. 제일 처음 문인협회가 움직였는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군포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문인들을 수소문했다. 1995년 7월 박현태 시인을 비롯한 20여명의 문인들이 모여 군포문인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어서 같은 시기에 김영철씨를 중심으로 동호회를 이루어 활동하던 음악인들이 모여 음악협회를 창립하였고,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으로 군포에 와서 활동 중이던 양대승씨가 지역의 무용가들과 함께 무용협회를 창립하였다. 이렇게 3개 지부가 예술인 단체로서의 첫 포문을 열면서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군포에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군포시를 비롯한 별다른 외부의 지원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각 협회별로 자체적인 예술 활동이나 행사들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던 중, 시 공보실장으로부터 이번에는 예총을 한 번 창립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예총이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줄임말로써 중앙조직인 한국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과 각 도지회, 시지부가 있는 전국적인 예술인 단체를 말한다. 한국예총은 국악, 건축,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총 10개의 분야의 연합체로서 각 장르별로도 도지회, 시지부가 있다. 각 시지부의 창립이나 지부장 인준은 도지회를 거쳐 한국예총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게 된다. 예총지부 창립을 위해서는 최소 3개 협회가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군포에서는 이미 문인, 음악, 무용의 3개 협회가 결성되었으니 예총 창립을 위한 필요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1년 전부터 협회 결성을 위해 뜻을 맞춰 온 박현태, 김영철, 양대승 3인이 다시 모여 예총 창립을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여건은 참으로 열악했음에도 무모한 열정 하나로 매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결과, 1996년 8월 13일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박현태 회장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김영철 음악협회 지부장, 양대승 무용협회 지부장을 임명하면서 군포예총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초창기의 여건은 정말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할 여유도 없었고 공공시설이나 예산이 지원된 것도 아니었다. 예총의 창립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시 당국에서도 막상 창립을 하고 나니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홍순창 초대 사무국장이 나서서 서울에 있던 그의 출판기획사를 군포로 옮기고 그 사무실에서 예총 살림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예총의 출발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창립 첫 회에 '군포예총 창립 공연'(제1회 태을예술제)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연히 예산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은 없었다. 시청 강당도 빌리기 어려워 가까스로 엘림복지원 강당을 빌려서 공연을 했고 진행 예산, 광고, 협찬 등을 위해 동분서주 발로 뛰었다.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기까지 회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여건에서도 당시의 집행부는 신명나게 일을 해나갔다. 이렇게 예총 집행부와 회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첫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시 당국과 시민들에게 예총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그동안 고생한 홍순창 사무국장의 천거로 한국화가 김창배씨가 제2대 사무국장을 이어받게 되었다. 97년 3월에는 예총 사무국도 김사무국장의 화실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어서 다른 협회들의 창립이 이어졌다. 97년 미술협회와 국악협회, 98년 연극협회와 연예협회가 차례로 승인을 받아 한 식구가 되면서 총 10개 분야 중 건축, 사진, 영화인협회를 제외하고 7개 협회가 창립되어 군포예총 조직도 점차 탄탄한 기반을 닦게 되었다.

97년 5월 제2회 태을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시 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회장단과 사무국의 노력으로 많은 협찬과

협조를 받아 성대하게 치러냈다. '97 군포 태을예술제'는 팜플렛에 적힌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너무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졌다. 명실상부한 군포의 대표 축제로 만들자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제1차 군포예총 정기총회가 열려 1년간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었고 그 이후 매년 2월말에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1998년 6월에 제3회 태을예술제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시에서 820만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어렵사리 시에 요청을 한 결과였고 충분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시 지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1998년 5월 7일 군포시민회관(현 군포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었다. 당시로서는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전문적인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문화 기반시설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그간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던 군포의 문화예술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예총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시 당국에 수차례 건의한 끝에 새로 개관된 시민회관에 예총 사무국이 등지를 틀게 된 것이다. 5월 21일 현판식을 갖고 현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였는데 처음에는 지금의 반 정도 되는 좁은 규모의 공간을 받았다. 좋은 환경에 정착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책상 두어 개 놓으면 전부일 정도로 워낙 공간이 협소하였다. 다시 한번 시에 간곡히 부탁하고 건의한 끝에 현재와 같은 면적의 사무실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징검다리 놓듯이 한 걸음 한걸음씩 예총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 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 당국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초반에 아무것도 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출발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태을예술제를 진행하며 힘겹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장단과 사무국에서는 계속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창립 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시의 지원은 전무하였다. 자립 기반이 거의 없는 예술인들로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어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시 역시도 나름의 입장과 행정적인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양측의 골이 깊

어가고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예총 내부의 흐름도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분 위기 쇄신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1999년 9월말로 초대 회장단이 사임하고 10월 30일 개최된 제1회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거쳐 제2대 회장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2대 회장에 장석기 음악협회 지부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양대승 무용협회 지부장, 안영숙 연예협회 지부장이 임명되었다. 사무국 인원에도 변화가 생겨 2000년도 중반부터 4대 사무국장 박근식씨와 첫 사무차장 이선복씨가 2대 회장단의 사무국을 담당하였다. 99년 12월 31일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예총이 주관한 밀레니엄 축제가 진행되었다.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축제였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좌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밀레니엄 축제’는 군포시가 처음으로 군포예총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군포예총으로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은 첫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인순이를 비롯한 초대형가수와 경찰대 오케스트라를 초빙하여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을 진행하였고, 군포시청 앞 광장에서 2부 행사를 진



행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하였다.

밀레니엄 축제를 기점으로 2000년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부터는 2대 회장단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29에 개최된 제5회 태을예술제는 군포시청 앞 시민열린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교감을 형성하였으나 그 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며 전국에 불기 시작한 지역축제의 열풍에 따라 군포시에서도 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문화원의 '웃내골문화제', '예총의 태을예술제', 시민연합회의 '한마음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2002년 봄 개최 예정이던 '제2회 수리문화예술제'가 태풍 '루사'로 인해 가을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취소되면서 2003년부터는 '군포시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명이 변경되어 수리문화예술제 역시 1회를 끝으로 폐지된 셈이다. 2004년 12월에는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군포시의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축제를 위해 축제사무국을 설치하여 그 해의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태을예술제의 통합에 따른 사실상의 일몰과 축제 지형도의 이같은 변화는 군포예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예총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2대 회장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예총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간다는 내부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면서 더욱 강력한 예총 집행부를 요구하는 각 협회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갔다. 그리하여 제2대 회장단이 중도에 퇴진을 하게 되면서 2003년 2월, 제3대 회장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3대 회장으로 도의원 출신의 정치인 조치영씨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한철수 미술협회 지부장과 음악협회 이명자씨, 5대 사무국장으로 최남희씨가 임명되었다. 조치영 3대 회장의 재임기간은 전대의 잔여임기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2년간이었다. 조치영 회장과 예총 집행부는 조 회장의 취임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대해 공격적인 포문을 여는 등 강경

노선을 택했다. 그 결과 시 담당부서와 예총은 어느 때보다 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서로간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며 예총으로서도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2대 장석기 회장 재임 마지막 시기부터 시에서 연간 2,100만원의 경상비 보조를 받게 되면서 사무국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 2002년 후반부터는 그 동안 미납되었던 사무실 임대료 등 마이너스 일변도이던 재정상태도 정상적으로 전환되었다. 2003년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의 2002년도 재정보고는 소폭이지만 흑자로 기록되었다. 예총의 살림을 꾸려가기 어렵다는 점을 통감한 각 지부에서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그 동안 밀린 임대료와 행사 미지출분 등을 해결한 결과였다.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각 지부들이 비로소 예총이라는 '큰 집'의 살림에 눈을 돌리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3대 조치영 회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잔여임기를 종료하고 물러나면서 곽상원 회장이 집행부를 이어받아 제4대 예총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부지부장에는 한철수 미술협회 지부장과 배기철 국악협회 지부장이 임명되었고, 최남희 사무국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4대 회장단은 여러모로 예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며 군포예총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었다.





추진 사업

— 군포태을예술제

1996년 8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한 군포예총은 의욕적으로 첫 행사를 마련한다. 바로 '군포예총 창립 기념 공연이다. 3개 협회로 출발한 군포예총이다보니 음악협회와 무용협회의 무대 공연, 그리고 문인협회의 '군포문인 출판 저작물 전시회' 이렇게 두 개의 행사와 함께 군포예총의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소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엘림복지원 강당을 어렵게 빌려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출발은 이처럼 단출했으나 다음해인 1997년 5월 17일에는 '97군포 태을예술제'라는 제목으로 군포예총의 상징적인 예술제로 성장하게 된다. 몇 달 사이에 미술협회와 국악협회가 차례로 창립되며 새 식구로 결합하였고, 예총에 속한 협회는 아니지만 사진연합회와 군포여성서예가협회가 예술제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1회와 마찬가지로 2회 역시 지원금 없이 후원과 협찬만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의 많은 협조로 5월 17일에서 6월 1일까지 16일에 걸쳐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기념식 및 전야제에서는 무용, 음악, 국악협회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서예전과 사진전, 미술협회 창립전 등의 전시 및 문인협회의 초청강연, 산본중심상가의 국악공연 및 폐막 길놀이 행사, 장기자랑대회, 폐막리셉션, 예총 후원의 밤 등 예술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르별로 풍성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능내공원에서 열린 '시민걷기대회'에서는 기념 티셔츠를 무료 배포했는데, 준비한 500장이 모두 동이 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참가자들의 항의로 결국 추가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1998년 6월 13일 막을 올린 제3회 군포 태을예술제 개막식 및 전야제는 군포문화예술회관(당시 군포시민회관)의 개관과 함께 수리홀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또한 이 때부터 태을예술제 제목 앞에 숫자가 붙기 시작하였다. 1996년 창립 기념 공연을 1회로 하여 이어진 군포 태을예술제는 명실공히 군포예총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행히 3회부터는 군포시에서 지원금도 교부되었다. 1999년 5월 7일 ~ 5월 13일에는 제4회 군포 태을예술제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2000년 4월 29일에는 군포시청 앞 시민열린광장에서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제5회 군포 태을예술제 개막식이 열렸다. 5월 7일까지 9일간 개최된 제5회를 끝으로 군포 태을예술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1년부터 군포시에서는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라는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는 군포태을예술제와 옷내골문화제, 한마음축제가 하나로 통합된 축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군포시의 축제는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군포예총은 사무국에 결합하는 형태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갔다.



— 군포예인예술제

예인예술제 역시 처음에는 군포예총 송년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97년 12월 20일 개최된 '97 송년예술제(예술인의 밤)'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개최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어서 2001년 12월 30일에 '군포예총 송년회'가 열렸고, 3대 조치영 회장이 취임한 2002년 12월 26일 '제2회 군포예총 송년예술제'라는 타이틀로 송년 행사가 이어졌다. 1부 의전행사와 2부 축하공연에서는 시낭송, 성악, 단막극 및 가요

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3부는 지부 소개 및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2003년 송년예술제’는 이제껏 간단한 공연 및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된 송년회 형식을 벗어나 처음으로 예술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의미가 깊다. 잃어버린 태을예술제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있던 예총은 전문예술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순수예술제 개최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향점을 담은 것이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03년 군포예인 송년예술제’이다. 현재 매년 진행되고 있는 ‘예인예술제’라는 명칭은 이 해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이름은 최남희 사무국장의 아이디어로서 ‘군포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예술제’라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8일 ‘우리춤 우리가락 한마당’에서는 무용·국악 합동공연, 19일 ‘겨울밤을 위한 연가’에서는 클래식과 시낭송, 뮤지컬 합동 공연이 펼쳐졌고, 20일에는 군포시 최초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시 축제 기획에서 가장 전문가 그룹인 ‘문화기획 다움’의 추미경 기획실장을 초빙하여 군포시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사의 면모를 보더라도 이전의 일회성 송년행사에서 훌쩍 도약하여 예총의 위상을 높이고 군포예총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회를 거듭하며 군포 예인예술제는 개최 시기를 가을로 옮기고 공연 지부 중심의 행사에서, 모든 지부가 다함께 참여하여 시도비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를 같은 시기에 개최함으로써 규모로서나 수준으로서나 군포예총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다.

— 군포시 축제 공동추진

축제성 행사로서 처음으로 군포시와 공동 추진했던 행사는 1999년 12월 31일에 개최된 ‘밀레니엄 축제’였다. 1999년을 보내며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축제는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형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전년도에 개관한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의 수리홀 무대에서 1부 행사가 진행되었고, 시청 앞에서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인순이 등 인기가수의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열광하였고, 추운 날씨에도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시의 행정력과 태을예술제를 진행하며 축적된 군포예총의 기획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첫 대형 행사가 성공리에 종료될 수 있었다.

태을예술제가 5회를 끝으로 2001년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통합되면서 군포예총은 축제추진위원회와 축제사무국에 결합하여 축제추진에 참여하였다. 2002년 축제가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2003년부터는 축제명이 '군포시민대축제'로 다시 변경되었다. 또한 그 부대행사 중의 하나로 철쭉동산 무대를 중심으로 '제1회 철쭉동산축제'가 열렸다. 이후 철쭉동산축제 역시 별도의 명칭이 없어지고 군포시민대축제에 통합되었다. 군포예총은 2003년부터 축제사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무국장, 축제 프로그램 기획, 홍보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 파트를 제외한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4대 집행부

—
2004. 1. ~
2007. 12.

초대 박현태 회장, 2대 장석기 회장, 3대 조치영 회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군포예총의 기틀을 확고히 한 후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제4대 회장단이 출범되었다. 곽상원 예총회장을 필두로 한철수 수석부지부장, 배기철 부지부장, 최남희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예총집행부는 진정한 예술인다움을 지향하며 예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곽상원 회장은 2003년 시와 예총이 공동주최한 군포시민대축제 기획위원장으로서는 시민참여형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2004년 이취임식을 마친 4대 예총집행부는 우선 군포예총 각 지부의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문화예술 워크숍 및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군포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문화육성기금 조성에 힘입어 군포예총의 예산을 몇 배로 증액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4대 집행부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시와 예총간의 파트너십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군포예총은 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문화예술 행사를 점진적으로 예총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문예술인들의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군포의 각 동에서 개최하던 크고 작은 축제 프로그램도 군포예총이 맡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와 공동으로 칠썩축제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숲속푸른음악회, 거리夜 페스티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군포시민의 날 행사 등을 안정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포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군포예총은 시로부터 무한한 신뢰감을 얻게 되었으며 김윤주 군포시장은 모든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활동은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조치영 회장 당시 매년 연말에 진행되어 온 송년예술제를 점차 확대하여 ‘군포 예인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군포예총 전 협회가 참여하는 종합예술제로 발전시켰다. 이는 각 협회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통합하고 동시에 외부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의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4년 ‘정겨운 군포!,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 옛 사진전 ‘추억이 담긴 군포전, 아름다운 군포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는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의 군포의 모습, 정겨운 논과 밭이 있던 군포의 옛 모습을 담아 시민들이 애郷심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회원 단체들의 전문 예술 공연 외에도 ‘어르신 영정 사진 촬영’, ‘군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열려라 군포’ 책자 발간, 아름다운 군포 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통해 전문 예술제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히 ‘열려라 군포’ 책자는 제1부 군포의 역사, 제2부 군포의 문화제, 제3부 군포의 문화예술현황, 제4부 군포를 한눈에 본다로 구성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 대

상 3종으로 발간되어 후대에 군포의 역사 및 군포문화예술을 돌아보는 귀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2014년 12월 11일에는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곽상원 회장의 진행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당시 서강석 군포문화센터 관장, 이재수 군포시 부의장, 이종문 군포문화원 이사, 이종원 문화공보과 과장, 한철수 군포예총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 문화예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동아리 단체로 참여하는 '복지관 예술제', 중고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축제'를 열어 그들만의 예술제가 아닌 진정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또한 같이 공연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지난 후, 그들이 각 지부의 준회원으로 들어와 전문예술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부심도 있어 군포시 전체가 문화예술의 기가 충만한 곳으로 바뀌어 갔다. 전문예술회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군포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아리 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인데, 이는 예총의 저변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뜻이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 단체들이 누리던 일정 부분의 혜택을 나눠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간 교류가 없던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축제나 행



사를 통해 바람직한 화합의 장을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발전의 기반을 굳건하게 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시에서 주도하여 오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들의 총괄에 따른 업무량의 폭주에 따라, 2004년에는 최남희 사무국장 외에 윤현화, 김은영 간사가 합류하면서 사무국이 강화되었고 예총사무실에 공공근로자 두 명이 파견되는 등 본격적인 문화예술 기획과 실행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게 되었다. 창립한 지 10년이 넘은 예총은 그간 역대 회장들과 회원 및 단체들의 노력으로 군포의 문화예술 여러 부문에 탄탄한 뿌리를 내렸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부족한 예산이었다. 곽상원 회장은 취임 초기에 시청과 시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예총의 여건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또한 가능한 지원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동안 시에서 주도하여 오던 축제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군포시의 행사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공연이나 전시 등의 내실을 기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예총이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전임회장들로 구성된 군포예총 고문단(초대 박현태 회장과 2대 장석기 회장, 직전 조치영 회장)을 구성하고 예총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며 김동호 문인협회, 양대승 무용협회, 한철수 미술협회, 배기철 국악협회, 조현건 연극협회, 강신웅 연예예술인협회, 조명선 음악협회 7개 부문의 지부장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대관계로 군포예총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탐색해 나갔다. 그 결과 군포의 곳곳이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전시와 공연 등의 콘텐츠도 점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당시 군포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총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예술회관의 공연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예총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거기에 일종의 지역 쿼터제를 제안하여 예술회관 공연 예산 중 일부를 예총에 지원하도록 이끌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무대’라는 타이틀로 향후 몇 년 간 지속되며 공연 및 전시 분야에서 예총의 협회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총과 시와의 협력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졌다.

군포음악협회에서 주관해 온 수리콩쿠르는 4대 예총 집행부(2005년) 때 예총으로 이관되었다. 1995년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수리콩쿠르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음악콩쿠르로 자리 잡았다. 인재발굴 욕성과 음악인 저변확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 김영철 음악협회 지부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군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회째를 지나오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의 기량도 날로 높아졌다. 수리음악콩쿠르는 전국의 음악도 및 가족들에게 ‘군포시’라는 지명과 ‘군포문화예술회관(구.시민회관)’이란 명칭을 널리 알리는 등 시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였다. 군포 수리음악콩쿠르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지자체인 군포시가 주최함으로써 재정문제를 극복했다는 점이고, 그에 따라 운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음악계 인사들과의 연관성을 배제한 채 투명한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시 단위의 홍보 등 각종 행정력 지원이 있었고, 심사결과의 현장 공개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운영방식이 참가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음악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며 현재 국내 유수의 콩쿨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초창기 행사를 만든 김영철 초대지부장의 뛰어난 기획과, 무엇보다도 2002년 8회째부터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리콩쿠르를 주관해 온 곽상원 군포예총회장의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정평이 나 있는 수리콩쿠르는 채점이 끝나는 즉시 컴퓨터 작업을 통해 합산된 점수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어 입상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표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 많은 콩쿠르가 운영면에서 참가자보다는 주최측의 편의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수리콩쿠르는 접수과정 및 당일의 행사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연습실 마련, 대기시간 단축 등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참가자들을 배려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및 실시간 결과 발표 등은 전국수리음악콩쿠르만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1995년 첫 대회 당시 152명으로 시작된 참가인

원은 피아노·성악·현악 세 분야에 걸쳐 연인원 6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곽상원 회장은 수리콩쿠르 개최 기간에는 일부러 음악관계자를 만나지 않는 등 행보를 분명히 하며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24시간 열어놓고 언제든지 문의가 오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했다.

또 수리음악콩쿠르 성악부문 안에 있던 수리동요제는 2003년에 처음 시작되어 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을 길러주고 음악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발전하였다. 2003년에 제1회 수리동요제가 펼쳐져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곽상원 회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는 음악협회에서 예총주관으로 이관하여 전국수리음악콩쿨의 동요부문을 따로 분리 개최하였으며 상금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전국 음악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와 작곡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정평이 나게 하였다. 그 결과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명실공히 어린이들의 음악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성장하는 대회로 정착되었다.

군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잡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 페스티벌’ 등은 4대 집행부 때 시에서 예총으로



운영이 이관되며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가까이서 손쉽게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야외공연들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한여름 쿨페스티벌’은 군포시와 군포예총 주관으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숲속푸른음악회’가 산본 중심상가 이마트옆 야외무대에서는 ‘거리夜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공연되었다. ‘숲속푸른음악회’는 시원한 숲 그늘이 마련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주로 세미클래식 위주의 서정적인 야외음악회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졌다. 듣기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세미클래식뿐만 아니라 무용, 국악, 시낭송 등도 함께 공연되었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의 사소한 부분까지 살피려고 노력한 것이 성공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지역예술가들을 장르별로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각 회차 마다 차별화된 공연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수소문하여 공연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까지 일일이 점검하면서 공연의 수준을 높이고자 애썼다. 내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비롯하여 숲속에서, 언제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음악회와 전시회 등을 펼쳤다. 문화예술이 시민의 삶 속에 용해되고 향유되며 그 가운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 활동이었다.

흥겹고 신나는 비트가 있는 공연은 주로 철쭉동산 특설무대에서 이루어졌다. 락, 댄스, 통기타, 마당극 등 빠르고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철쭉물빛콘서트’의 주제는 주로 ‘대중적이고 경쾌한 무대’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철쭉동산 특설무대는 처음에는 지금의 돔형식이 아닌 평면적인 무대였으나 광상원 회장이 시에 건의하여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철쭉콘서트는 특설무대에 마련된 화려한 조명시설과 이에 맞춘 빠른 음악으로 찾은 이들로 하여금 절로 흥겹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실무자로서 이런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최남희 사무국장은 ‘편안하고, 가깝고, 평소에 찾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으며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마땅히 없는 시대에 시민들이 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즉 공연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주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즐기는 것이 예술의 본령임을 4대 군포예총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군포예총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 것은 시와 함께 주최한 군포시민대축제이다. 2007년에는 초창기 예총에서 5회까지 진행한 태을예술제의 명맥을 잇고자 ‘군포태을제’로 축제명을 바꾸기도 했다. 광상원 회장은 예총회장이 되기 전부터 축제 기획단 단장 및 축제TF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보다 발전적인 축제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였다. 축제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녹아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며 또한 공연자와 관객이 따로 없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고민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고루 배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축제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군포시의 축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창립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운영되어 오던 군포예총은 초대 및 2대, 3대 집행부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더하여 4대 집행부의 뛰어난 기획력과 행정력 등이 빛을 발하였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대폭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무엇보다

5대
집행부

—
2008. 1. ~
2012. 2.

도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시와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었고 명실공히 군포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가는 대표 예술단체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제11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제5대 강신웅 회장이 선출되었다. 새로운 회장단에는 수석부회장 강희진(미술협회 지부장), 부회장 이용국(연예예술인협회 운영위원), 사무국장 이숙진이 임명되었다. 강신웅 회장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인 예총 운영 및 지역사회 메세나 활성화,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 등 군포예총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5대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창립 13년 만에 처음으로 군포예총 기관지 『Human & Art』를 창간하게 된 일이다. 예총과 각 협회가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며 군포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기에 이르러, 이제 그 성과들을 기관지를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강신웅 회장은 편집위원회를 꾸려 군포예총 기관지 발간의 첫 포문을 열었다.

『Human & Art』라는 제목은 ‘군포예술지’처럼 일반적으로 지역명을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좀 더 색다른 것이 좋겠다는 박현태(군포예총 초대회장) 고문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군포예총의 기관지로서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 2009년 제2집부터 『군포예술』로 제목을 변경하여 현재 제 14집에 이르기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다. 군포예총과 각 협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소개와 그 해 문화예술계의 이슈에 대한 집중조명,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인 예술인 소개 및 문화예술 동아리 소개 등 예총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군포 문화예술의 흐름을 반영한 내용들은 군포의 문화예술 변천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역사의 기록으로 쌓여갔으며, 이번 『군포 25년사』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은 당시 군포에서 점차 영역을 넓히며 활동



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들을 위한 발표 무대 제공을 들 수 있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은 군포시는 각 동사무소, 여성회관 등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강좌를 통해 배출된 수강생들은 점차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예술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다. 함께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특히 공연 분야

의 동아리들은 전문예술인들과 달리 제대로 된 무대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군포예총은 관내 문화강좌 및 학생 동아리 단체들에게 전문 무대에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기획을 마련하였다. 2009년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가 그것이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는 댄스 분야부터 출발했는데, 11개 팀 67명이 참가하여 솜씨를 발휘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2011년 열린 제2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는 국악, 댄스, 대중음악 등 참가부분을 확대하여 18개 팀 102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획은 예술의 영역이 ‘관람하는 예술’에서 ‘직접 참여하는 예술’로 전환되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

1) 강신웅 작사·작곡. 신나 노래 '철쭉 꽃비가 내리면'

바람의 향기 불어와 / 철쭉 꽃비가 내리면 / 잊혀져 가는 추억이 있네 / 빨간 우체통 그곳에 감춰 놓았던 / 그 옛날의 사랑이 그리워지네 / 나 그곳에 가리라 / 철쭉꽃이 곱게 물드는 / 산본가는 전철을 타고 / 옛 사랑의 추억을 찾아서 / 이렇게 그리운 밤에는 / 철쭉 꽃비가 내린다 / 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 나 그곳에 가리라

사랑의 향기 불어와 / 철쭉 꽃비가 내리면 / 잊혀져 가는 추억이 있네 / 낡은 사진첩 그곳에 간직 해놓은 / 그 옛날의 사랑이 그리워지네 / 나 그곳에 가리라 / 철쭉꽃이 곱게 물드는 / 산본가는 전철을 타고 / 옛 사랑의 추억을 찾아서 / 이렇게 그리운 밤에는 / 철쭉 꽃비가 내린다 / 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 나 그곳에 가리라



영한 것으로서, 이후 군포에서 '생활문화'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2010년 군포예총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군포의 노래 제작'을 진행하여 '철쭉 꽃비가 내리면'이라는 곡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는 대중음악 작곡가이며 그룹 '벗님들'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했던 강신웅 회장이 매년 4월이면 군포를 화사하게 물들이는 철쭉동산의 아름다움을 담아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서 군포연예협회 회원이자 가수 신나가 노래를 불렀다. 기존 군포시가에 비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가요풍의 '철쭉 꽃비가 내리면'은 매년 철쭉축제나 행사 때마다 군포의 노래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널리 알려져, 지금은 철쭉 동산에 노래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5대 집행부는 특히 군포의 도시적 특성을 활용하여 크고 작은 거리 공연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중 '일요예술무대-언제나 그 자리에'는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언제나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연주 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서 국악, 타악, 뮤지컬, 클래식, 댄스, 오페라 갈라, 팝페라, 대중음악, 세계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약속된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사람들

의 기억에 확실하게 자리 잡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성원해 주었다. 이처럼 '일요예술무대'는 2017년까지 지속되며 군포시민의 휴일을 음악으로 함께 했다. 그 자신이 음악인이면서 무대 활동을 통해 관객과의 교감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는 강신웅 회장은 시민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작은 음악회가 거리 곳곳에 흘러넘치는 도시 풍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군포 태을제-판타지아 군포'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열렸는데, 전년도에 이어 '군포 태을제'의 명칭을 이으면서 군포시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살아있는 군포시민을 표현하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차 없는 거리와 병행하여 시청 앞 광장을 메인무대로 탁트인 열린 공간을 선보인 이번 축제는 기존의 관행적인 축제개념에서 탈피해 예술적 축제로 거듭나는데 힘을 쏟았다. 군포시청 아트워크의 일환으로 미디어 아트쇼, 설치미술, 깃발전, 판타지 퍼포먼스, 테라피 씨어터 등을 새롭게 선보여 시민들의 오감을 자극시켰다.

당시 노재영 시장은 군포만의 색깔이 있는 축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멋진 축제를 만들어 보자며 군포예총에 제의를 했고, 새로운 축제



의 명칭과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공모도 진행하였다. 새로운 축제의 컨셉으로 '마법축제'가 결정되었고, 군포시는 군포예총과 함께 2008년 10월에 개최된 제20회 군포시민의 날에 '제1회 군포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다.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리수리마법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마법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와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2009년 축제는 명칭이 새롭게 바뀌면서 '제 2회 군포 수리수리마법축제'라는 이름으로 5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 이름으로 열리는 첫 축제임에도 '제 2회'가 된 것은, 전년도인 2008년 시민의날 전야공연에서 개최된 '제1회 군포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을 1회로 하고, 2009년 축제를 제2회로 명명하였기 때문이다. '서프라이즈 군포'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국 최초로 '마법'을 테마로 한 축제로서 수리산과 마술주문 '수리수리'를 결합하여 탄생한 명칭이다. 마법 포토존, 마법 관련 시설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전야제 공연 및 메인 행사인 마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마스코트 '윙키'를 개발하여 축제에 활용했다. 특별히 피겨여왕 '김연아'가 마법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커다란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축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출발한 '수리수리 마법축제'는 아쉽게도 2회로 막을 내리게 된다.

2011년 철쭉동산에서 열린 군포시의 축제는 '제 1회 군포철쭉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2010년 김윤주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철쭉동산은 대거 새 단장에 들어갔다. 군포시의 의뢰로 군포예총은 우리시의 대표 상징물인 '철쭉'과 시정 방향인 '책 읽는 군포'를 연계하여 '군포철쭉대축제'를 기획했다. 즐기는 축제와 참여하는 축제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개막콘서트, 축하퍼레이드, 김연아 거리 명명식, 책 읽는 군포 선포식, 개막선언과 슈퍼콘서트, 불꽃쇼와 폐막공연인 희망드림콘서트 '철쭉꽃비가 내리면'이 진행되었다.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16일간 철쭉동산(도장중학교, 양지공원)과 산본중심상가, 시민체육광장, 시청광장 야외공연장, 반월호수, 문화예술회관 등 군포시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

다. 철쭉과 책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만난 공감형 축제로, 행사가 징검다리 식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역대 축제 중 가장 긴 16일이라는 기간 성대하게 펼쳐진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거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축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열리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각 동에서 신청이 밀려들어 선정이 어려울 정도로 군포예총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5대 집행부부터는 공연내용에 변화를 시도하여, 기존에 세미 클래식 위주로 진행되던 출연진에 유명 가수를 포함시켰다. 강신웅 회장은 연예계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수들을 군포로 초청했다. 시민들은 TV로만 보던 가수나 개그맨들을 동네 앞마당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크게 환호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시화전’, ‘찾아가는 미술전’ 등 타 장르와 결합하여 공연과 야외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변화를 주면서 더욱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다.

해를 거듭하며 규모가 확대되어 온 ‘군포예인예술제’는 그동안 공연, 전시 분야만 진행되다가 2008년 제 6회부터 문인협회 백일장이



결합됨으로써 7개 협회 전체가 참여하게 되어 명실공히 군포예총의 대표 예술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연, 전시, 백일장 등 각 협회의 대표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개최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축제의 숫자가 적은 편인 군포에서 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순수예술 축제를 유지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군포문화예술인워크숍’은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청양 군포청소년수련원 등에서 1박 2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상황과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방안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단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부터 매년 7-8월에 개최되어 온 ‘한여름 쿨 페스티벌’은 수리산 산림욕장, 중심상가 야외무대, 반월호수 등 개최장소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여름철 군포시의 휴식공간에서 테마가 있는 여름 축제로서 시민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이와 같이 제5대 집행부의 대표적인 성과는 먼저, 군포예총 기관지 『군포예술』 발간을 통해 군포문화예술의 현장 및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군포예총의 우수한 활동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군포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예술지 발간의

필요성을 처음 인지하고 시도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포예총을 비롯하여 군포시 문화예술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포시 전역에 크고 작은 야외공연을 활성화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숲속푸른음악회’, ‘한여름 쿨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에 장르간 협업을 시도하고, 유럽의 거리처럼 야외에서 다양한 음악이 흐르는 낭만적인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때로는 잔



잔하게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때로는 삶의 피로를 시원하게 씻어 줌으로써 문화예술이 갖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여 군포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살기 좋은 도시 군포를 만드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

6대 ~ 7대 집행부

—
2012. 2. ~
2020. 2.

2012년 제15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제6대 강희진 회장이 선출되었다. 회장단으로는 수석부회장 조현건(연극협회 지부장), 부회장 이명자(음악협회 지부장)가 임명되었고, 사무국장 이숙진은 유임되었다. 제5대 집행부는 2월 25일 이취임식을 거쳐 군포의 예술을 아우르는 큰 사명을 가지고 예총 역사의 한 획을 긋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

6대 집행부가 가장 중점을 둔 행사는 ‘철쭉대축제’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였다. 예총에 속한 7개 협회(2015년 이후 사진협회가 결성되어 8개 협회가 됨)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6대 집행부의 시작에 이어서 2013년도에 군포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예총에서 주관하던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재단 창립 초기에는 마찰이 많았다. 시와 깊은 신뢰관계 속에 주관해 오던 행사들을 놓게 된 강희진 회장과 집행부가 느낀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철쭉축제이다. 그동안 예총에서 주관해 오던 철쭉대축제는 2014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어 이후 계속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역시 2017년, 2018년 2년간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다 2019년 다시 예총으로 이관되었다.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가까이 다가가 열리는 이 음악회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군포시의 각 동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진행했는데, 그리 크지 않은 예산에 비해 우수한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다. 유명가수나 뛰어난 연주자들이 출연했으며 미술 전시회, 시화전 등을 결들이는 등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 썼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사찰인 수리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 16일 제19차 정기총회를 통해 강희진 회장이 선출되면서

6대에 이어 7대 예총회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수석부회장으로 故 김영애 문인협회 지부장, 부회장에 안재덕 연예협회 부지부장과 유형열 국악협회 지부장이 임명되었고 사무국장 이숙진이 유임되면서 제7대 예총 집행부가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군포 예술인들의 축제인 ‘군포예인예술제’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예인예술제 지원금을 공모를 통하여 지부별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예인예술제는 예총 각 협회의 고유사업을 연합해서 함께 예술제 형식으로 진행해오던 것으로서, 예총과 예술인들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예총과 산하 협회들의 강력한 반발로 2018년 예인예술제는 다시 예총으로 이관되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매년 여름 시원한 야외에서 열리는 ‘한여름 영화제’는 처음에 문화원에서 진행하다가 시에 반납하였는데, 시의 권유에 따라 예총이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원도심, 대야미 등의 문화소외지역을 한 해에 10회 순회하며 야외에서 사전공연과 함께 영화상영을 했다. 예술영화와 고전영화, 가족영화 등을 선정하는 등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들여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 진행하는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끼리끼리 모여앉아 치맥을 하며 즐겁게 영화 감상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행사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게 했다. 문화시설이 많지 않았던 대야미, 송정지구 등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어디든 달려가서 스크린을 펼치곤 했다.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군포시 주최로 예총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전야제 야간 콘서트로서, 철쭉축제 전야제와 같이 초대형 가수 등 최고의 출연진이 다수 출연하는 음악회이다. 이 역시 책정된 예산으로는 출연료 및 무대시설 등 진행이 어려워 Tborad나 경기방송 등 미디어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민체육광장에 수천명이 입장하는 대형 행사이다보니, 시설관리공단, 소방서, 보건소,

인근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행사이다.

예총 집행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일 행사 진행, 뒷마무리 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매진했다. 그 결과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이런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예총이란 이름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노력하였다.

‘문화예술인워크숍’은 매년 인근 유원지나 명소에서 개최해왔는데, 2018년, 2019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었다. 부족한 예산은 강희진 회장의 후원과 참여자의 자부담으로 해서 2018년 베트남, 2019년 북경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양한 공연 성격을 위해 출연진들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한여름쿨페스티벌’은 예총 공연단체, ‘찾아가는 음악회’는 유명 가수 위주로 출연하였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민 아마추어 공연팀으로 구성되는데, 공연팀에서 보내 온 동영상을 보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공연장소는 문화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말에 연간 60회 정도 진행된다.



참여 공연단의 열심과, 시장 상인들의 도움, 시민들의 열띤 호응이 잘 어우러져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일요예술무대’, ‘한여름 쿨페스티벌’, ‘한여름밤 영화산책’ 행사는 개별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이 세가지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여 ‘군포시 여름축제’라는 큰 타이틀의 행사로 전환하였다. 그중 일요예술무대는 일몰되고 ‘쿨 페스티벌’과 ‘영화산책’은 기존대로 유지하며 ‘한여름 야외 마당극’과 ‘한여름 야외음악회’를 신설하여 하나의 큰 축제로 진행하였다. 여름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즐거운 공연을 선물하여 시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 행사가 되었다.

문인협회와 예총 회원들이 주가 되어 시작된 단체 ‘포럼 전통과 미래’에서는 매년 인물을 선정해서 예술상과 문학상을 수상하였는데, 그중 예술상은 예총과 성격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부터 예총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예술상 수상자는 각 단체 지부장들이 심사하여 선정했으며 예인예술제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초중고 동아리, 주민센터 수강생, 문화예술회관 수강생, 청소년 수련관 수강생이 참가하는 ‘동아리경진대회’ 역시 대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참가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대회에서 수상한 동아리는 거리 예술제에 참여시켜 활동의 장을 열어주기도 하였는데, 우리시의 행사이므로 군포 관내의 동아리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에는 재단으로 이관된 예인예술제를 대신하여 ‘한가위 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10월 1일 ~ 9일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그림, 사진, 시가 있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시화·사진·미술 작품 전시회가 야외에서 열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 접촉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산본 로데오 거리에서 국악, 한국무용 및 KBS 악단 연주, 초대가수 공연 및 김유정의 ‘봄봄’, 김동인의 ‘감자’를 무대에 올렸는데, 무용, 국악, 음악과의 콜라보를 통한 현대적 느낌으로 각색한 공연은 한가위를 맞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그동안 문화재단과 시에서 주관하던 제야음악회를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예총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2018년 12월의 마지막 31일 밤 11시부터 산본로데오거리 내 원형광장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기해년 새해 소원기원, 군포윈드오케스트라와 군포남성합창단의 특별 공연 등 지역예술인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서 인기 가수 소찬휘의 뜨거운 무대와 대북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한 해 동안 고생한 모든 시민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2019년 12월 31일, '2020 경자년 맞이 제야 음악회'에는 가수 박미경의 무대와 특히 시립여성합창단, 시민합창단, 군포남성합창단, 한대희 시장 외 시민들이 함께한 연합합창은 참석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019년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 한 해였다. 군포에서는 1919년 3월 31일 군포역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당시 2,000여명의 주민이 1.8km 떨어진 일본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윤도현 밴드의 콘서트와 청소년 100인이 펼치는 플래시몹 공연 등을 펼쳐 역사적 사건을 기념했다.



8대
집행부

—
2020.2. ~
현재

2020년 2월 22일 제23차 정기총회를 통해 8대 강신웅 예총회장이 선출 되었다. 집행부에는 수석부회장 전현하(문인협회 지부장), 부회장 정소영(음악협회 부지부장), 부회장 김은희(무용협회 지부장)가 새롭게 합류하였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이숙진이 유임되었고, 사무차장으로 이상훈(미술협회 지부장)이 임명되면서 8대 회장단과 사무국이 출범하였다. 5대 집행부에 이어 8대 집행부를 이끌게 된 강신웅 회장은 ‘해외 자매도시와의 MOU체결로 상호방문을 통한 예술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지원하며, 8개 협회 단체장상을 수여 하는 등 예술활동의 지경을 확장하고, 지역에서의 예총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군포예총의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맞이했고, 예술 활동 역시 침체 위기에 놓였다. 특히 공연이 주를 이루는 연예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등이 더 소외된 상태였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단체 협력사업 ‘쓰고 그리고 줌인’이 탄생



하였다. 7월에서 10월까지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세 개 지부 120명이 각각 세 명씩 조를 이루어 활동에 들어갔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군포의 각 지역을 선정하여 시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담아 초막골에 전시했다. 참여한 예술인들은 타 지부 예술인들과 작업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작업이 되었다며 뿌듯해했다. 하나의 주제로 세 분야의 예술가가 협업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한 예술 활동에 매우 만족했다. 또한 초막골을 찾은 시민들도 군포의 이면에 내재한 아름다움과 역동성, 전통을 보여주는 전시라며 즐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과 관람하는 시민 모두에게 신선한 경험과 자극을 주었던 시도로서 앞으로 군포예총과 각 협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철쭉동산이나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와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왔던 군포예인예술제 또한 코로나 상황을 맞아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개막식을 비롯하여 전 공연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고, 공연 내용을 녹화하여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IT나 미디어에 취약한 예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대의 산물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다는 점은 코로나 19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 음악회’는 2019년에 이은 3.1 만세운동 기념행사이다. 총성 앞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남민우 광복회 군포시지회 고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독립유공자표창도 있었다. 만세 삼창 후 당시를 연상하는 만세운동 영상은 가슴 울컥하게 만들었다. 가수 정태춘의 초청 공연 및 안중근역에 정중순, 일본관사역 조현건이 출연하여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김은희 무용단의 ‘대한독립 겨레의 외침’ 등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2020년 경기꿈의학교 ‘댄서를 꿈꾸는 아이들’이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잠재적 창의성, 예술성을 찾아내고 향후 학생들의 진로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경기꿈의학교는 2021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 첫 기획이 시작되어 2021년 마무리 된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은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군포예총 창립 25주년을 맞아 군포예술의 역사와 기록 등 자료를 찾아 책으로 엮어냄으로써 군포지역 예술의 발자취를 정리하고자 함이었다. 강신웅 회장은 5대 회장 재임시 군포예총 기관지 『Human & Art』(현 『군포예술』 창간호)의 발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기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 업무의 시의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대체로 20년사, 30년사, 50년사를 발간하지만 25년사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예총사가 발간되지 않은 군포의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군포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예총의 설립에 참여한 원로 예술인들이 점점 연로하다보니 알고 있는 기억이나 자료들이 소실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또한 예총의 살아 있는 역사로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서둘러 군포예총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군포예총의 역사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군포예총사의 발간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 그리고 재단과 협의하여 예산을 승인받고 2021년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위한 실무가 시작되었다.

강신웅 회장을 필두로 이숙진 사무국장, 이상훈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4명의 문인협회 회원이 포함된 편집위원회가 꾸려졌다. 최남희 편집위원장과 박소명, 오은희, 이진옥 편집위원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책의 전체 방향과 필요한 항목, 필진 등을 선정했다. 가장 먼저 예총의 초창기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8개 지부의 초대 회장단, 사무국장단과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좌담회 ‘군포 예총 25년을 돌아보다’를 진행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초창기의 무수한 역사와 에피소드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예총의 창립과 초기 관계자들의 고생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단단한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이 현장의 이야기로 재생되었다. 좌담회의 내용은 『군포예총 25년사』 책자에 그대로 담겨 예총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 밖에 책에 담길 내용으로 축시, 축사와 문화예술계의 이슈를 주제로 한 외부 기고문, 각 협회별 역사를 신기로 했다. 4명의 집필위원이 각각 영역을 나누어 예총 및 8개 협회의 역사와 연혁을 집필하고 사진자료 취합 및 작고 예술인 추모 원고 집필 등을 담당했다. 이렇게 군포예총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군포 문화예술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지난 25년을 기록하고 정리했다. 작업 과정은 무척 어려웠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초창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라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으며, 관계자들도 이사를 가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 등, 자료 수집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각 협회 또한 집행부 인원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원고를 담당할 집필위원들은 직접 당사자 인터뷰, 총회자료, 행사 유인물, 시청 홈페이지, 회원 보유 자료, 인터넷 기록 등을 뒤져가며 자료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한땀 한땀 예총과 각 협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5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 수십 차례의 편집회의, 진행 점검회의, 디자인 회의, 교정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책이 만들어 졌고, 2021년 12월 마침내 뜻 깊은 『군포예총 25년사』가 발간되었다. 강신웅 회장은 이렇듯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군포예총의 핵심적인 2종의 간행물, 『군포예술』과 『군포예총 25년사』의 발간을 주도함으로써 군포 문화예술의 아카이빙 작업에 큰 족적을 남겼다.

군포예총 8개 각 지부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역사 깊은 예술제 ‘군포예인예술제’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택트 공연으로 온라인을 통해 중계되었다. ‘군포시민의날 전야음악회’ 역시 2020년엔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에는 개최가 취소되었다. ‘군포문화예술인워크숍’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엔 개최되지 못하였고 2021년은 저명인사들의 강연과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인들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한여름 밤 영화 산책’ 역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극장 형식으로 3편씩의 영화를 상영 하였는데 예총 사무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문의가 폭주했다.

매년 발간되는 군포예총의 기관지 ‘군포예술’은 2021년도로 제 14호를 발간하며 군포시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종합예술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각 지부의 활동 내용을 전달하며 외부기고를 통해 당시의 문화예술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이슈가 되는 예술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싣는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포예총은 새롭게 기획한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러시아 우수리스크 해외자매도시 MOU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군포연극협회와 우수리스크시의 교류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2021년 내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오가며 공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예술단체 ‘Star-Trap’ 기획이다. 예술대학 재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Star-Trap’을 결성해 각 협회가 결연하여 3-4명씩 그룹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기성 예술인과 활동을 같이하며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군포예총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기회도 부여하면서 향후 미래의 군포예총을 이어갈 신진세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포예총이 창립된 이후 25년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는 몇 회 진행되다가 일몰되어 버린 사업도 있고,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그 속에는 군포예총 집행부와 각 협회 및 회원들의 노력과 땀, 꿈과 희망이 깃들어 있는 세월이 담겨 있으며, 그 자체로 군포예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군포예총의 중요한 예술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속 사업들은 앞으로도 그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 25년 예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많이 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군포예총의 역사가 되었고, 현재의 예총이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군포예총은 명실공히 군포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술인들의 총합체로서 든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제 25년을 정리하며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며 외적으로는 위상을 높이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발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25년을 지나 군포예총 50년사가 새로 쓰여질 미래에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군포예총을 기대해 본다.



02

군포예총 연혁

• 1995

- 04. 박현태, 김영철, 양대승 등 군포예총 설립을 위하여 지부설립 운동 전개
- 04. 28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인준
- 06. 12 (사)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 인준
- 07. 21 (사)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인준

• 1996

- 07. 20 군포예총 창립총회
- 1대 회장단 출범
초대지부장 : 박현태 부지부장 : 김영철, 양대승 사무국장 : 홍순창
- 08. 27 (사)한국예총 군포지부 인준
- 09. 군포예총 사무실 현판식
- 11. 13 ~ 11. 23 군포예총 창립기념 시민예술제 개최
- 출판물 전시회, 수리모음전, 군포시연합사진전_군포시립도서관
- 독무(사군무), 마임(지하철에서), 시낭송, 성악_엘림복지원 대강당

• 1997

- 02. 01 군포예총 사무실 이전_금정동
사무국장 이취임 (이임 홍순창, 취임 김창배)
- 02. 11 (사)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인준
- 05. 17 ~ 06. 01 제2회 군포태을예술제
- 태을제(太乙祭)_수리산 태을봉
- 개막식, 음악제, 무용제, 국악제_엘림복지원
- 사진연합전시회_사진연합회
- 범시민걷기대회_중앙공원~능내공원
- 장기자랑경연대회_능내공원
- 미술협회 창립전_군포시립도서관
- 태을예술제 폐막리셉션_프린스관광호텔
- 05. 24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초청 강연회_군포시립도서관
- 06. 30 (사)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인준
- 11. 15 군포예총 문화기행_포천
- 12. 20 송년예술제(예술인의밤)_군포시청 대강당

● 1998

02. 28 제1차 정기총회
05. 07 ~ 05. 22 군포시민회관 개관 기념공연 및 전시회
- 클래식콘서트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무용인의 밤 _ 시민회관 대공연장
- 군포미술협회 특별전 _ 시민회관 전시실
- 시낭송 _ 시민회관 국제회의장
05. 08 군포예총 이전 / 군포시민회관
06. 13 ~ 06. 21 제3회 군포태을예술제
- 태을산제 _ 수리산 태을봉
- 길놀이축제 _ 시민회관
-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시민회관 대전시장
- 개막식, 사물놀이, 살풀이 _ 시민회관 대공연장
- 축하불꽃쇼 _ 군포시민회관 앞
- 범시민걷기대회 _ 중앙공원 ~ 능안공원
- 장기자랑경연대회 _ 능안공원
- 태을연극제, 태을음악제, 태을무용제, 우리음악축제 _ 군포시민회관 소공연장
- 태을예술제기념 우표전시회 _ 군포우체국
- 우리음악축제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태을시화전 _ 시민회관 전시장
- 시민백일장 _ 능안공원
- 태을예술제 폐막리셉션 _ 시민회관 다목적실
06. 17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초청 강연회 _ 시민회관 시청각실
09. 08 조병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초청 좌담회 _ 시민회관 중회의실
10. 19 ~ 10. 31 제19회 경기종합예술제
경기가요제, 국악의향연, 경기연극제, 경기무용제, 경기사진전, 경기백일장
12. 12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인준

● 1999

02. 제2차 정기총회
05. 07 ~ 05. 13 제4회 군포태을예술제
- 개막식 및 전야제
- 청소년무용제, 음악인의 밤, 군포시민가요제 _ 시민회관 대공연장

- 시낭송대회, 군포연극제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길놀이 및 비나리, 사생대회, 군포시민백일장 _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 제3회 군포미협정기전, 군포사진연합회전 _ 시민회관 전시실
- 폐막식 및 후원의 밤_리셉션홀
- 07. 01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 인준
- 10. 30 제1차 임시총회_시민회관 시청각실
- 제2대 회장단 선출
- 회장: 장석기 부회장: 양대승, 안영숙 사무국장: 김창배
- 12. 31 새천년 맞이 시민소망기원제
- 천년을 보내며, 진도북춤, ZERO의 순간 _ 시민회관 대공연장
- 길놀이, 국악한마당 _ 차 없는 거리
- 타고, 금줄커팅, 풍선띄우기

● 2000

- 01. 20 제3차 정기총회 및 제2대 회장 이,취임식 _ 프라자뷔페
- 2대회장단 출범
- 회장: 장석기 부회장: 양대승, 안영숙 사무국장: 김창배
- 02. 18 정월대보름맞이 군포예술인 척사대회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03. 09 군포예술신문 발행
- 03. 30 군포예술신문 제1호 창간
- 04. 28 ~ 05. 07 제5회 군포태을예술제
- 개막식 및 경축공연 _ 군포시청 열린광장
- 태을산제 _ 수리산 태을봉
- 새봄맞이 작은콘서트, 시민예술마당 _ 군포시청 열린광장
- 가훈써주기 _ 시민회관
- 태을국악제, 근로가요제, 태을청소년무용제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제5회 사진연합전 _ 시민회관 전시실
-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 _ 군포시청 차 없는 거리
- 08. 27 박규원, 허정화 피아노듀오 연주회
- 08. 28 군포예술지 발간
- 09. 23 군포예총 문화기행 _ 해미읍성
- 09. 30 군포예술신문 제2호 발간
- 10. 02 노인의날 기념 실버여가활동경연대회
- 10. 20 군포중학교 동청제 참석 / 정보람, 임섫별, 장학수 상장 수여
- 11. 06 한마음등반대회 참석
- 11. 16 군포예총-군포중학교 자매결연식
- 11. 17 수원대 음대 초청연주회_시민회관 대공연장
- 12. 28 군포예총 송년회

● 2001

- 01. 15 언론인 간담회
- 02. 07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_ 중앙공원
- 03. 30 문예진흥을 위한 워크숍
- 05. 19 ~ 05. 28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공동 주최
 - 가장행렬 _ 금정초등학교 ~ 중앙공원
 - 개막식 및 축하공연 _ 중앙공원 특설무대
 - 제2회 수리연극축제, 시낭송회 _ 시민회관 소공연장
 - 푸른음악회 _ 군포시청 야외무대
 - 청년국악제, 군포장 재연 축제 _ E마트 앞 야외무대
 - 우리마을작은음악회 _ 전지역
 - 시민걸계그림 그리기 _ 중앙공원
 - 지역작가 초대전 _ 시민회관 전시실
- 07. 29 제2차 임시총회
 - 수석부지부장 : 조치영 부지부장 : 한철수
- 09. 군포중학교 후원의 밤
- 10. 27 문화기행
- 12. 01 사회 참 봉사인을 위한 송년예술제
- 12. 02 실버예술제 (실버예술단 창단 기념공연) _ 시민회관
- 12. 30 군포예총 송년회

● 2002

- 02. 02 제5차 정기총회
- 02. 23 제3대회장 이·취임식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회장 : 조치영 수석부회장 : 한철수 부회장 : 이명자
 - 감사 : 박영희, 오해균 사무국장 : 최남희
- 03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 05. 01 군포예총 '후원의 밤'
- 05. 15 군포예총 _ 군포시 문화체육과 워크숍
- 06. 07 군포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 07. 17 하계야유회 _ 당진군 난지도
- 08. 02 한여름밤의 음악회
- 10. 05 ~ 10. 09 제2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공동 주최
 - 가장행렬 _ 중심상가 외곽도로
 - 거리전시회, 거리축제 _ 중심상가 문화의거리
 - 청소년 한마당 축제 _ 중앙공원

- 찾아가는 음악회
- 해설이 있는 영화제 _ 군포시청 야외무대
- 어르신한마당 실버축제
- 10. 군포예총 문화기행
- 12. 26 제2회 군포예총 송년예술제
- 사물놀이, 시낭송, 입춤, 단막극 '생일선물', 경기민요
- 12. 제2회 실버예술제
- 12. 30 경기문학상 시상식 _ 박현태 문협지부장 대상 수상

• 2003

- 03. 22 제6차 정기총회
- 04. 17 ~ 04. 23 제1회 철쭉동산 축제
- 04. 26 군포시민대축제 준비위원회 참가
- 04. 26 ~ 04. 29 2003 군포시민대축제 공동 주최
- 가장행렬 _ 군포시청 야외무대
- 문화예술단체 축하공연 _ 중앙공원
(군포어머니무용단, 경기소리연구회, 누리, 설악, 수리무용단, 비상)
- 미술, 사진, 시화 거리전시전 _ 중심상가
- 국악, 연극 거리축제 _ 중심상가
-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_ 중심상가
- 문화영화제, 실버축제 _ 군포시청 야외무대
- 사진촬영대회
- 04. 군포예총 - 군포시 문화체육과 워크숍
- 08. 군포예총 하계야유회
- 08. 군포예술지 발간
- 11. 27 금요예술무대 '소리와 율동의 만남' 공연
- 12. 18 ~ 12. 19 제1회 군포예인예술제 (군포예인 송년예술제)
- 우리춤 우리가락 한마당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겨울밤을 위한 연가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 20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_ 군포시청 대회의실

• 2004

02. 04 제7차 정기총회
- 4대 회장단 선출
02. 05 제3회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_중앙공원
02. 12 제4대 회장 이.취임식_군포시청 대회의실
- 회장:곽상원 수석부지부장:한철수 부지부장:배기철
감사:홍순창, 김은희 사무국장:최남희
02. 27 군포예총 정책회의
04. 24 ~ 05. 05 2004 군포시민대축제 공동 주최
- 가장행렬
- 거리전시회 (미술, 사진, 시화, 공예)
- 거리축제 (클래식, 국악, 무용, 대중음악, 연극)
-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 실버축제
- 봄밤의 음악회
05. 17 ~ 05. 22 제1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동요제
08. ~ 09. 숲속푸른음악회 및 거리夜페스티벌 (11회)
08. 15 ~ 08. 17 8.15기념 3色 콘서트 '자유 - 희망 - 평화'
11. 18 ~ 11. 19 문화예술인 워크숍
12. 10 ~ 12. 13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
- 추억이 담긴 군포전 & 아름다운 군포전 _ 군포시청 대회의실
- 연극공연 '누가 누구?'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복지관 예술제 '함께하는 이웃'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청소년 음악축제 '우리 세상'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86 특별콘서트 '추억과 낭만속으로'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찾아가는 음악회 BEST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 1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 _ 군포시청 대회의실
12. '열려라 군포' 발간 (아동, 청소년, 성인용 3종)

• 2005

02. 23 제4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_둔대초등학교
02. 26 제8차 정기총회
04. 23 ~ 05. 02 2005 군포시민대축제 공동 주최
- 길놀이 마당 _ 시청앞 광장
- 문화예술공연, 도전! 가요열전 _ 시민체육광장

- 05. 20 - 군포아트페스티벌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05. 23 ~ 05. 27 - 거리전시 _ 중심상가
- 06. 16 - 봄밤의 음악회 _ 철쭉동산
- 07. 15 - 한낮의 콘서트 '꽃속에, 음악속에' _ 철쭉동산
- 08. 13 ~ 09. 24 지역예술무대 '김은희의 춤'
- 10. 09 제11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제11회 전국수리동요대회
- 10. 22 지역예술무대 '달크로즈음악여행'
- 11. 22 ~ 11. 23 지역예술무대 '이오네스코의 수업'
- 12. 16 ~ 12. 18 숲속음악회, 철쭉물빛콘서트 (12회)
- 12. 25 제17회 군포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_ 시민체육공원
- 2005 송년음악회

● 2006

- 01. 24 2006 군포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 02. 08 수리음악콩쿠르 운영위원회
- 02. 11 제5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 02. 25 제9차 정기총회
-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11회)
- 04. 27 ~ 04. 30 2006 군포시민축제 공동 주관
- 05. 22 ~ 05. 28 제12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동요대회
- 06. 01 지역예술무대 'two men'
- 08. 09 숲속푸른음악회 개최 (3회)
- 08. 10 예총인 하계모임
- 08. 12 절쭉 물빛 콘서트 (3회)
- 08. 12 지역예술무대 '군포아트페어'
- 09. 09 지역예술무대 '학의 눈물'
- 09. 15 ~ 10. 28 제4회 군포예인예술제
- 개막공연 뮤지컬 하이라이트 및 시민가요제 (연극,연예)
- 소리와 움직임 (무용,국악)
- 수리합창제 (음악)
- 군포시민백일장 (문인)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10. 13 제18회 군포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_ 시민체육공원
- 11. 29 ~ 11. 30 문화예술인 워크숍 _ 군포시청소년수련원
- 12. 08 지역예술무대 '눈내리는 겨울밤 추억만들기'
- 12. 19 지역예술무대 '아빠와 함께 듣는 캐롤'

● 2007

- 01. 10 2007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 01. 27 제10차 정기총회
- 03. 03 제6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_ 둔대초등학교
- 04. 21 ~ 04. 29 군포 태을제 '수리산의 봄' 주관
 - 군포아트플래그전, 미술체험 _ 중심상가
 - 사랑의 편지쓰기 _ 철쭉동산
 - 청소년 푸른무대, 시민 푸른무대 _ 철쭉동산
 - 봄밤의 음악회 _ 철쭉동산
 - 릴레이 테마공연
 - 산사음악회 _ 수리사
 - 열창 시민가수왕 _ 철쭉동산
- 05. 14 ~ 05. 23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동요대회
- 06.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10회)
- 08. 09 ~ 10. 13 제5회 군포예인예술제
 - 창작단편뮤지컬 축제 '섞임' (연극)
 - 군포시민가요제 (연예)
 - 한가위무용한마당 (무용)
 - 수리합창제 (음악)
 - 한가위 국악한마당 (국악)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군포시민백일장 (문인)
- 08. ~ 09. 한여름쿨페스티벌 '삼색 테마 콘서트', '숲속푸른음악회' (5회)
- 10. 05 제19회 군포시민의날 기념 공연 _ 시민체육공원
- 11. 23 ~ 11. 24 문화예술인 워크숍 _ 군포시청소년수련원

● 2008

- 02. 16 제11차 정기총회 _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
제5대 회장단 선출

03. 22 제5대 회장 취임식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회장: 강신웅 수석부회장: 강희진 부회장: 이용국
감사: 조현건, 김은희 사무국장: 이숙진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9회)
05. 01 ~ 05. 05 군포 태을제 '환타지아 군포' 주관 _ 군포시청 광장
- 군포아트플래그전
- 판타지 콘서트
- 플라워 콘서트
- 사랑의 편지쓰기, 전국시화공모전
- 테라피씨어터
- 시민참여마당 (나의꿈, 나의자랑)
05. 12 ~ 05. 23 제14회 전국수리동요대회
제14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08. 06 ~ 08. 20 삼색 테마 콘서트 (3회)
08. 09 ~ 08. 23 숲속 푸른 음악회 (3회)
10. 10 제20회 군포시민의날 기념공연 및 제1회 군포 수리수리 마법축제 선포식
10. 10 ~ 10. 18 제6회 군포예인예술제
- 창작뮤지컬 '뮤직레시피' (연극)
- 가을속의 우리소리 (국악)
- 군포시민백일장 (문인)
- 젊은창작안무가전 (무용)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군포시민가요제 (연예)
- 수리합창제 (음악)
10. 30 문화예술인 워크숍 _ 청호인재개발원
12. 'Human & Art' (예술지 창간호) 발간

● 2009

01. 31 제12차 정기총회
03.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12회)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미술관
05. 01 ~ 05. 03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주관 _ 군포시청 특설무대
- 마법퍼레이드
- 마법슈퍼콘서트
- 희망드림콘서트
- 마법의상 컨테스트, 마법포토존

- 04. 28 ~ 10. 30 제7회 군포예인예술제
-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국악)
- 웅비하는 수리여! (무용)
- 악극 '사랑장터' (연극)
- 군포시민백일장 (문인)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군포시민가요제 (연예)
- 05. 12 ~ 05. 20 제15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12일간)
- 05. 21 ~ 05. 23 제15회 전국수리동요대회 (3일간)
- 07. 27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 08. 15 한여름 밤의 쿨 음악회
- 09. 05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기념 음악회 주관 _ 반월호수
- 11. 20 문화예술인 워크숍 _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
- 12. 19 제1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 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2. 군포예술 2집 발간

● 2010

- 02. 20 제13차 정기총회
- 05. 01 ~ 05. 09 철쭉동산 축제
- 05. 11 ~ 05. 18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05. 21 ~ 05. 22 제16회 전국수리동요대회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05. 08 태교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06. 12 ~ 07. 31 한여름 쿨 페스티벌 (3회)
- 07. 08 ~ 10. 07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6회)
- 07. 24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08. 19 ~ 12. 20 제8회 군포예인예술제
- 춤과 소리 그리고 음악 (무용,국악)
- 군포시민백일장 (문인)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어머니나라 이야기 여행 (연극)
- 군포시민가요제 (연예)
- 수리합창제 (음악)
- 09. 18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 08 제22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 10. 30 예술문화인 워크숍 _ 허브마을
- 12. 군포예술 3집 발간
- 12. 군포의 노래 제작 '철쭉 꽃비가 내리면'

• 2011

01. 22 군포예총 제14차 정기총회
01. 26 KBS전국노래자랑 군포시편 녹화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04. 20 ~ 10. 01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9회)
04. 30 ~ 05. 15 2011 군포철쭉대축제 주관 _ 철쭉동산, 양지공원
- 슈퍼, 드림콘서트
- 퍼레이드
- 네꿈을 펼쳐라
- 아트플래그전
- 철쭉꽃속에서 음악축제
- 사랑의 편지쓰기
05. 08 ~ 10. 09 일요예술무대 (20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철쭉동산
05. 02 ~ 08. 26 한여름쿨페스티벌 (4회) _ 군포시청야외공연장, 철쭉동산, 초막골, 반월호수
08. 25 ~ 12. 30 제9회 군포예인예술제
- 러시아 예술 여행 (연극)
- 전통의 멋과 울림 (국악)
- 우리춤과 직녀의 사랑 (무용)
- 수리합창제 (음악)
- 군포시민가요제 (연예)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군포백일장 (문인)
10. 07 제23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2. 21 제2회 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2. 군포예술 4집 발간

• 2012

02. 11 제15차 정기총회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제6대 회장단 선출
02. 25 제6대 회장 이,취임식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회장: 강희진 수석부회장: 조현건 부회장: 이명자
감사: 이승훈, 안재덕 사무국장: 이숙진
05. 04 ~ 05. 13 2012 군포철쭉대축제 주관 _ 철쭉동산, 도장중학교, 양지공원, 시청야외공연장
- 퍼레이드
- 슈퍼콘서트 '행복한 동행', '철쭉달빛 콘서트'
- 아트플래그전

	- 철쭉꽃속에 음악속에
	- 네꿈을 펼쳐라
	- 철쭉상상놀이터
05. 05 ~ 09. 13	일요예술무대(17회) _ 중심상가야외무대, 철쭉동산, 공군부대
05. 11 ~ 10. 06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9회)
07. 17 ~ 08. 23	한여름밤영화산책(10회)
08. 11 ~ 09. 23	한여름쿨페스티벌(4회)
08. 24 ~ 11. 20	제10회 군포예인예술제
	- 흥겨운 우리가락 팔도민요 여행기 (국악)
	- 우리춤 우리몸짓 (무용)
	- 군포가요제 (연예)
	- 군포백일장 (문인)
	- 러시아 청소년예술제 (연극)
	- 가을밤의 음악축제 (음악)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10. 05	제24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10	제3회 군포문화예술 동아리 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1. 16	문화예술인워크숍 _ 평택 하나농원
12.	군포예술 5집 발간

● 2013

01. 26	제16차 정기총회
05. 01 ~ 05. 08	2013 군포철쭉대축제 주관 _ 시민체육광장, 철쭉동산, 양지공원
	- 철쭉힐링콘서트, 철쭉달빛콘서트
	- 아트플래그전
	- 철쭉상상놀이터
	- 철쭉꽃 뮤직카페
	- 네꿈을 펼쳐라
	- 철쭉동산 옆 미술관
	- 사랑의 편지쓰기
05. 01 ~ 10. 27	거리로나온예술(40회) _ 철쭉동산, 당정근린공원, 중심상가야외무대
05. 01 ~ 10. 06	일요예술무대(23회) _ 시민체육광장, 중심상가야외무대, 철쭉동산
05. 02 ~ 10. 19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9회)
07. 20 ~ 10. 01	한여름쿨페스티벌(4회)
07. 23 ~ 08. 20	한여름밤영화산책(9회) _ 초막골캠핑장, 철쭉동산

08. 15 ~ 08. 17	제11회 군포예인예술제 - 안톤체홉 '청혼' (연극) - 연희 한마당 '판' (국악) - 정기연주회 (음악) - 예인의 길 (무용) - 군포가요제 (연예) - 군포백일장 (문인)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08. 15	군포예술상 시상식
10. 04	제25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06	문화예술인워크숍 _ 광명동굴
11. 09	제4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1. 13	군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조토론회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2.	군포예술 6집 발간

• 2014

02. 22	제17차 정기총회
06. 20 ~ 11. 15	거리로나온예술(39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05. 17 ~ 11. 01	야외상시음악회(20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시민체육광장
07. 25 ~ 08. 22	한여름밤영화산책(9회) _ 철쭉동산
08. 14 ~ 09. 17	제12회 군포예인예술제 - 군포가요제 (연예)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뮤지컬 환타스틱스 (연극) - 한여름밤의 국악여행 (국악) - 무용축제 한마당 (무용) - 군포백일장 (문인)
08. 14	군포예술상 시상식
08. 23 ~ 10. 26	한여름쿨페스티벌(3회) _ 반월호수, 당정근린공원, 중심상가야외무대
08. 29 ~ 10. 13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6회)
10. 03	제26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19	문화예술인워크숍 _ 박경리문학관
11. 2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인준
11. 23	제5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2.	군포예술 7집 발간

• 2015

02. 28	제18차 정기총회
04. 25 ~ 09. 19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8회)
05. 17 ~ 10. 11	야외상시음악회(21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05. 03	2015 군포철쭉대축제 '군포예술무대' _ 철쭉동산
05. 16 ~ 09. 30	거리로나온예술 (26회) _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군포역광장
07. 26 ~ 08. 15	한여름밤영화산책 (9회) _ 철쭉동산, 금정제일공원, 물놀이장
08. 28 ~ 10. 24	한여름쿨페스티벌 (3회) _ 관모초등학교, 반월호수, 군포1동주민센터
09. 22	문화예술인워크숍 _ 태안군
10. 01	군포예술상 시상식
10. 01 ~ 10. 25	제13회 군포예인예술제 - 수릿골문학제 (문인) - 소통의 울림 (무용, 국악) - 군포가요제 (연예) - 우리가곡을 만나는 운수 좋은 날 (음악, 연극)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제1회 회원전 (사진)
10. 02	제27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15	제6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2.	군포예술 8집 발간

• 2016

01. 16	제19차 정기총회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제7대 회장단 선출
03. 05	제7대 회장 취임식 _ 국제회의장 회장: 강희진 수석부회장: 김영애 부회장: 안재덕, 유형열 감사: 전현하, 한응열 사무국장: 이숙진
05. 04 ~ 09. 30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8회)
04. 30 ~ 05. 01	야외상시음악회 _ 철쭉동산
05. 01	2016 책나라군포철쭉축제 '군포예술무대' _ 철쭉동산
07. 17 ~ 10. 15	책나라군포예술무대 (12회) _ 산본로데오거리, 반월호수, 초막골생태공원
05. 20 ~ 09. 09	거리로나온예술 (26회) _ 산본로데오거리, 군포역광장
06. 04 ~ 06. 11	봄날콘서트 _ 당정근린공원, 반월호수
07. 22 ~ 08. 13	한여름밤영화산책(9회) _ 초막골생태공원, 철쭉동산, 당정근린공원
08. 14 ~ 08. 20	한여름쿨페스티벌 _ 산본로데오거리, 반월호수

08. 11 ~ 09. 09	제14회 군포예인예술제 - 무용축제한마당 (무용) - 정기연주회 (국악) - 정기연주회 (음악) - 군포가요제 (연예) -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미술) - 제2회 회원전 (사진) -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 수릿골문학제 (문인)
08. 11	군포예술상 시상식
10. 07	제28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01	문화예술인워크숍 _ 제주도
11. 20	제7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2. 13	사회복무요원 독서골든벨 _ 군포시청 대회의실
12.	군포예술 9집 발간

• 2017

01. 04	국회의원 간담회_예총사무실
02. 11	2017 정월대보름축제 '비상(飛上)' _ 산본로데오거리
02. 23	제20차 정기총회
04. 22	2017 군포철쭉축제 '군포예술무대' _ 철쭉동산
04. 26	군포예총 산악회 산행 _ 수리산
04. 29 ~ 09. 16	거리로나온예술(24회) _ 철쭉동산, 산본로데오거리, 군포역광장
04. 30 ~ 05. 01	야외상시음악회 _ 철쭉동산
07. 14 ~ 08. 18	한여름밤영화산책(10회) _ 철쭉공원, 반월호수, 금정제일공원
07. 16 ~ 10. 13	한여름야외음악회(7회) _ 시민체육광장, 초막골생태공원, 당정근린공원
09. 09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 _ 반월호수
09. 22	가을속클래식음악회 _ 부곡동
09. 23	한마음축제 _ 군포역 광장
09. 27	2017 어울림축제 _ 산본시장
09. 16 ~ 09. 30	행복한동행음악회 _ 당정근린공원, 산본로데오거리
10. 01 ~ 10. 09	한가위예술제 _ 산본로데오거리, 문화의거리
10. 01	군포예술상 시상식
10. 13	제29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04	제8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1. 23 ~ 11. 26	경기예총 해외문화탐방 참가
12. 07 ~ 12. 08	문화예술인워크숍 _ 강화 석모도
12.	군포예술 10집 발간

• 2018

02. 23	제21차 정기총회
04. 28 ~ 11. 30	거리로나온예술(27회)
02. 23	제20차 정기총회
07. 20 ~ 08. 18	한여름밤영화산책(6회) _ 철쭉동산, 당정근린공원
07. 15 ~ 08. 12	한여름야외음악회(5회) _ 반월호수, 산본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08. 15 ~ 08. 18	제15회 군포예인예술제 - 오작교의 사랑 (무용) - 국악과 함께 하는 여름밤 산책 (국악) - 푸른 숲속 음악회 (음악) - POP&K-POP 연주회 (연예) - 대한민국중심작가전 (미술) - 제4회 회원전 (사진) - 운수 좋은 날 (연극) - 수릿골문학제 (문인)
08. 15	군포예술상 시상식
09. 14 ~ 10. 14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_ 제일공원, 금정역
10. 05	제30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1. 11	제9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1. 28 ~ 12. 02	문화예술인워크숍 _ 베트남 호치민
12. 31	2019 새해소원기원 제야행사 _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12.	군포예술 11집 발간

• 2019

02. 22	제22차 정기총회
03. 30	군포3.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_ 군포역광장
05. 03 ~ 10. 19	거리로나온예술(40회) _ 산본로데오거리, 군포역광장
06. 14 ~ 10. 19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10회)
07. 21 ~ 08. 11	한여름야외음악회(4회) _ 반월호수, 당정근린공원
07. 19 ~ 08. 24	한여름밤영화산책(10회) _ 반월호수, 군포책마을, 철쭉동산
08. 23 ~ 11. 23	경기꿈의학교 운영 _ 수리산 상상마을
08. 30 ~ 09. 06	제16회 군포예인예술제 - 행복한 樂幸 (국악) - 낭만콘서트 (연예) - 정기공연 (무용) - 깃잎전쟁 (연극)

	- 정기연주회 (음악)
	- 찾아가는 미술, 사진, 시화전 (문인, 미술, 사진)
08. 30	군포예술상 시상식
09. 24	군포예총 - 군포문화재단 워크숍 _ 제부도
10. 04	제31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시민체육광장
10. 08	KBS전국노래자랑 '군포시편' 주관 _ 시민체육광장
10. 18	제10회 군포문화예술동아리경진대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0. 26	군포시산사음악회 _ 수리사
12. 01 ~ 12. 03	문화예술인워크숍 _ 북경
12. 13	군포문화예술인 송년의밤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2. 31	2020 시민과 함께하는 제야행사 _ 산본로데오거리
12.	군포예술 12집 발간

● 2020

02. 22	제23차 정기총회 _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제8대 회장단 선출 - 회장: 강신웅 수석부회장: 전현하 부지부장: 정소영, 김은희 감사: 조현건, 황순례 사무국장: 이숙진 사무차장: 이상훈
07. 01 ~ 10. 23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줌인' _ 초막골 생태공원
07. 13 ~ 07. 18	제17회 군포예인예술제 - 굿닥터 (연극) - 정기연주회 (연예) - 정기연주회 (음악) - 정기공연 (무용) - 태평성대 (국악) - 찾아가는 미술, 사진, 시화전 (문인, 미술, 사진)
07. 13	군포예술상 시상식
07. 11 ~ 11. 21	경기꿈의학교 운영 _ 수리산 상상마을
08. 15	군포3.31만세운동 기념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09. 11 ~ 09. 25	한여름밤영화산책 '자동차극장' _ 군포시청 다목적운동장
10. 01 ~ 10. 15	거리로나온예술(6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0. 07	제32회 군포시민의날 기념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10. 25 ~ 11. 08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4회)
12.	군포예술 13집 발간

● 2021

- 02. 02 군포예총25년사 발간 1차 편집회의
- 02. 26 제24차 정기총회 - 서면승인
- 03. 18 군포예총25년사 발간 2차 편집회의
- 04. 06 군포예총25년사 발간 좌담회 _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
- 05. 14 군포예총25년사 발간 3차 편집회의
- 07. 08 군포예총25년사 발간 4차 편집회의
- 08. 21 ~ 08. 28 한여름밤영화산책 '자동차극장' _ 군포시청 다목적운동장
- 09. 26 군포예총25년사 발간 5차 편집회의
- 06. 19
- 09. 11 찾아가는우리마을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8. 04 ~ 08. 17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
 - 연극 '꿀맛' (연극)
 - K-pop & Old-pop & Adult Contemporary (연예)
 - 國樂 행복을 연주하다 (국악)
 - 정기공연 (무용)
 - 정기연주회 (음악)
 - 찾아가는 미술, 사진, 시화전 (문인, 미술, 사진)
- 08. 04 군포예술상 시상식
- 09. 10 ~ 11. 17 거리로나온예술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1. 22 군포시산사음악회 _ 수리사
- 12. 08 ~ 12. 10 문화예술인워크숍 _ 제주도
- 12. 군포예총25년사 발간
- 12. 군포예술 14집 발간

03

군포예총 역대 회장단



1대 박현태님
(1996. 8. ~ 2000. 1.)

부회장
김영철 → 양대승, 전소녀
사무국장
홍순창 → 김창배



2대 장석기님
(2000. 1. ~ 2002. 2.)

부회장
양대승, 안영숙
사무국장
김창배 → 박근식



3대 조치영님
(2002. 2. ~ 2004. 2.)

부회장
한철수, 이명자
사무국장
최남희



4대 광상원님
(2004. 2. ~ 2008. 1.)

부회장
한철수, 배기철
사무국장
최남희



5대 강신웅님
(2008. 1. ~ 2012. 2.)

부회장
강희진, 이용국
사무국장
이숙진

8대 강신웅님
(2020. 2. ~ 현재)

부회장
전현하, 정소영, 김은희
사무국장
이숙진



6대 강희진님
(2002. 2. ~ 2004. 2.)

부회장
조현건, 이명자
사무국장
이숙진

7대 강희진님
(2016. 2. ~ 2020. 2.)

부회장
김영애, 안재덕, 유형열
사무국장
이숙진 → 김동균 → 이숙진

04

군포예총 주요사업

군포예인예술제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로 문화 예술계의 공연이 전무한 가운데 예술계 또한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예술 활동에도 비대면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포예총에서 개최하는 ‘군포예인예술제’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코로나, 예술로 어루만지다’라는 타이틀에 이어, 2021년에는 예술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8월 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막식 및 연극협회의 ‘꿀맛’을 무대에 올렸다.



개막식에서 6, 7대 군포예총을 이끌어 간 강희진 예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군포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이길호 시의원, 김성록 농협중앙회 겸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한 사진협회 2대 지부장을 지낸 성주희 작가가 군포예술상을 수상했다. 8월 5일에 개최된 연예예술인협회의 정기연주회, 8월 6일 국악협회의 ‘國樂, 행복을 노래하다’, 8월 7일 토요일에는 무용협회의 정기공연 ‘나의 땅’을 선보였으며 8월 6일 음악협회 황일화 지부장이 지휘하는 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정기연주회의 막을 열었다. 비대면 공연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초막골 생태공원에서는 문인, 미술, 사진작가협회의 찾아가는 시화, 미술, 사진전이 열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

다. 또한 문인협회에서는 일곱번째 사화집 『오늘도 격리중입니다』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공연 및 전시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 채널에 올려졌다.

해마다 펼쳐지는 군포예인예술제는 군포예총이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전문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 개최하는 순수예술축제이다. 깊이 있고 품격 높은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군포예총의 8개 협회(문인, 국악, 무용, 미술, 음악, 연극, 연예, 사진)의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예인예술제'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2003년 12월에 개최된 '군포예인 송년예술제'부터였다. 기존에 연말 송년행사로서 간단한 공연 및 여흥 등 예총 화합의 밤 형식으로 진행되던 '송년예술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처음으로 예술제의 형식을 갖춰 3일간 개최되었는데, '군포 예술인들의 예술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립 초기 '태을예술제'를 계승하는 순수 예술제에 대한 열망을 담아 시작된 '군포예인 송년예술제'는 2004년부터 명칭이 '군포예인예술제'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이 명칭으로 정착되어 2021년에 18회째에 이르고 있다.

2003년 '군포예인 송년예술제'에서는 군포시 최초로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시 문화기획을 선





도하던 '다음기획'의 추미경 연구원을 초청하여 군포시 축제와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 후로 예술인 워크숍은 별도로 분리되어 현재는 12월 중에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예인 예술제에서는 공연 외에도 군포사진전인 '추억이 담긴 군포전' '아름다운 군포전' 및 군포바로알기 책자 '열려라 군포!'(3종) 발간, '어르신영정사진 촬영' 등 의미있는 부대행사들이 함께 개최되면서 풍성함을 더했다.



초창기에는 공연 장르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2~3개 협회가 합동으로 하나의 무대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2007년에 미술협회 정기전과 2008년에는 문인협회 백일장이 결합되면서 공연만이 아닌 종합예술제로 발전하였다. 군포예총 창립 10주년을 맞은 2006년부터는 개최시기도 연말이 아닌 9월이 되면서 송년행사를 벗어나 별도의 예술제로 자리 잡았다. 개최장소 역시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 공연이나 전시 위주로 진행되다가 점차 예술향유자인 시민들과 좀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야외무대, 철쭉동산, 시민체육광장, 중앙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협회의 합류로 현재 8개 지부로 늘어난 군포예총은 예인예술제 기간에 맞춰 정기연주회 및 전시회를 준비하고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은 해마다 펼쳐지는 군포예총의 예인예술제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민들이 있어, 그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부에서는 예술의 흥취가 한껏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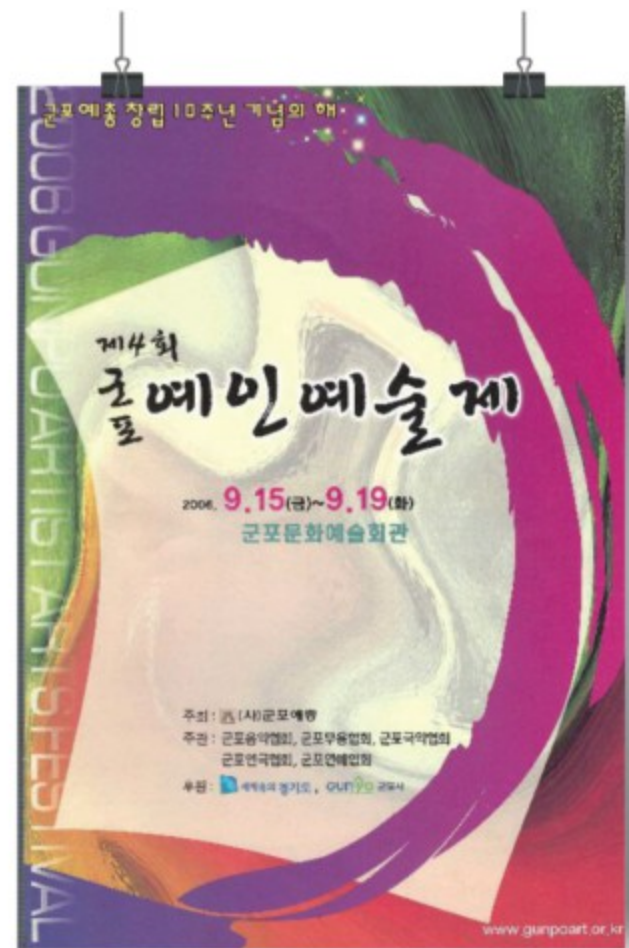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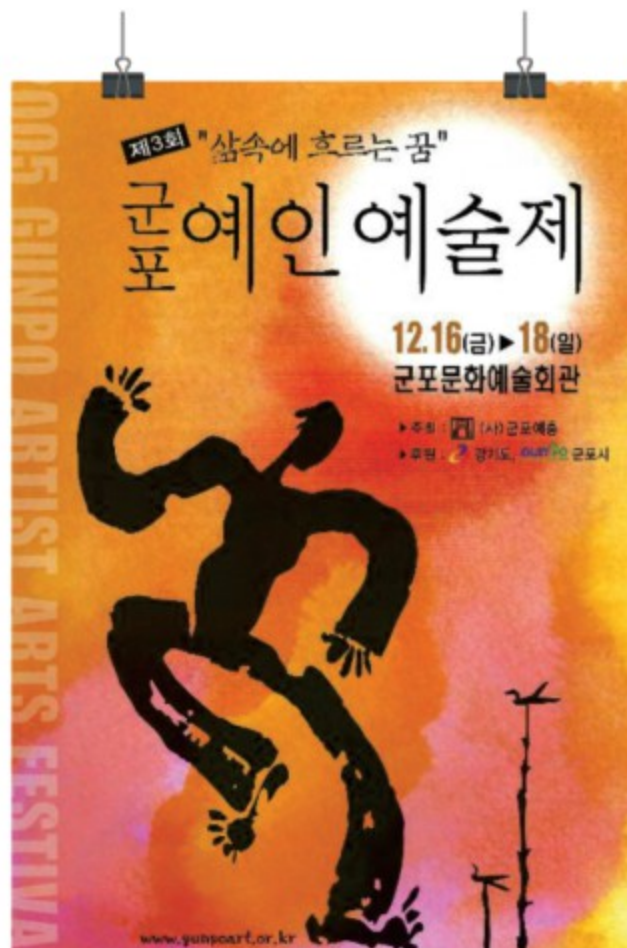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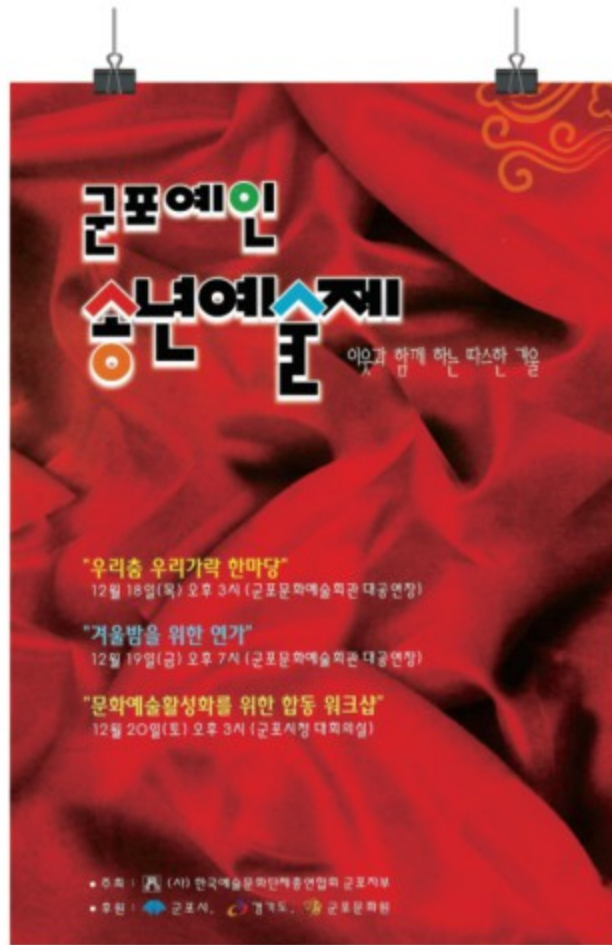
껴지는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며 각 협회 소속 예술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새롭고 입체적인 공연 및 전시를 위해 각 장르를 콜라보 하는 등 현대의 트렌드인 융합예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국악과 무용의 만남이나 연극과 무용, 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 음악협회의 클래식과 연예예술인협회의 대중가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같은 주제로 펼쳐지는 문학, 미술, 사진의 예술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서로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참여 예술인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들에게도 예술을 감상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 주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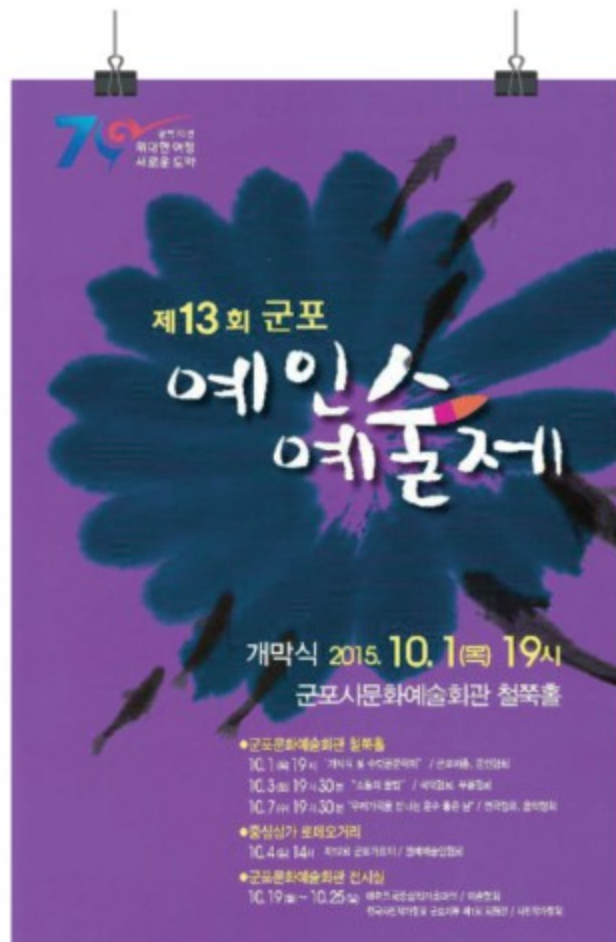
군포예술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군포예인예술제’는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공연과 문화의거리, 초막골 생태공원 등 야외 전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의 삶을 예술로써 위로하려는 노력을 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삶은 이어지고, 그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써 예술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 또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러한 탐색의 결과가 앞으로 이어지는 ‘군포예인예술제’에 고스란히 담기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술은 혼자 하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포예인예술제’가 예술가들의 치열한 창작의식이 시민들과 소통하여 탄생한 행복한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군포예인예술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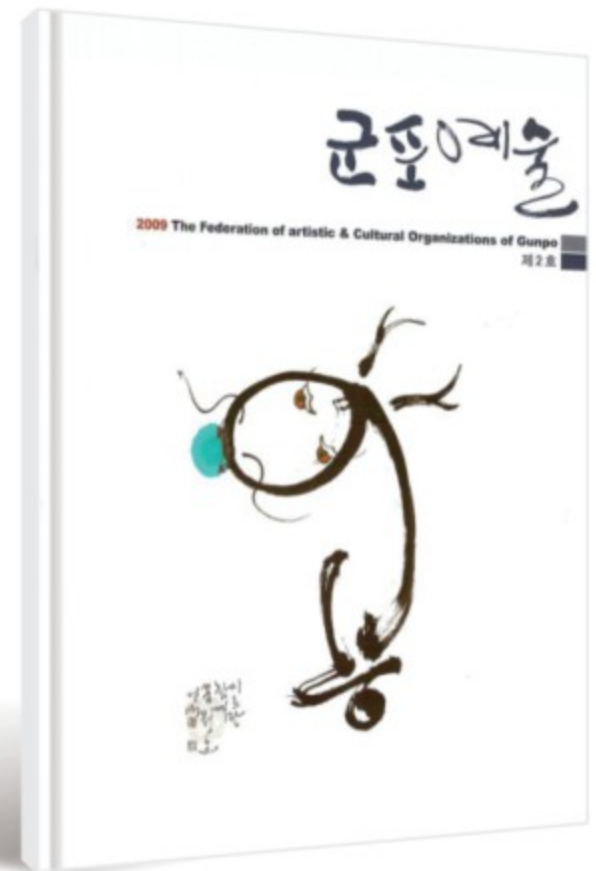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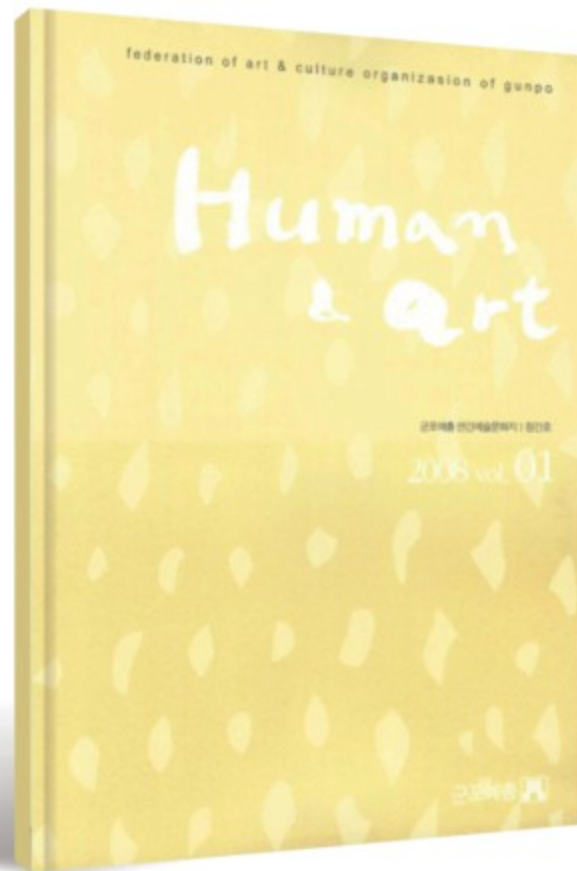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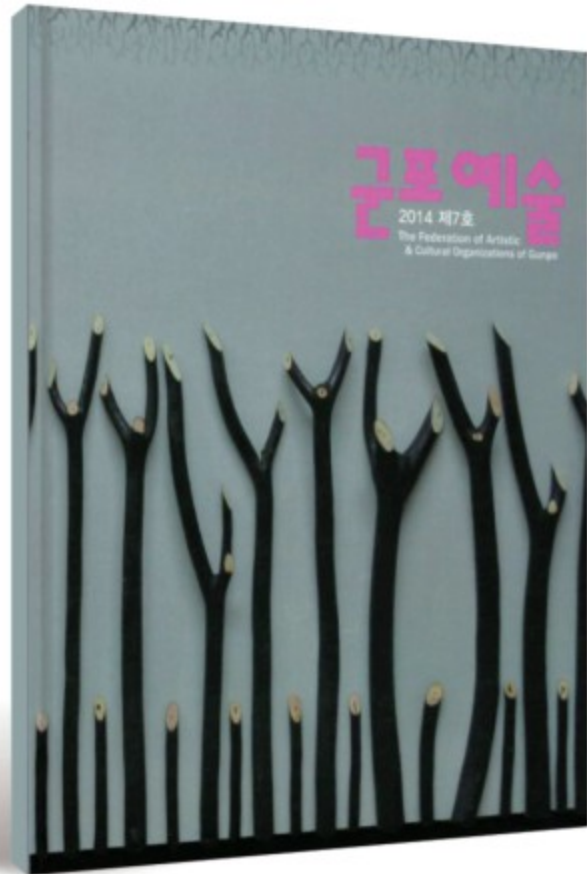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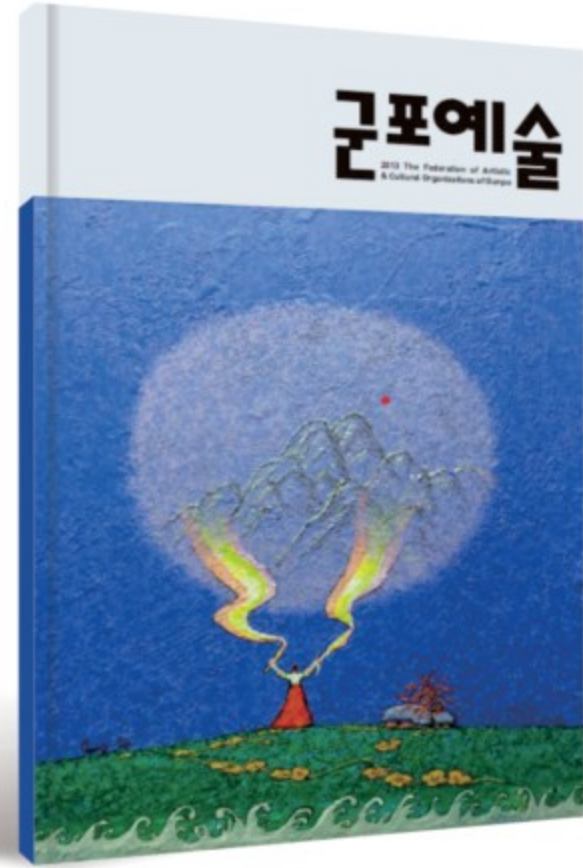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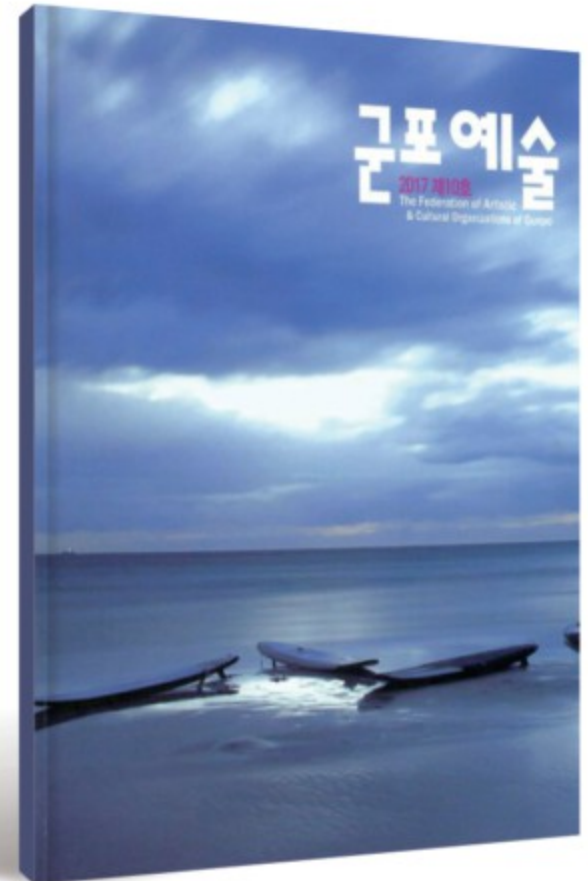




군포예술지









05 수상현황

군포예술상 수상자



제4회 장석기
2대 예총회장



제5회 양대승
무용협회 지부장



제6회 엄창용
국악협회 부지부장



제7회 강신웅
5대 예총회장



제8회 조현건
연극협회 지부장



제9회 박현태
초대 예총회장



제10회 이명자
음악협회 지부장



제11회 이영미
국악협회 지부장



제12회 이상훈
미술협회 지부장



제13회 강희진
6대, 7대 예총회장



제14회 성주희
2대 사진작가협회
지부장

군포시민대상 수상자(예술부문)



제4회(1997년)
김창배
미술



제5회(1999년)
양대승
무용



제6회(2000년)
박현태
문인



제7회(2001년)
류봉현
미술



제8회(2002년)
조현건
연극



제10회(2004년)
한철수
미술



제11회(2005년)
곽상원
음악



제14회(2008년)
조병무
문인



제17회(2011년)
김동호
문인



제18회(2012년)
강신웅
연예



제20회(2014년)
장석기
음악



제22회(2016년)
강희진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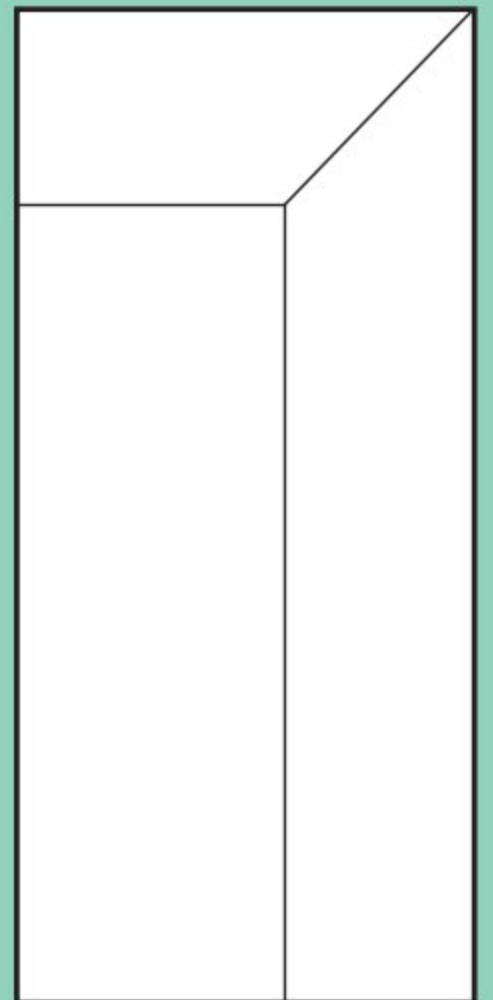
경기에술상 및 공로상 수상자

제 9 회	(1997)	공로상	김영철	군포음악협회
제10회	(1998)	공로상	오봉근	군포음악협회
제11회	(1999)	예술대상	양대승	군포무용협회
		공로상	김용하	군포문인협회
제12회	(2000)	공로상	안영숙	군포연예예술인협회
제14회	(2002)	공로상	장석기	군포음악협회
제18회	(2006)	공로상	조현건	군포연극협회
제20회	(2008)	공로상	안재덕	군포연예예술인협회
제21회	(2009)	공로상(경기도지사상)	강희진	군포미술협회
제24회	(2012)	예술대상	강신웅	군포연예예술인협회
		공로상(경기도지사상)	김광철	연예예술인협회 경기도지회(군포시)
		공로상(경기에총회장상)	이명자	군포음악협회
제25회	(2013)	공로상(경기도지사상)	조현건	군포연극협회
제27회	(2015)	예술대상	장석기	군포음악협회
		예술대상	강신웅	군포연예예술인협회
제29회	(2017)	공로상(경기도의회 의장상)	이영미	군포국악협회
제30회	(2018)	공로상(경기도의회 의장상)	이상훈	군포미술협회
제33회	(2021)	공로상(경기도지사상)	신지균	군포연예예술인협회
		공로상(경기도의회 의장상)	안재덕	군포연예예술인협회
		특별공로상	유형열	군포국악협회

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

- 236 군포문인협회가 걸어온 길
- 247 군포문인협회 연혁
- 256 역대 지부장단
- 257 회원 명단
- 258 군포문인협회 화보

01



군포문인협회가 걸어온 길

군포가 시로 승격된 이후 점차 도시 기반 시설이 생기고 90년대 초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문화적인 요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새로이 전입해 온 계층 중에는 지식인층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문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군포문인협회의 태동(초대 집행부)

수려한 풍광에 이끌려 수리산 자락에 입주하여 살던 문인들은 아직은 이렇다 할 모임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예술가들의 특성상 모여서 단체를 꾸리거나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을 불러 모아 첫 물꼬를 튼 것은 당시의 군포시 문화공보실장이었다. 1995년 봄부터 시청의 공보실장이 지역의 문인들을 수소문하여 모임을 권유하고 문인 명단과 주소록을 만들어 문인들의 모임을 주선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회의 장소 제공과 식사 대접까지 해 주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문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군포 문인협회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김상일, 박현태, 임헌영 등이 중심이 되어 군포문인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박현태 시인을 추대하였다. 그 자리에는 당시 문협 경기도지회장이던 김대규 시인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으며, 곧이어 7월에 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로 인준을 받아 사무실도 마련하게 되었다. 그때 참여한 문인은 20여 명이 넘는데 시인으로 이경희 홍사안, 김용하, 권태진, 김용진, 이옥분, 염화출, 전현하, 권영기, 홍순창, 김명원, 김순덕 등과 소설가로 박순녀, 고경숙, 이진호, 정필완, 평론가 및 수필가로 윤모춘, 김우종, 신동한, 임헌영, 김상일, 아동문학가로 이영옥, 정진숙 등이다. 대부분 중앙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린 문인들이어서 군포문인협회는 시작부터 든든한 진용을 갖추고 출발하게 되었다.





군포문협은 창립 첫 해부터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문학의 각 분야를 망라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열었는데, 전문 문인들이 운영하는 글쓰기 수업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시립도서관과 동사무소에서 진행된 제1차 글쓰기 교실은 1995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6개월을 한 기수로 운영되었다. 이어서 10월에 '제1회 군포문협 시화전'을 개최하였는데, 글쓰기 교실 어린이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이루어 냈다. 10월 28일 능내공원에서 '제1회 군포시민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일반인 500여명이 참석하여 문화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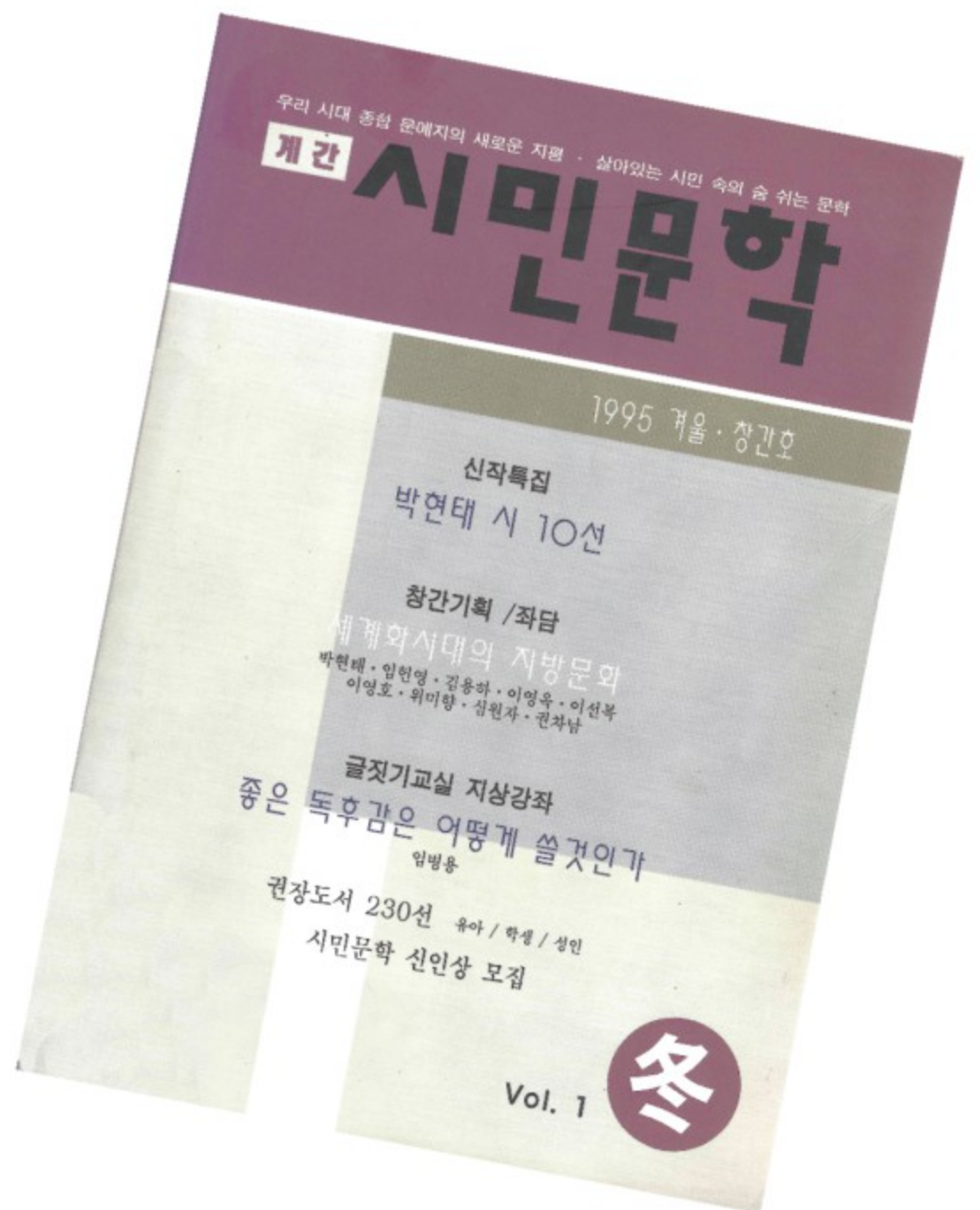
이어서 12월에는 군포문협 기관지인 『시민문학』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문학의 순기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시작된 『시민문학』은 제목에도 다른 단체처럼 지역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역성을 뛰어 넘어 모든 독자를 아우르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창간호 표지에 계절을 알리는 '冬'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시민문학은 계간지로 발간되었다. 2020년 현재 제28호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민문학』은 태생부터 타 문협 기관지와 다른 정신을 담고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군포문협만의 고유 브랜드로 그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창립된 지 불과 5개월여의 기간에 현재 군포문협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문학 외에도 회원 동

정과 협회 사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타블로이드판 군포문협회보가 매월 발간되었다. 『시민문학』이 순수 문예지의 성격을 띤 문학잡지라면, 군포문협회보는 좀 더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 역할을 했다. 당시 문협회보에 실린 글들의 면면을 보면, 문협회원들의 작품은 물론, 어린이 글쓰기 교실 회원들의 작품, 학부모들의 소회가 담긴 수필, 칼럼, 회원 신간 소개, 문협행사 안내, 백일장 수상자 명단, 행사 화보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이 실려 있어 읽는 재미와 함께 문협과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창립 2년째인 1996년에는 더욱 활발한 사업들이 펼쳐졌다. 어린이 글쓰기 교실 회원들과 함께 충북 괴산군 보림원으로 겨울 문학캠프를 다녀왔는데, 즐거운 한때의 모습이 문협회보에 화보로 남아있다. 2월에는 산본도서관으로 문협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강옥 사무간사가 상근하며 문협 사무에 있어서 체계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나갔다. 어린이 글쓰기 교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에게는 글쓰기 수업 외에도 문협회보에 글을 실어주고 문학기행, 어린이 시낭송회, 문집발간 등 다양한 경로로 작품 발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원들과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재미있는 일화로는 제2회 군포 시민백일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초등부 1천원, 중고등부 2천원, 일반부 3천원의 접수비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주최측에서도 참가 기념품, 원고지, 필기구를 제공하고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전달하며 마치 마을 잔치처럼 들썩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초창기에 초등부 장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나중에 전국 단위 청소년 문학상을 휩쓰는 성과를 얻기도 하는 등, 시의 시민참여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를 이루며 지역의 전문 예술행사로 자리 잡아 갔다.

한편 1996년부터 군포시립도서관과 공동 주관으로 여성 문학 강좌가 시작되었다. 3월 5일 당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에서 첫 강좌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산본도서관에서도 강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박현태 지부장과 이옥분 회원이 담임을 맡고 회원들이 돌아



가면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후 당동 도서관 강좌는 '태을여성문학회'라는 이름으로 김용하 시인이 이끌어 갔고, 산본도서관 문학강좌는 '수리샘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임현영 평론가와 김명원 시인이 이끌어 갔다. 특히 수리샘문학회는 전문 문학강좌로서 시와 수필 창작을 지도하고 합평까지 하면서 회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갔다. 문학회 회원들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등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고, 등단 후 군포문협의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협회의 동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수리샘 문학회는 이처럼 문협주관의 문학강좌로 시작되어 현재는 독립된 문학강좌로 진행되고 있다.

1996년 한해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백일장, 시민문학 및 어린이 문집 발간, 시화전, 여성과 어린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문학기행, 초청강연, 문학세미나 등, 문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사들을 진행하며 기염을 토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예산 지원이나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쓰기 교실 등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문협 운영예산을 충당해 갔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과 헌신으로 군포문협의 기반을 든든히 다진 창립 당시의 회원들에게 현재의 군포문협은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시민문학 발간과 백일장 개최를 연 2회씩 진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시민문학』 여름·겨울호와 '글쓰기 교실 어린이 문집',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민문원-새천년 첫돌'을 포함 총 네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회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1998년부터는 박소명 시인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문협의 살림을 담당하였다. 기존의 문협 고유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 1999년에 태을예술제 거리 시화전과 초중고생 시낭송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에는 제20회 경기백일장을 군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해에는 새천년맞이 특별 문집 『새천년 문원』을 발간하며 총 4권의 책 발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던 『시민문학』이 점차 지원이 줄어들면서 연 1회 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민간에서는 지역서점인 '자유문고'의 최학규 사장이 시민문학에 광고를 실으며 10년 넘게 지원을 해주었고, 백일장에서 상품권이나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오랫동안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홍순창 회원은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문학의 출판 인쇄를 담당하며 지역 문예지답지 않은(?) 세련된 감각의 편집 디자인으로 시민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2002년에는 박소명 사무국장에 이어 당시 군포예총 사무국장이던 최남희 시인이 문협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백일장과 시민문학 발간, 시화전 등의 고유사업을 이어나갔다.



1 2대 ~ 4대 집행부

2004년 군포문협은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문협의 초대지부장으로 초창기 어려운 시기를 헤쳐 오며 문협의 태동과 함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박현태 지부장이 짐을 내려 놓고, 그 뒤를 이어 제2대 지부장으로 김동호 시인이 선출된 것이다. 부지부장에는 채찬석 수필가, 염화출, 박찬일 시인이 임명되었고, 사무국장은 최남희 시인이 유임되었다. 김동호 회장은 세 명의 부지부장들에게 직능별로 문협의 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직능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시화전을 담당하던 염화출 시인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시화전을 개최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군포예총이 시당국과 함께 군포시민대축제를 공동 주최 하면서 축제에서 각 협회의 참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6년에 시작된 ‘사랑의 편지쓰기’ 행사가 그 예이다. 점차 손편지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축제기간 중 시민들에게 편지지를 나누어주고 손편지를 써서 제출하면 문협에서 우표를 붙여 발송해주는 행사였다. 문협의 특성에 맞는 감성적인 행사로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2005년 최남희 시인에 이어 이숙경 시인이 사무국장 직무를 맡게 되었다.

2006년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제3대 조병무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부지부장에 염화출 시인과 사무국장에 이숙경 시인이 유임되었다. 2007년부터는 이형철 시인이 사무국장으로 선임되면서 문협은 더욱 활발한 행보를 보였는데 강화 석모도 문학기행, 수리산 등반, 연꽃축제 참여, 영월 김삿갓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등 내외부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7년에는 문협에서 또 다른 모임이 생겨났는데 김동호 시인과 장병연 시인이 주축이 된 ‘수리시낭송회’가 그것이다. 군포문화센터에서 매월 진행되는 낭송의 즐거움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문협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초청하여 자작시를 낭송하는 모임이다. 장병연 시인이 간사로 몇 년간 진행하다가 양윤정 회원이 간사직을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이후 최남희 시인이 수리시낭송회 회장직을 맡아 모임을 이어나갔고, 원순옥 시인, 이진옥 시인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70여회의 시낭송회를 개최하면서 문협의 색다른 모임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 시작은 문협 내의 독자적인 모임이었으나 지금은 문협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4대 김용하 지부장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부지부장에 김근당, 민선숙 시인이 선임되었고 이형철 사무국장이 유임되었다. 이 해에는 군포시중앙도서관이 멋지게 개관하게 되었는데, 문인협회는 특별 시화전을 개최하면서 개관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을 취지로 전국 규모의 시화 공모전을 처음으로 열기도 했다. 17회를 맞이한 백일장은 이번 해부터 전국대회로 운영하면서 영역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으며, 군포예인예술제의 이름으로 다른 협회의 사업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군포예인예술제는 군포예총에서 진행하는 송년예술제에서 비롯된 행사로서, 처음에는 공연지부만 참여하였으나 점차 문인, 미술, 연예협회가 동참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동안 각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시도비 지원사업을 같은 시기에 진행함으로써 마땅한 예술제가 없는 군포에서 유일한 순수 예술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부터 군포시에 국립 문학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문협의 원로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시에 그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하였고 준비위원과 각종 단체 대표들 33인이 힘을 모아 시는 물론, 경기도와 정부단체를 향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2009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제2회 전통문화전국작품공모전이 개최되었고, 예총의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현장에서 시화전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화전’을 통해 시민 속으로 문학이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해부터는 ‘제1회 전국시낭송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군포문협의 지속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낭송에 대한 열기가 한참 뜨거웠는데, 일반 시낭송대회의 경우 시 정신을 잘 알지 못한 채 낭송하는 기교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포문협에서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진심을 담은 진중한 울림이 있는 참가자들을 선정하는 등 문학의 정신이 담긴 시낭송을 장려하고자 노력하였다.



1 5대 ~ 6대 집행부

2010년 정기총회에서는 일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그간 원로문인들을 주축으로 운영진이 꾸려졌는데, 처음으로 50세가 채 안된 젊은(?) 지부장이 선출된 것이다. 제5대 홍순창 지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부지부장으로 권영기 시인이 선임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1년 박건자 시인이 또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사무국장에는 김영애 시인이 선임되었다. 이 해의 문협 고유사업으

로는 ‘제19회 군포시민 백일장’, 『시민문학』 18호 발간, ‘가을시화전’, ‘제2회 전국시낭송대회’가 추진되었고, 비정규 사업으로 수리시낭송회, 찾아가는 시화전 등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외부 위탁 행사인 ‘제3회 전통문화백일장’과 ‘전통시화작품공모전’이 진행되었다.

또한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에 문예창작실이 개소되면서 군포문협 전용의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군포문협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군포안양 문인 등반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군포문협과 안양문협은 초창기부터 유대가 깊었고, 박현태 시인과 안양의 김대규 시인의 친분을 비롯해 홍순창 지부장 역시도 안양 출신으로 젊은 시절 안양에서 문학의 뿌리를 키운 탓에 오래된 친분관계가 많았다. 이런 연고로 이웃한 도시의 문인들끼리 친목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봄, 가을로 등반대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2013년까지 이어지며 문학으로 우정을 나누었고, 나중에는 두 단체가 송년회를 함께 진행하기까지 교류가 확대되었다. 2011년에 열린 제20회 백일장은 명칭에서 과감하게 ‘시민’이란 글자를 빼고 ‘군포백일장’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2012년에 정기총회를 통해 제5대 최남희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제껏 군포문협 지부장의 임원개선은 군포문협 정관에 따라 선출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전통이 이번 총회부터 바뀌게 된 것이다. 이 해 처음으로 회원들의 표결에 의해 지부장이 선출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부지부장에는 이형철 시인과 차영순 시인이, 사무국장에는 김수경 시인이 선임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철쭉축제 ‘사랑의 편지쓰기’, ‘수리시낭송회’, ‘제21회 군포시민백일장’, ‘가을시화전’, 『시민문학』 20호 발간 등의 사업이 펼쳐졌다. 2013년 최남희 지부장이 그 해에 설립된 군포문화재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부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5월에 이형철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이 되어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창립된 지 18년째를 맞은

군포문협은 이 시기에 이르러 청년기를 지나 성년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순탄한 세대 교체를 통해 원로 문인들과 중진, 젊은 세대가 탄탄한 균형을 이루며 문학으로 서로 교유를 나누는 고유의 정체성이 발현되던 시기였다. 멀리 이사간 회원들도 군포를 잊지 못해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행사나 모임 때면 반가운 안부를 나누곤 했다. 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회원간, 세대 간 자유로운 교류의 분위기에 이웃 도시의 문협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결속을 자랑했다.

| 7대 ~ 8대 집행부

2014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제7대 김영애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부지부장에는 전현하, 차영순 시인이, 사무국장에는 오은희 소설가가 선임되었다. 이번 해는 전 국민을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해이다. 이에 따라 전국이 침묵하며 다른 모든 행사들과 함께 철쭉축제도 취소되었다. 다만 활짝 피어난 철쭉동산에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몇 개의 조용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문인협회에서 진행한 ‘사랑의 느린 우체통’ 행사도 그중 하나였다. 이는 전년도 ‘사랑의 편지쓰기’가 변형된 행사로서 편지에서 엽서로 형태가 바뀌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편지가 도착하도록 기획된 행사이다. 이번 해에는 군포문협이 시와 관계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재미있는 문학이야기’ 시리즈로서 회원들이 10개의 강의를 돌아가며 진행하는 행사이다. 또한 회원들의 작품이 다양한 소스를 통해 시민들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 ‘군포뉴스’에서 회원들의 시가 영상으로 송출되었고, 버스정류장과 골프장둘레길에서 열린 시화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가을에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하여 ‘군포를 빛낸 문인들’의 책을 전시하기도 했다.



2015년 6월에는 회원 문학기행으로 괴산의 홍명희 생가와 산막이옛길을 방문하였다. 그해의 가장 의미있는 사업으로는 예인예술제 사업으로 백일장이 아닌 사화집 『어어령차 수릿골』을 발간한 일이다. 군포문협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사화집은 ‘군포를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로 군포와 관련된 회원들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또한 발간을 기념하여 문학극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리라’ 공연을 진행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선보였다.

2016년 정기총회에서 김영애 시인이 재선되어 제8대 지부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다. 부지부장과 사무국장도 전대와 동일하게 유임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제2 사화집 ‘문을 여는 사람들’을 발간하고 작품을 낭독하는 문학콘서트를 가졌다. 제25회 군포백일장은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기간에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꿈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기자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문학 24집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철쭉축제 기간에 거리 시화전을 진행하였고, 이진옥 시인이 회장을 맡은 수리시낭송회가 3회 진행되었으며,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에서 회원들이 낭독극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제3 사화집 『얼과 꿀』 발간과 함께 문학콘서트도 진행하였다. 재단에서 진행한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자서전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제작하였는데, 늘푸른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19대 집행부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제9대 전현하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대부터는 정관개정을 통해 지부장 임기가 4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부지부장에는 유경희, 이진옥 시인이, 사무국장에는 이은희 시인이 선임되었다. 연초 군포문협은 커다란 아픔을 맞게 되는데, 다양한 신규사업과 새로운 분위기로 군포문협에 변화를 가져 온 김영애 전 지부장의 타계 소식을 접한 것이다. 평소 앓던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유명을 달리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런 소식을 맞아 큰 슬픔 속에 가까운 지인들과 문협 회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2018년에도 예인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제4 사화집 『사람의 온도』가 발간되었고 예술제 기간 동안 거리 시화전이 개최되었다. 27회 군포백일장은 주말에 진행하던 전통을 깨고 평일

에 군포책마을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수리시낭송 전국대회는 10회를 맞이했으며 시민문학 26호가 발간되었다. 가을을 물들이는 시화전이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유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예인예술제 기간 중 제5 사화집 『늑대거미와 함께 산책을』이 발간되었고, 수록된 작품들로 거리시화전이 개최되었다. 또한 2019 독서대전에서도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동일한 작품들을 다시 한 번 전시하였는데, 초막골의 수려한 가을풍경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많은 관람이 이어졌다. 28회 군포백일장은 당일 시상을 하지 않고 약 한달 후에 시상식을 별도로 가졌다.



하반기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미치기 시작하였다. 모든 행사들이 주춤하면서 다음 해의 파장을 예고하였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올 스톱한 해였다. 그해 2월 우리나라에도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전국이 문을 닫아 건 상태가 되어 버렸다. 7월에는 이은희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이은영 사무국장이 새롭게 문협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제6 사화집 『계절의 발자국』이 발간되었으며 찾아가는 시화전이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해의 의미 있는 행사로는 군포예총 주관으로 진행된 ‘아트콜라보’ 행사이다. ‘쓰고 그리고 줌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문인, 미술, 사진 3개 협회의 콜라보로 이루어 졌

는데, 단순히 3분야의 작품을 망라한 것이 아니고, 세 지부의 회원이 한 팀으로 연합하여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모여 주어진 주제를 심화하고 구현 방법을 구상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책자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도로서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협업을 기대하게 만든 행사였다.

초막골에서 열린 가을 시화전은 작년처럼 청량한 가을 풍경속에 녹아들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감싸안아 주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튜브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전현하 지부장과 시민들의 인터뷰를 회원들의 작품과 묶어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에 문협 계정을 만들어 송출하는 시도를 했다. 드디어 군포문인들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문인들이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산물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젊은 세대이거나 변화에 발 빠른 사람들에게겐 별 것 아닐지도 모르지만, 원고지를 컴퓨터로 대체한 것 외에 아직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를 고수하는 대다수의 문인들에게 유튜브는 신세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화전의 부제는 ‘문인, 유튜브를 만나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창립 이후 2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건너오며 군포문인협회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거나 아직 머무르고 있고, 이어져 온 역사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30주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군포문협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를 발판으로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군포문인협회 연혁

● 1995

- 04. 군포 거주 문인 명단 및 주소록 작성
- 05. 군포 문인 모임 창립 준비
- 06. 12. 창립총회 _ 초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박현태 부지부장: 권태진, 이경희 사무국장: 홍순창
- 07. 10. 군포문협 사무실 입주 _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서련빌딩 3층
- 07. 24 ~ 01. 24. 제1기 어린이 글쓰기 교실 운영 _ 도서관, 동사무소
- 09. 26. 군포문협회보 창간호 발간 _ 회원동정, 회원 및 시민작품, 행사안내
- 10. 07 ~ 10. 14. 군포문협회원 및 글쓰기 교실 회원 시화전 _ 군포시청 소회의실
- 10. 28. 제1회 군포 시민백일장 개최 _ 능내공원(500명 참석, 152명 수상)
- 12. 27. 시민문학 1호(창간호) 및 수리산 글동네 출판기념회 _ 군포시청 대회의실

● 1996

- 01. 15 ~ 01. 16. 글쓰기 교실 겨울 문학캠프 _ 충북 괴산군 '보림원'
- 어린이 글쓰기 교실 회원 문학기행
- 02. 사무실 이전 _ 산본도서관 (이강옥 사무간사 상근)
- 02. ~ 07. 제2기 글쓰기 교실 운영 _ 산본도서관, 관내 동사무소
- 초급반, 중급반 300여명 수료
- 03. 05. 제1기 여성문학 강좌 개설 _ 당동도서관 _ 문학기행, 창작지도
- 03. 30. 시민문학 2호 발간
- 05. 04 ~ 05. 11. 제2회 군포문협 시화전 _ 산본도서관
- 06. 01. 제2회 군포 시민백일장 _ 능내공원 _ 1,200여명 참가, 108명 수상
- 06. 03. 여성문학 강좌 개강 _ 산본도서관
- 07. 01. 여성문학 수강생 문학기행 _ 안성 편운재
- 07. 별을 부르는 아이들 발간 _ 글쓰기교실 어린이 시집
- 10. 21. 최연지 드라마작가 초청 강연
- 08. ~ 97. 01. 제3기 어린이 글쓰기 교실
- 10. 26. 제3회 군포 시민백일장 _ 능내공원
- 10. 26 ~ 10. 28. 순회 시화전 _ 경기문협 _ 경기도 및 군포문인 시화작품 전시
- 10. 28. 순회 문학강연 _ 경기문협 _ 강사 김대규(시인), 김승옥(소설가)
- 11. 19. 군포문인 저작물 전시회 _ 산본도서관 _ 군포예총 창립 기념행사
- 11. 04. 시민문학 3호 발간
- 12. 27. 문학세미나 및 송년의 밤 _ 산본도서관 _ 발제: 임헌영, 김용하

1997

- 02. ~ 07. 제4기 어린이 글쓰기 교실 _ 초급반, 중급반 운영
- 05.02 ~ 05.04 거리 시화전시회 _ 산본중심상가 원형광장
- 05. 10 제4회 군포 시민백일장 _ 능내공원
- 05. 24 예술원 회원 초청강연회 _ 강사: 홍윤숙, 김수용(예술원 회원)
- 06. 28 시민문학 4호 발간
- 09. 11 제5회 군포 시민백일장
- 12. 28 송년 문화의 밤 _ 문학 세미나 및 송년회

1998

- 03. 박소명 사무국장 임명
- 03. 12 시민문학 5호 발간
- 05. 14 어린이 시화전 _ 어린이 글쓰기 교실 회원 시화전
- 06. 17 예술원 회원 초청강연회 _ 강사: 홍성유(소설가), 문덕수(시인)
- 06. 20 제6회 군포 시민백일장 _ 태을예술제 행사
- 09. 군포문협 회원 시화전
- 10. 17 제7회 군포 시민백일장 _ 능내공원
- 10. 19 명사초청강좌 _ 강사: 구혜영(소설가)
- 12. 시낭송의 밤 및 송년회 _ 군포문협 송년의 밤 행사

1999

- 05. 10 초, 중고생 시낭송대회
- 05. 거리시화전 _ 태을예술제 행사
- 05. 08 제8회 군포 시민백일장
- 05. 31 시민문학 6호 발간
- 12. 제20회 경기백일장대회 _ 주최: 경기문협, 주관: 군포문협
- 12. 30 이무영 작품비 제막식 _ 능안공원

2000

- 05. 여성문학 수강생 작품 발표회 _ 여성 글쓰기 강좌 수강생 발표회
- 06. 28 시민문학 7호 발간(여름호)
- 07. 어린이 문집 발간 _ 어린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문집
- 09. 16 ~ 09. 19 가을 시화전
- 10. 21 제9회 군포 시민백일장
- 11. 11 군포문협 도자시 시화 제작
- 11. 21 ~ 11. 22 어린이 시화전 _ 글쓰기 교실 회원 시화작품 전시

12. 28 시민문학 8호 발간
12. 28 군포문원 “새천년 첫돌” 발간 출판기념회 _ 경기문화재단 지원

● 2001

05. 26 초, 중고생 시낭송 대회
07. 20 어린이문집 제12집 발간
05. 26 초, 중고생 시낭송 대회
06. 30 시민문학 제9호 발간
07. 20 어린이문집 제12집 발간
09. ~ 12. 군포문협 문예대학 제10기 운영 _ 강사: 임헌영 평론가, 김명원 시인
10. 13 제 10회 군포 시민백일장
11. 이경희 시인 시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회

● 2002

01. 신년 하례 모임
06. 25 시민문학 10호 발간
최남희 사무국장 임명
10. 12 제11회 군포 시민백일장

● 2003

09. 01 시민문학 제11호 발간
10. 18 제12회 군포 시민백일장 / 능내공원
11. 가을시화전

● 2004

04. 02 정기총회 _ 2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김동호 부지부장: 채찬석, 엄화출, 박찬일
사무국장: 최남희
10. 15 시민문학 12호 발간
10. 16 제13회 군포 시민백일장 _ 능내공원
12. 27 ~ 12. 29 가을시화전

● 2005

09. 30 이숙경 사무국장 임명
군포수리청소년시낭송대회 _ 초, 중, 고 대상

10. 15 시민문학 13호 발간
 10. 15 제14회 군포 시민백일장
 11. 03 제14회 군포 시민백일장 시상식
 12. 27 가을시화전

2006

01. 정기총회 _ 3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 조병무 부지부장 : 염화출 사무국장 : 이숙경
 04. 27 ~ 04. 30 사랑의 편지쓰기 _ 군포시민대축제 부대행사
 09. 01 시민문학 14호 발간
 - 수리샘, 산본여성, 군포여성, 추강 등 관내 문학회 작품 함께 수록
 09. 09 가을시화전
 10. 28 제15회 군포 시민백일장

2007

04. 21 ~ 04. 29 이형철 사무국장 임명
 사랑의 편지쓰기 _ 군포태을제 부대행사
 수리시낭송회 시작 _ 군포문화센터
 - 김동호, 장병연 시인 주축으로 진행
 07. 30 시민문학 15호 발간
 04. 14 문포문협 문학기행 _ 강화 석모도
 10. 13 제16회 군포 시민백일장 _ 예인예술제
 12. 10 ~ 12. 14 가을시화전

2008

02. 23 정기총회 _ 4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 김용하 부지부장 : 김근당, 민선숙 사무국장 : 이형철
 04. 29 중앙도서관 개관기념 특별 시화전 _ 중앙도서관 로비
 05. 02 ~ 05. 04 사랑의 편지쓰기, 전통문화 살리기 시화공모전
 _ 군포시민대축제 부대행사
 08. 09 ~ 08. 11 숲속 푸른 시화전 _ 숲속푸른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시화전
 10. 04 ~ 10. 07 가을시화전
 10. 04 시민문학 16호 발간 _ 출판기념식
 10. 18 제16회 전국 군포 시민백일장 _ 전국대회로 확장, 예인예술제

2009

03.09 ~ 04.10	제2회 전통문화 전국작품공모전
04. ~ 10.	찾아가는 시의 향연 _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부대행사
03.09 ~ 04.10	제2회 전통문화 전국작품공모전
04. ~ 10.	찾아가는 시의 향연 _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부대행사
10.22	제18회 군포 시민백일장 _ 예인예술제
09.26	제1회 전국수리시낭송대회
10.24	시민문학 17호 발간 _ 출판기념회
10.24 ~ 10.27	가을시화전
12.05	군포문협 송년회 _ 송년 모임 및 수리시낭송회

2010

01.	정기총회 _ 5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 홍순창 부지부장 : 권영기, 박건자 사무국장 : 김영애
04. ~ 10.	찾아가는 시화전 _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부대행사
03.12 ~ 05.06	시화작품 공모전
03. ~ 07.	수리시낭송회
05.16	제3회 전국전통문화백일장
10.09	제19회 군포 시민백일장 _ 예인예술제
10.20	제2회 전국시낭송대회 _ 초, 중, 고, 대학일반부
11.04	군포, 안양, 의왕 문인등반대회 _ 안양, 의왕 문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
11.09	문예창작실 개소식
11.20 ~ 11.23	가을시화전
12.16	시민문학 18호 발간

2011

04. ~ 05.	우리시대 명저읽기(격주로 진행) / 중앙도서관
05.01 ~ 05.10	사랑의 편지쓰기 _ 군포철쭉대축제 부대행사
05. ~ 11.	43 ~ 45회 수리시낭송회 _ 군포문인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낭송회
05.16	제3회 전국전통문화백일장
09.24	제20회 군포 백일장 _ 명칭 변경
04. ~ 10.	찾아가는 시화전 _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부대행사
04.24 ~ 11.	군포, 안양 문인 등반대회 _ 봄, 가을 2회 개최
11.26	제3회 전국수리시낭송대회
12.03 ~ 12.06	가을시화전 _ 중앙도서관
12.17	시민문학 19호 발간

2012

- 01. 30 정기총회 _ 6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최남희 부지부장: 차영순, 이형철 사무국장: 김수경
- 05. 07 ~ 05. 12 사랑의 편지쓰기 _ 군포시민대축제 부대행사
- 07. 21 ~ 08. 30 수리시낭송회 _ 군포문화센터
- 04. 군포, 안양 문인 등반대회 _ 봄, 가을 2회 개최
- 10. 06 제21회 군포백일장 _ 철쭉동산
- 11. 10 제4회 전국수리시낭송대회
- 11. 10 ~ 11. 13 가을시화전
- 12. 06 시민문학 20호 발간 _ 출판기념회 및 송년회

2013

- 05. 임원개선 _ 직무대행: 이형철 지부장(최남희 6대 지부장 사임)
- 05. 01 ~ 05. 08 사랑의 편지쓰기 _ 군포철쭉축제 부대행사
- 05. 07 봄날, 시를 노래하다 _ 군포철쭉대축제 시낭송 행사
- 05. ~ 10. 수리시낭송회 _ 중앙도서관 _ 연간 4회 개최
- 04., 11. 군포, 안양 문인 등반대회 _ 봄, 가을 2회 개최
- 10. 05 제22회 군포백일장 _ 철쭉동산
- 11. 02 ~ 11. 04 가을시화전
- 11. 02 시민문학 21호 발간
- 11. 23 제5회 전국수리시낭송대회

2014

- 02. 정기총회 _ 7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김영애 부지부장: 전현하, 차영순 사무국장: 오은희
- 05. 01 ~ 05. 05 사랑의 느린우체통 _ 기존의 편지쓰기 행사를 엽서로 대체
- 05. 27 ~ 07. 29 재미있는 문학이야기 _ 군포문협회원 10인의 문학 강좌 시리즈
- 04. 24 ~ 08. 28 53, 54회 수리시낭송회 _ 2회 개최
- 시가 있는 풍경 _ 시청 홈페이지 '군포뉴스'에 회원시 동영상 제작 방송
- 찾아가는 시화 전시 _ 버스정류장 및 골프장 둘레길
- 09. 17 제23회 군포백일장 _ 철쭉동산
- 10. 27 ~ 10. 31 가을시화전
- 11. 15 제6회 수리시낭송 전국대회
- 12. 04 시민문학 22호 발간 _ 출판기념회 및 송년 시낭송회

2015

05.01 ~ 05.05	꽃피는 우체통 _ 철쭉축제 기간 중 진행
05.21	55, 56회 수리시낭송회 _ 2회 진행
09.17	문학기행 _ 충북 괴산 홍명희 생가, 산막이옛길
06.08	군포독서대전 참가 _ 시화전 및 헌책방 운영
09.11 ~ 09.13	문협 20주년 기념 사화집 『어어령차 수릿골』발간 _ 예인예술제
10.01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리라 _ 문학극
10.09	제24회 군포백일장
11.02	시민문학 23호 발간 _ 출판기념식
11.02 ~ 11.06	가을시화전 _ 문화예술회관
11.07 ~ 11.12	가을시화전 _ 중앙도서관
11.21	제7회 수리시낭송 전국대회
12.18	군포문협 송년회 _ 송년의 밤 및 수리시낭송회

2016

02.	정기총회 _ 8대 지부장 선출(연임) - 지부장 : 김영애 부지부장 : 전현하, 차영순 / 사무국장 : 오은희
04.29 ~ 05.03	꽃피는 우체통 _ 철쭉축제 부대행사
05.21 ~ 05.22	군포문협 문학기행 _ 경북 청도
06. ~ 10.	59~61회 수리시 낭송회 _ 2회 개최
06.~ 11.	경기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_ 중앙도서관 초, 중등생 기자학교 운영
09.03	제25회 군포백일장 _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기간 중 개최
09.09	수릿골 문학제 _ 예인예술제 - 제2 사화집 『문을 여는 사람들』출간 및 문학콘서트
10.14	가을시화전 _ 초막골 생태공원
11.19	제8회 수리시낭송 전국대회
12.12	시민문학 24호 발간 _ 출판기념회

2017

04.28 ~ 04.30	거리 시화전 _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기간
05. ~ 12.	62~64회 수리시낭송회 _ 63회 : 초막골 글램핑장 야외행사
05.19 ~ 08.30	경기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_ 중앙도서관 - 초등 4~6학년 기자학교 운영
09.15 ~ 09.17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참여 _ 중앙공원 _ 낭독극 행사, 헌책방 부스 운영
10.01 ~ 10.09	거리 시화전 _ 문화의 거리

- 10. 14 제26회 군포백일장
- 11. 03 제3 사화집『열과 꿀』발간 및 문학콘서트 _ 회원 작품낭독 및 축하공연
- 11. 20 가을시화전 _ 중앙도서관
- 11. 25 제9회 수리시낭송 전국대회
- 12. 04 영상자서전 '나의 삶, 나의 이야기' _ 제작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 늘푸른노인복지관 어르신 참여
- 12. 19 시민문학 25호 발간 _ 출판기념 및 송년 수리시낭송회

2018

- 02. 03 정기총회 _ 9대 지부장 선출
- 지부장: 전현하 부지부장: 유경희, 이진옥 사무국장: 이은희
- 05. ~ 12. 65~67회 수리시낭송회
- 08. 15 ~ 08. 18 제4 사화집『사람의 온도』발간 _ 예인예술제
찾아가는 거리시화전 _ 철쭉동산
- 09. 08 ~ 09. 09 2018 독서대전 참가 _ 헌책방 부스 운영
- 10. 06 제27회 군포백일장 _ 군포책마을
- 10. 27 제10회 수리시낭송 전국대회 _ 중앙도서관
- 11. 19 ~ 11. 27 가을시화전 _ 중앙도서관
- 12. 07 시민문학 26호 발간 _ 출판기념 및 송년 수리시낭송회

2019

- 04. 24 ~ 04. 28 찾아가는 거리시화전 _ 철쭉축제 부대행사
- 05. 31 ~ 10. 21 68~69회 수리시낭송회
- 08. 30 ~ 09. 06 제5 사화집『늑대거미와 함께 산책을』발간 _ 예인예술제
찾아가는 시화전 (거리전시) _ 중앙공원 입구
- 09. 20 ~ 09. 21 거리 시화전 _ 초막골 생태공원 _ 2019 독서대전 부대행사
- 09. 21 제28회 군포백일장 _ 수리산상상마을
- 10. 19 제28회 군포전국백일장 시상식
- 10. 21 ~ 10. 31 가을시화전 _ 중앙도서관
- 12. 12 시민문학 27호 발간 _ 출판기념 및 송년회

2020

- 07. 이은영 사무국장 임명
- 07. 14 ~ 07. 19 제6 사화집『계절의 발자국』발간 _ 예인예술제
찾아가는 시화전 (거리전시) _ 문화의 거리

07.14 ~ 11.24 경기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_ 수리산상상마을
 - 초등 4~6학년 기자학교 운영

10.06 ~ 10.27 제1회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줌인'
 _ 초막골 생태공원, 중앙공원
 - 문인,미술,사진 3개 협회 회원 협업 작품 전시

10.13 ~ 10.23 가을 시화전 _ 초막골 생태공원 _ 유튜브 영상 송출

10.12 창립25주년 좌담회 _ '군포문협 25년을 돌아봄'

12.08 경기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수료식 _ 14명 수료

12.27 시민문학 28호 발간

● 2021

06.08 ~ 10.26 경기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_ 수리산상상마을
 - 초등 4~6학년 기자학교 운영

08.03 ~ 08.08 제7 사화집 『오늘도 격리중입니다』 발간 _ 예인예술제
 찾아가는 시화전 _ 초막골 생태공원

09.03 군포문협 앤솔로지 『군포에 살어리랏다』 발간
 - 군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수록

09.06 ~ 09.20 가을 캘리 시화전 _ 중앙도서관

10. ~ 11. 제29회 군포백일장 _ 온라인 공모전

11.04 군포문협 앤솔로지 『군포에 살어리랏다』 낭독회 _ 백갤러리

12. 시민문학 29호 발간

역대 지부장단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비고
1대	박현태	1995 ~ 2003	권태진, 이경희	홍순창 → 박소명 → 최남희	
2대	김동호	2004 ~ 2005	채찬석, 염화출 박찬일	최남희 → 이숙경	
3대	조병무	2006 ~ 2007	염화출	이숙경 → 이형철	2년 임기제 개정
4대	김용하	2008 ~ 2009	김근당, 민선숙	이형철	
5대	홍순창	2010 ~ 2011	권영기, 박건자	김영애	
6대	최남희	2012 ~ 2013.5	이형철, 차영순	김수경	잔여 임기
	이형철	2013.6 ~ 2013.12	차영순		
7대	김영애	2014 ~ 2015	전현하, 차영순	오은희	
8대	김영애	2016 ~ 2017			
9대	전현하	2018 ~ 2021	유경희, 이진옥	이은희 → 이은영	4년 임기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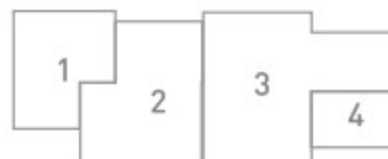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시조	전현하
2	부지부장	시	유경희
3	부지부장	시	이진옥
4	감사	시	한명숙
5	감사	소설	오은희
6	사무국장	아동문학	이은영
7	회원	시	곽현정
8	회원	시	권영기
9	회원	시	권태진
10	회원	시,수필	김계종
11	준회원	수필,소설	김동균
12	회원	시	김동애
13	2대지부장	시	김동호
14	회원	시	김수경
15	소설분과위원장	소설	김영래
16	회원	시	김영희
17	회원	시	김옥례
18	회원	수필	김용선
19	4대지부장	시	김용하
20	회원	소설	김현숙
21	회원	소설	김형숙
22	회원	수필	남궁은희
23	회원	시	노춘래
24	회원	시	민선숙
25	회원	시	박건자
26	아동분과위원장	시,아동문학	박소명
27	회원	시	박재영
28	회원	시	박정희

NO.	직책	분야	성명
29	회원	시,평론	박찬일
30	1대지부장	시	박현태
31	회원	시	성진숙
32	회원	시	송병훈
33	회원	시	양윤정
34	회원	아동문학	오한나
35	회원	시	원순옥
36	회원	수필	유시경
37	회원	수필	윤여선
38	회원	수필	이순금
39	회원	시조	이옥분
40	회원	시	이은희
41	회원	수필	이인옥
42	회원	시,수필	이재옥
43	회원	시	이학영
44	6대지부장 대행	시	이형철
45	회원	아동문학	임병용
46	시분과위원장	시	임현숙
47	회원	시	장윤숙
48	회원	아동문학	장은아
49	3대지부장	시,평론	조병무
50	회원	수필,시	차영순
51	회원	수필	차화자
52	수필분과위원장	수필	채찬석
53	6대지부장	시	최남희
54	회원	시	최혜영
55	5대지부장	시	홍순창



1995~1996



1995

10.07 군포문협 시화전

1996

05.09 문협시화전

06.01 제2회 군포 시민백일장

11.19 군포예총 창립기념 사진전 출판전



1998~2010



- 1998. 어린이 시화전 _ 궁내동 어린이 글쓰기 교실
- 2000 09. 16 문인협회 가을 시화전
- 2008 08. 19 숲속푸른시화전
10. 04 시민문학 출판기념회 및 문협 시화전
- 2009 12. 05 송년회 및 수리시낭송회
- 2010 07. 수리시낭송회



2011~2014



1	2	4	6
	3	5	7

2011

- 09.24 제20회 군포백일장
- 11.23 지역작가와 만나는 문학

2012

- 04. 제4회 군포안양문인등반대회
- 10.06 제21회 군포백일장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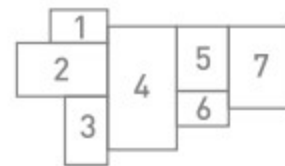
- 11.23 제5회 수리시낭송전국대회

2014

- 05.01 철쭉대축제 '사랑의 느린 우체통'
- 23회 군포백일장



2015~2018



2015

- 05. 01 철쭉대축제 '꽃피는 우체통'
- 06. 08 문학기행(벽초 홍명희 생가)
- 10. 09 제24회 군포백일장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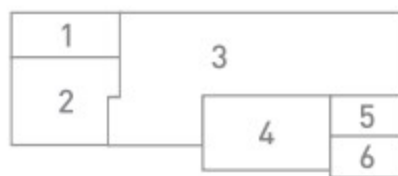
- 10. 14 가을 시화전

2018

- 10. 06 제27회 군포백일장
- 11. 19 문협 가을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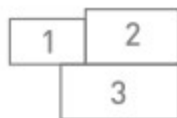
2019~2020



- 1999**
- 05. 31 수리시낭송회
 - 09. 21 제28회 군포백일장
 - 10. 21 가을시화전
 - 11. 12 시민문학 출판기념회

- 2000**
- 07. 14 찾아가는 시화전
 - 10. 06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즐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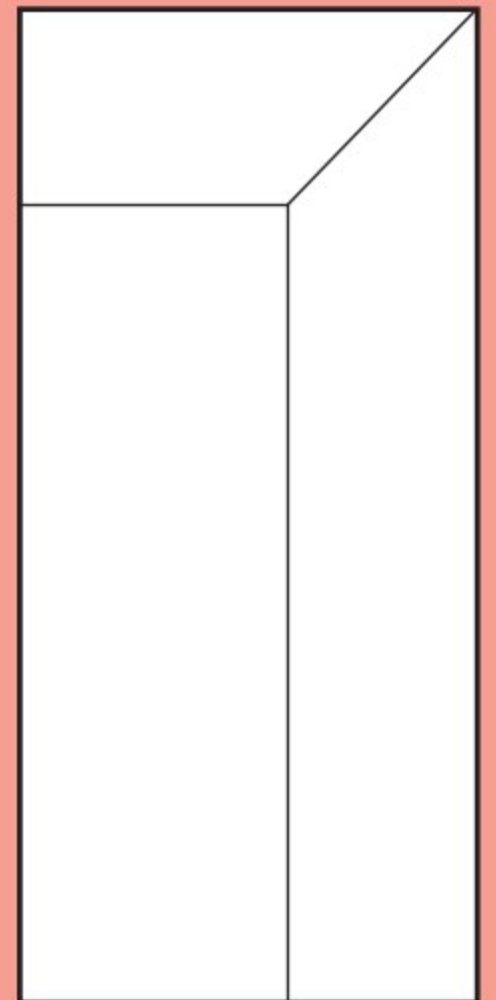


- 2021
- 09.06 가을 캘리 시화전
 - 10.31 제29회 군포 온라인 백일장
 - 10. 꿈의학교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 270 군포음악협회가 걸어온 길
- 296 군포음악협회 연혁
- 304 역대 지부장단
- 305 회원 명단
- 307 군포음악협회 화보

02



군포음악협회가 걸어온 길

| 군포음악협회의 창립

1995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는 군포시민의 정서함양과 음악예술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초대 김영철 지부장을 시작으로 2대 전소녀, 3대 장석기, 4대 한상열, 5대 우지민(우순균), 6대 조명선, 7대 곽상원, 8대 이명자, 9대 김동균, 10대 황일화 지부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악협회의 창립은 김영철 초대회장이 활동하고 있던 클래식음악사랑회, 수리오페라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박정희, 임정순, 전소녀, 장석기 회원과 군포고등학교 교사였던 안재찬 회원이 주축을 이루어 클래식 음악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4월 28일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의 설립 인준을 받고 1995년 5월 2일 순수음악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신도시로 새롭게 시작하는 군포시에 문화와 예술을 뿌리내리고 발전시키

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이며 정서적인 프로그램으로 군포시민들의 예술정신을 고양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같은 해 군포시 공보과의 주선으로 군포문인협회, 무용협회와 함께 군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군포예총)를 발족하게 되었다. 1995년 음악협회 창립과 더불어 군포예총의 역사 또한 시작된 것이다.

군포음악협회의 가장 주요한 행사 중 하나인 ‘수리음악콩쿠르’도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군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큰 행사를 하나 기획하자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김영철 초대지부장과 피아니스트 박병용, 바리톤 박홍우 세 사람이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유럽의 콩쿠르와 비교하여 대회요강과 상금 및 시상식의 규모를 정립하였다. 2회까지는 클래식음악사랑회가 행사를 주관하다가 3회부터 음악협회와 공동주관하게 되었다.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정한 콩쿠르를 만들고 철저한 심사규정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음악 인재를 발굴하였다. 대회운영은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의 평균 점수로 현장에서 발표하며 심사표를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관람하게 하는 등 투명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초창기에는 피아노와 성악 부문만 있었다. ‘피아노 음악’과 ‘음악저널’을 통해 홍보하였는데, 참가자들이 군포라는 곳을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서울예고나 선화예고 등 여러 학교에 참가요청을 했는데 잘 모르는 곳이라며 참가를 거절하기도 했다. 곧이어 2회부터는 입소문을 타고 대거 참가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갔다. 처음 280여 명으로 시작된 참가자는 4회에 이르러 580여 명으로 늘어났고 수상자들의 상금 또한 상향조정되었다. 2009년 제5회부터 음악협회가 단독으로 콩쿨진행을 주관하게 되었다. 그 당시 클래식 음악사랑회로 받은 예산은 300만원이었다. 수리음악콩쿠르는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2021년 현재 1억5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래식음악 콩쿠르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망을 얻게 되었다.

군포음악협회는 2000년 7월 20일 16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소망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있던 전소녀 씨를 2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소녀 지부장은 김영철 초대지부장이 시작한 수리음악콩쿠르와 음악협회 정기연주회를 주축으로 작은 마을음악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 후 장석기, 한상열, 우지민, 조명





선, 광상원, 이명자, 김동균, 황일화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음악협회는 지역의 음악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지역의 예술단체로서 굳건한 토대를 이루었다.

| 군포음악협회의 구성 및 주요활동

군포음악협회는 피아노분과, 관현악분과, 성악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의 주요 사업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콩쿠르인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동요대회, 정기연주회인 가을밤의 음악축제, 그리고 합창단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수리합창대회 등이 있다. 회원들 또한 개별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포시에서 열리는 각종 음악제, 군포태을제, 한여름밤 쿨페스티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악협회의 예술활동 기본방향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확대, 시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이며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음악감상의 실제적 접근을 통하여 실생활에 접목하고 성악가를 초빙하여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 다양한 음역의 노래를 들려주며 실내악 오케스트라 등을 소개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각 동아리의 중창단과 연주단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여성합창단 등과 함께 무대를 구성하여 공연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아울러 내적인 성장을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 군포음악협회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에게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부를 보완하고, 학원연합회 및 각 음악단체의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클래식 음악 활동을 선도해 나갔다. 특별히 2008년 11월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을 중심으

로 군포시 합창연합회를 발족하였으며 지역의 역량 있는 음악인들과 함께 다양한 클래식 음악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군포음악협회의 가장 큰 음악적 성과 중의 하나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 개최일 것이다. 1995년 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수리음악콩쿠르는 2021년까지 27회를 치르는 동안 전국적으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상위권 콩쿠르로 자리잡고 있다. 수리콩쿠르는 한 해 한 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음악 인재들의 꿈의 무대가 되었다. 2003년부터 전국수리콩쿠르에서 동요부문을 분리하여 제1회 전국수리동요제를 개최했다.

지역 음악인들이 시민과 친숙하게 된 계기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활동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공연장에서 접하는 클래식 음악의 엄숙함을 버리고 야외무대에서 가까이 만나는 세미클래식 공연은 뜻밖의 성공을 거두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아이템이 되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음악의 거대한 물결에 점차 관객을 빼앗기고 있던 클래식 음악이 야외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활로를 찾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포음악협회 회원들은 관공서나 병원 교도소 등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연주하는 등 차츰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단체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군포시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군포음악협회는 회원들의 전공은 성악과 기악 분야가 가장 많으며 작곡 및 지휘 분야에서도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전국수리동요대회와 정기공연 ‘가을밤의 음악축제’와 관내 합창단들의 축제인 ‘수리합창제’이다. 2005년부터 지역 내 합창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어 온 ‘수리합창제’는 군포시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음



악협회 군포지부,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챔버오케스트라, 군포시립 여성합창단, 군포프라임남성합창단, 상록수합창단, 성민실버합창단, 프렌즈합창단 한울림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2009년 11월 24일 소공연장에서 처음 개최된 교과서 음악여행은 자칫 대중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들을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 위주로 소개하여 학생들은 물론 같은 경험을 가진 학부모 세대에게도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피아노트리오, 성악, 바이올린, 색소폰 독주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회는 클래식음악으로 세대 간의 단절을 없애고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활동이었다.

군포예총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의 특화된 부분으로 음악협회 회원들의 정통 및 세미클래식 공연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가까이하지 않는 클래식음악을 숲속이나 야외무대에서 접하며 친근하게 느끼게 하자는 취지였다. 시민들은 평소 딱딱하고 엄숙하게만 느꼈던 클래식 음악에 환호하고 앵콜 공연을 원했다. 클래식이 군포시민들에게 점차 친근하게 다가간 것이 2009년 4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된 우리마을 음악회로부터이다.



이와 같은 군포음악협회의 발전은 초대 김영철 지부장(1995~1998)으로부터 2대 전소녀(1998~1999), 3대 장석기(1999~2000), 4대 한상열(2000~2003), 5대 우지민(우순균)(2004~2006), 6대 조명선(2006~2008), 7대 곽상원(2008~2011)회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낸 것이다. 이들은 군포음악협회를 맡아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성황리에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원간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시민들의 음악예술 향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군포음악협회의 중흥을 이뤄냈으며 오늘날 군포음악협회가 군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 군포음악협회의 현재와 미래

8대 지부장을 역임한 이명자 지부장(2011~2017)은 수리콩쿠르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요강을 게재하여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아주 오랜동안 공들여 갈고 닦은 실력자들을 배출해냈다. 수리음악콩쿠르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로 이명자 지부장은 대회의 총괄책임을 맡아 홍보를 강화하고 수리동요제의 참가자격을 초등학생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확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유치부 아이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음정과 박자를 고르며 함께하는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다.

군포음악협회에서는 공연장이 아닌 군포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활동-교과서 음악여행’을 다수 개최하였다. 또 군포시의 합창단과 인근 도시의 합창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리합창제’와 ‘청소년 교향악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극, 국악, 무용협회 등 다른 공연지부와 콜라보 공연을 기획연출하여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시민들에게 다채롭고 만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2015년 정기연주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우리나라 근현대의 가곡과 문학작품 김유정의 「봄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각색하여 연극협회와 콜라보 공연을 펼쳤다. 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아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진 무대는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뿌듯하고 벅찬 감동을 이끌어냈다. 이명자 지부장의 재임 기간에 경기음악제가 군포에서 두 번 개최되었고 기전음악제에서 장식기 고문의 작곡발표회를 열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7년 김동균 지부장(2017~2018)이 이끄는 집행부가 출범하여 수리콩쿠르 및 수리합창제, 수리동요제 등을 성대하게 치렀다. 제22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이라는 테마로 좀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클래식공연으로 무대를 만들었으며 특히

시군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당정중학교 체육관에서 열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동균 지부장은 오랜 기간 수리콩쿠르의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음악협회의 발전에 열정을 쏟았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게 되었다.

2018년 임기를 시작한 현 군포음악협회 황일화 지부장(2018~현재)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취임 당시 30여 명이었던 회원 수를 70명 가까이 늘려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음악 활동과 연주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 보조금 사업과 공모사업에 주력하여 군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모사업 단체로 선정, 음악협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문화의 날’ 공연, ‘한여름 야외음악회’, ‘누구나 1인 1악기’ 등의 공연활동을 했다.

군포음악협회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월례회 형식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는다.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초막골 글램핑을 대여하여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하고 서로의 예술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2020, 20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25년의 역사를 쌓은 군포음악협회는 시민과 문화예술 소외계층,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음악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음악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를 염두에 두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음악과 판토마임과의 협업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젊은 청년음악예술가의 유입을 꾀하고 수리음악콩쿠르 수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또 수리음악콩쿠르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성악과 피아노 두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문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전공자가 많은 현악기 중 바이올린, 첼로 두 부문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며 처음부터 많은 참가국은 어렵겠지만 3~4개국 정도의 해외 음악도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구상 중이다.

군포음악협회는 앞으로도 군포시 및 군포문화재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품격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개최할 것이며 경기도, 나아가 전국 규모의 공모사업에도 도전하여 군포음악 예술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군포음악협회의 25년은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주춧돌로 자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보폭을 크게 내딛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25년 역사의 군포음악협회 활동

1999년 5월 11일 오후 7시 30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군포태을제 제3회 음악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장석기 지부장이 이끄는 음악협회는 축제의 밤을 클래식의 선율로 가득 채웠다. 출연진은 Pf. 장경희, 공명화, 우순균, 조명선, Bar 남희, 성영규, 류현열, Flute 이세천, 조한석, Com. 장석기, Sop. 전소녀 등이었다. 또 군포여성시립합창단에서 ‘임이 오시는지’, ‘목련화’, ‘경복궁 타령’의 무대를 선보였다.

2000년 11월 30일(목) 늦은 7시.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다. 3대 장석기 지부장이 군포예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음악협회 지부장으로서는 테너 한상열씨가 새천년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특별출연으로 음악계의 거목인 베이스 오현명 교수가 무대에 올라 정공채 작시/변훈 작곡의 ‘임진강’과 양명문 작시/변훈 작곡의 ‘명태’를 열창해 주었다.

출연진으로는 바리톤 박근식, 피아니스트 권수진, 공명화, 우순균, 장경희, 소프라노 이명자, 박춘원, 테너 한상열과 은빛앙상블의 플룻연주가 있었다. 제5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군포시민들에게 우리 가곡의 향수를 듬뿍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어 프로그램 선곡에 가

곡을 주로 하였다. 특히 장석기 작곡가의 ‘정’, ‘푸른 마음’을 이명자 소프라노가 불러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2002년 9월 7일(토) 늦은 7시. 군포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스트링 앙상블 공연이 펼쳐졌다. 군포고 출신의 김미나, 배지연, 김지나를 중심으로 배지연, 황보영, 김윤우, 황지영, 김유나가 출연했다. 군포시 클래식음악동호회는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등을 전공한 클래식 전공자들의 모임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군포시 클래식음악동호회 회장 곽상원, 악장 김지나, 후원회장 문영호를 중심으로 피아노분과, 성악분과, 스트링분과, 관악분과, 타악분과로 구성되었다.

2002년 11월 21일(목) 늦은 7시 30분.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스트링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피아노 조명선, 바이올린 김지나, 황보영, 비올라 김윤우, 첼로 황지영) 소프라노 김혜진의 Caro nome(오페라 ‘리골렛토’ 중), 김동진 곡 ‘수선화’/(반주 공명화) 다음 순서로 피아노 독주 특별출연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용배 피아니스트의 ‘Feux d’ Artifice’ 와 ‘Scherzo No.2, Op.31’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테너 박광원의 ‘그라나다’, ‘신고산 타령’ 후 소프라노 김혜진과의 이중창 순서가 이어졌다. ‘Tutto tace(오페라 ‘L’Amico Frito’ 중-빠어씨의 중창) 마지막 순서로 찬조출연한

CAU Brass Ensemble의 Finale(금관 5중주)공연으로 트럼펫1st 박성권, 트럼펫2nd 차민정, 호른 고영주, 트럼본 진유경, 투바 김진우가 ‘La Cumparsita’외 3곡을 연주했다.

2003년 11월 6일(목)에 열린 군포음악협회(곽상원 지부장) 제8회 정기연주회는 조명선, 공명화의 Piano Duo에 이어 신사임당의 시 ‘사모곡(思母曲)’과 장청득 詩 ‘바다’에 곡을 붙인 장석기 작곡가의 노래를 테너 박근식의 노래로 표현하였고 정선분



의 바이올린 독주가 그 뒤를 이었다. 최희정, 김혜정의 Piano Duo 다음 순서로 M.Sop 유애리의 김진균 곡 ‘그리움’과 ‘Toma a sorrento’가 있는 뒤 Piano eight hands 조명선, 공명화, 최희정, 김혜정의 연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포예인 송년 예술제가 열렸다. 저물어가는 한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시민들과 따스한 정을 나누고자 기획된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스한 겨울’이었다.

군포음악협회는 ‘겨울밤을 위한 연가’라는 제목 아래 김지나, 황보영, 김윤우, 황지영의 스트링 앙상블을 선보였으며 군포문인협회의 시인(박현태, 김용하, 박건자, 민선숙, 위선환, 박희진)의 시낭송을 교차로 소프라노 김은정의 독창 ‘눈’과 최화정, 김혜정의 피아노 협주곡, 김광현의 ‘Lute를 위한 조곡(suite)No.4’, 정종은, 황우근 외 12명의 Rock Musical ‘Jesus Christ Superstar’로 무대를 꾸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7월 16일(금) 12시. 군포시청 로비에서 민원인과 직장인을 위한 작은음악회, 2004년 8월 24일(화) 저녁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회 위드조 음악축제, 2004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한림대학 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로 구성하였다. 그동안 군포음악협회 소속의 클래식음악동호회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시청 로비에서 시청직원과 민원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병원음악회, 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통해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지방도시를 순회연주하였다.

음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이색적인 음악회를 개



최하여 일반대중에게 너무 높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음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찾아가 들려줌으로써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포시청 민원인을 위한 음악회에서는 김지나, 황보영, 김윤우, 황지영, 조명선이 참여한 스트링 앙상블의 공연과 소프라노 김은정의 ‘기다리는 마음’, ‘산’, ‘무곡’을 선보였다. 한림대 병원 로비에서 펼쳐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연주회에서는 역시 스트링 앙상블

의 공연과 김은정의 ‘언덕에서’, ‘산’, ‘무곡’이 올려퍼졌다.

2004년 10월 11일(월) 5시와 7시 30분 2회에 걸쳐 가을밤의 음악 축제가 군포음악협회(조명선 지부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우순균의 오르간 독주, 정선분의 바이올린 독주, 최희정의 피아노 독주 순서 뒤에는 그로스 오버밴드 코즈의 무대가 이어졌다. 지휘자 이중대/반주 조명선의 프리모 남성합창단의 ‘잊을 수 없는 사랑’, ‘떠나가는 배’, ‘희망의 속삭임’ 이 객석을 가득 채운 뒤 오르간 우순균/피아노 조명선의 이중주 순서가 이어졌다. 2002년 창단한 프렌즈합창단(지휘 박근식/반주 김소영)이 ‘고향의 노래’, ‘사랑합니다’, 러시아 민요 ‘kalinka’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2005년 6월 16일(목) 오후 7시. 피아노 연주자와 교사를 위한 ‘이야기와 춤, 그리고 연주가 함께하는 ‘달크로즈 음악여행’이 군포문화예술회관 주최, 군포예총 주관으로 군포음악협회 조명선 지부장의 지휘아래 개최되었다. 달크로즈 뮤직은 스위스의 음악교육자인 달크로즈에 의해 창안된 교수법으로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바꾸는 유리드믹스와 솔페즈, 즉흥연주를 통해 온몸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적 감성을 키우는 방법이다. 지역전문예술무대는 우수한 공연물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림으로써 문화예술의 토양을 일구고 잘 가꿔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실험적인 무대가 되었다.

특히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보면 좋은 공연으로 첫 번째 한세대 김옥현교수와 교환교수인 알렉산더 스비아트킨 교수의 Piano Duo ‘La Grand Tango’를 시작으로 Piano Duo와 무용의 만남, 한세스트링과 조명선, 황영미, 김선희, 백미연의 피아노 앙상블, 유승지, 유종희의 아리랑 변주곡 Piano Duo를 마무리 무대로 구성하였다. 달크로즈 음악여행은 모든 음악에는 적절한 움직임이 있다는,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는 적합한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주는 공연이었으며 음악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음악적 감수성과 이해력이 풍부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라는 통합적 세계관을 펼친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화) 제10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는 남희 지휘자가 이끄는 군포소년소녀합창단의 Love Thema(영화 ‘시네마 천국’ 삽입곡)가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M.Sop 유애리와 예원학교 재학 중인 최성호의 반주로 김진균 곡 ‘그리움’과 ‘Ave Maria G. Caccini’가 이어졌으며 피아노 Four Hands순서로 피아니스트 우순균과 예원학교 이승현의 연주가 있었다.

다음 순서로 Oboe Solo로 예원학교 윤수연과 피아니스트 공명화가 무대를 가득 채워 주었다. 장석기 작곡가의 ‘그리움’, ‘산 위에’ 두 곡을 M.Sop 유애리의 노래로, 조명선, 김혜정의 피아노 이중주가 울려 퍼진 후 게스트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Java jive’, ‘좋아’, ‘Love letter’, ‘개 세 마리’ 노래가 이어졌다. 이중대 지휘/반주 이소희의 프리모 남성합창단의 ‘그대 눈 속의 바다’, ‘Oklahoma’, ‘Funiculi Funicula’, ‘영화음악 주제곡 모음’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다.

2005년 11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클래식음악동호회 주관으로 제4회 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꿈나무음악회’의 테마로 열렸다. 조명선 지부장은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기획함으로써 군포 음악의 미래를 향해 한발 내딛는 기회를 마련했고 아름다운 선율이 군포시민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Piano 4hands의 최희정, 김혜정, Oboe 윤수연(Pf공명화), Piano 독주의 한희준, 홍예나, 이소희,

소프라노 장지혜, 유정의의 순서로 이어지고 다시 Piano 4hands 조명선, 이성채로 마무리를 하는 순서였다.

2006년 11월 7일(화). 제11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청소년을 위한 명곡순례로 테마를 잡았다. 이러한 기획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교육적 기회가 되고 군포시민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적 기량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Sop.박춘원/Pf.공명화의 ‘내 맘의 강물’, ‘울게 하소서’. 바이올린 독주 조문희/Pf.지은정. M.Sop.유애리/Pf.김혜정의 ‘나 가거든’, 이태리 칸소네 메들리 중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나의 태양’ 순서로 이어졌다. 게스트인 아코디언과 색소폰 듀오 앙상블 스트립팬더의 ‘La cumparsita’, ‘Libertango’, ‘Por una caberza(여인의 향기 중에서)’ 공연 후 Soprano Solo 김혜옥/Pf.김혜정. 산본중학교 합창단의 우정출연으로 The Phantom of the opera. Oboe Solo 윤수연/Pf.공명화.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남희/ Pf.황수진)의 ‘Tchaikovskys Greatest Hits’, 장식기 곡 ‘산 위에’ 순서로 이어졌다.

2008년 10월 28일(화)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제13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가 열렸다. 컴퓨터와 대중가요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시민들에게 클래식 선율로 힐링을 주고자 하는 기획의도로 펼쳐진 연주회는 최남희 시인의 해설로 조명선 황수진의 피아노 연주 박춘원, 유애리, 오소영, 조나영, 한은주, 최희정, 공명화, 우순균 등 출연진이 다채로운 연주와 음악으로 가을 저녁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다.

2008년 12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경기도 음악협회와 군포문화예술회관 주최와 군포음악협회(곽상원 지부장) 주관으로 2008 경기아버지합창제 ‘아빠 손잡고 떠나는 음악여행’이 개최되었다. 아버지들의 기운찬 합창으로 이끄는 중후한 남성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고 가장들의 어깨가 무거워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장을 펼쳤다.

특별출연으로 능내초등학교 합창단의 ‘야곱의 12아들’, ‘상주아리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올려퍼졌으며 용인시 아버지 합창단, 시흥 남성합창단, 과천 어울림남성합창단의 순서에 이어 군포프렌즈합창단의 ‘Two Japanese Proverbs’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특별 공연이 있었고 이어 부천 남성합창단, 광명 밝은빛남성합창단, 고양 한가람남성합창단, 포천마흔남성합창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무리는 연합합창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10월 27일(화) 제14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는 전년도와 달리 러블리중창단과 어부중창단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러블리싱어즈는 2007년 3월에 창단된 군포의 대표적 여성양상블팀으로 각 시립합창단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에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가요, 동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전문연주 단체이다.

함께 출연한 제일교회 어부중창단은 1992년 9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남성분들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어부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이어오고 있다. 어부 중창단은 남성 중창단으로서 단원 모두가 순수 아마추어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안산 및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찬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달려가서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창단이다.



곽상원 음악협회 군포시지부장은 해마다 같은 컨셉의 정기연주회

가 아닌 보다 다채롭고 새로운 시도의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10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는 ‘Romantic & Fantastic Autumn’의 주제로 피아니스트 조나영, 박미희의 연주를 시작으로 M.Sop 유애리의 ‘그리운 마음’과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중 ‘나의 남자’ Ob.강석훈의 ‘부베의 연인’, ‘내 사랑 아란 후에르’, ‘사랑하는 마음’이 연주되었으며 Tenor 한상열의 ‘사랑’과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로운의 ‘사랑의 슬픔’ 과 ‘헌정’ 연주가 이어졌다. Sop.정소영의 ‘Song to the Moon from Rusalka’ 와 ‘Moon River’. 황수진의 ‘넬라 판타지아’ 및 정소영, 유애리, 한상열, 강석훈, 김주현이 함께 꾸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마무리 무대를 장식하게 되었다.

2012년 10월 19일(금)에 열린 제10회 수리합창제는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Cantate’, ‘안녕 김밥’, ‘Heal the World’ 와 안산동신합창단의 ‘Pie Jesu’, ‘빛의 자녀’, ‘두꺼비’에 이어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Bo Yavo Haboker’, ‘Stand together’가 펼쳐졌다. 특별출연으로 아모르중창단의 ‘사공의 그리움’, 한국민요 ‘아리랑’ 이 이어졌다. 2007년 3월에 창단한 성민소년소녀합창단은 ‘Music School’, ‘Tempo rubato’, ‘Dynamic’.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구전동요 ‘개구리노총각’, ‘보신탕’, ‘검은 고양이 네로’의 순서대로 기량을 뽐냈다. 남희 지휘와 반주자 이미경의 연합합창곡 ‘참 좋은 말’ 도 함께 공연되었다.

2012년 11월 2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군포음악협회(이명자 지부장)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피아노, 플룻, 성악으로 구성된 ‘가을밤의 음악축제’라는 주제로 파가니니(Paganini), 모차르트(Mozart), 푸치니(Puccini) 등 대중들과 친숙한 곡을 선정해 피아노 4중주, 오페라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전속 박기천 테너가 특별출연해 오페라 토스카(Tosca)의 수록곡 ‘별은 빛나건만’과 ‘오솔레미오’를 열창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정서·교육적 측면으로도 유익하게 작용해 관객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2013년 8월 15일(목) 제11회 예인예술제 개막공연으로 열린 군포음악협회의 나라사랑음악회는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한상희의 트럼펫 연주와 아모르중창단의 한국가곡메들리 ‘그리운 금강산’, ‘선구자’, ‘희망의 나라로’에 이어 윈드앙상블의 6곡의 연주로 구성되었으며 M.Sop 유애리의 ‘Torna a sorrento’, ‘내나라 내겨레’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 및 왈츠를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하였고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전임교수인 테너 하만택이 부른 ‘비목’, ‘Una furtiva lagrima’, ‘Nessun dorma’로 구성하였다.

2013년 12월 5일(목) 7시 30분. 제18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두 피아노와 여덟손이 그리는 겨울로 가는 스케치여행이다. 17회까지의 ‘가을밤의 음악축제’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피아노와 플룻, 현악기로 구성된 기악연주 중심의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가사를 통해 전달하는 음악과 달리 관객의 입장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기악곡들로 이루어진 공연은 피아노, 플룻, 현악기의 화성을 잘 이해하면 훨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점이 있다.

2014년 8월 15일(금) 군포음악협회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철쭉홀에서 열렸다.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공연을 막을 열고 오소영, 김은경의 피아노 연주. 소프라노 김은미와 주진희의 ‘오! 보라나의 자매여’ 소프라노 윤선혜와 테너 오준석의 ‘오 사랑스런 아가씨’. 특별출연으로 소프라노 이지연의 ‘뜨겁게 입맞추는 내 입술’,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그리운 금강산’과 함께 아모르 중창단의 ‘경복궁 타령’, ‘O! Sole mio!’ 공연이 펼쳐졌다.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7시 30분에 (사)한국음악협회와 극단 연극마을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의 오페라 갈라 마임으로 듣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Mozart의 마술피리와 피가로의 결혼, Humperdinck의 헨젤과 그레텔이 연주되었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주진희, 정소영, 윤성희, 장유진/ 메조소프라노 유애리, 구한

나/ 테너 오준석, 이현학/바리톤 우재기, 주문영/피아노 권아랑, 이성채였다. 연극협회 조현건지부장의 연출과 조은비의 조연출, 천군의 안무에 마임팀으로 연극배우 이승훈, 고은성, 이정지윤, 김명희가 출연했다.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아름다운 우리가곡의 밤 '장석기 신작가곡과의 만남 Nostalgia'가 열렸다. 2014 기전음악제는 경기도내 많은 예술작품 중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한 작품을 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용인과 군포 두 지역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1, 2부로 구성된 무대에서 M.Sop. 유애리의 '못잊어' '신 밀양아리랑' Sop. 박춘원의 '무곡', '동심초', Bar. 우재기의 '명태', Sop. 이명자의 '눈'이 관객들에게 선보였으며 우정 및 특별출연으로 Ten. 강항구, M.Sop. 이아경의 무대가 펼쳐졌다. 2부에서는 장석기의 '동해송'을 비롯하여 총 13곡의 신작가곡을 Sop. 이명자, M.Sop. 유애리, Ten. 김명재, Bar. 우재기의 목소리로 선보였다.

2014년 10월 21일(화) 제12회 수리합창제는 인천연수구립여성합창단, 군포남성중창단, 군포시립여성합창단, 수원남성합창단, The Voice Chamber Choir 팀이 중심이 되어 높고 낮은 소리와 크고 작은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창의 본령이듯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합창제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슬픈 일을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합창제가 하나의 제의(祭義)로서 우리 모두의 슬픔을 견디는 힘을 길러주기도 했다.

2015년 8월 23일(일) 오후 5시. 제21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렸다. 군포음악협회 및 전국수리음악콩쿠르운영위원회와 군포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 장



운성)는 수상자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신혜리, 장연주, 베이스 김요한, 피아노 최영선, 김지영, 윤정현과 함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에서부터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일어나라 너였어!’를 비롯하여 피아노 협주곡들을 선보였다.

2015년 10월 7일(수) 제20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우리 가곡을 만나는 운수 좋은 날’로 군포연극협회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다. 우리의 근현대 가곡과 한국단편문학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김유정의 ‘봄봄’의 만남이 잘 어우러져 ‘책 읽는 군포’의 도시브랜드에 알맞은 기획이 되었다. 군포문인협회 오은희작가의 해설로 일제강점기에 불려졌던 노래를 중심으로 M.Sop 유애리의 흥난파 곡 ‘봉선화’, ‘사랑’, Bar. 우재기의 현제명 곡 ‘그 집 앞’, ‘오라!’, Sop. 이명자의 이흥렬 곡 ‘바위고개’, 김성태 곡 ‘추억’이 철쭉홀을 찾아준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곧이어 연극협회의 현진건 원작 ‘운수 좋은 날’ 연극공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의 해방 공간에서 불려졌던 노래, 변훈 곡 ‘명태’가 Bar. 우재기의 목소리로, 김동진 곡 ‘가고파’, 현제명 곡 ‘희망의 나라로’가 Tenor. 한상열의 열창으로 울려 퍼졌으며 특별출연으로 M.Sop 김지선의 장일남 곡 ‘비목’, 나운영 곡 ‘달밤’, 윤이상 곡 ‘고풍의상’의 순서가 이어졌다. 연극협회의 두 번째 작품 김유정의 ‘봄봄’이 배우들의 열연으로 펼쳐진 후 현재 즐겨 부르는 우리가곡을 이명자 지부장이 이끄는 아모르싱어즈 중창단의 공연으로 들려주었다.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과 우효원, 박지훈의 곡 ‘아리랑’ 두 곡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5년 10월 17일(토)에 열린 제13회 수리합창제는 뮤지컬과 합창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에너지를 듬뿍 주는 시간이 되었다. M.Sop 유애리의 사회로 진행된 합창제의 첫 순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남성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소리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엠마우스 남성합창단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왕 내 목자’, ‘새들처럼’이었다.

곧이어 2015년 대한민국색동동요대회 대상 수상을 한 해나루중창단의 '말의 향기', '밤하늘 여행', 1986년 창단된 안양 만안구여성합창단의 뮤지컬 '시집가는 날', 장석기 단장이 이끄는 군포남성합창단의 '남촌',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들은 미남이다'. 창작합창뮤지컬 '정서진 아리랑'을 통해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인천서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뮤지컬 '장모루애가', '정서진 아리랑' 중의 솔로곡을 소프라노 최예나, 테너 윤성일의 노래로 들려주었다.

2015년 11월 14일(토) 오후 5시 군포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에서는 군포음악협회와 국악협회가 콜라보한 지역사회 봉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 '우리 가락에 더한 오페라' 공연이 있었다. 군포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 및 기관의 봉사자들을 음악과 국악의 무대로 위로하는 자리였다. 국악실내악 비상사의 '멋으로 사는 세상'을 시작으로 한상열 주문영의 '향수', 박춘원 한상열의 '축배의 노래', 유애리가 노래하고 박지혜의 대피리 연주, 주문영의 색소폰 연주가 조화를 이룬 '베사메무초' 비상사와 김동균의 'Prince of jeju', 권희준 김보미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명자의 '아름다운 나라', 아모르 싱어즈의 '아리랑', '경복궁 타령'이 이어진 후 누리의 판굿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명자 음악협회 지부장과 이영미 국악협회 지부장의 기획연출이 돋보인 공연 무대였다.

2016년 8월 13일(토) 오후 3시 제 21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가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명자 지부장의 기획 연출로 피아노 독주 사공유정, 김은경, 공명화의 피아노 협연. 테너 한상열, 소프라노 최유나, 바리톤 우재기, 소프라노 류솔지, 장유진, 바이얼린 홍사천/ 이용희의 피아노 협연, 바이얼린 홍기엽/첼로 김경석/ 피아노 이용희의 협주곡, 트럼펫 김병현/ 호른 유연지/ 트럼본 조민철이 각각의 장르로 무대를 구성하였다. 장석기 작곡가의 창작가곡 사모곡과 동해송이 군포남성합창단의 합창 (지휘자 우재기/피아노 홍예나)으로 펼쳐졌다

2016년 8월 28일(일) 오후 5시 제22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준성 성신여대

교수가 지휘하는 군포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노희성, 이현정, 김정진과 소프라노 라하영, 문현주, 테너 손지훈, 베이스 정인호가 피아노 연주와 ‘베틀노래’, ‘신고산 타령’,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학’ 등의 노래로 무대를 멋지게 꾸며주었다.

2016년 군포음악협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이 펼쳐졌다.

1. 찾아가는 문화활동-교과서 음악여행(2016.5.11. 곡란중학교)
2. 제22회 수리음악콩쿠르(2016.6.21.~6.30.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3. 제22회 수리동요대회(2016.7.1.~7.2.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4. 제21회 정기연주회-예인예술제(2016.8.28.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5. 제22회 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2016.8.28.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6. 군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Fun Fun한 음악교실’(2016.9.~10. 도장중학교)
7. 제14회 수리합창제(2016.10.22.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8. 제37회 경기음악제 성악앙상블 페스티벌 (2016.11.1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2017년 5월 11일(목) ~ 5월 13일(토) 전국유치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3회 수리동요대회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되었다. 경연부분은 독창 유치부 / 초등 1,2학년부 / 3,4학년부 / 5,6학년부와 중창 초등부(학년 구분 없이 2명 이상 12명 이하)가 열렸으며 유치부는 동요 2곡을 자유곡으로, 초등부는 지정곡1과 자유곡1을 동요로 부르는 조건이다.

2017년 7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당정중학교 체육관에서 시군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었다. 피아니스트 우지민의 해설을 곁들인 진행과 함께 피아노, 오보에, 금관5중주, 성악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먼저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의 음악이 피아노로 연주되었는데, 김은경의 ‘G선상의 아리아’, 사공유정의 ‘엘리제를 위하여’, 이승연의 ‘Chopin Waltz in A-flat major Op.42 no.5’ 이다. 이어서 성악곡으로 M. Sop. 이지윤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Sop. 장인숙, Ten. 권희준의 듀엣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바람은 그것뿐’ 이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는 김은경, 사

공현주의 piano 4hands ‘비비디 바비디 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중적사수연타’, ‘라데츠키 행진곡’에 이어 윤수연의 oboe 연주로 영화 <Mission> ost ‘Gabriel's Oboe’가 연주되었다. 다음 순서로 장인숙, 이지윤, 권희준, 이현학의 성악 quartet ‘나물 캐는 처녀’, ‘목련화’, ‘꽃구름 속에’에 이어 김병현, 이준호, 유연지, 조민철, 한지원의 금관 5중주로 화려한 막을 내린 이 공연은 학생들에게 클래식 of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7시. 제22회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의 테마로 개최되었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으로 구성된 Selections from the Sound of Music가 마스터금관 5중주 연주로 시작되었으며 총 세 가지 테마 ‘건반 선율에 흐르는 영화 속 소나타’, ‘바람과 나무 그리고 줄의 울림’, ‘영혼을 닮은 선율과 울림’으로 구성하였다. 영화 Once, 불멸의 연인, 말할 수 없는 비밀, 피아니스트, 올드보이, 과속스캔들 속에 나오는 피아노 연주곡 및 도깨비의 ost,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클라리넷 연주, 베토벤 바이러스의 첼로곡 등 대중에게 친근한 클래식 음악으로 공연을 펼쳤다. 영혼을 닮은 선율

과 울림으로 테너 한상열의 ‘울게 하소서’, ‘남 몰래 흐르는 눈물’과 바리톤 우재기의 ‘보리수’, ‘이제는 날지 못하리’. 보아스 싱어즈 정소영, 루시 정, 유애리, 강형문, 전영호의 ‘오 나의 아버지’, ‘여자의 마음’, ‘축배의 노래’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2017년 9월 23일(토)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는 제15회 수리합창제가 열렸다. 학생단장 권나림과 4, 5, 6 학년 학생들이 화음을 만들어내는 안양중앙초등학교 합창단의 ‘바람의 멜로디’, ‘봄날’ 공연이 펼쳐졌고 아이들의 꿈이 별처럼 빛나라고 이름붙인 군포별빛아이들 중

창단의 ‘고추잠자리 신났다’, ‘소중한 만남’이 뒤를 이었으며 성민소년 소녀합창단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들리, ‘남몰래 틸틈이’란 뜻을 가진 꾸미꾸미중창단의 ‘그날을 위해’, ‘파도술래잡기’, ‘캠핑은 야호’, 또 군포양정초등학교 합창단의 ‘꿈의궁전 찾아가자’, ‘무지개빛 하모니’,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The Prayer(기도)’, ‘밤하늘’, ‘고향의 봄’ 그리고 특별출연으로 유흥창 지휘자와 조명선이 연주하는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의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중 ‘사랑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시작’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2018년 6월 7일(목) 제16회 수리합창제의 순서는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사랑을 만나서’, ‘우리동네 수리산’, ‘새로운 시작’, 성민소년소녀합창단의 ‘시엘리토 린도’,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의 ‘못잊어’, ‘보라빛 연정’, 특별출연으로 Piano Four Hands&Six Hands (공명화, 우지민, 김은경) 군포남성합창단의 ‘똥보새’, ‘친구여’ 군포음악협회 싱어즈(정소영, 장인숙, 최유나, 유애리, 이지윤, 한상열, 권희준, 이현학, 우재기, 이호택, 장미정)의 ‘사공의 노래’, ‘아리랑’, ‘우정의 노래’ 다음 순서로는 연합합창 ‘사랑으로’가 펼쳐졌다.

2019년 9월 6일(금) 군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제16회 예인예술제 기간에 개최되었다. 대표적인 행진곡 Florentiner March로 막을 연 후 Bar.우재기의 ‘투우사의 노래’, 안종현의 클라리넷 연주, 피아노 이중주(김은경, 노성은), Classics Classics Classics!, Ten.권희준의 ‘지금 이 순간’, 재즈 왈츠 No.2, 헝가리안 무곡(우지민, 공명화), 임종호의 태평소 연주, Sop. 정소영의 ‘나 가거든’, Drum Set. 한송이, Mozart Pop Symphony, Samba de Aida, 아름다운 우리나라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연주는 황일화 군포음악협회 지부장이 지휘를 맡은 윈드오케스트라가 맡아하였다. 연주회의 기본기획은 클래식 변신으로써 모차르트와 팝의 만남, 오페라와 삼바의 만남, 우리고유의 악기인 태평소의 협주를 가미하며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꾀하기도 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대면 공연을 전면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군포음악협회는 연주회를 녹화하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시민들과의 비대면 만남을 시도하였다. ‘한여름 야외음악회’

는 코로나19가 도래하기 전부터 진행되어온 군포시의 공모사업으로서, 매년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축제로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2020 한여름 야외음악회’는 군포음악협회에서 주관하였는데, 2차에 걸쳐 진행된 음악회를 모두 녹화하여 9월 1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였다. 8월 18일 1차 공연은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라는 제목으로 계절에 어울리는 남미의 정열적 음악으로 시민들이 열기를 날려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고, 8월 19일 2차 공연은 ‘클래식 국악에 반하다’는 테마로 클래식과 전통음악의 퓨전 콜라보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황일화 지부장의 기획, 연출로 국악·무용·음악협회 회원들과 군포윈드오케스트라 단원 등 다양한 장르의 군포 예술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음악 전문팀 ‘떼게레’, 국악퓨전그룹 ‘도시’를 초청해 음악교류와 콜라보 연주로 평소에 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군포에서 최초로 선정된 ‘트로트, 윈드오케스트라를 만나다’ 공연도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진행했는데,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녹화하여 경기도 문화주간인 8월 24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트로트를 클래식 연주자들이 재해석해 연주한 것이다. 성악가들의 노래, 피아노로 듣는 클래식 트로트로 새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연주 프로그램은 윈드오케스트라의 ‘보라빛 엽서’, ‘합정역 5번 출구’, ‘가인이여라’ ‘명예(성악)’, ‘찢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에 이어 피아노 연주곡 ‘태클을 걸지마(장미정)’와 ‘이제 나만 믿어요’, ‘꼰대 라떼’ Sop. 정소영의 ‘무인도(성악)’에 이어 ‘사랑의 재개발’, 트로트 메들리 ‘막걸리 한잔’, ‘보릿고개’, ‘진또배기’가 이어졌다.

2020년 11월 11일 제2회 수리아마추어합창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합창대회를 축소하여 중창대회로 전환하였고 비대면 대회로 진행하였다. 참가팀은 2006년 창단된 초록별 중창단으로 군포, 안양 등 경기도 중남부 지역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곱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팀이다. 또 다른 참가팀인 꿈꾸는 기차는 2006년 수리동요대회를 준비하며 만들어진 팀으로 안양시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청풍동요제, 수리동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으로 실력을 다진 팀이다.

2019년 수리아마추어 합창대회 참가팀이었던 엘스 챔버 콰이어팀은 고음악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자 창단한 팀이다. 소프라노 정소영, 이애영, 장하나, 문경민, 테너 한상열, 권희준, 바리톤 주문영, 우재기, 피아노 최성호가 '돌아오라 쏘렌토로', 한국민요 '아리랑'으로 참여했다. 또한 Der Mond 남성4중창-김명도, 박진철, 이승우 김주영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의 '지금 이 순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주었으며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2021년 8월 8일(일) 오후 3시. 제26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가 군포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백신 프로그램 예술동행이란 주제의 예인예술제 개최기간 중 함께 열린 정기연주회는 윈드오케스트라의 'Where Eagle soar'로 시작되어 Sop.장하나의 '내 맘의 강물', Bar.우재기의 '청산에 살리라'에 이어 'William Tell', 장하나 & 우재기의 오페라 <마술피리>중 '파파게냐 파파게노', A.Sax 빈재현의 'I Need to bein love', 이승연의 '모짜르트 Piano Concerto No.14', 이송은의 아리랑 랩소디로 구성되었다. 'The Rock', 'Glenn Miller Medley'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1년 10월 1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제3회 수리아마추어 합창대회가 열렸다. 참여팀으로는 조이풀 싱어즈, 워드프렌즈 보이즈. 마드레싱어즈. gunpo singers가 있고 특별출연으로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이 함께 했다.

| 수리음악콩쿠르와 수리동요제

수리음악콩쿠르는 음악인의 등용문으로 매년 한번씩 개최되며 2021년으로 제27회를 맞은 전문 음악콩쿠르이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로 시작되어 재정적인 안정성

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음악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투명한 평가방식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성장하는 대회가 되었다.

2020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인터넷으로 정보, 참가신청, 결제과정의 모든 진행이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국제콩쿠르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심사결과 실시간 발표,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진행이 특징이다. 매년 참가자들의 기량 또한 놀랍게 향상되어 국내 정상급의 상위권 콩쿠르로 자리 잡고 있다.

순수 창작음악 장르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음악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내며 우수 음악인을 위한 꿈의 무대로 피아노, 성악 분야에서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된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열릴 입상자 연주회에서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공연 경험의 혜택도 주어진다. 2019년부터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이 더해졌다.

수리음악콩쿠르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의 음악도 및 가족들에게 ‘군포시’라는 지명과 ‘군포문화예술회관’이란 명칭을 널리 알리는 등 시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수리콩쿠르 수상자들이 국제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우수한 음악인재로 거듭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인 군포시가 주최측이 됨으로써 재정문제를 극복했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홍보 등 각종 행정력을 군포시에서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27회째 이어오는 수리음악콩쿠르가 추구하는 추진방향 중의 하나는 참가자 중심의 콩쿠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콩쿠르는 운영면에서 참가자보다는 주최측 편의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수리콩쿠르는 접수과정 및 당일의 행사 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연습실 마련, 대기시간 단축 등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참가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초기 대회 때부터 도입한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및 실시간 결

과 발표 등은 전국수리음악콩쿠르만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호평받고 있다.

1995년 첫 대회 당시 152명으로 시작된 전국수리음악콩쿠르는 피아노·성악·현악 세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성악부분에 속하여 개최되던 동요부분을 독립시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전국수리동요제’로 분리하여 별도의 행사로 개최하였다. 2003년 현악부분이 추가되었다가 다시 피아노와 성악부분으로만 개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수리콩쿠르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화)에서는 현악부분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수리콩쿠르는 멀리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음악도들이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며 갈고 닦은 기량을 검증받고 그 결과 우수한 음악인재로 실력을 인정받는 장이 되었다. 수리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을 자신의 음악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수리음악콩쿠르 참가자들이었다는 후문이 많다. 대한민국의 음악인재들이 수리콩쿠르를 통하여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튼튼한 콩쿠르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군포음악협회 연혁

● 1995

- 02. 14 ~ 02. 20 제1회 수리음악콩쿠르 개최 _ Piano 초,중,고
- 09. 23 제1회 군포시민을위한열린음악회
- 10. 웃내골 문화제 “음악과무용의 만남” 공동주최
- 12. 대화가 있는 음악회

● 1996

- 01. 신년음악회
- 03. 새봄음악회
- 04. 대화가 있는 음악회
- 05. 25 군포음협 1주년기념음악회
- 05. 06 ~ 05. 10 제2회 수리음악콩쿠르

● 1997

- 06. 12 ~ 05. 16 제3회 수리음악콩쿠르

● 1998

- 05. 태을음악회
- 05. 18 ~ 05. 21 제4회 수리음악콩쿠르
- 08. 27 대한민국정부수립50주년 기념음악회
- 11. 09 가을맞이 가곡의 밤

● 1999

05. 11	제3회 음악인의 밤
06. 29	제1회 군포시 합창제합창의
09. 06 ~ 09. 09	제5회 수리음악콩쿠르
10. 12	밀레니엄맞이 열린음악회
12. 17	제4회 정기연주회

● 2000

05. 29 ~ 06. 02	제6회 수리음악콩쿠르
10. 17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11. 30	제5회 군포음협 정기연주회

● 2001

06. 04 ~ 06. 08	제7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1. 20	제6회 정기연주회 '선율이 쌓이는 계절'
11. 22	경기아버지합창제

● 2002

09. 30 ~ 10. 04	제8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	---------------

● 2003

05. 12 ~ 05. 16	제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2. 19	예인예술제 '겨울밤을 위한 연가'

● 2004

05. 17 ~ 05. 22	제1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	----------------

2005

05. 23 ~ 05. 28
10. 25

제11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제10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음악축제'

2006

05. 22 ~ 05. 26

제12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2007

05. 14 ~ 05. 26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2008

05. 12 ~ 05. 23
08. 30
10. 12
10. 28
12. 06

제14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제
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경기음악제 참가
제13회 정기연주회
제6회 수리합창제
아버지합창제

2009

05. 21 ~ 05. 23
07. 09
08. 28 / 11. 24
09. 17
10. 27
12. 04

제15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제8회 스트링 앙상블
교과서 음악여행
제7회 수리합창제
제14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
사랑의콘서트

● 2010

05. 10 ~ 05. 22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07. 22	교과서 음악여행
07. 24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09. 18	제1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10. 14	제15회 정기연주회

● 2011

06. 14 ~ 06. 25	제17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	------------------------

● 2012

05. 04	교과서 음악여행
06. 06 ~ 06. 16	제18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09. 01	제18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09. 14	교과서 음악여행
10. 19	제10회 수리합창제
11. 29	제17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음악축제'

● 2013

05. 01	교과서 음악여행
06. 18 ~ 06. 27	제1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08. 15	제18회 정기연주회
08. 30	제1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10. 15	제11회 수리합창제
11. 08	교과서음악여행
12. 05	정기연주회

● 2014

05.07	찾아가는문화활동
06.18 ~ 06.27	제2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수리동요대회
08.15	제19회 정기연주회
08.30	제2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09.23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10.21	제12회 수리합창제
12.02	기전음악제

● 2015

05.07	교과서 음악여행
06.22 ~ 07.04	제21회 수리음악콩쿠르
08.23	제20회 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08.27 ~ 08.28	제21회 수리동요대회
10.07	제20회 정기연주회
10.17	제13회 수리합창제
10.21	교과서 음악여행
10.23	경기음악제
11.14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콘서트

● 2016

05.11	교과서 음악여행
06.21 ~ 07.02	제22회 수리음악콩쿠르
07.01 ~ 07.02	제22회 수리동요대회
08.13	제21회 정기연주회
08.28	제22회 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09. ~ 10.	'FUN FUN(뽀뽀)한 음악교실'
10.22	제14회 수리합창제
11.10	제39회 경기음악제

● 2017

04. 13	교과서음악여행
05. 11 ~ 05. 13	제23회 수리동요대회
05. 23 ~ 06. 01	제23회 수리음악콩쿠르
07. 07	교과서 음악여행
09. 14	제22회 정기연주회
09. 23	제15회 수리합창제

● 2018

05. 03 ~ 05. 05	제24회 수리동요대회
05. 29 ~ 06. 06	제24회 수리음악콩쿠르
06. 07	제16회 수리합창제
10. 16 ~ 10. 17	제1회 누구나 1인1악기

● 2019

05. 02 ~ 05. 04	제25회 수리동요대회
05. 16	찾아가는 문화활동
05. 25	피아노포르테오케스트라
05. 30 ~ 06. 08	제25회 수리음악콩쿠르
09. 06	제24회 정기연주회
10. 19	제2회 누구나 1인1악기

2020

04.01 ~ 04.02	코로나 극복 힐링음악회
08.12	경기문화의날 _ 1차 공연
08.18 ~ 08.19	한여름야외음악회
10.07 ~ 10.08	제26회 수리동요대회
10.10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
10.13	경기문화의날 _ 2차 공연
10.19 ~ 10.24	제26회 수리음악콩쿠르
10.29	피아노보이스 음악여행
11.11	제2회 수리아마추어합창대회
11.21	경기문화의날 _ 3차 공연
11.29	찾아가는 문화활동

2021

05.04 ~ 05.06	제27회 수리동요대회
06.22 ~ 07.01	제27회 수리음악콩쿠르
07.24	피아노보이스 음악여행
08.22	한여름야외음악회
10.14	제3회 수리아마추어합창대회
10.27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리음악콩쿠르 연혁

구분	개최년도	개최기간	장 소	부 문	참가대상	참가자 (입상자)
제1회	1995	12.14~02.20	군포시청	Piano	초,중,고	155(10)
제2회	1996	05.06~05.10	군포시청	Piano	초,중,고대학-일반	255(17)
제3회	1997	06.12~05.16	군포시청	Piano	초,중,고	314(47)
제4회	1998	05.18~05.21	군포시민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578(60)
제5회	1999	09.06~09.09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369(35)
제6회	2000	05.29~06.02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509(45)
제7회	2001	06.04~06.08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372(44)
제8회	2002	09.30~10.04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348(40)
제9회	2003	05.12~05.16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현악	초,중,고대학-일반	428(51)
제10회	2004	05.17~05.22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현악	초,중,고대학-일반	533(61)
제11회	2005	05.23~05.28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666(50)
제12회	2006	05.22~05.26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541(50)
제13회	2007	05.14~05.26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83(47)
제14회	2008	05.12~05.23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59(50)
제15회	2009	05.12~05.23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520(50)
제16회	2010	05.10~05.22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75(50)
제17회	2011	06.14~06.25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54(52)
제18회	2012	06.05~06.15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25(50)
제19회	2013	06.18~06.27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30(49)
제20회	2014	06.17~06.27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18(50)
제21회	2015	06.23~07.02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378(48)
제22회	2016	06.21~06.30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08(49)
제23회	2017	05.23~06.01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05(55)
제24회	2018	05.29~06.06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47(58)
제25회	2019	05.30~06.08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459(61)
제26회	2020	10.20~11.11	수리산상상마을/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296(60)
제27회	2021	06.22~07.17	군포문화예술회관	Piano/성악	초,중,고대학-일반	3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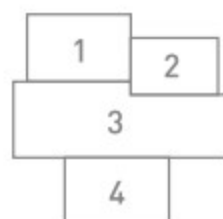
역대 지부장단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비고
1대	김영철	1995 ~ 1998	안재찬		
2대	전소녀	1998 ~ 1999	유현렬, 유애리	남 희	
3대	장석기	1999 ~ 2000	유애리	곽상원	
4대	한상열	2000 ~ 2003	우순균, 강석훈	박근식	
5대	우순균	2004 ~ 2006	공명화	조명선	
6대	조명선	2006 ~ 2008	공명화	지은정	
7대	곽상원	2008 ~ 2011	공명화	오소영	
	이명자	2011 ~ 2013	유애리	강석훈 → 오준석	
8대	이명자	2013 ~ 2017	공명화	김동균	
9대	김동균	2017 ~ 2018	공명화	권희준	
10대	황일화	2018~ 현재	공명화, 정소영	문경민	
			사공유정, 유애리	김동균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트럼본	황일화	34	정회원	성악	장인숙
2	부지부장	성악	주용열	35	정회원	트럼본	조민철
3	부지부장	피아노	장미정	36	정회원	첼로	김경석
4	관현악분과장	튜바	김태봉	37	정회원	성악	이지윤
5	피아노분과장	피아노	김은경	38	정회원	트럼펫	김병현
6	성악분과장	성악	우재기	39	정회원	트럼펫	조성훈
7	고문	작곡	장석기	40	정회원	트럼펫	이준호
8	고문	성악	이명자	41	정회원	성악	이호택
9	고문	성악	한상열	42	정회원	피아노	이송은
10	감사	성악	최유나	43	정회원	피아노	이승연
11	감사	플루트	김동균	44	정회원	피아노	임민주
12	사무국장	트럼본	이진영	45	정회원	플루트	한수연
13	정회원	성악	유애리	46	정회원	피아노	노성은
14	정회원	성악	원대선	47	정회원	성악	이애영
15	정회원	클라리넷	이다영	48	정회원	플루트	한수진
16	정회원	성악	정소영	49	정회원	플루트	김진주
17	정회원	성악	문경민	50	정회원	성악	윤현정
18	정회원	피아노	최성호	51	정회원	색소폰	김상명
19	정회원	트럼펫	안재찬	52	정회원	플루트	박솔빈
20	정회원	튜바	한지원	53	정회원	오보에	송혜란
21	정회원	오보에	김예은	54	정회원	클라리넷	안종현
22	정회원	색소폰	빈재현	55	정회원	타악기	변필중
23	정회원	타악기	정영욱	56	정회원	베이스	백진희
24	정회원	색소폰	하동주	57	정회원	드럼	한송이
25	정회원	바순	윤용진	58	정회원	오보에	윤수연
26	정회원	피아노	사공유정	59	정회원	타악기	조민영
27	정회원	피아노	우지민	60	정회원	호른	김태우
28	정회원	피아노	공명화	61	정회원	성악	박춘원
29	정회원	성악	권희준	62	정회원	바이올린	김나형
30	정회원	플루트	이세천	63	정회원	피아노	조나영
31	정회원	피아노	오소영	64	정회원	피아노	심근수
32	정회원	성악	이현학	65	정회원	트럼본	김희애
33	정회원	피아노	이혜진	66	정회원	첼로	김예빈

NO.	직책	분야	성명
67	정회원	클라리넷	장기업
68	정회원	타악기	고은총
69	정회원	베이스트럼본	유광수
70	정회원	색소폰	빈재현
71	정회원	색소폰	황도현
72	정회원	바리톤	염현준
73	정회원	소프라노	류수진
74	정회원	성악	조은비
75	정회원	색소폰	김태완
76	정회원	성악	오광석
77	정회원	성악	이애영



1995

- 02.14 제1회 전국학생수리음악콩쿨대회 경연
- 02.14 제1회 전국학생수리음악콩쿨대회 접수
- 02.20 제1회 전국학생수리음악콩쿨대회 시상식
- 02.20 제1회 전국학생수리음악콩쿨대회 시상식
- 09.02 제1회 수리음악콩쿨 입상자음악회



(사)한국음악협회군포지부

1주년 기념음악회

1996년 5월 25일(토) pm. 7:00 군포시청 대강당

주최/사단법인 한국음협 군포지부
 후원/군포시, 불레크림의사중회(Tel. 95-0474)
 협찬/한솔스포츠센터, 대일학원, 선타라극, 푸른영서, 영대승무용학원, 송호상헌리원, 풍기유리, 신원신문인쇄

고등부 성악

1위 : 이종현 2위 : 이영미

3위 : 최영규

대학·일반부 성악

1위 : 황지연 2위 : 박교은

3위 : 최아노

초대인선지망 위인1주년 및 서민대환영을 위하여
제2회 전국수리음악콩쿨
입상자연주회

2주 일시 / 1996년 7월 10일(수) 오후 5시
 2주 장소 / 군포시청 대강당
 2주 주최 / 군포시,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깊어가는 가을밤

가곡의

Plect on

1996~1999

음악인의 밤

음악인협회 주관

지부장 장석기

제3회 음악인의 밤
1996. 6. 11(화) 오후 7:30
시민회관 대공연장

▶ 독주	• Impromptu As Dur op. 29 • Fantasia Impromptu Op. 40 no. 3	Chopin Chopin
▶ 독창	• Agnus Dei	Bar. N. K. Ten. PI, 조영민 G. 조영민
▶ 독주	• Il Tamento di Federico • L'aria (중)	Chopin Chopin
▶ 협주	• 협주곡	Bar. N. K. Ten. PI, 조영민 김희
▶ For two Flutes and Piano	이세현(1st), 조영민(2nd)	PI, 조영민
▶ 악곡	• Concerto in G Major 1.3 mov. • 피아노 용이외연 • 세우문 달	Domenico Scarlatti Com. 김희 PI, 조영민
▶ Four Hands	• Hungarion Dances No. 4, 5, 6	Chopin Chopin
▶ 독창	• 그피온 공감선 • Puccini, Pato, Mio Destino (공명곡) • La Forza Del Destino (공명곡)	Chopin PI, 조영민 PI, 조영민
▶ 협주	• 임의 오시는지 • 오현명 • 오현명	Chopin PI, 조영민 PI, 조영민

제1회 군포합창제

부천시립합소년합창단
호신서예합창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출연 연행서예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시립합창단

일시: 99.6.29(화) 늦은 7:30분
장소: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주최: 군포시음악협회 / 후원: 군포시, 군포예총
문의: 군포음악(457-2344)

오현명 교수와 함께하는

이 밤 Music 음악회



제5회 전국수리음악콩쿨 경연

기간: 99. 9. 6-9. 9 주최: 군포시 주관: (재)전국수리음악콩쿨조직위원회 주최: 군포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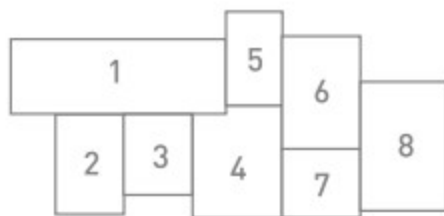
밀레니엄 맞이 열린 음악회

Tenor / 박원수 가수 / 현순이

1999년 10월 12일(화) 오후 7시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주최: 군포음악협회 / 주관: 금빛문화·군포문화사랑회 / 후원: 경기문화재단·군포예총
·예매처: 신본문고, 농협군포, 군포농협, 포항, 오사르드 제과점, 자유문고(공정예), 인화서점, 제일은행 군포지점, 한양서점
·R석 30,000 ·S석 20,000 ·A석 10,000 ·문의: 399-0202, 390-3500, 447-2211
* 음향지원, 군포문화사랑회 회원, 10매이상 구입시 할인 ·R석 25,000 ·S석 18,000 ·A석 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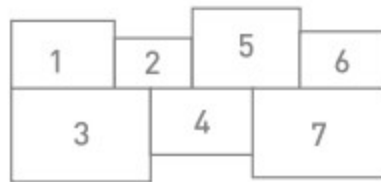
- 공연 일시: 1999년 11월 9일(월)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
- 후원: 군포시 한국예총 군포지부
- 입장료: 전석 소대(시민우호입장)
- 문의처: 0343)392-9508, 390-3510
- 출연자: 오현명, 윤혜진, 김운성, 윤혜진, 유현영, 유재하, 김현태, 강경희
- 인터넷: www.imsa.org/kunpoart



- 1996
- 05. 16 제2회 전국수리음악콩쿨 경연
 - 05. 16 제2회 전국수리음악콩쿨 경연
 - 05. 25 1주년 기념음악회
 - 07. 10 제2회 전국수리음악콩쿨 입상자연주회
- 1998
- 11. 09 가곡의밤 음악회
- 1999
- 05. 11 제3회 음악인의밤
 - 06. 29 제1회 군포합창제
 - 09. 09 제5회 전국수리음악콩쿨 시상식
 - 10. 12 밀레니엄맞이 열린음악회



2000~2006



2000

06.02 제6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2002

10.04 제8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2003

05.21 제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10.09 제9회 전국수리동요제 시상식

2004

07.22 제10회 전국수리음악콩쿨 입상자음악회

2006

06.17 제12회 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06.17 제12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대상경연



1	2	6
3	5	7 9
4	8	10

2006~2008



2006

- 06. 17 제12회 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 06. 17 제12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대상경연

2007

- 06. 16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시상식
- 07. 06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평가회의
- 08. 18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2008

- 05. 12 제14회 수리동요대회
- 05. 14 제14회 수리음악콩쿠르
- 06. 21 제14회 수리음악콩쿠르시상식
- 09. 18 제5회 수리합창제
- 10. 28 가을밤의 음악축제



2009~2011



2009

- 가을밤의음악축제
- 09. 17 수리합창제
- 11. 24 교과서음악여행

2010

- 09. 17 수리합창제기전음악제
- 10. 02 기전음악제
- 10. 21 찾아가는 문화활동
- 11. 25 제9회 사랑의 콘서트

2011

- 06. 14 제17회 수리음악콩쿠르
- 10. 14 교과서음악여행
- 12. 09 제16회 정기연주회



2012~2015



2012

- 05.04 찾아가는 문화활동
- 11.29 가을밤의 음악축제

2014

- 07.19 제20회 수리음악콩쿠르시상식
- 08.15 제19회 정기연주회
- 10.21 수리합창제
- 10.24 교과서음악여행

2015

- 07.24 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 10.07 제20회 정기연주회
- 10.17 제13회 수리합창제
- 10.21 교과서음악여행
- 10.29 오페라 라보엠
- 11.14 우리가락에 더한 오페라

1	2	7	10	11
3	4	8		12
5	6	9		



2016~2019



1	2		10	12
3	4	7		11
	5	9	12	13

2016

- 07. 16 제22회 수리음악콩쿠르시상식
- 08. 13 제21회 정기연주회
- 09. funfun한 음악교실
- 10. 22 제14회 수리합창제
- 11. 10 제27회 경기음악제

2017

- 09. 14 제22회 정기연주회
- 11. 29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2019

- 05. 02 제25회 수리동요대회
- 제25회 수리동요대회
- 09. 06 제24회 정기연주회
- 10. 10 누구나 1인1악기 경연대회
- 10. 19 수리합창제



2020~2021



1	2	6	9
3	4	7	10
5	8	11	

2020

- 04. 02 힐링콘서트
- 08. 19 한여름야외음악회
- 10. 10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
- 10. 29 피아노보이스
- 11. 11 수리아마추어합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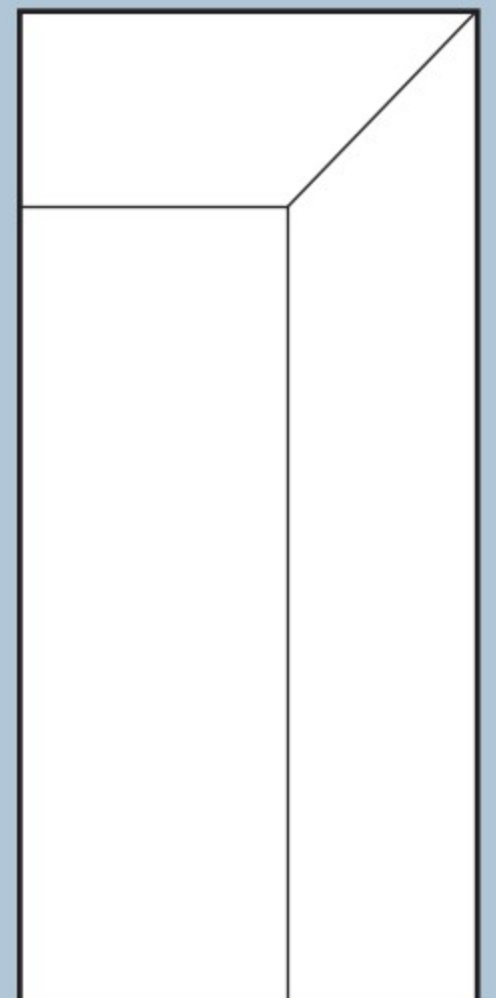
2021

- 05. 04 제27회 수리동요대회
- 06. 22 제27회 수리음악콩쿠르
- 07. 24 피아노보이스
- 08. 08 제26회 정기연주회
- 08. 22 한여름 야외음악회
- 10. 27 음악여행 열림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 324 군포무용협회가 걸어온 길
- 341 군포무용협회 연혁
- 347 역대 지부장단
- 349 군포무용협회 화보

03



군포무용협회가 걸어온 길

| 군포무용협회의 창립 및 발전(1995~2011)

군포무용협회의 태동기를 이야기하자면 고인이 된 양대승 초대지부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초 군포 구도심과 신도시 산본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노란색 버스에는 양대승무용학원이란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그랬다. 군포에는 무용하는 큰 사람이 있었다. 1993년 가을 수리산 자락 군포에 정착한 양대승은 세종문화회관 내 서울시립무용단에 입단하여 오직 춤에 대한 열정으로 땀 흘리던 젊은 춤꾼이었다. 무용에 관한 공연은 거의 없었던 90년대 초, 군포가 문화예술의 불모지처럼 여겨졌을 때 그는 제자를 길러내고 군포시 마을 단위로 펼쳐지던 행사에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양대승의 춤을 본 사람들은 말했다. 마치 한 마리 학이 나는 듯한 모습에 숨을 죽여 보게 된다고. 그의 손끝과 발끝, 그 발끝의 하얀 버선코에서 우리 전통의 곡선미를 느끼고 사뻐하게 딛는 걸음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인 그는 군포문화예술 태동기의 중심에 있었다.

1994년 10월 7일 제7회 군포시민의 날 축하 공연에서 무용인 양대승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진도 씻김굿 예능보유자 박병천과 함께 무용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지역의 무용인들이 모이고 한국 무용협회 군포지부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무용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1년 여의 창립준비 과정을 거쳐 1995년 7월 군포무용협회가 정식으로 출범되고 초대회장으로 양대승이 선출되었다.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오직 춤에 대한 열정 하나로 지역의 예술무대를 수놓았던 양대승 지부장은 군포가 예술의 불모지라는 것을 피부

로 느끼고 비어 있는
예술공간을 춤으로
채우고자 하였다. 육
체의 언어인 춤을 통
해서 보여주는 세계
는 호흡의 들숨과 날
숨, 손끝과 발끝의 아
름다운 선, 나아가 발
끝의 하얀 버선코까



지도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무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펼쳐는 양대승 무용가의 아름다운 춤을 보고 군포시민들은 그 감흥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1995년을 전후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산본중심상가(산본동1137-1 대원프라자 5층) 양대승 무용연구소를 찾았으며 제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량이 높아졌다. 그 결과 인근 도시에서도 무용을 배우기 위해 군포를 찾는 등 무용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곧 군포무용협회 창립의 초석이 되었다. 또 중앙대에 출강하고 있던 양대승 지부장은 실력이 출중한 제자들과 함께 군포시민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하지만 공연장도 마땅하지 않았고 필요한 예산 또한 준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준 시의원 및 시 관계자가 있어 팸플릿, 홍보물, 공연 후 리셉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대설치, 조명, 음향, 출연료 등은 양대승 지부장이 사비를 털어 무대를 꾸몄다. 개인적으로 출혈이 컸지만 오직 좋은 무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해낼 수 있었다. 다행히 스승인 박병천(인간문화재) 무용가, 국악계의 여러 예술인 등 50여 명의 출연진과 열띤 호응을 보내준 군포시민들이 있어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진도북춤과 승무, 살풀이춤 전수자인 양대승 지부장은 이처럼 우리 춤 한마당을 선보이며 지역무용계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인 무용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군포시민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공연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창기에는 야외 무대, 학교 강당 등 가리지 않고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1995년



11월 4일에 금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군포시 주최 제 2회 동별민속예술경연 대회에서는 양대승 지부장이 지도하고 안무한 옷내골춤사위 팀이 ‘강령탈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고정자 대표 외 이정순, 김옥진, 서춘문 씨 등 20명이 우리 전통 학교 운동장에서 펼친 강령탈춤은 황해도 강령지방에서 유래된 마당놀이로서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노래와 극적인 대사를 하는 종합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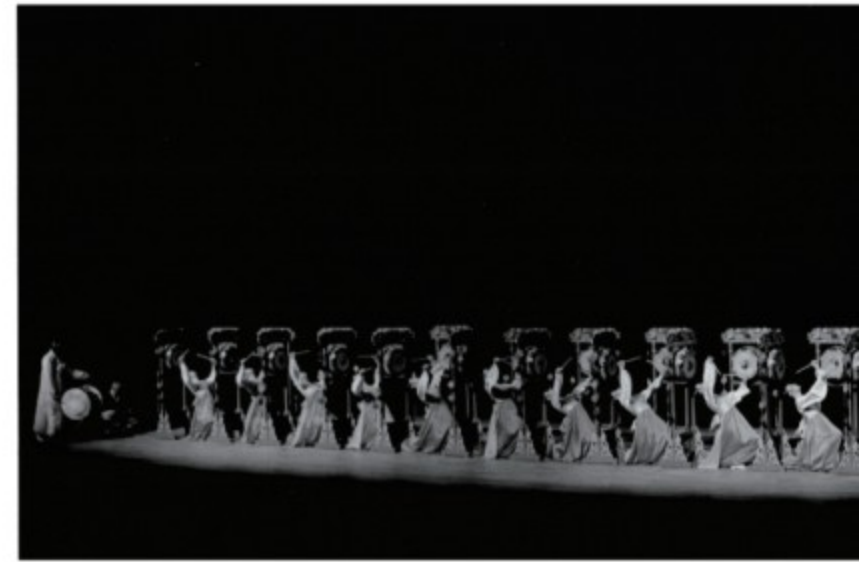
1995년 10월 25일 군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4회 옷내골 문화제에서는 음악과 무용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공연을 펼쳐졌다. 그 시기에는 군포에 마땅한 무대가 없어 과천시민회관, 안양문예회관 등의 장소를 대관하여 무용 공연을 하는 등 양대승 지부장과 군포무용협회 회원들이 가진 예술혼을 불태우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1998년 군포시민회관(현 군포문예회관)이 개관하여 비로소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예술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제 7회 경기무용제 군포시 대표로 참가하여 진도북춤을 공연했다. 진도북춤은 전라도 진도에서 모내기를 할 때 놀던 노동무로서 일명 진도들노래에 나오는 북춤이다. 예부터 농사를 지을 때 힘에 겨우면 그냥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곤 했었는데 이 북춤도 일종의 놀이춤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군포노인복지관 개관을 기념하며 펼쳐진 제 1회 노인의 날 행사에 양대승 지부장이 이끄는 무용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양대승 지부장의 처이모인 가수 현미가 출연하여 ‘밤안개’를 부르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10월 6일 군포중앙공원에서 제 9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열렸으며 무용협회와 국악협회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1997년에는 군포무용협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파주에서 열린 8회 경기무용제에 참여하여 검무를 선보였다. 이때 함께한 회원은 이은정, 강은경, 김경진, 최송이, 김사비나, 강윤경, 김바다, 김슬기 8명이다. 또한 군포 어린이발레단, 어린이 한국무용단, 군포 청소년 무용

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소중한 우리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민회관이 개관된 1998년, 군포태음무용제를 개최하여 화관무(김슬기), 아지랑이(임수진), 검무(홍지운 외 7명), 화랑무(권애영), 호두깎기 인형(김빛나), 나들이(김나운), 갈채의 노래(김혜진), 강강수월래(김은희 외 16명), 빼국왈츠(김하영), 피리부는 소녀(김혜윤), 꽃바구니춤(이한빛나 외 8명), 회색의 그림자(강은경), 살풀이(홍지운, 김은희, 김지은, 최송희, 윤혜경), 돈키호테(박수진), 산조(임경진), Wait, 파키다(이지현 외 7명), 지젤(이은정), 마지막 잎새(김지수), 돈키호테중(김희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장미나), 장고무(강은경 외 8명)의 순서대로 공연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군포무용협회의 공연 여건은 한결 나아졌고 개별 단체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1년에 양대승 무용단은 경기 무용제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고 2002년에는 창작무용 ‘젯빛 하늘’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동일 작품으로 전국 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젯빛하늘’은 ‘9.11...Peace’라는 작품을 군포시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보완한 것으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의 충격과 각종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불안한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내용이다. 인간의 운명이 성장과 쇠퇴를 거듭해가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평화는 다시 피어난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창작무용이다.

2002년에는 군포 청소년 무용단이 창단되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어 2003년에는 김은희 무용단이 창단되었다. 그 중 한국무용을 전공한 김은희는 ‘2004년 네티즌이 뽑은 젊은 춤꾼’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은희 무용단은 2006년부터 경기 무용제에 참가하여 2007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心, 세석평전을 그리며’ 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



상하였다. 김은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안무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젊은 춤꾼이었다. 양대승 지부장의 처제이기도 한 김은희는 제11회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양대승 무용단)했고 제13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대회 연기상을 수상, 2004 의왕전국무용콩쿨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등 양대승지부장을 이어 차세대의 무용창작자로, 안무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월드컵 축하 공연 및 대만, 일본, 미국 등의 공연에 참가하기도 했다.

양대승 지부장은 2005년 ‘땅의 춤, 하늘의 소리’, 2006년 ‘가시리 가시리 잇고’의 창작무용을 선보인데 이어 2007년에는 대통령표창 기념공연으로 군포의 전설을 재구성한 타, 무, 악 퍼포먼스 ‘감투봉 그 여명의 울림’을 공연하여 군포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2007년 10월 2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이 작품은 군포2동 삼성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음악과 무용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삼성마을은 과거 공부를 위해 모여든 소년 및 청년들이 많아 과거마을로 알려졌다. 그 마을에서 있었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이 공연은 개관 10주년을 맞은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문화예술에 무관심한 지역민들에게 입장료 천원만 내면 군포문화예술회관에 들어와 많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의 확산을 위해 군포시가 기획한 그 처음을 군포무용협회의 공연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감투봉 그 여명의 울림’은 군포의 지역적 특성을 예술작품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군포무용협회에서는 ‘찾아가는 무용축제한마당’ ‘2009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양지의집 뇌성마비 자활원과 군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쉽게 공연을 접하기 힘든 환우와 노인들에게 예술활동으로 위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 '제 2회 수리수리마법축제'의 개막식. 군포무용협회는 군포시청 앞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군포를 소재로 한 '응비하는 수리여!' 라는 작품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고, 중심상가 야외무대에서는 신진안무가들에게 창작무용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어 차세대 예술인을 양성해내는 노력을 하였다. 젊은 차세대 안무가들은 한국무용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창작적 춤사위의 다양성을 직접 접하며 한국무용의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강미팀의 '내 안의 나', 김은희팀의 '도화원기', 김유진팀의 '터' 등 세 안무가에 의해 공연된 무대는 군포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같은 해 김해에서 열린 제18회 전국무용제에는 김은희희무용단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군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뛰어난 안무와 창작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해마다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목적으로 새롭게 작품을 창작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켰다.



양대승 군포무용협회 지부장은 2011년 12월 15일~16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600년 전 선조들이 타임캡슐을 남겨 났다면 어떤 내용을 적었을까 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올드 & 뉴'를 내놓았다. '나우, 무브먼트(Now, Movement)'는 우리나라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풀어낸 창작무용 프로젝트로 자연파괴와 인간성 말살, 각종 질병을 암시하는 행서체로 된 내용이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함을 예시한 조상들의 선견지명을 나타내준 것이다.

| 군포무용협회 양대승 무용가 이전과 이후 - 젊은 무용가 김은희의 등장(2012~2020)

1993년 군포시에 정착한 후 군포무용협회 창립, 군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예총) 창립, 군포문화원 창립 등 군포문화예술계의 기반을 닦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은 양대승 지부장이 2012년 지병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군포의 예술무대에서 양대승 무용가의 열정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를 ‘군포문화예술계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2004년 박병천 선생(인간문화재 72호)의 진도북춤 후계자이며 살풀이 인간문화재인 이매방 선생의 전수자이고 승무 이수자이기도 했던 양대승 지부장. 양대승 무용연구소 및 군포무용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일을 했고 많은 공연무대를 펼쳤던 고인의 갑작스런 타계에 군포무용협회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후속대책이 필요했다. 2013년부터 양대승 지부장의 수제자이며 처제이기도 한 젊은 춤꾼 김은희가 뒤를 이어받아 2013년에 군포무용협회 지부장이 되었다.

이미 2010년 제1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김은희 무용가는 2003년 ‘김은희 무용단’을 창단하고 ‘늘샘무용단’을 이끄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서울국제무용콩쿨에 제자들을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냈고, 2010 Next 신진안무가 무대에서 Best 레퍼토리로 선정되기도 한 무용계의 인재였다.

김은희 지부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대승 무용가 1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예인의 길’ 기획과 연출이었다. 2013년 11월 1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故양대승 무용가의 1주년 추모 공연 및 회고전을 통해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유작 및 전통무용 공연, 창작무용들로 구성된 무대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故 양대승 무용가의 뜻을 기리고 전통무용을 새롭게 해석한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살풀이, 한량무, 승무 등의 전통무용과 함께 펼쳐진 창작무용은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격조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으며 엔딩작품으로는 앞으로 군포무용협회를 이끌어갈 김은희 신임지부장의 창작무용이 대미를 장식했다.



김은희 지부장은 양대승지부장이 초석을 세우고 발전시킨 토대 위에 새롭게 군포무용협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18일~20일에 열린 제23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는 군포무용협회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당당하게 금상을 수상하였다. 또 12회 군포예인예술제의 일환으로 달이 뜬 철쭉동산에서 전통무용, 창작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선보였는데 저녁 늦은 시간의 공연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8월 31일 전국수리무용콩쿠르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국에서 찾아온 무용인들을 맞아 예선과 본선, 각 부문별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군포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군포무용협회의 전통춤과 창작의 만남, 일요예술무대 우리춤 한마당, 한가위 춤마당 ‘하하호호’를 진행하였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광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기였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국악협회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 ‘소통의 울림’을 무대에 올렸다. 김은희 지부장의 창작기원무 ‘고구려의 혼’은 신디사이저와 타악기가 만들어 가는 화음 속에 힘찬 춤사위로 고구려의 기상을 표현하였다. 한일국악예술단과 함께한 ‘천고의 울림’ 또한 가무악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민족의 정서와 멋이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최현류의 비상’이 이경화(박병천류진도 북춤보존회 이사장)의 독무로 펼쳐졌다 이 작품은 1974년 최현 선생이 남성독무로 구성한 것인데 드높은 창공을 나는 고고함과 자유분방함을 통해 호방한 기계와 기쁨이 어우러진 선비의 모습을 표현했다. 당기는 맛과 푸는 묘미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김은희 지부장이 이끄는 군포무용협회는 2016년 책나라군포철쭉축제 개막과 함께 철쭉설화인 ‘헌화가’ 테마의 무용과 더불어 거리퍼레

이드 공연을 했다. 이 퍼레이드에는 군포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철쭉축제의 캐치프레드에 걸맞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사람이 분홍의 철쭉꽃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에 퍼레이드 행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환호했고 모시자락을 휘날리는 고아한 자태에 축제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같은 해 군포 설화 감투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 ‘감투봉 그 여명의 울림’은 1장 만남, 2장 비나리, 3장 비애, 4장 축복 등 총 4장으로 이루어진 무용극으로 화려한 연출력과 안무, 그리고 무용수들의 멋진 연기와 춤사위로 관객들과 함께 감동으로 어우러지며 성황리에 마쳤다.

군포 역전 시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진도 북춤, 한량무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무용의 향연과 사물 장고, 소고, 바라 등이 어우러지는 북의 대합주 공연 등은 ‘하하호호’ 한가위춤마당의 정수였다. 군포무용협회는 우리 전통무용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무대를 통해 전하는데 늘 고심하며 피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2016년 9월 2일 성황리에 펼쳐진 군포독서대전에서 개막식 공연에서 또한 화려한 부채춤으로 무대를 수놓았다. 산본로테오거리 메인 무대에서 김윤주 군포시장과 출판계 인사가 대거 참여한 큰 행사로 당의(唐衣)를 입고 양손에 꽃그림과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를 들고 추는 부채춤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2016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군포문화예술회관수리홀에서 제14회 수리 전국 무용콩쿠르가 개최되었고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세 분야에서 경연을 펼쳤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종합 대상 범위를 기존 대학 일반부에서 고등부까지 확대하여 인재 발굴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전자 채점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실력을 평가하여 무용콩쿠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종합대상으로 현대무용 이정민(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 발레 김희현(경기도지사상), 발레 진솔아(군포시장상)가 각각 수상했으며 그 외 최우수상 22팀, 금상 3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본2동 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춤추는 인문학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를 기획하였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과 확산에

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춤과 놀이의 유래와 의미를 파악하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을 이루는 것은, 무용으로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확산에 일조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총 6차시에 걸쳐 구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죽음과 놀이_두려울 때는 함께 축제를, 주사위와 판놀이_굴러라, 던져라, 운명의 한판승부, 입춘 놀이_우직한 생명의 태동하는 희망의 시간, 백중 놀이_일과 놀이가 하나 된 마을 공동체의 기억, 대동춤_덩실덩실 돌아가는 생명의 고리, 투전과 골패_‘꽃수가 높아야 장땡이지’로 채워졌다.

2018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철쭉동산에서 개최된 제 15회 예인예술제에서는 김은희 지부장의 총 연출과 안무로 무용협회의 ‘오작교의 사랑’이 무대에 올려졌다. 이 작품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을 소재로 한 설화 무용극으로 칠월칠석 오작교 위에서 눈물로 만나는 견우직녀의 환희의 축제를 우리 전통무용으로 표현했다. 춤의 언어는 그 어떤 언어의 힘보다 강렬했다.

2019년 제16회 예인예술제의 개막공연으로 창작무용 갑돌이와 갑순이의 ‘말하지 못 하는 사랑’이 무대 위에 올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에 담긴 내용과 정서를 기본 바탕으로 상상을 더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젊은 연인들은 서로 사랑한다. 갑돌이와 갑순이들. 그러나 어느 날 갑순이는 시집을 갔다. 갑돌이를 남겨두고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서 춤은 시작되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다 끝이 나는, 마치 이들의 사랑은 마음에 담아둘 뿐 표현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랑 같다. 이 작품은 어긋난 사랑의 인연에 대해 다뤘다. 1장, 단오날의 장터에서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갑돌이와 갑순이. 2장,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 3장, 서로 사랑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다른 남자에게 시

집간다. 4장, 다른 길을 가는 안타까운 어긋난 인연. 갑순이 시집가는 날, 용기 없는 갑돌이를 원망하는 갑순과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갑돌이. 군포무용협회에서 준비한 공연은 우리 고유의 춤선과 저녁 노을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다.

2019년 11월 17일 군포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공연된 지역전문 예술단체 마당극 ‘이어져라 몽땅’은 군포의 전통 설화인 ‘감투봉 아가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악협회와 융합한 이 공연은 노래하며 함께 춤추고 나누는 소통의 공연으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며 또한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자 했다. 전통연희의 풍물과 소리 한국무용 그리고 현대 연극과 영상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예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든 마당극이다. 전통과 현재의 동시대적인 상황을 그려내 군포시민과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느끼게 한 공연이었다. 무용협회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창작무용과 검무, 북춤을 통해 국악공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했다.

2019년 무용협회의 정기공연으로 선(線)을 주제로 한 창작무용을 새롭게 선보였다. 자연과 인간, 현존하는 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뜻으로 ‘나’는 하나의 우주이고 타인은 또 다른 우주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함께 공존한다. 이 세계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하는 것이며 관계 단절은 곧 공존의 가치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 소통 관계의 단절을 춤의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경쟁 대립을 뛰어 넘어 나와 우리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작품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2020년 6월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펼쳐진 제 29회 전국무용제 경기예선대회에 참여했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지역 무용인의 창작무용 활성화와 군포시민들에게 훌륭한 무용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작품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한국무용협회 회원들의 우수한 안무력을 바탕으로 제29회 전국무용경기도 예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20년 7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군포예인예술제 무대

에서 개최된 무용협회 정기공연은 군포시의 문화자산을 이용한 창작물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세 마당으로 구성했다. 전통 마당에는 진도북춤, 이매방류 살풀이, 지전춤, 한량과 여인들 등 전통 무용을 공연했다. 창작 마당에는 전국 무용제 경기도 대회 출전 창작 작품으로 지역 무용인의 창작무용으로 공연했다. 어울림 마당에는 무용극을 통해 복합장르의 작품으로 구성, 문화 예술적 창작물로 재현해 보여주었다.



| 군포무용협회의 현재와 미래(2021~)

2020년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1년 또한 공연예술 생태계가 어지러운 상태이다. 무용 공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회원 각자가 비대면 방식의 공연에 맞는 콘텐츠를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체로 표현하는 무용공연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선과 구성, 구도 색감 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몸 정체성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최선의 예술행위이다. 그것을 기치로 2021년 8월 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무용협회의 정기공연이 열렸다. 군포시 청소년무용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고 김은희 지부장이 이연주, 김성현과 함께하는 지전춤, 오승우의 사제도(司祭導)가 펼쳐지고 뒤를 이어 파랑, 눈먼 사랑, 진도북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정기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나의 땅!’이 무대 위에 올려졌다. 이 작품은 8.15 광복이 다가오는 즈음에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은 만세 외침을 춤으로 표현한 것으로 김은희 지부장이 전체 기획을 맡아 연출하였고 오승우의 안무로 창작되었다. 젊은 무용가 박용수의 창작무용 ‘생각의 끝에서’에 이어 이다헬의 First Step, 그리고 창작무용 파(波)의 1장 잔잔하고 고요한, 2장 파동, 3장 본래의 존재가 몸의 공연으로 아름다움을 펼쳤다. 이번 정기공연에는 현재 군포무용협회의 젊은 춤꾼들과 김은희 지부장의 제자인 이연주, 정성현, 이하라, 오승우, 김민성, 박용민, 신한서, 여나연, 이다엘, 조하늘, 김희연이 참여하여 군포무용협회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9월 11일, 12일 양일간 개최된 제 19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명실상부 무용인들의 꿈의 무대로서의 장(場)을 마련하여 한국무용(창작)부문, 한국무용(전통)부문, 외국무용(발레클래식)에 수상자를 냈다. 종합대상 일반부 오승우의 사제도(司祭導), 일반부 대상 성예진의 강선영류 태평무, 학생부 대상으로 황선아의 할리퀸아드가 수상자 및 수상작으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 실용무용부문 대상으로 배건위가 수상자로 뽑혔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19년에 비해 참가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명망 있는 무용콩쿠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군포무용협회의 신진무용가들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홍슬은의 '봄을 그리다', 박지윤의 '불꽃처럼', 오승우의 '연화', 오승우와 박용민의 '마주하다'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9월 30일 한여름예술마당극 新별주부전은 연극과 무용을 콜라보한 마당극으로 기존의 별주부전을 새롭게 각색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통무용 뿐만 아니라 현대무용 및 창작무용의 요소가 어우러진 해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공연물임에도 코로나로 많은 관객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것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그 순간을 보존하고 있다.

10월 31일에는 군포문화재단 주관의 군포문화시리즈 '숙정공주의 생애'를 무용으로 표현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숙정공주는 효종과 인선왕후의 5녀로 12세에, 영의정을 지낸 동래정씨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과 혼인하였으며 24세에 요절했다.

군포시 속달동 산1-13에 숙정공주와 그의 남편이자 효종의 부마인 정재륜의 묘가 있다. 군포의 문화시리즈는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예술공연으로 만들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숙정공주의 생애가 안타까워 그의 삶을 창작무용으로 재창조했다.



| 군포무용협회가 나아갈 길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연예술의 위축이다.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는 문화예술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무용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공연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현

장성이 결여되어 앞으로 무용예술의 무대 현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코로나 시기의 무용공연의 공백은 공연자나 향유자 모두에게 오히려 예술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져,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이 꽃을 피웠던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했다.



무용은 공연예술이므로 통합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같이 안무를 만들어야 하고 공동으로 연습해야 하며 함께 공연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적 효용이 극대화된다. 비대면 언택트 공연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적절한 주제와 담론을 담은 무용공연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 그에 따른 신진무용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며 수리무용콩쿠르를 통해 배출된 재원을 잘 관리하여 수준 높은 공연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또한 예술의 다양성과 기술과의 융합, 무용의 대중성 확장을 위해서 언택트를 수용하면서 무용공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번 군포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으로 만들어진 군포문화시리즈는 군포의 역사 현장에서 현장 무용으로 촬영하고, 언택트 공연으로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는데 앞으로 군포무용협회는 이와같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무용인들의 지평을 넓히고, 군포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전국수리무용콩쿠르

2003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무용을 통한 정서발달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무용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무용인구의 확대와 올바른 전통계승에 기여해 왔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창작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지, 덕, 체를 겸비한 작품 및 무용예술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세 부분에서 경연을 벌이며 2006년부터 신설된 종합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전국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출전 무용인들의 기량 또한 향상되고 있다.

군포무용협회에서는 무용 인재 등용문으로서 대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15년도부터 전자채점 제도를 국내무용콩쿠르 사상 최초로 시행했다. 전자채점 제도는 경연이 끝남과 동시에 경연자의 점수를 무대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무용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문체부 무용콩쿠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콩쿠르가 되었다. 그동안 전국수리무용콩쿠르를 통해 많은 무용인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

했고 유치부·초·중·고·대학생, 일반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수리무용콩쿠르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에서도 참가하고 있고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현대무용이나 고전무용, 발레를 전공한 전문 무용인과 일반 대중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무용 인구의 확대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심사위원은 국내 대학의 현대무용 전공 교수와 한국무용 발레 부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분들에게 위촉하여 수리 무용콩쿠르의 높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심사를 하였다. 대



회 참여자들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가자들도 무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비전공자들의 이런 열정이 무용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고등부 참가자들 중 훌륭한 무용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무용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수리무용콩쿠르는 군포시에서 주최하여 대회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시 예산이 있어 참가자들에게 일부 장학금이 수여되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되었다. 시상 내역은 종합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



여되며 대상의 경기도지사상, 특상 및 금은상의 군포시장상과 동상에 한국무용연구원 이사장상, 장려상의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장상이 수여된다. 다른 대회보다 높은 상금도 무용인들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회가 열리는 군포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은 전국수리무용콩쿠르 개최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공간으로 공연장의 편의시설 및 무대 객석 등이 전국 규모의 무용 대회를 하기에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군포무용협회 김은희 지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출전 선수들의 기량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무용 인재 발굴의 큰 책임을 가지고 대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뛰어넘어 국제적 대회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매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상규모는 총상금 1,804만원 중 종합대상 수상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500만원, 대학·일반부 대상(경기도지사상, 100만원), 학생부 대상(군포시장상, 7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있다.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군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사)한국

무용연구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예총, (사)한국무용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무용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실력 있는 무용인을 발굴하며 문화도시 군포를 알리기 위해 2003년 시작된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2021년 현재 19회째를 맞으며 전통 있는 무용인들의 꿈의 무대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해진 수리무용콩쿠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으로 관객을 맞았다. 이번에 실용무용(스트릿댄스)부문이 신설되었으며 단체팀 경연은 취소되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2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전자채점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호평을 받았다. 라이브 생중계 상황에서 참가자 경연이 끝나는 즉시 점수가 공개되는 전자채점에 콩쿠르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다. 수리무용콩쿠르는 전국무용인들을 위한, 무용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전이다. 글로벌시대, 국제적 콩쿠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이제 힘찬 행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군포무용협회 연혁

● 1995

- 07. 21 (사)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창립
- 10. 25 제4회 옷내골 문화제 '음악과 무용의 만남'
- 10. 28 군포범시민 문화축제 공연 찬조 출연_중앙공원
- 12. 23 95송년맞이 무용,국악 대공연 '어린이를 위한 춤의 축제' _ 군포시청

● 1997

- 05. 17 제2회 종합예술제 '태을예술제'
- 10. 11 제4회 양대승 무용단 정기공연 _ 과천시민회관
- 12. 20 97송년예술제 '예술인의 밤'
- 12. 29 97군포시민을 위한 양대승의 춤 공연_군포시청 대강당

● 1998

- 06. 13 제3회 종합예술제 '태을예술제'
- 12. 12 양대승 우리춤 한마당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1999

- 05. 09 양대승 청소년 무용 대공연 _ 군포시민회관
- 05. 17 제4회 종합예술제 '태을예술제'

● 2000

- 02. 29 무용협회 정기공연 _ 군포시민회관
- 04. 28 제5회 종합예술제 '태을예술제'
- 06. 25 제9회 전국무용제 참가
- 12. 09 양대승 춤의 제전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12. 10 양대승 무용단의 춤 '새야 새야 파랑새야'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1

- 02. 25 이화여대 국악과 초청
양대승 무용단 공연 _ 군포시민회관

- 07. 29 제2회 기전무용제 공연 _ 부천문화예술회관
- 08. 26 22회 경기 종합예술제 출연
- 10. 13 창작무용 '아리 아리 아라리요' _ 군포시민회관
- 11. 25 무용협회 정기공연 '우리 전통춤 뿌리 찾기' _ 군포시민회관

● 2002

- 05. 29 한국문화원 공연 _ 일본 동경 오페라 시티 홀
- 07. 03 창작무용 9.11 peace _ 군포시민회관
- 10. 26 제11회 전국무용제 은상 수상 기념공연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3

- 03. 25 한국의 소리와 몸짓 출연_전주문화예술회관
- 04. 26 ~ 04. 29 2003 군포시민대축제 '군포어머니무용단, 수리무용단'
- 09. 28 제1회 전국무용경연대회 개최
- 11. 22 창작무용 하얀 겨울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1. 27 금요예술무대 '소리와 울동의 만남'
- 12. 10 제1회 군포예인예술제
- 12. 18 우리춤 우리가락 한마당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4

- 04. 24 ~ 05. 05 군포시민대축제 '무용협회 거리축제'
- 06. 08 전국무용제 경기도 대회 참가작 공연
- 09. 05 제2회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 11. 21 천년의 사랑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 10 ~ 12. 13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

● 2005

- 04. 23 ~ 05. 02 군포시민대축제
- 05. 20 지역예술무대 '김은희의 춤'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9. 04 제3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 15 양대승무용단 창단 13주년 기념 창작무용 '땅의 춤 하늘의 소리'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 16 ~ 12. 18 제3회 군포예인예술제 '소리와 움직임'

● 2006

- 09.02 지역예술무대 '학의 눈물'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10 양대승무용단 창단 13주년 기념 창작무용 '가시리 가시리잇고'
- 08.09 ~ 10.13 제5회 군포예인예술제 '한가위무용한마당'
- 09.09 제5회 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07

- 10.20 대통령표창 수상기념 군포설화 퍼포먼스
'감투봉 그 여명의 울림'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8

- 09.21 젊은 창작안무가전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9.27 ~ 09.28 제6회 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09

- 01.10 무용협회 정기총회
- 05.01 제7회 군포예인예술제 '웅비하는 수리여' _ 시청앞 광장
- 06.19 제18회 전국무용제 예선
- 06.20 정기공연 젊은 안무가전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9.12 ~ 09.13 제7회 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10.23 제18회 전국무용제 본선참가 '心...세석평전을 그리며' _ 김해 예술의전당

● 2010

- 05.22 양대승의 전통춤 레파토리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06.13 전국무용제 참가 '서른 개의 초' _ 안양예술공원
- 06.12 해설과 함께하는 춤의 여행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6.19 전통춤과 창작의 만남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8.19 찾아가는 문화활동
- 09.05 제8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09.18 제8회 군포예인예술제 '춤과 소리 그리고 우리음악'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1

- 01. 30 무용협회 정기총회
- 02. 10 찾아가는 문화활동
- 04. 09 해설과 함께하는 춤의 여행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5. 08 이야기가 있는 우리춤 한마당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6. 10 시민을 위한 춤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06. 12 전국무용제전
- 08. 28 제9회 군포예인예술제 '우리춤과 직녀의 사랑'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9. 04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10. 08 전통과 창작춤의 만남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12. 15 서울시 무용단 중견 안무가전 'NOW,MOVEMENT' _ 세종문화회관
- 12. 23 찾아가는 문화활동

● 2012

- 01. 30 무용협회 정기총회
- 05. 04 철쭉축제 오프닝 공연
- 05. 12 찾아가는 문화활동
- 06. 09 제2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 08. 23 찾아가는 문화활동
- 08. 25 제10회 군포예인예술제 _ 철쭉동산
- 09. 08 제10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10. 05 가을밤 춤의 자태 나빌레라 _ 시민체육광장

● 2013

- 05. 30 전통춤 레파토리
- 06. 12 해설과 함께하는 춤의 여행
- 06. 13 제22회 전국무용제 참가
- 06. 19 전통춤과 창작의 만남
- 08. 19 찾아가는 문화활동
- 09. 05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09. 18 제11회 예인예술제 '한여름밤 춤페스티벌' _ 철쭉동산
- 11. 16 故 양대승 지부장 추모공연 '예인의 길'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4

02. 28	무용협회 정기총회
07. 12	전통춤과 창작의 만남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07. 18 ~ 07. 20	제23회 전국무용 경기도 예선대회 '갑돌이와 갑순이'
07. 27	일요예술무대 '우리춤 한마당'
08. 17	제12회 군포예인예술제 '시민화 함께 하는 무용' _ 철쭉동산
08. 31	제12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09. 13	하하호호 한가위 춤마당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12. 21	故양대승 지부장 추모공연 '하늘의 춤판'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5

02.	정기총회 무용협회
05. 17	제24회 전국무용제 _ 양평군민회관
09.	제13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10. 03	제13회 군포예인예술제 '소통의 울림'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0. 11	우리춤레파토리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2016

04. 29	2016 책 나라 군포 철쭉 축제 '거리 퍼레이드' _ 시민체육광장
05. 07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06. 10	제25회 전국 무용제 경기도 예선 대회 / Old & New _ 시흥시 옥구공원
08. 11	제14회 군포예인예술제 '감투봉 그 여명의 울림'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09. 02	군포 독서대전 공연 _ 로데오거리 상설무대
09. 03 ~ 09. 04	제14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09. 09	하하 호호 한가위 춤마당 _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 2017

06. 22	제26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07. 06 ~ 07. 13	무용극으로 읽는 경기도 설화 _ 군포시 노인복지관, 엘림요양원
09. 14	제15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09. 23	군포설화와 함께 하는 무용극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11. 04 ~ 11. 30	춤추는 인문학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_ 산본2동주민센터

● 2018

- 05. 18 제27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 08. 12 한여름 야외음악회
- 08. 15 ~ 08. 18 제15회 군포예인예술제 '오작교의 사랑' _ 철쭉동산
- 06. 23 ~ 06. 24 제16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 11. 21 하하호호 한가위 춤마당 _ 엘림요양원

● 2019

- 02. 26 정기총회
- 04. 19 찾아가는 문화활동
- 05. 31 ~ 06. 02 제2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_ 양평군민회관
- 06. 29 우리춤을 사랑한 비보이 _ 반월호수
- 08. 31 ~ 09. 06 제16회 군포예인예술제 '무용협회 정기공연'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9. 07 ~ 09. 08 제17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20

- 02. 정기총회
- 06. 20 제2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 양평군민회관
- 07. 16 ~ 07. 18 제17회 군포예인예술제 '무용협회 정기공연'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0. 16 ~ 10. 17 제18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21

- 08. 07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 '광복, 나의 땅'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6. 11 제30회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파' _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 09. 30 한여름 예술 마당극 '신별주부전'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9. 11 ~ 09. 12 제19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10. 31 군포문화시리즈 '숙정공주 일대기' 창작무용 _ 수리산도립공원, 덕고개 당숲

역대 지부장단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이사
1대	양대승	1995 ~ 2012	김은령	김은희	남보라, 윤희경, 김지수
2대	양대승	2008 ~ 2011	김유진	홍성화	김은희, 윤희경, 김지수
3대	양대승	2012 ~ 2012	김은희, 박민호	이숙란	김은희, 윤희경, 김지수
4대	김은희	2013 ~ 2017	김은령	김수연	이호자, 남보라, 이연희
5대	김은희	2018 ~ 2021	이호자	정운희	강은경, 이호자, 조정옥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한국무용	김은희
2	부지부장	한국무용	이호자
3	사무국장	외국무용	정운희
4	감사	한국무용	조정옥
5	감사	창작무용	진가득
6	회원	한국무용	김정숙
7	회원	한국무용	김순애
8	간사	한국무용	강은경
9	회원	창작무용	이히라
10	회원	한국무용	이은정
11	회원	한국무용	김은령
12	회원	창작무용	김가을
13	회원	한국무용	정인지
14	회원	한국무용	이경순
15	회원	한국무용	문규복
16	준회원	창작무용	오승우
17	준회원	창작무용	이연주
18	준회원	현대무용	엄희정

NO.	직책	분야	성명
19	준회원	한국무용	정성현
20	준회원	한국무용	박혜진
21	준회원	창작무용	양서인
22	준회원	한국무용	김혜윤
23	준회원	외국무용	최가을
24	준회원	한국무용	김진성
25	준회원	한국무용	조하늘

1996~1999



1996

양대승무용단
11.23 군포예총 창립 기념공연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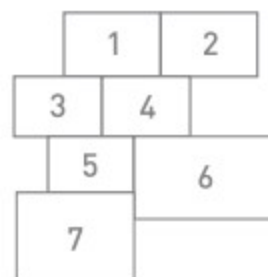
경기무용제 '검무'
무용 사진

1998

06.19 태을예술제
06.27 제7회 전국무용대회 경기도 예선대회

1999

05.07 제4회 태을예술제 개막공연





2001~2004



2001

비애'천년의 사랑'

젯빛하늘

우리전통 춤 향연

10. 26

우리전통 춤 향연

새야새야 파랑새야

11. 25

우리전통춤 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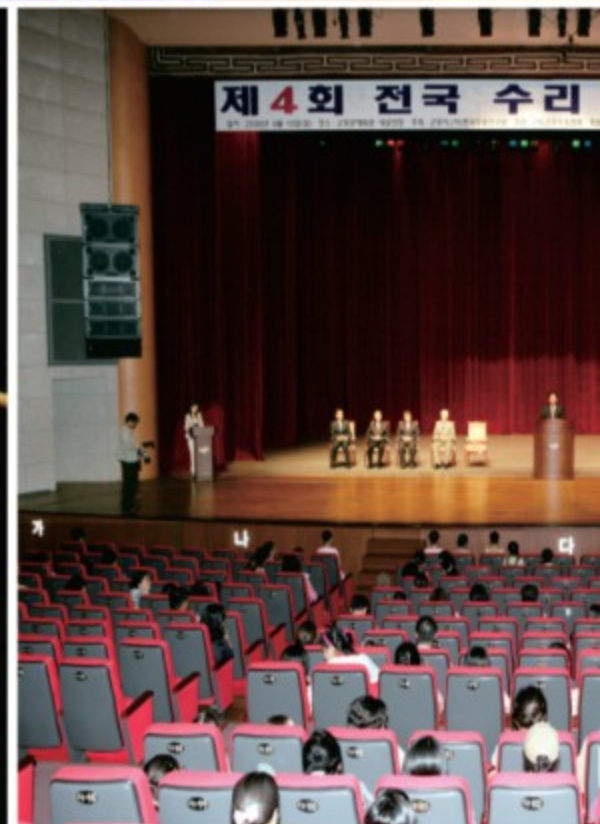
2002

군포청소년무용단

2004

천년의 사랑

1	2		
	4	7	
3	6		8
5			



2005~2007



2005

군포시 _아츠키시 자매결연 공연
봄밤의 음악회
땅의 춤, 하늘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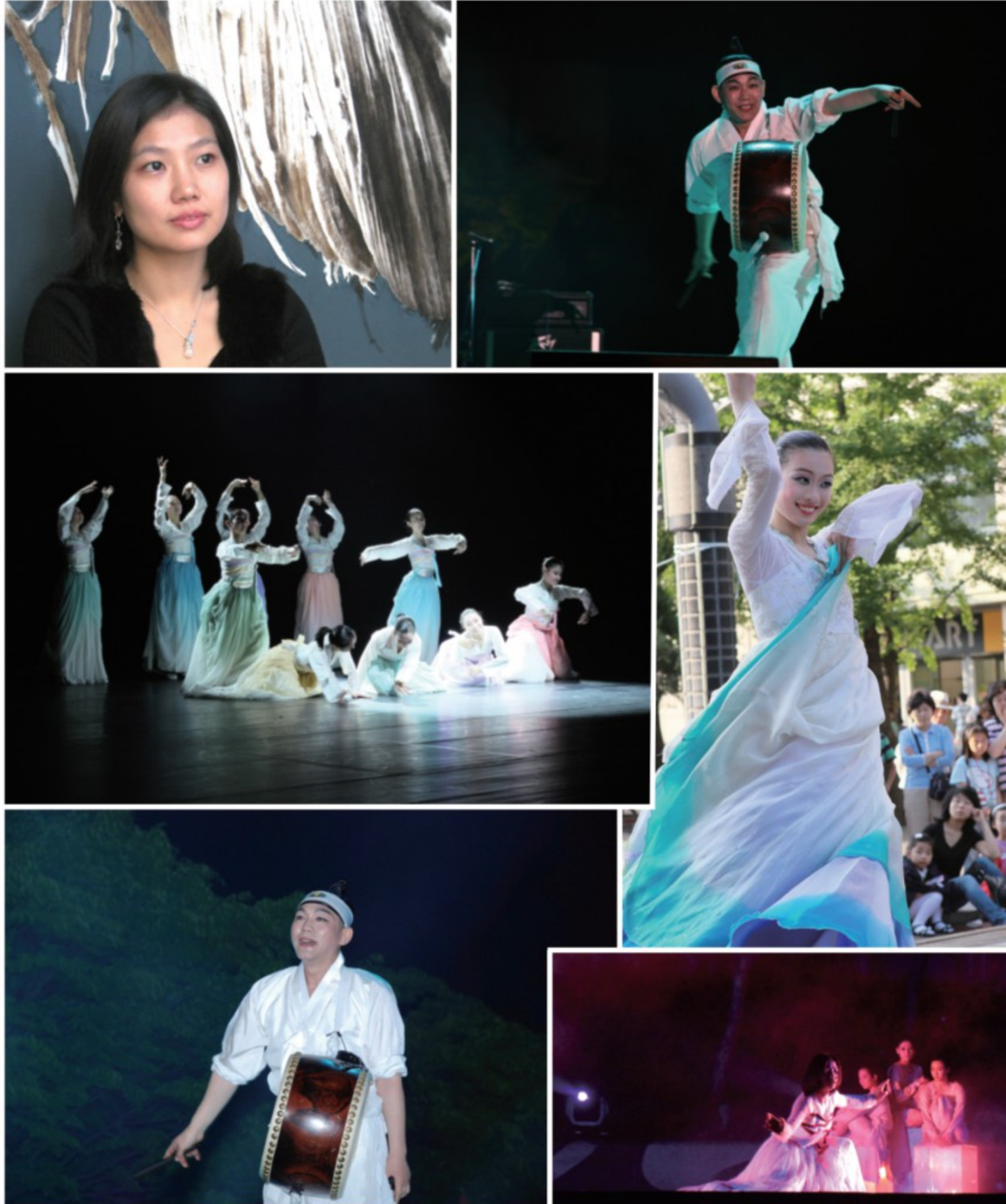
1	2	3	6
4	5	7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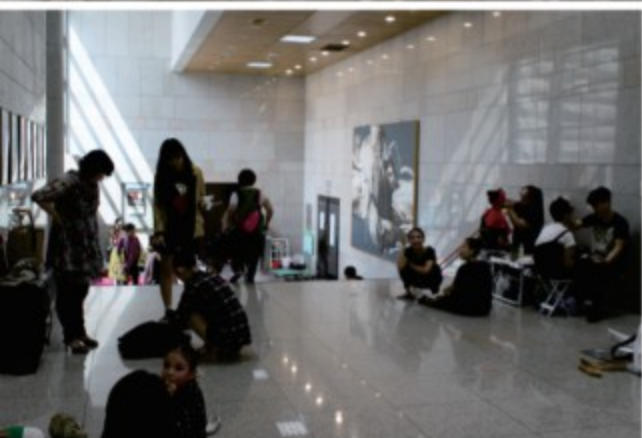
가시리잇고
09. 10 제4회 전국수리무용콩쿨대회

2007

한가위맞이 무용대공연
09. 10 제5회 전국수리무용콩쿨대회



2010~2012



1	2	7
3	4	8
5	6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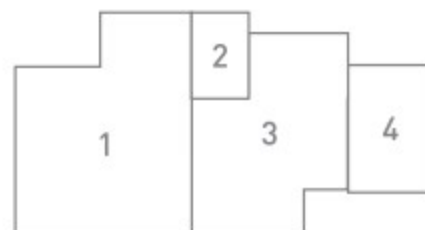
2010 군포예술지 인터뷰
 예인예술제 개막공연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춤과 소리 그리고 우리음악
 예인예술제 개막공연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2012

전통춤과 창작춤의 만남
 제10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2014~2018



2014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2018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제16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오작교의 사랑



2019~2020



1	2	3
		4

2019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무용협회 정기공연

2020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무용협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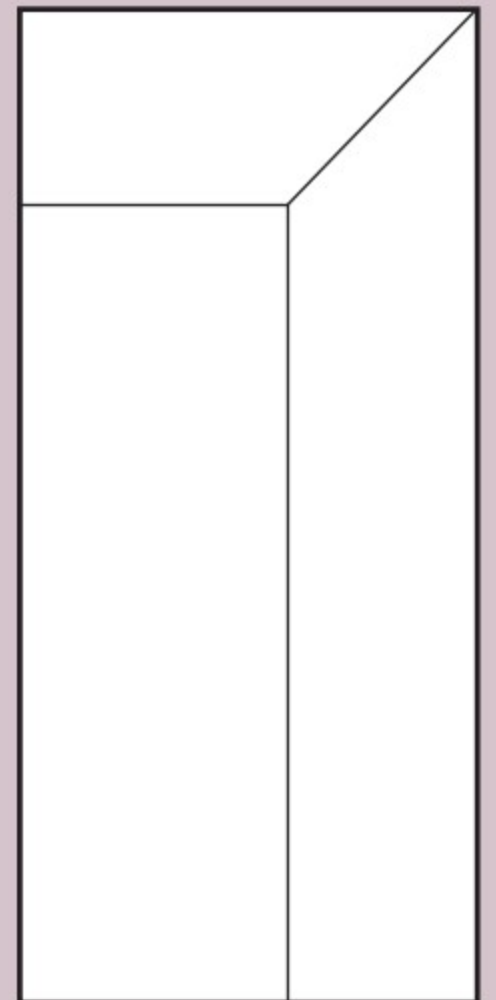
- 1
- 2
- 3

2021
숙정공주 일대기
신 별주부전
제30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 362 군포미술협회가 걸어온 길
- 371 군포미술협회 연혁
- 380 역대 지부장단
- 381 회원 명단
- 383 군포미술협회 화보

04



군포미술협회가 걸어온 길

| 군포미술협회의 태동(초대 ~ 2대 집행부)

1997년 2월 미술발전을 위한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군포 시민들의 미술정서 함양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군포미술협회가 창립되었다. 산본 신도시가 조성된 지 5년여가 흐른 군포시에는 서울 등 인근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 편의성과 수리산에 둘러싸인 생활환경 등, 예술인들에게는 비교적 살기 좋은 주거조건 덕분이었다. 이미 2년전 문인, 음악, 무용의 세 개 협회가 창립되어 교류하고 있었고 이어서 1996년에는 군포예총이 창립되면서 군포시에서도 본격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1997년 연초에 군포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군포예술인의 만남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군포에도 미술협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져 군포미술협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어서 2월 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제1대 송정섭 지부장을 선출하고, 2월 11일 한국미술협회의 인준을 받아 군포미술협회가

창립되면서 문인, 음악, 무용 세 개 협회에 이어 네 번째로 군포예총의 식구가 되었다. 창립 후 곧바로 군포예총이 주관하는 '97 군포 태을예술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미술협회에서는 '군포미술협회 창립전'으로 합류하면서 시민들에게 협회 창립을 알리게 된다.





미술협회는 여타의 협회 중에서도 입회를 위한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협회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정규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경우는 3년의 전시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전공자의 경우는 10년 전시 경력이 있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입회절차는 먼저 시 지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후 지부장의 검토를 거쳐 중앙협회로 서류를 이송하면 중앙에서 회원으로 인준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예술단체로서 회원들의 자부심은 무척 강했다. 창립 당시만 해도 군포에는

전문 전시장은 물론, 마땅한 전시공간도 없는 상태여서 창립전도 산본도서관에서 진행될 만큼 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은 열악하였다. 특히 전시분야는 전문공간이 아닐 경우 작품 훼손이나 분실의 염려도 있고, 무엇보다 조명이나 깔끔한 배경 등 작품을 돋보이기 위한 전시 환경 연출이 어렵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초기 미술협회 전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열정은 대단해서 작품 창작과 함께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1. 23일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현 2인의 부지부장 중에서 김길자 부지부장이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리 권한을 지닌 수석 상임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으로 장미희 회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1998년 5월로 예정된 시민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미술작품설치에 관한 적극적 참여”라는 항목을 정관에 명기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해 5월 ‘제2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이 개최되면서 향후 군포미술협회 정기 회원전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구체적인 행사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당시 군포문화신문(현 군포신문)에 보도된 내

용에 따르면, 98년도 하반기에 군포시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어머니 세미나, 수리산 야외캠프 및 휘호대회, 사생대회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대~3대 집행부

이처럼 야심찬 출발을 보였던 군포미술협회는 송정섭 초대회장이 개인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퇴 함에 따라 1998년 7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2대 장미희 지부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 임원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였고, 8월 23일 다시 열린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부지부장에 류봉현 서양화가와 김문태 서예가, 감사에 정천모 서예가와 이강수 서양화가가 선출되었다. 각분과장으로는 한국화분과위원장에 김은경, 서양화분과 김춘자, 조소분과 이진황, 공예분과 한철수, 서예분과 강영순 회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사무국장에는 이화용 회원이 임명되었으며 송정섭 초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임원 개선 관련으로 한바탕 진통을 겪은 군포미술협회는 제2대 장미희 지부장의 취임과 함께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다. 신규 사업으로 미협회원들과 관내 미술 동아리들의 합동 전시인 '제1회 향토작가전'을 열어 회원들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군포미술협회의 직접 주관사업은 아니지만 미술협회 경기지회와 군포시 공동주최로 7. 27일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이 개최되기도 했는데, 그 해 5월에 개관한 군포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도서관이나 야외 광장을 이용해 전시를 할 수밖에 없던 군포에서도 이제 전시를 위한 전문공간이 건립됨으로써 향후 미술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제3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과 제2회 향토작가전이 개최되었다. 정기 회원전 외에도 미술을 통해 시민들과의 예술적 교감을 시도한 '불우이웃돕기전'과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베트

남 작가 초대전'을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 기획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또한 미술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1회 수리학생미술대전'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이후에 '수리학생미술대전'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며 예비 미술인들을 육성하고 후원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성장하였다. 이 3개 사업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군포미술협회의 역사와 근간을 이루는 행사로 지속되고 있다. 2001년 장미희 지부장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진하면서 6월까지의 잔여임기를 이화용 부지부장이 채우게 되었다.

2001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철수 3대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부지부장에 김문태 서예가, 사무국장에 김은경 회원이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협회의 정규사업인 '군포미협 회원전', '향토작가전', '수리학생미술대전'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며 미술협회의 운영 및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2001년 군포시에서는 '수리문화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는 기존 문화원에서 진행하던 '옷내골 문화제'와 군포예총이 진행하던 '군포 태을예술제', 시민연합회에서 진행하던 '한마음축제'를 하나로 결합한 축제로서 군포시의 새로운 축제 브랜드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축제에서 미술협회는 '군포 청년작가 미술전'을 통해 젊은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시민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동참하였다.

군포예총과 시와의 파트너십이 점차 밀접해지면서 예총 각 협회와의 연관사업도 활성화 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2004년 군포시 민대축제에서 시청에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 설치한 일이다. 축제사무국에서는 축제 홍보를 위해 시청 청사 정면 벽을 덮는 대형 걸개그림을 기획하고 미술협회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회원들은 디자인을 직접 구상하고 시청 옥상에 대형 천



을 펼쳐 놓고 몇날 며칠 동안 직접 그림을 그렸다. 구역을 나누어 그림을 그린 후 시청 옥상에 빗줄로 고정하여 설치까지 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도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회원들은 신명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함께 모여 일을 해나갔다. 전무후무했던 이 작업은 두 번은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군포미술협사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억되고 있다. 회원들로서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매년 축제 때마다 시청 청사에 대형 홍보 현수막이 내걸리는 전례를 만들기도 했다.



또 하나의 행사로 2003년부터 축제기간 동안 미술협회가 주축이 되어 미술, 사진, 시화 작품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다. 2003년 거

리전시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군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전시가 개최되었다. 2005년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군포미술협회를 중심으로 경기수채화작가회, 군포여성화가협회, 디딤돌회, 산본사랑화우회, 상미회, 열린화가협회, 청목회, 향목회 등의 미술동호회와 에이스포토 사진동호회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 전시는 관내 시각예술 관련 단체가 총망라된 행사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군포에는 미술협회 외에도 취미로 모인 동호회나 여성회관 등의 평생학습강좌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미술 동호회 등 미술 인구가 유독 많이 존재한다. 군포 아트 페스티벌은 이런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이를 계기로 군포미술협회는 지역 미술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5년을 끝으로 한철수 지부장이 사임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로 강희진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잔여임기를 채우게 되었다. 강희진 지부장이 직무를 이어받으면서 기존의 김문태 부지부장은 수석이 되었고 오영희 회원이 부지부장으로 서 임원진에 합류하였고 사무국장으로 한혜진 회원이 임명되었다.

14대 ~ 5대 집행부

2007년 정기총회를 통해 강희진 지부장이 제4대 집행부의 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문태, 오영희 부지부장과 한혜진 사무국장은 유임되었다. 강희진 지부장은 ‘군포미술 10년의 역사를 바꾼다’라는 목표 아래 기존에 진행되던 고유사업에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하였다. ‘군포미협 회원전’은 ‘수리산의꿈전’이라는 부제를 통해 계속 군포미협 정기회원전의 명맥을 이어나갔고, 이어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유명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향토작가전’을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으로 새롭게 바꾸고 회원작품과 외부 유명작가의 초대 작품을 겸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군포미협 회원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롯데화랑 초대전, 북수원 홈플러스갤러리 개인전 등 외부 전시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 8월에는 ‘군포 아트페어’를 개최하였다. 일반 회원전과 달리 소규모 개인전처럼 참여 작가별로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부스전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군포에서는 처음 시도되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임을 활용하여 작가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미술체험 마당 ‘미술 시민에게 열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관람 참여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획들은 다가 가기 어렵던 미술의 높은 문턱을 낮춘 시도들로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친근하게 미술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 행사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군포예총에 지원하는 ‘지역예술무대’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는데 음악, 무용, 연극지부의 공연에 이어 미술협회에서는 참신한 기획의 전시행사를 함으로써 예총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미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의 미술 동호회 회원들을 준회원으로 적극 영입하기도 했다.

또한 2007년에는 ‘군포 태을제’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미술작품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야외에 대대적으로 전시하는 ‘군포 아트플래그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각의 프레임에 현수막 실사로 프린팅한 작품을 하나하나 부착하였는데



마치 거대한 탑처럼 보였다. 내외부 작가 270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면서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이 ‘군포 예인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군포 예인예술제’는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7개 협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시도비 지원사업을 예술제의 이름으로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행사로, 2021년 현재까지 18회를 이어져 내려오는 군포 유일의 종합 순수 예술 축제이다.

2009년에 이르러 군포미협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군포에서만 열리던 회원 정기전 ‘수리산의꿈전’이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과 군포에서 연이어 두 번 열리게 된 것이다.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서울전이 개최되었고,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가 바로 이어졌다. 개인전이 아닌 회원전이 서울의 갤러리에서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회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을 대신하여 ‘수리산의꿈전’(군포전)이 군포 예인예술제 기간에 개최되었다. 이 해에 한혜진 사무국장에 이어 이상훈 한국화가가 사무국장에 임명되었다. ‘수리학생미술대전’은 2008년부터 ‘제10회’ 전국 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희진 지부장이 재선됨으로써 제5대 지부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임원진으로는 박찬옥 수석부지부장과 전창봉 부지부장이 새롭게 임명되었고, 이상훈 사무국장은 연임되었다. 작년에 이어 제14회 ‘수리산의꿈전’이 4월 14일 서울전(인사동 타블로갤러리)과 7월 3일 군포전으로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8월에 개최된 ‘군포 아트페어’는 체험행사 ‘미술 시민에게 열다’, 아트마켓, ‘아트 플래그전’을 동시에 진행하여 더욱 풍성한 여름 미술 축제로 발전하였다.

1 6대 ~ 8대 집행부

2013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제6대 이상훈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박찬옥 부지부장과 김태균 사무국장도 새로이 임명되었다. 제17회 회원전 ‘수리산의꿈전’과 제16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이 개최되었고 8월에는 ‘군포 아트페어’와 ‘미술 시민에게 열다’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는 철쭉축제가 군포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제 기간 진행되던 각 협회의 행사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이 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개최 불과 며칠을 앞두고 축제가 취소되면서 진행되고 있던 행사 준비도 모두 중지되었다. 이런 연유로 그 동안은 축제 중에 개최되었던 ‘군포 아트플래그전’이 이번 해부터 예인예술제 기간으로 옮겨 ‘대한민국 중심작가전’과 함께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이상훈 지부장이 연임되면서 제7대 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배선한 부지부장과 신재은 사무국장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또한 지부장의 임기가 4년제로 변경되었다. 이 해의 눈에 띄는 변화는 작년까지 18회를 이어온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가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로 변경된 것이다. 대회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자인 부문을 추가하고 새롭게 1회 대회로 출발하였다. 한세대학교의 후원을 받아 시상 내용에서도 특별상으로 한세대학교 총장상을 신설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기 꿈의학교’사업에 처음으로 응모하여 ‘담벼락 똑똑 꿈의학교’라는 사업이 선정되었다.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수업과 실습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초막골 생태공원 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2018년에 개최된 ‘제2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는 시상 훈격의 특별상에 문체부 장관상, 경기도지사상이 신설되었으며, 상위 최우수상 이내 입상자에게는 ‘한세대학교 디자인학부 예능우수자 수시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담벼락 똑똑 꿈의 학교’에 선정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지역의 공예가들과 함께 우리 마을미술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 ‘제3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는 대상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특별상 수상자는 한세대 입학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상 이내 입상자에게만 제공되던 ‘한세대 디자인학부 예능우수자 수시전형 지원자격’이 상위 우수상 이내 입상자로 확대되었다. 2019년의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이 일몰된

것이다. 지원예산 자체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어 21회를 이어오던 유서 깊은 전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8월에 진행된 제16회 군포 예인예술제의 미술협회 행사는 ‘찾아가는 미술전’으로 대체 되었다. 찾아가는 전시는 문인협회의 ‘찾아가는 시화전’, 사진협회의 ‘찾아가는 사진전’과 합동으로 중앙공원 입구에서 진행되었다.

2020년에 진행된 행사는 ‘담벼락뚫뚫 꿈의학교(용호동굴미술관)’, 7월의 군포 예인예술제 ‘찾아가는 미술전(문화의 거리)’ 9월 ‘군포 아트페어’, 10월의 ‘수리산의꿈전’ 등이 있다. 7월에 진행된 ‘제4회 전국 수리디자인미술공모전’은 코로나의 여파로 실기대회가 아닌 공모전으로 변경 개최되었다. 또한 이 해에 새롭게 시도된 전시가 있었는데, 문인협회, 사진협회와 협업으로 진행된 ‘제1회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춤인’이 그것이다. 이제껏 공동 전시라면 세 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한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의 콜라보 작업은 세 개 협회의 회원들이 각 한명씩 모여 한 팀을 이루고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를 각자의 장르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충분한 기간 협의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두세 번의 만남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각각의 작품 창작 방향을 의논했다. 그 결과를 초막골 생태공원과 중앙공원에서 두 번에 걸쳐 전시를 하고 도록으로도 제작하였다. 도록 뒤쪽에는 함께 만나 논의하는 과정을 수록하여 스토리텔링을 추가했다. 예술로서 각 장르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작품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로 기억된다.

2021년 2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제 8대 배선한 지부장이 선출되었고 신재은 부지부장과 지미혜 사무국장이 임명되었다. 회원 각각의 개성이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군포미술협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등록회원이 80여명에 이르는 안정적인 조직으로서 든든한 기반위에서 있지만, 2020년대 이후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 등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방향설정을 해나갈지가 도약의 관건이 될 것 같다.



군포미술협회 연혁

● 1997

- 01. 제1회 군포미술인의 만남전
- 01. 군포미술협회 준비위원회 발족
- 02.05 군포미술협회 창립 총회
- 초대 송정섭 지부장 선출
- 02.11 (사)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인준
- 05.26 ~ 06.01 군포미술협회 창립전_군포시립도서관
- 군포태을제 부대행사

● 1998

- 05. 제2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07.20 임시총회(임원 개선)
- 2대 장미희 지부장 선출
- 08.23 임시총회(임원 개선)
- 수석부지부장 : 류봉현 / 부지부장 : 김문태
사무국장 : 이화용
- 09.28 제1회 향토작가전 _ 군포시민회관
- 향토자료실 개관 기념전
- 07.27 ~ 08.01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
- 주최 : 한국미술협회 경기지회, 군포시

● 1999

- 04. 제3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06.10 불우이웃돕기전
- 09.02 베트남 미술 걸작전 / 한국 _ 베트남 문화교류
제1회 수리학생미술대전
- 12.23 ~ 12.27 제2회 향토작가전
- 미술협회, 열린작가협회, 군포여성화가협회
군포교원연합회, 군포학원연합회 미술분과 참여

2000

- 06.07 제4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06.12 ~ 06.16 2000 군포미술제 학생미술대전 _ 군포시민회관
- 10.06 군포시민대상 수상
- 수상자 : 류봉현
- 11.11 제3회 향토작가전
- 12.01 제2회 수리학생미술대전
임시총회(임원 개선)
- 지부장 직무대행: 이화용(잔여임기)

2001

- 02.01 제5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04.30 제4회 향토작가전
- 05.19 ~ 05.20 군포청년작가 미술전
- 05.20 시민 걸개그림 그리기
- 수리문화예술제 부대행사
- 06.17 제3회 수리학생미술대전
- 06.30 정기총회(임원 개선)
- 3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 한철수 부지부장 : 김문태 사무국장 : 김은경

2002

- 06.04 제5회 향토작가전
- 06.24 ~ 06.27 군포미술인의 만남전
- 제4회 수리학생미술대전
- 10.26 ~ 10.30 제6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및 수리학생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2003

- 05.24 제6회 향토작가전
- 10.18 ~ 10.22 제7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제5회 수리학생미술공모전

● 2004

04. 30 군포 아트페스티벌
 - 2004군포시민대축제 부대행사
 - 미술협회와 미술, 사진 동호회 연합전
04. 30 대형 걸개그림 제작, 전시 _ 군포시청
 - 군포시민대축제 대형 걸개그림
 - 미술협회 회원이 제작 및 계침
05. 13 제7회 향토작가전
10. 07 한철수 지부장 시민대상 수상
 제6회 수리학생미술대전
12. 02 ~ 12. 06 제8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2005

01. 07 ~ 04. 29 제7회 수리학생미술대전 공모
04. 22 ~ 05. 02 군포 아트페스티벌
 - 2005군포시민대축제 부대행사
 - 미술협회와 미술, 사진 동호회 연합전
05. 25 ~ 05. 30 제8회 향토작가전
 롯데화랑 초대전 및 홈플러스 갤러리 초대전
 - 군포작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첫 외부 전시
09. 27 제9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2006

01. 01 임시총회(임원 개선)
 - 지부장 직무대행 : 강희진
 부지부장 : 김문태, 오영희 사무국장 : 한혜진
04. 28 제10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08. 12 군포 아트페어 / 지역예술무대
10. 09 제9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 향토작가전 → 명칭 변경
11. 17 제8회 수리학생미술대전

2007

- 01. 정기총회(임원개선)
- 4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강희진 부지부장: 김문태, 오영희 사무국장: 한혜진
- 04. 20 ~ 04. 29 군포 아트플래그전
- 군포태을제 '수리산의 봄' 부대행사
- 군포 관내 및 외부작가 270여명
- 05. 03 ~ 05. 06 제11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8. 12 군포 아트페어
- 지역예술무대 부스전시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 10. 04 ~ 10. 12 제10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1. 17 제9회 수리학생미술대전

2008

- 04. 이상훈사무국장 임명
- 04. 28 제12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 01 ~ 05. 05 군포 아트플래그전 _ 중심상가
- 군포태을제 부대행사
- 08. 09 ~ 08. 23 군포 아트페어
- 지역예술무대 / 참여작가 19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 10. 15 ~ 10. 25 제11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 11. 01 제10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능안공원

2009

-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미술관
- 04. 08 ~ 04. 14 제13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인사아트프라자
- 수리산의 꿈전
- 04. 15 ~ 04. 21 제13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수리산의 꿈전

- 04. 28 ~ 05. 04 군포 아트플래그전 _ 중심상가
- 수리수리마법축제 부대행사
- 06. 13 제11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군포시청 야외광장
- 09. 05 ~ 09. 18 군포 아트페어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참여 작가 14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_ 문화예술회관
- 미술 체험 마당
- 12. 07 ~ 12. 17 제12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 2010

- 01. 28 정기총회(임원 개선)
- 5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 강희진 부지부장 : 박찬옥, 전창봉 사무국장 : 이상훈
- 04. 14 ~ 04. 21 제14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인사동 타블로갤러리
- 수리산의 꿈전
- 07. 03 ~ 07. 09 제14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수리산의 꿈전
- 06. 12 제12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 08. 07 ~ 08. 21 군포 아트페어
미술 시민에게 열다
군포 아트플래그전 _ 중심상가
- 12. 11 ~ 12. 20 제13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1

- 04. 30 ~ 05. 06 제15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수리산의꿈전) _ 인사동 타블로갤러리
- 05. 11 ~ 05. 17 제15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수리산의꿈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05. 07 제13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양지공원
- 05. 16 ~ 05. 18 학생초대전
- 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수상작 전시
- 05. 01 ~ 05. 10 군포 아트플래그전 _ 중심상가
- 08. 20 ~ 09. 02 군포 아트페어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참여 작가 13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_ 문화예술회관
- 미술 체험 마당
- 12. 24 ~ 12. 30 제14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2012

- 05.04 ~ 05.11 제16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수리산의 꿈전
- 05.12 제14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양지공원
- 05.04 ~ 05.13 군포 아트플래그전 _ 중심상가
- 철쭉대축제 부대행사
- 08.25 ~ 09.07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5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 12.15 ~ 12.20 제15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13

- 02.28 정기총회(임원 개선)
- 6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 이상훈 부지부장 : 박찬옥, 전창봉 사무국장 : 김태균
- 05.01 ~ 05.08 군포 아트플래그전
- 철쭉대축제 부대행사
- 05.04 ~ 05.09 제17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05 제15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 08.21 ~ 09.03 군포 아트페어
미술 시민에게 열다
- 12.14 ~ 12.20 제16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14

- 05.01 ~ 05.06 제18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05 제16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철쭉동산
- 08.09 ~ 08.17 제17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철쭉동산
군포 아트플래그전
- 12.18 ~ 12.24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7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 2015

- 05.01 ~ 05.06 제19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03 제17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_ 문화예술회관
- 10.19 ~ 10.25 제18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 아트플래그전
- 10.24 미술 시민에게 열다
- 탈, 목걸이 만들기, 가훈쓰기 등
- 12.11 ~ 12.16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6명

● 2016

- 04.29 ~ 05.06 제20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01 제18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 08.19 ~ 08.23 제19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군포 아트플래그전
- 11.25 ~ 11.29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5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12.14 정기총회(임원 개선)
- 7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 이상훈 부지부장 : 배선훈, 김훈섭 사무국장 : 신재은

● 2017

- 04.28 ~ 05.04 제21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13 제1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 _ 철쭉동산, 도장중학교
- 대회명칭 변경, 디자인 부문 신설
05. ~ 12. 담벼락뚝뚝 꿈의학교 _ 초막골생태공원 교육관
- 중, 고등부 참여
- 09.16 ~ 09.21 제20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 10.20 ~ 10.25 군포 아트페어 _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참여 작가 17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군포 아트플래그전

2018

- 04. 27 ~ 05. 03 제22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 05 제2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
- 상위 최우수상 이내 입상자 한세대 디자인학부 예능우수자
수시전형 지원자격 부여
- 05. ~ 12. 담벼락뚝뚝 꿈의학교 / 우리마을미술관
- 초.중.고등부 30명
- 08. 15 ~ 08. 18 제21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_ 철쭉동산
- 12. 04 ~ 12. 11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0명
미술 시민에게 열다
- 미술 체험 마당
군포 아트플래그전

2019

- 05. 02 ~ 05. 08 제23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05. 04 제3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실기대회
- 대상 : 200만원 장학금, 특별상 : 한세대 입학시 장학금 지급
상위 우수상 이내 입상자 한세대 디자인학부 예능우수자 수시전형 지원자격 부여
- 05. ~ 12. 담벼락뚝뚝 꿈의학교 _ 우리마을미술관
- 초. 중. 고등부 30명
- 08. 09 ~ 08. 14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1명
- 08. 30 ~ 09. 06 찾아가는 미술전 _ 중앙공원

2020

- 05. ~ 12. 담벼락뚝뚝 꿈의학교 _ 용호동굴미술관
- 초. 중. 고등부 30명
- 07. 14 ~ 07. 19 찾아가는 미술전 _ 문화의거리
- 07. 30 ~ 09. 11 제4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공모전
- 868명 참가 (중, 고등부 468명 / 유, 초등부 400명)
- 09. 18 ~ 09. 25 군포 아트페어
- 참여 작가 10명

- 10.06 ~ 10.27 제1회 아트콜라보 쓰고 그리고 중인
- 문인, 미술, 사진 3개 협회 회원 협업 작품 전시
- 초막골 생태공원, 중앙공원
- 10.23 ~ 10.30 제24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 수리산의 꿈전
- 10.01 ~ 2021.04.30 공공미술프로젝트 _ 문화예술회관

● 2021

- 02.27 정기총회(임원 개선)
- 8대 지부장 선출
지부장: 배선한 부지부장: 신재은, 서홍자 사무국장: 지미혜
- 07.01 ~ 08.06 제5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공모전
- 1,025명 참가 (중, 고등부 467명 / 유, 초등부 558명)
- 05.04 ~ 05.14 제25회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_ 초막골 생태공원
- 수리산의 꿈전
- 09.10 ~ 09.16 군포 아트페어_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08.17 ~ 10.12 찾아가는미술전 '그림, 군포역 꽃을 피우다' _ 군포시도시공사
- 10.12 ~ 11.15 찾아가는미술전 '그림, 군포역 꽃을 피우다' _ 군포역

역대 지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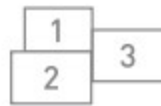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비고
1대	송정섭	1997 ~ 1998	김길자	장미희	
2대	장미희	1998 ~ 2001	류봉현, 김문태	이화용	
	이화용	2001 ~ 2001.06			잔여 임기
3대	한철수	2001.07 ~ 2005	김문태	김은경	
	강희진	2006	김문태, 오영희	한혜진	잔여 임기
4대	강희진	2007 ~ 2009	김문태, 오영희	한혜진 → 이상훈	
5대	강희진	2010 ~ 2012	전창봉, 박찬옥	이상훈	
6대	이상훈	2013 ~ 2016	박찬옥, 전창봉	김태균	4년 임기제 개정
7대	이상훈	2017 ~ 2020	배선한, 김훈섭	신재은	
8대	배선한	2021 ~	신재은, 서홍자	지미혜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NO.	직책	분야	성명
1	회원	수채화	강미숙	35	회원	서양화	박정내
2	회원	서양화	강선호	36	회원	서양화	박찬옥
3	회원	수채화	강희진	37	회원	서양화	박현숙
4	회원	서양화	고헌	38	회원	서양화	박혜자
5	회원	서예	권경애	39	회원	서양화	배선한
6	회원	수채화	권정인	40	회원	서양화	백동열
7	회원	서예	김건석	41	회원	한국화	서봉원
8	회원	서양화	김계환	42	회원	수채화	서소남
9	회원	서양화	김민경	43	회원	서양화	서홍자
10	회원	서양화	김상훈	44	회원	서예	성영옥
11	회원	서양화	김선희	45	회원	문인화	손영호
12	회원	서양화	김수선	46	회원	서양화	시원상
13	회원	서양화	김순심	47	회원	서양화	신미정
14	회원	서양화	김유란	48	회원	서양화	신재은
15	회원	서양화	김윤희	49	회원	서예	신정희
16	회원	한국화	김은하	50	회원	서양화	심계순
17	회원	수채화	김장희	51	회원	서양화	유연화
18	회원	서양화	김정희	52	회원	서양화	유영주
19	회원	서양화	김지혜	53	회원	현대공예	유혜진
20	회원	서양화	김태균	54	회원	수채화	윤종임
21	회원	서양화	김태은	55	회원	서양화	이경숙
22	회원	서양화	김훈섭	56	회원	수채화	이경애
23	회원	수채화	김희정	57	회원	서양화	이미우
24	회원	서양화	노선순	58	회원	서양화	이상훈
25	회원	서양화	도숙영	59	회원	한국화	이서진
26	회원	수채화	류주현(주연)	60	회원	수채화	이선자
27	회원	서양화	문미진	61	회원	서양화	이양희
28	회원	서양화	민유경	62	회원	서양화	이영진
30	회원	서양화	박미숙	63	회원	서양화	이은순
31	회원	서양화	박선경	64	회원	한국화	이지수
32	회원	서양화	박영미	65	회원	수채화	이현숙
33	회원	서양화	박영복	66	회원	서양화	이화영
34	회원	한국화	박영희	67	회원	서예	임나영

NO.	직책	분야	성명
68	회원	한국화	임혜량
69	회원	서예	장도
70	회원	서양화	장동률
71	회원	서양화	장미희
72	회원	서예	전상애
73	회원	서양화	전연실
74	회원	수채화	전창봉
75	회원	수채화	정연순
76	회원	한국화	정정희
77	회원	수채화	지미혜
78	회원	서양화	최윤선
79	회원	서양화	최윤정
80	회원	서양화	최형순
81	회원	한국화	한옥이
82	회원	서양화	한은자
83	회원	서양화	한은자
84	회원	한국화	홍순용
85	회원	서양화	홍옥순
86	회원	판화	홍윤
87	회원	서양화	황순례

2004~2007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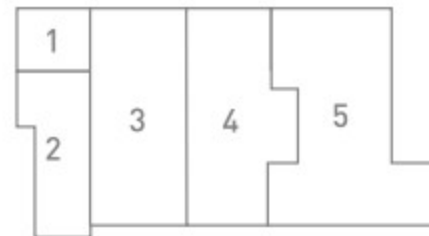
12.02 군포미술인전

2007

10.04 제10회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전
수리산의꿈전



2008~2009



2008

04. 28 제12회 군포미협 정기전_수리산의꿈전
2008 아트페어
학생미술실기대회

2009

12. 07 ~ 17 제12회 대한민국중심작가 초대전
학생미술실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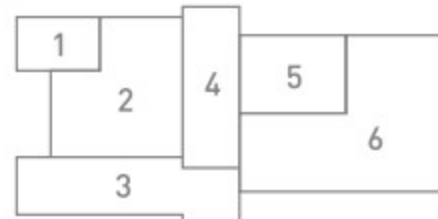


2010~2011



2010

- 06. 10 제12회 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 12. 11 제13회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수리산의꿈전
학생미술실기대회



2011

- 08. 20 군포아트페어
군포아트페어 _ 체험학습



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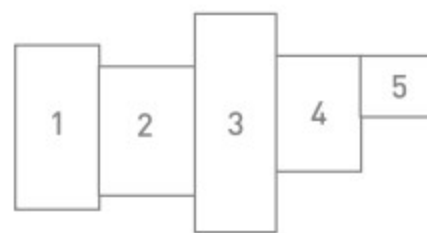


2013

12. 14 ~ 20 대한민국중심작가전
군포아트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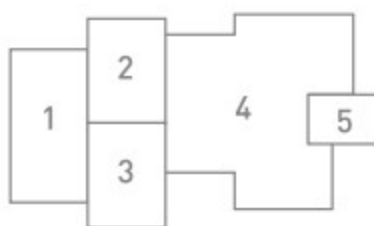
2014

12. 18 군포아트페어
군포아트페어 오픈식
전국수리디자인학생미술실기대회
수리산의꿈전





2015~2016



2015

10.19

제18회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전국수리디자인학생미술실기대회
군포아트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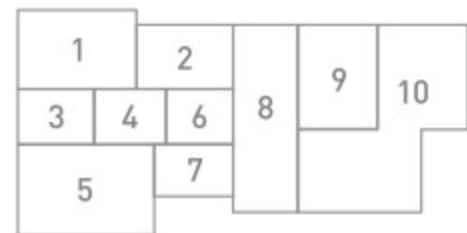
12.11 ~ 16

2016

군포아트페어
학생미술실기대회



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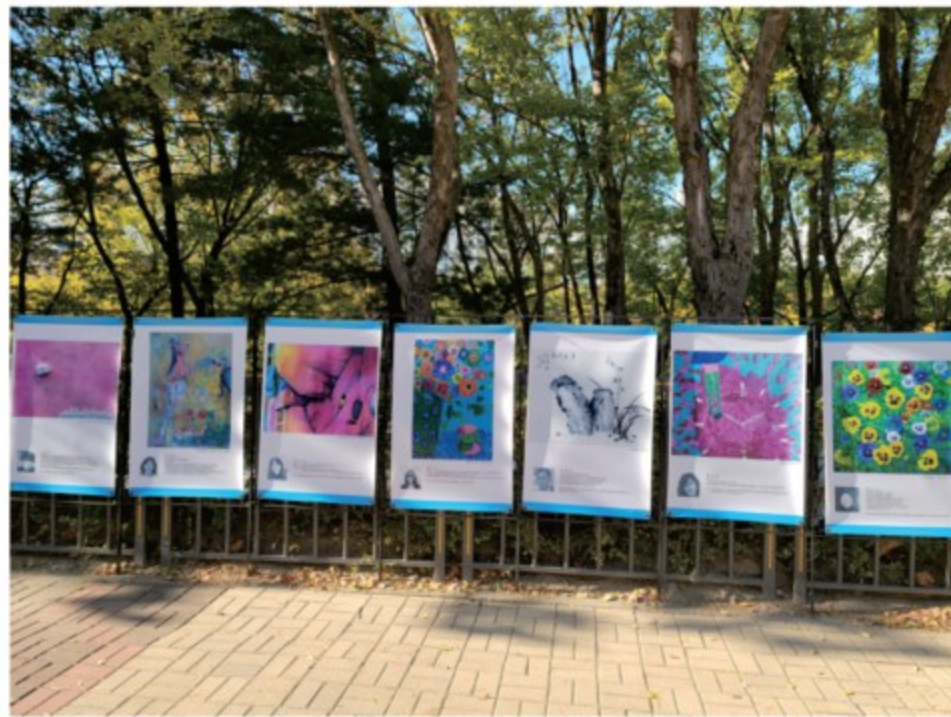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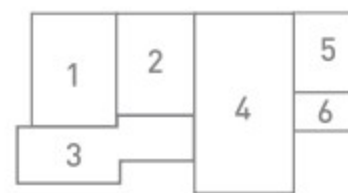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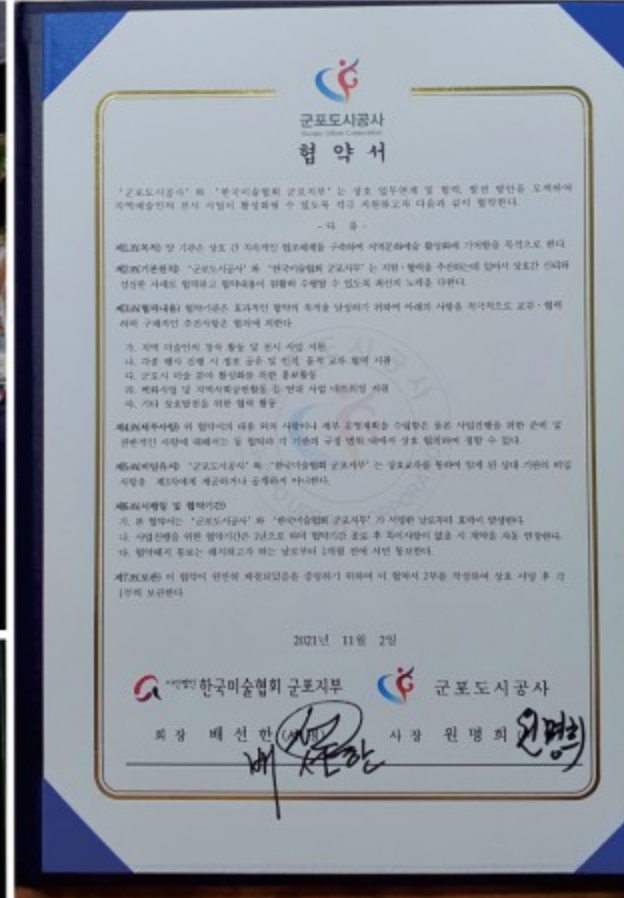
- 전국수리디자인학생미술실기대회9
-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전6
-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전7
- 수리산의꿈전5
- 동행전
- 아트페어

2018

- 수리산의꿈전
- 전국수리디자인학생미술실기대회



2019~2021



2019

- 06.01 제3회 전국수리디자인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전국수리디자인학생미술실기대회

2020

- 수리산의꿈전
담벼락뚝뚝 꿈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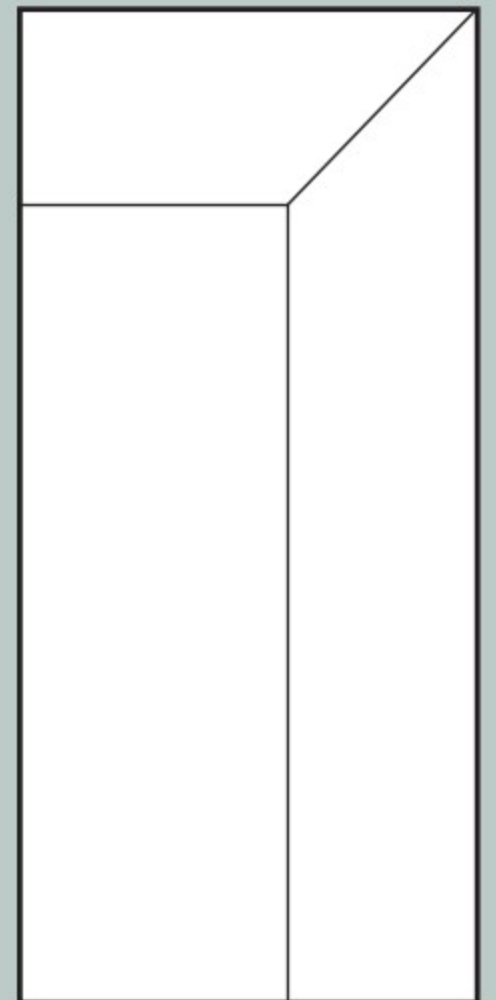
2021

-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
도시공사 협약식

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 398 군포국악협회가 걸어온 길
- 414 군포국악협회 연혁
- 420 역대 지부장단
- 421 회원 명단
- 422 군포국악협회 화보

05



군포국악협회가 걸어온 길

| 태동과 창립



군포에 살던 국악인들은 군포국악협회 창립 이전 이미 산본 중심상가에 있는 한누리국악예술원(1988 창립, 단장 전순택)에서 실내악, 무용, 사물놀이 등 공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포예총이 창립되면서 국악인들은 군포에서 활동의 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1997년 4월 1일 군포국악협회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 위원회(전순택, 허명희, 정동연 등)가 발족되었다. 먼저 군포에 거주하는 국악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일을 시작했다. 군포에 살면서도 안양국악협회에서 활동하던 국악인들이 앞장섰고, 숨어 있던 국악인들이 하나, 둘 모였다. 드디어

1997년 6월 30일에 (사)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인준을 받아 창립되었고, 전순택 초대 지부장과 허명희 초대 사무국장이 여러 회원들과 함께 군포국악협회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군포국악협회는 한누리국악예술원을 군포국악협회 부설국악원으로 하고 민요분과, 풍물분과, 무용분과 3개 분과로 출발했다. 그 후 군포예총에 가입하면서 무용분과는 무용협회가 있어 국악협회에서 빠지게 되었다. 초기 군포국악협회는 풍물반(전순택, 허명희, 정동연 지도)을 운영하며 국악의 발전의 꾀했다. 또 민요반(김영옥, 공재숙, 오명자)도 함께 운영하며 국악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순택 지부장은 당시 (사)김덕수 사물놀이패 경기도 지부장이었던 인연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해 큰 판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군포국악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협회 내에 악단을 창단하여 공연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악단 창단은 공연을 기획

하고 연습할 때도 훨씬 능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2003년 가장 먼저 전통문화예술단 ‘누리’가 창단되었다. 2004년엔 국악실내악단 ‘비상’이 출발했다. 국악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타악, 실내악, 소리, 무용 등을 종합적으로 무대에 선보이기 위해 2006년엔 국악예술단 ‘해밀’이 탄생되었으며, 경기민요의 전문공연을 위해 경기소리 ‘소리향’도 같은 해에 창단되었다. 또 일반인을 위한 풍물동호회 ‘두레’가 시작되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국악사랑 동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민요예술단 ‘아리소리’는 2015년 10월에 창단되어 남도민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포국악협회 창립 이전에 자체적으로 활동하던 단체 ‘사물설악’도 합류했다.

이렇게 창단된 악단 중심으로 군포국악협회는 초대 전순택 지부장님을 시작으로 (故)배기철 지부장님, 이선형 지부장님, 이영미 지부장님을 이어 유형열 현 지부장님과 회원들이 현재까지 군포국악의 발전을 위해 예술 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국악협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참신한 창작활동으로 여러 연령대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다양한 작품과 국악예술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악협회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활동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음악축제)

군포국악협회의 중점사업은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국악축제)라고 할 수 있다. 군포국악협회가 창립되기 전인 1995년부터 군포에 살던 국악인들은 국악정기연주회를 가져왔다. 그 후 창립 다음해인 1998년부터 제 1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국악축제)가 되었다. 이렇게 1998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제24회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했다. 이는 군포국악협회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통 있고 심혈을 기울인 공연이었다.



제1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음악축제)는 1998년 9월 12일에 있었다. ‘우리 춤. 소리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IMF, 실직, 수해 등으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새로이 여명의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었다. 좀 더 진취적인 사고로 옛것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곳적 소리와 함께 모더니즘적인 전자음과 조합한 새로운 국악을 선보였다. 1999년 6월 10일 제2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우리음악축제)에 이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계속된 연주회는 타악과 현악, 민요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군포국악협회의 중점사업인 국악정기연주회가 궤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졌고, 국악공연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다. 특별히 제10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우리음악축제- 해밀의 사계)(2007.4.5)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국악의 편견을 없애는데 힘을 모았다. 소규모 극장의 특성을 살려 재미는 물론 공연자와 관객이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만든 무대로 진정한 우리 음악의 맛을 알게하며 국악 마니아를 만든 소중한 공연이었다.

제14회 ‘철쭉꽃 국악의 향기’ (2011.5.7)는 철쭉동산에서 진행되었다. 꽃속에서 이루어지는 야외공연이라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국악 실내악 ‘비상’은 제13회 때 연주했던 ‘소리놀이1+1’, 제비노정기, ‘판굿’ 등을 새롭게 연출해 무대에 올렸다. 퓨전타악그룹 ‘좋은 친구들’은 ‘칼라쇼’를 보여주었다. 타악 퍼포먼스 팝핀댄스 B-boy가 함께 연출한 이번 무대는 LED조명, 레이저, 영상, 특수의상, 조명이 하나로 뭉쳐져 공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제15회 ‘나비아 청산가자’, 제

16회 ‘봄날 우리 춤 우리 가락’공연도 철쭉꽃 흐드러진 철쭉동산에서 이루어졌다. 제17회와 제18회 공연은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으로 산본 중심상가 야외무대에서 시민들과 가깝게 만나 흥겨운 국악으로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제19회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 국악의 향기’, 제20회 공연은 ‘국악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제21회 공연은 ‘국악, 가을에 물들이다’로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어느 해보다 뜻깊은 공연이 있었다. 바로 제22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음악축제) ‘그날의 함성을 우리의 음악으로’ (2019.6.29)였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로 가슴 아픈 역사와 민족의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 음악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공연이었다. 시낭송, 대북시나위, 국악실내악, 사물아라리, 경기민요, 남도민요, 판굿 등을 공연하여 시민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무리는 전출연진이 ‘홀로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관객들과 하나가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인 2020년엔 제23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음악 축제)-‘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희망을 노래하다’(2020.10.30)가 군포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렸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음에 위안을 삼았다. 비록 대면할 수 없었지만 국악은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동계 하여 기운생동하는 힘이 있음에 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각 가정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음악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랐다. 무대에는 국악실내악곡, 소울 장구, 액맥이타령, 타혼, 남도민요, 사물아라리, 경기민요, 판굿이 울렸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영상으로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021년에도 국악 정기연주회는 계속 되었다. 제 24회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음악축제)(2021.11.12)는 역시 비대면 공연으로 영상을 송출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악협회 창립 이

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국악정기연주회’로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은 큰 자부심을 가졌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인 국악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정월 대보름은 한해 농사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명절이다. 삼국유사 1권 ‘기이편’에 보면 신라 21대 왕 소지왕 때 반역을 알린 까마귀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이라 정해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온다. 또 삼국사기에 신라에서는 정월 보름에 연등을 달았다는 기록도 있다. 정월 대보름에는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놀이들이 전해오고 오곡밥과 나물, 부럼 깨기 등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 맞춰 군포국악협회는 2000년도부터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를 열었다.

첫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는 ‘대보름 달맞이 굿’(2000.12.9)이었다. 2002년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 마당’, 2004~2007년까지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로 둔대초등학교 앞 논에서 열렸다. 1부 지신밟기, 2부 전통문화체험마당, 3부 달맞이 굿으로 진행되었다. 전통문화체험마당의 쥐불놀이 깡통 만들기, 연 만들어 날리기, 새끼줄에 소원 적어 꿰기, 전통 민속놀이(널뛰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부럼 깨기 등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달맞이 굿은 소나무와 대나무, 짚으로 만든 달집태우기와 더불어 대동놀이 (강강술래, 쾌지나칭칭나네, 지경다지기)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없었고, 2014년~2016년까지 성대하게 열렸다. 2014년 정월대보름 음악회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2014. 2.5) 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렸다. 1부 앞마당 행사, 2부 대청마루(본 공연), 3부 뒷마당놀이로 진행되었다. 뒷



마당놀이는 철쭉홀 앞 광장에서 풍악과 함께 소원지 발원식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새기고 한 해의 소원을 빌며 마무리했다.

2015년 정월대보름 음악회 ‘월광(月光)’(2015.3.7)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렸다. 우리 음악의 근본적인 구조인 ‘내고 달아 땀고 푼다’로 ‘월광’을 풀어나갔다. ‘내고’는 시민들의 민속놀이마당이였다. ‘달아’는 시민들이 달맞이 동산(수리홀로 오르는 계단)을 오르며 게임을 통해 꾸집한 부럼 선물을 받고 달집에 소원지를 꿰었다. ‘땀고’ 공연무대 중 인상 깊은 것은 작가 ‘지희’와 함께하는 SAND ART로 그리는 ‘月’이었다. 퍼포먼스화 된 샌드애니메이션을 여성의 섬세한 손끝으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해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푼다’는 강강술래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조명으로 연출한 불타오르는 달집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8시 50분에야 마무리 된 긴 시간만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였다.

2016년 정월대보름한마당-‘액맥이’(2016.2.20)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렸다. 군포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월대보름한마당 ‘액맥이’는 한 해의 시작을 여럿이 시작함으로써 큰 숨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바람이였다. 지신밟기,액맥이타령,우락,부포개인놀이,사물놀이&축원무,성주풀이,남원산성,진도아리랑,판굿과 개인놀이, 길쌈놀이 등 서정적이며 역동적인 무대를 구성하여 관객들과 하나가 되었다.

2017년 정월대보름축제(2017.2.11)는 산본 로데오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지신밟기,대고,민요,사자춤,판굿,길쌈,대동놀이 공연으로 시민들과 즐거운 한판을 벌였다.



군포예인예술제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군포예인예술제(축제이름이 태을예술제, 수리문화예술제, 군포시민대축제, 군포예인예술제로 바뀜)에 군포국악협회도 참여했다. 2000년에 국악공연으로 참여해 2021년(8. 6)까지 계속 활동했으며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엔 복지관예술제 ‘함께하는 이웃’, 2005년-2006년엔 ‘삶속에 흐르는 꿈-소리와 움직임’, 2007년도엔 ‘한가위 국악한마당’, 2008년도엔 ‘가을 속의 우리 소리’, 2009년도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2010년도엔 ‘춤과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 2011년도엔 ‘전통의 멋과 울림’, ‘흥겨운 우리가락 팔도민요 여행기’, 2013년도엔 ‘창극 배비장전 공연’, 2014년도엔 ‘국악사랑 ‘등당’과 함께하는 국악체험 -예술로 함께’ 그리고 ‘한여름 밤의 국악여행’, 2015년도엔 ‘소통의 울림’, 2016년도엔 ‘樂에 취하다 - 예술, 세상을 바꾸다’, 2018년도엔 ‘국악과 함께하는 여름밤 산책’, 2019년도엔 ‘행복한 樂幸’, 2020년도엔 ‘태평성대(太平聖代)’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다. 이 공연들은 역시 전통문화예술단 ‘누리’와 국악실내악 ‘비상’, 경기민요 ‘소리향’ 과 ‘한얼국악예술단’, 그리고 초대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여러 무대 중 철쭉동산 상설무대에서 열린 제 11회 군포예인예술제 ‘창극 배비장전’(2013.8.16)은 아주 특별했다. 군포국악협회와 군포연극협회의 장르 간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엄격한 신분제도와 권위를 앞세운 사회체계에서 서민들은 지배계급의 위선적이고 부패한 이면을 통렬히 풍자한 배비장전을 마당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시민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국악사랑 ‘등당’과 함께하는 국악체험 -예술로 함께’ 그리고 ‘한여름 밤의 국악여행’(2014.8.16)은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 기획이

었다. 먼저 오후 3시에 시민들은 국악사랑 ‘등당’과 국악체험을 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의 지도아래 군포 둔대농악가락을 익혀보고, 사물악기를 연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저녁 7시에는 뜨거운 여름밤을 국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국악여행’ 무대가 이어졌다.

‘소통의 울림’(2015.10.3)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군포무용협회와 협업한 특별한 무대였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려 보급하고, 개별화 되고 있는 지역 정서를 공동체적 신명에 기반한 이웃, 지역 사랑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1부 공연 시작은 국악실내악 비상의 ‘광야의 숨결(작곡:강상구)’이 문을 열었다. 2부는 전통과 창작이 함께하는 가, 무, 악의 조화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우리 정서의 흥과 멋을 대북연주로 북돋우는 ‘천고의 울림’으로 시작했다. 한얼국악예술단 & 김은희, 김수연, 김선진, 진가득, 이연주, 박혜진, 홍지희가 꾸민 무대였다.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 늘샘무용단의 ‘판을 그리는 춤’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2020년에는 ‘태평성대(太平聖代)’(2020.7.18.)가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예부터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때 제천의식으로서 천도재를 지내거나 염원 비나리를 하였다. 그런 의미로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마음과 시민들의 각 가정에 심신의 위안을 주기 위한 힐링국악공연을 하게 되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단 ‘누리’의 ‘비나리’가 무대에 올랐다. 한얼국악예술단의 가야금연주곡 ‘超越’이 영상과 타악기와 함께 어우러졌다. 국악실내악단 ‘비상’은 양방언 작곡 ‘prince Of Cheju’, 임교빈 작곡 통속 민요를 새롭게 엮은 모음곡 ‘민요의 향연’을 펼쳤다. 한얼국악예술단의 ‘가야락’은 하늘의 소리인 천고(天鼓)의 대북연주와 모듬북의 다이내믹한 연주 일렉트로니컬한 가야금의 멜로디가 신명났다. 마지막 무대는 전통문화예술단 누리의 ‘판굿’이었다. 진법의 다양함과 잭이들의 연주 기량, 춤사위 등으로 전통 풍물 굿이 지닌 악, 가, 무의 특징을

보여주며 쇠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버나 등의 개인기를 통해 즐거움을 시민들과 나누었다.

2021년에는 ‘國樂 행복을 노래하다’(2021.8.6)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비대면으로 열렸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일상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였다.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국악실내악단 ‘비상’, ‘한얼국악예술단’의 무대가 차례로 펼쳐졌다. 마지막 무대는 전통문화예술단 ‘누리’가 화려한 판굿으로 판을 벌였다. 부포 상모놀음과 소고놀음의 멋진 춤사위는 더욱 흥을 돋우고 열두 발 상모놀음은 판굿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둔대농악발표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군포국악협회는 군포문화원의 지원으로 ‘둔대농악 전수 및 고증조사’를 시행했다. 경기 웃다리 농악의 기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군포 둔대농악을 보존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둔대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마을 단위로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가졌다. 군포시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농악부문)로서 유일하게 전래하는 ‘둔대농악’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 계승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은 일이었다.

둔대농악의 유래, 특징, 형태, 편성, 복식 등의 원형 고증은 현재 둔대농악을 연희하는 할아버지들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기억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둔대농악의 기능보유자의 노령화로 인해 점점 맥이 끊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전통 민속놀이를 새로운 세대들이 옛 모습 그대로 전수받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내 고장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둔대농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뜻깊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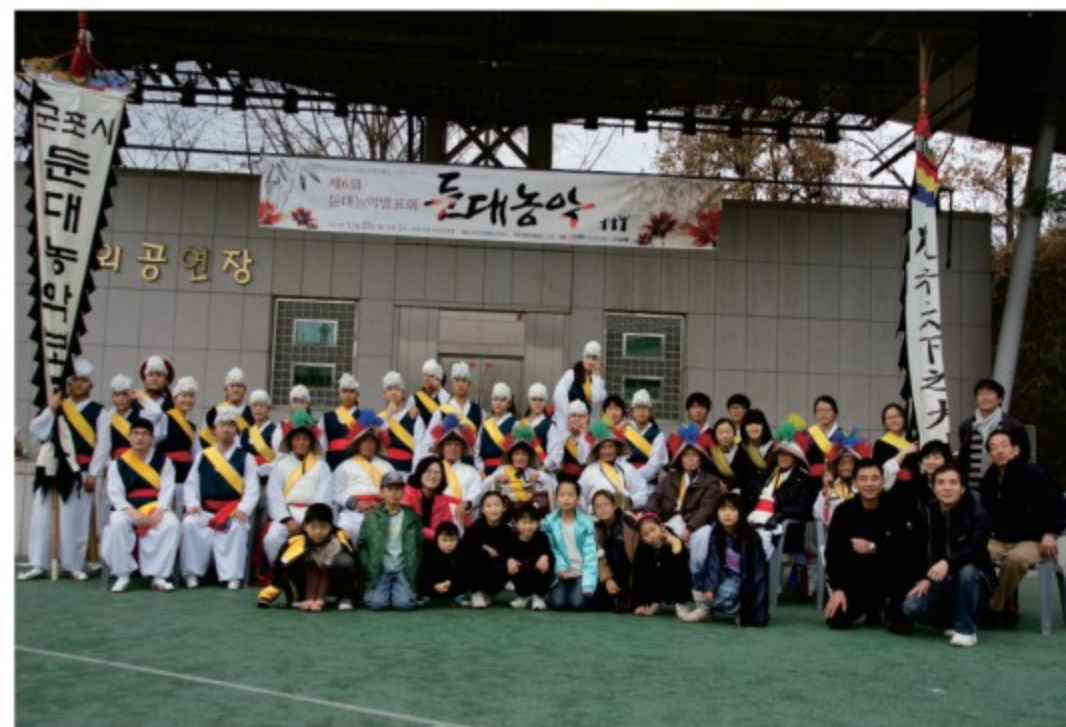
제1회 둔대농악발표회(2004.12.4.)는 둔대농악발굴 고증사업의 첫 번째 결과로 열렸다. 군포시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 ‘둔대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2005년에는 둔대농악청소년한마당(11.20)이 군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용호고, 흥진고, 산본중 학생들로 구성된 군포청소년 풍물단이 둔대농악, 사물놀이 등을 공연했다. 여름, 겨울 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둔대농악을 전수했다.

제2회 둔대농악발표회(2006.11.21)는 둔대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제3회 둔대농악발표회(2008.6.21), 제4회 둔대농악발표회(2009.10.17)는 산본중심상가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고사소리(대보름 덕담), 농요인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 흙치는 소리와 판굿을 공연했다.

제5회 둔대농악발표회 ‘만남’(2010.11.27)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은 2010년 지역문화예술활동 선정사업으로 지원해주었다. 먼저 둔대농악보존회의 소원성취와 복을 비는 ‘고사소리’와 ‘둔대농악’이 무대에 올랐다. 상쇠 심상곤 선생님과 정형수, 김효동 선생님 외 많은 분들에 의해 전승된 내용이었다. 이어 군포국악협회의 지역 민속놀이와 ‘판굿’ 공연이 있었다.

제 6회 둔대농악발표회(2011.11.27)는 군포시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사업이었다. 먼저 고사덕담(대보름덕담)으로 무대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것은 농요(두레농악)였다. 두레는 힘든 농사일의 고단함을 협동의 힘으로 극복하는 내용이며 희망의 소리가 담겨져 있다. 농요에 이어 ‘둔대농악’이 공연되었고, 짚지패가락(굿거리가락)에 맞추어 소리와 춤을 추며 뒤놀음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둔대농악발표회는 2012년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2013년 ‘연희 한마당’으로 흡수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희 한마당’은 군포국악협회가 대야동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야미 반월호수 야외무대에서 열린 ‘연희 한마당’(2013.10.19)은 지역의 작은 축제문화로 발전, 전승하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군포국악협회의 기획의도대로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고 호흡하며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먼저 둔대농악보존회의 ‘둔대농악’이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연희 한마당’에는 전주합굿마을기놀이(김형태)가 찬조 출연했다. 전주 삼천천 일대에서 행하던 민속예술이며 마을 간의 분쟁을 용기를 통해 해소하고 마을의 단합과 안녕을 바라는 민속예술을 특별히 군포에서 선보였다.

다음 해에도 ‘연희 한마당’(2014.10.25)은 대야미 반월호수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역시 대야동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고

호흡하며 즐겁게 참여한 지역의 작은 축제마당이였다. ‘연희 한마당’은 2019년도까지 전통문화예술단 ‘누리’가 공연을 계속 진행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 찾아가는 우리 음악 나들이

군포국악협회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의 모임인 국악실내악 ‘비상’,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한얼국악예술단, 경기민요 ‘소리향’ 등이 소외된 곳에 찾아가서 공연을 열었다. 일상 속에서 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찾아가는 곳마다 관객들과 공연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며 관객들은 공연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공연자들은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활동이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그 활동은 계속 되었다. 군포노인복지회관, 군포매화사회복지관, 엘림복지원, 의왕시노인복지관, 수원무봉종합사회복지관, 광정동청소년의집, 의왕청소년수련관, 군포주몽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평생학습원,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찾아 공연했다.

2019년도엔 특별히 이 행사가 ‘지역문화예술단체공모사업 - 찾아가는 우리 음악 나들이’로 선정되었다. 덕분에 국악의 저변확대로 문화융성을 이루고 시민들과 같이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상호 교류로 지역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싶은 기대감이 넘쳤다. 이 공연(11. 13)은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에서 즐겁게 열렸다.

2020년 ‘찾아가는 우리음악나들이’(2020. 7.11-7.12)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공연을 할 수 없었지만 공연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했다. 이틀에 걸쳐 찍은 영상은 사물놀이, 경기민요, 남도민요였다.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인 ‘찾아가는 국악나들이’(2020.10.26)도 스튜디오 투테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했다.

군포국악협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이 기존에 공연했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공연양식을 만들어 가기 위함으로서 창작의 핵심은 관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단의 관객체험과 시각의 화려함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안무를 중점으로 두었다. 개인 개인마다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예술인들이 함께 창작공연을 펼쳤다.

국악상설공연 - 해밀의 사계

국악예술단 ‘해밀’은 실내악, 타악, 소리로 구성 되어 있는 젊은 국악인 전문연주단체이다. 전통의 맛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창작국악에 중점을 두었다. ‘비 온 뒤의 맑게 갠 하늘’(해밀)처럼 항상 맑고 밝은 모습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에서 4년 동안 공연을 진행했다. 이선형 국악협회 지부장은 “3개 팀이 가진 능력을 한 곳으로 결집시켰다고 생각한다. 해밀의 공연은 관객을 동원하지 않아도 객석이 꽉 찰 만큼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도약과 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꾸준히 펼쳐갈 것이다”라며 ‘해밀’에 믿음직한 애정을 표했다.



2006년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4번의 공연이 있었다. 9월에 열린 ‘소리 울림 신명 그리고…….’는 삶의 여정을 다양한 형태의 무대 전환과 음악의 구성으로 국악의 특징을 표현해 내며 관객과 함께 소리의 울림을 느껴 신명을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 10월엔 ‘도담도담’(아이들이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이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에서 열렸다. 천진난만한 아이 모습을 동요 국악연주로, 청소년 반항기는 타악과 비보이춤으로 표현했다. 갈등의 시기가 지나며 서로의 맘을 공감하는 모습을 ‘배 띄워라’ 신포이로써 독창과 연주로 화합을 알려준다. 다 자란 자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내레이션으로 풀어냈다. 가족들이 함께 본다면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무대였다.

11월엔 ‘사랑~음! 사랑’은 누구나 경험해 본 사랑이야기를 ‘가시버시 사랑’ ‘사랑가’ ‘프린스 오브 제주’ 그리고 우리가 즐겨 보고 듣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음악을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나타냈다. 12월엔 ‘즐거운 성탄’은 온 가족이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다가올 새해를 서로에게 축복해주며 한 해를 마감하는 공연이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스한 시간이었다.

2007년도에는 해밀의 사계 공연이 4월, 8월, 10월, 12월 4번 있었다. ‘말(言) 난장’은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에서 열렸다. 평소 지루하게 생각되었던 국악을 직접보고 즐기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말(言)난장’으로 가야금, 해금, 판소리, 민요, 풍물놀이 등의 다양한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춤’은 악과 함께 우리의 몸짓

을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가는 춤과 해설이 있는 공연을 진행했다. 2009년도에는 2번의 공연(4월, 10월)이 있었다.

문굿, 비나리, 삼도사물놀이, 모듬북, 살풀이춤, 고깔설장구, 사설/장단 배우기, 관객과 체험하기(덩 덩 궁따궁의 구음과 손장단을 이용하여 관객들과 함께 주고받기), 사물판굿 등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다.

마당극

‘신마당극 놀부뎐’(군포여름축제 한여름예술마당극 지원 사업)(2018. 8. 25~8. 26) 이 대야미 반월호수공원 야외무대와 산본 중심상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심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나라 전래동화 놀부전을 좀 더 다채롭고 현대적이며 세련되면서도 구성지게 꾸몄다. 관객들은 웃고 즐기며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10일에는 ‘신마당극 놀부뎐’(경기도 유력축제 및 콘텐츠발굴공모사업)이 다시 한 번 공연되었다. 마당극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였다. 쌀쌀한 날씨에도 반월호수 야외무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누렸다.



군포 지역의 전통 설화인 감투봉 아가씨를 토대로 만들어진 ‘마당극 이어져라 몽땅’(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 사업)(2019.11.17)도 열렸다.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불어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함께 춤추고 나누는 소통의 공연이었다. ‘이어져라 몽땅’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자산의 콘텐츠로 자리 잡아 널리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관람한 시민들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에 공감한 시간이었다.



놀부의 삶과 흥부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다양한 삶 속에서 권선징악을 표현한 ‘신마당극 놀부 게 섰거라’(2020.10.11)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렸다. 전통과 현재의 동시대적인 상황을 그려내어 군포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현재를 이어주는 동시대의 일상적 삶의 상황을 함께 그려내어 군포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이 뜻깊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나아가 군포시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콘텐츠공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창작공연의 기틀이 되기를 희망했다.

| 현재와 미래

‘2021년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펼치는데 그 어떤 해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 공연무대를 주로 하는 예술인들의 실정은 더 높은 벽에 부딪혔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쉽게 허락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

국악협회 회원 모두 이젠 코로나19의 문제를 뛰어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대처할만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발 빠르게 변화하는 길만이 최선이며, 결국은 공연예술도 미디어 공유로 가야만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그 시대의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준다.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중들은 미디어로 공유된 세상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은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디어가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악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양질의 국악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우리 삶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전통 문화예술을 한 단계 성장시켜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자칫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포국악협회는 그동안 타 도시와는 다르게 직업 예술인 그리고 생활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국악 활동을 계속해왔다. 특별히 국악정기연주회(젊은 우리국악축제)는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진행했다. 또 정월대보름 축제, 둔대농악 계승과 발전, 마당극,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국악 무대를 펼쳤다. 그 경험과 힘은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해도 결코 국악의 발전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군포국악협회는 힘차게 다시 출발해야겠다. 국악이 있는 한, 문화예술이 있는 한, 코로나 19는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도 군포국악협회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국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포국악협회 연혁

● 1997

- 04.01 준비위원회 발족
- 05. 태을예술제 참가
- 06.13 창립총회 _ 산본웨딩
- 06.30 (사)한국국악협회 군포시지부 인준
- 12.16 우리춤·소리꾼의 날 행사 _ 산본웨딩

● 1998

- 02.21 김덕수 사물놀이 초청공연
- 05.07 군포시민회관 개관공연
- 06.13 태을예술제 개막 사물놀이 공연
- 06.23 국악실내악단 창단, 제19회 경기종합예술제 출연
- 09.12 젊은 우리음악축제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11.14 수리농악 시연 _ 산본중앙공원

● 1999

- 04.12 우리문화 한아름 35개학교 지도 공연
- 06.10 젊은 우리음악 릴레이 축제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야외공연장
- 11.19 수리농악 시연 _ 계원조형예술대학

● 2000

- 02.19 대보름 달맞이 굿
- 04.30 태을 국악제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05.15 무대공연작품 새천년 새봄
- 09.01 ~ 10.15 유치원교사 연수 _ 군포교육청
- 10.28 젊은 우리음악 축제 _ 산본중앙 야외무대

● 2001

- 05. 23 청년 국악제
- 10. 13 문화관광부 무대공연작품 '조우 춤, 선율, 북모듬'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10. 20 젊은 우리음악축제
- 10. 29 제3회 경기민요 경창대회 예선

● 2002

- 02. 20 정월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 06. 15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산본중심상가 원형광장
- 07. 15 ~ 08. 20 우리문화 상설강좌 개최
- 09. 08 찾아가는 우리음악공연
- 12. 06 국악한마당 _ 군포시민회관 국제회의실

● 2003

- 06. 젊은 우리음악축제
- 09.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장려상 입상 _ 둔대농악
- 05. 18 청년국악제 _ 군포시청 앞 광장
- 10. 24 경기민요 경창대회 개최
- 12. 18 군포예인송년예술제

● 2004

- 02. 05 제3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_ 대야미
- 04. 24 ~ 05. 05 군포시민대축제 참가
- 05. ~ 09. 숲속 음악회
- 06. ~ 12. 둔대농악 발굴 고증사업
- 08. ~ 11.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 07. 24 군포 청소년 풍물 연합회 창단
- 07. 24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청소년수련관
- 09.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 총체극
- 연해주 길마중 전국 순회 공연
- 10. 19 ~ 10. 28 2004놀이마당 3회 순회공연
- 12. 04 제1회 둔대농악 발표회 _ 청소년수련관
- 12. 10 제2회 군포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5

- 02. 23 제4회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_ 대야미
- 06. 14 젊은 우리음악축제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 07 흥겨운 우리음악 _ 당동문화센터
- 11. 20 둔대농악청소년한마당 _ 청소년수련관
- 12. 13 제3회 군포예인예술제 '소리와 움직임'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6

- 02. 11 제5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_대야미
-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연중 총 3회)
- 04. 27 2005 철쭉동산축제
- 06. 29 젊은 우리음악축제_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 09. 18 제4회 군포예인예술제 '소리와 움직임'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09. ~ 12. 해밀의 사계
- 국악상설공연
- 11. 21 둔대농악 정기공연 _ 둔대초등학교

● 2007

- 03. 03 제6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_ 대야미
- 04. ~ 10.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총3회)
- 04. 05 젊은 우리음악축제 _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 04. 2007 군포태을제 '산사음악회 _ 수리사
- 04. ~ 12. 해밀의사계(총4회)
- 국악상설공연
- 09. 22 제5회 군포예인예술제 _ 산본중심상가 야외무대

● 2008

- 04. 12 젊은우리음악축제 _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 05. 28 ~ 11. 28 찾아가는우리음악나들이
- 07. 01 둔대농악발표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09. 28 제6회 군포예인예술제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07. ~ 10. 해밀의사계(총3회)
- 국악상설공연

● 2009

- 04.02 ~ 06.12 해밀의 사계(총2회)
-국악상설공연
- 05.03 제7회 예인예술제_중심상가 야외무대
- 07.11 젊은 우리음악축제_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17 제4회 둔대농악발표회_중심상가 원형광장

● 2010

- 07.17 젊은 우리음악축제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09.18 제8회 예인예술제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09.29 군포문화센터 공연
- 11.27 제5회 둔대농악발표회 _ 청소년수련관

● 2011

- 05.07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철쭉동산
- 05.21 ~ 10.16 찾아가는 문화활동 _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 08.27 제9회 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1.27 제6회 둔대농악발표회 _ 군포시청 야외공연장

● 2012

- 05.07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철쭉동산
- 08.27 제10회 예인예술제 _ 철쭉동산 상설무대

● 2013

- 05.05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철쭉동산
- 05.10 ~ 09.14 찾아가는문화활동 _ 군포시노인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 08.16 제11회 예인예술제 _ 철쭉동산
- 08.18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_ 반월호수
- 10.19 연희한마당 _ 반월호수
- 12.26 군포시 평생학습원 공연

● 2014

- 02. 05 정월대보름한마당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6. 17 젊은 우리음악축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8. 16 제12회 군포예인예술제 _ 철쭉동산
- 09. 04 찾아가는 문화활동 _ 군포시노인복지관
- 10. 25 연희한마당 _ 반월호수

● 2015

- 03. 07 정월대보름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09. 20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 10. 03 제13회 군포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9. 03 ~ 11. 18 찾아가는 문화활동 _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 11. 14 지역사회 봉사자를 위한 힐링콘서트 _ 청소년수련관

● 2016

- 02. 20 정월대보름한마당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7. 19 찾아가는 문화활동 _ 군포시여성회관
- 08. 12 제14회 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0. 22 젊은 우리음악축제 _ 반월호수

● 2017

- 07. 08 젊은 우리음악축제 _ 산본로데오거리 야외무대
- 09. 1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9. 27 ~ 09. 29 시군문화예술지원사업 _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 09. 27 찾아가는 문화활동 _ 늘푸른복지관
- 10. 09 한가위예술제 _ 산본로데오 거리

● 2018

- 08. 17 제15회 예인예술제 _ 철쭉동산
- 08. 25 ~ 08. 26 군포여름축제 _ 반월호수, 중심상가 야외무대
- 09. 20 찾아가는 문화활동 _ 가야종합사회복지관
- 10. 14 국악정기연주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11. 10 경기도 유력 축제 및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 _ 반월호수
- 12. 14 공동체의 소리 참여 _ 군포책마을 상설전시실

● 2019

- 04.04 찾아가는문화활동 _ 늘푸른노인복지관
- 06.29 제22회 국악정기연주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08.30 제16회 군포예인예술제 _ 로데오거리 특설무대
- 11.13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찾아가는 국악나들이'
- 11.17 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2.19 국악의 밤 송년회

● 2020

- 07.11 ~ 07.12 찾아가는문화활동 _ 평촌아트홀
- 07.18 제17회 군포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0.11 2020 한여름축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0.26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_ 스튜디오 루테
- 10.30 제23회 국악정기연주회 _ 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21

- 08.06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10.22 찾아가는문화활동 _ 매화종합사회복지관
- 11.12 제24회 국악정기연주회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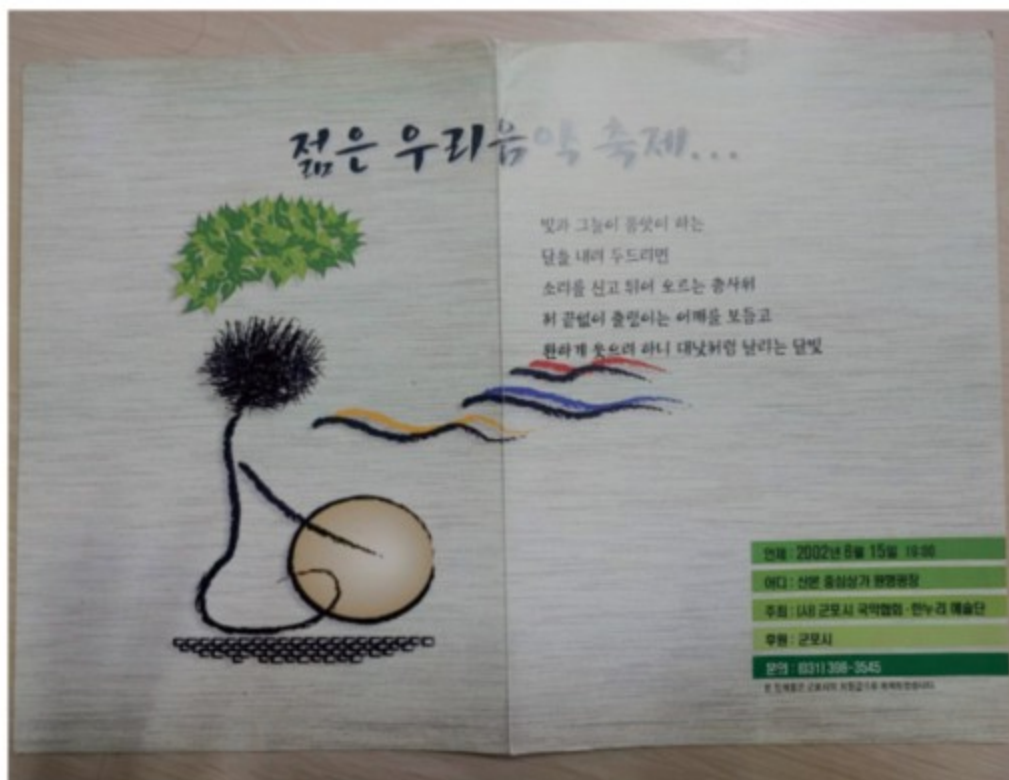
역대 지부장단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비고
1대	전순택	1997 ~ 2002	김광현	허명희	
2대	배기철	2002 ~ 2006	이선형	최진우	
3대	이선형	2006 ~ 2010	안소라 엄창용	최진우	
4대	이영미	2010 ~ 2014	엄창용 김문선	안영권	
5대	이영미	2014 ~ 2018	엄창용 김문선	안영권	
6대	유형열	2018 ~ 2022	신숙희 이정진	안영권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1	고문		이선형
2	고문		이영미
3	자문		엄창용
4	자문		박근형
5	지부장		유형열
6	부지부장		신숙희
7	이사		권태은
8	이사		김옥선
9	감사		김월순
10	감사		최숙자
11	기악분과위원장		김문선
12	농악분과위원장		임명희
13	민요분과위원장		이종복
14	사무국장		안영권
15	회원		한정실
16	회원		강정민
17	회원		박준구
18	회원		이강운
19	회원		이종각
20	회원		정 모
21	회원		강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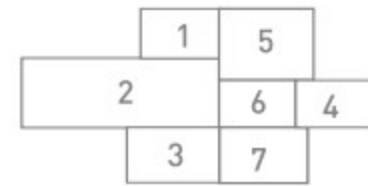
NO.	직책	분야	성명
22	회원		진세인
23	회원		천제구
24	회원		송향미
25	회원		조정애
26	회원		김도연
27	회원		이재일
28	회원		정대석
29	회원		강성욱
30	회원		주은미
31	회원		박윤희
32	회원		박계라
33	회원		최은희
34	회원		차영숙
35	회원		조점식
36	회원		정영화
37	회원		김봉덕
38	회원		문영순
39	회원		이인숙
40	회원		김현정
41	회원		차다울



2001~2004



- 2001 우리문화 한아름
- 2002 젊은우리음악축제
- 2003 시민대축제
- 2004 정월대보름
제1회 숲속음악회
젊은우리음악축제
12.04 둔대농악보존회





2005~2009



2005
젊은우리음악축제

2006
젊은우리음악축제
총회

2007
예인예술제

2008
찾아가는문화활동
둔대농악

2009
제4회 둔대농악발표
해밀





2010~2011



2010

예인예술제
젊은우리음악축제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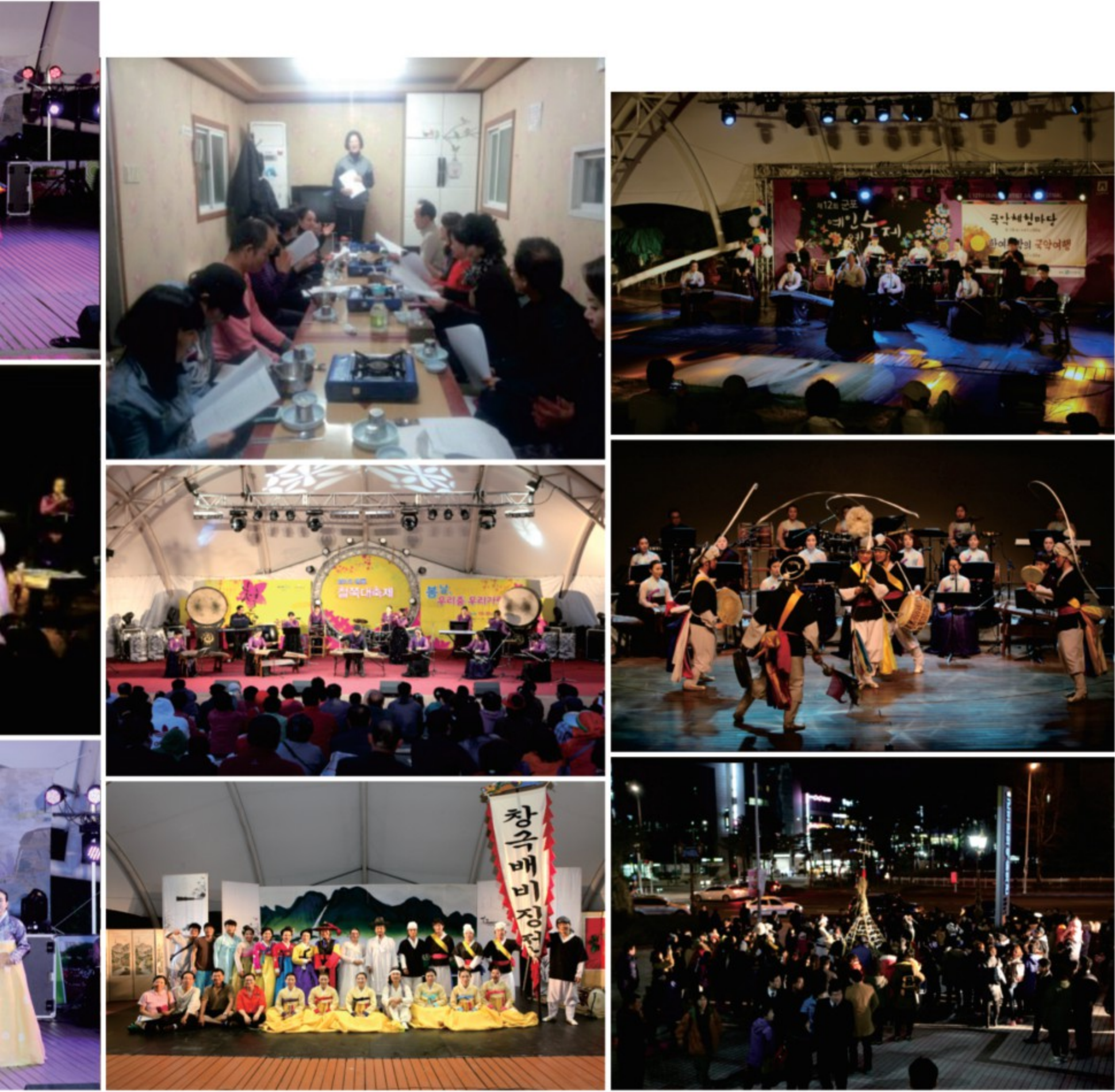
1	2	5	7
3	4	6	8

2011

국악협회
예인예술제
젊은우리음악축제



2012~2014



2012

예인예술제

2013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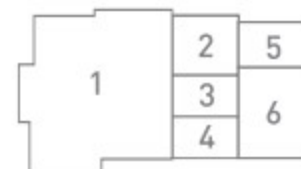
젊은우리음악축제

예인예술제

2014

예인예술제

정월대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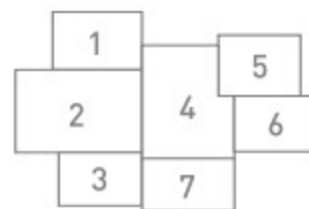


2015~2016



2015

- 예인예술제
- 젊은우리음악축제
- 정월대보름



2016

- 정월대보름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예인예술제
- 젊은우리음악축제



2017~2018



2017

젊은우리음악축제

2018

젊은우리음악축제

예인예술제

11.20 신마당극 놀부던





2019~2020



2019

국악정기연주회
이어져라몽땅
예인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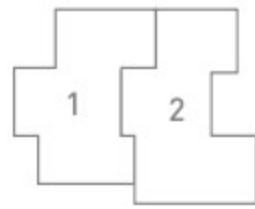


2020

국악정기연주회
신 마당극 놀부 계셨거라
예인예술제
국악정기연주회
07. 19 17회 예인예술제 국악협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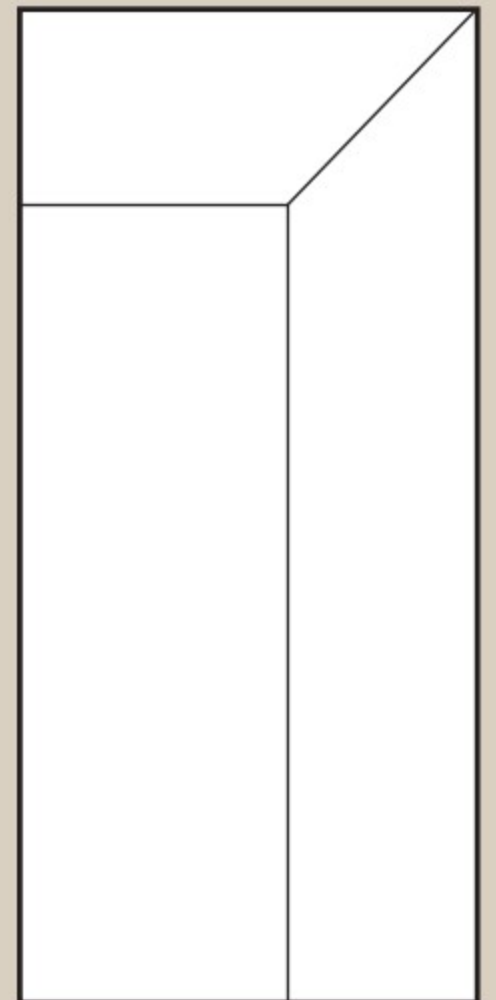
2021
국악정기연주회
예인예술제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 440 군포연극협회가 걸어온 길
- 453 군포연극협회 연혁
- 458 수상 경력
- 460 회원 명단
- 461 군포연극협회 화보

06



군포연극협회가 걸어온 길

| 군포 최초의 극단 수리산 1993년~1998년



1992년 12월 군포시 산본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고 문화 향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왕성해질 때 군포 연극을 위한 모임 극단 수리산(대표 김송희)이 1993년 제3회 경기도 소인극(아마추어연극)경연대회에 단막극 '원고지'로 참가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연극의 불모지였던 군포에서 연극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자는데 뜻을 같이하는 직장인 주부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극단이 창단되었다.

대부분 연극을 좋아하는 군포시민들로 이루어진 극단은 단원들의 노력과 협동으로 번역극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서민적인 가족극을 산본 신도시와 구도시 대야미 부곡동 등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순회공연을 했다. 오월에는 숲속나라 동물들, 토끼와 자라, 등 어린이 연극으로 공연장조차 없던 군포에서 길거리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했다. 아마추어였지만 순수한 단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연극을 보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군포예총이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했다.

| 군포 최초의 전문연극극단 연극마을 1998년~2021년



연극마을(대표 조현건)은 1998년 서울 민중극단과 경기도립극단의 상임 배우로 활동하던 배우 조현건이 군포 시민회관의 개관과 함께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창립을 준비하면서 대학로에서 활동하며 군포시에 거주하는 전문연극배우 9명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극단이다. 그 이듬해 신도시 건설과정에 부평초처럼 막노동과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하며 언젠가는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의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조동관 연출의 창작극(김동기 작)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창단 공연으로 하여 현재까지 매년 2회 이상 공연하고 있다.

영화 풀몬터를 각색한 강철 군단, 서툰 사람들(장진 작), 누군들 광대가 아니라(박평목 작), 이오네스코의 수업, 뮤지컬 유랑극단, 시민 우봉필, 창작 뮤지컬 오이디푸스, 락 뮤지컬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돌아서서 떠나라(이만희 작), 달빛 속으로 가다(장성희 작) 등의 장막 연극, 뮤지컬 등 약 80여 편을 공연했다. 그중 뮤지컬 유랑극단(이근삼 작, 조현건 연출)으로 창단 3년 만에 제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대상 과 연출상을 수상하고 본선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 했다.



경기도 최초로 뮤지컬 콘서트 팀을 구성하여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2002월드컵 월드 빌리지 공연과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행사 등 연간 10여 회 이상 공연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문화관광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단체'로 선정되어 소년원, 대안학교 농어촌지역의 문화 소외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가 뮤지컬 콘서트를 연간 20회 이상 공연하여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단체이다.

2004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총체극 공연을 준비했다. '연극마을' '우수리스크 고려인 아리랑 가무단' 그리고 '러시아 볼쇼이 카민 민속무용단'과 함께 북한 인민배우 조영희씨가 안무하고, 극단 연극마을 대표 조현건의 연출로 '연해주 길 마중'을 전국 6개 대도시에서 공연했다.



2007년 7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열리는 국제클래식 연극제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초청받아 공연하고, 우수리스크 시립 드라마 극장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2016년 한국 연극 '그 여자의 소설'(엄인희 작/조현건 연출)을 러시아어로 번역, 우수리스크 시립극장의 배우를 캐스팅하여 시즌공연 레퍼토리로 공연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연극이 러시아 현지에서 러시아어로 공연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0년 문화관광부의 한·러 수교 30주년 우수콘텐츠 공연단체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최재형 선생의 전기연극을 러시아 우수리스크 드라마극장과 합동 공연하기로 하였으나 C-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아쉽게도 영상콘텐츠 ‘페치카 최재형’을 제작하여 공개했다. 2021년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단체로 다시 선정되어 한·러 합동공연 ‘아관파천’을 비대면 영상공연으로 발표했다.

연극마을은 군포의 유일한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연극단체로 23년간 매년 두 작품 이상의 연극공연을 꾸준히 군포시민에게 선보이며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12차례나

수상한 극단으로 군포시 연극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1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 창립과 군포의 극단 (1997년~2021년)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의 창립은 1997년 조현건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1996년 창립된 군포예총의 김창배 초대사무국장이 연극협회를 결성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전화였다. 당시 조현건은 서울 민중극단에서 활동하며 1986년부터 한국연극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1992년~1993년까지 경기도립극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다 퇴사한 후 군포시에 정착하고 있었다. 당시 변변한 공연장이 없던 군포시에서 어떻게 연극을 하겠느냐고 연극협회 창립권유를 거절하고 있고 있었는데 1998년 5월 7일 군포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조현건은 서울에서 활동하며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국연극협회 정회원을 찾아봤다. 연극협회의 지부 인준 조건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15명 이상의 한국연극협회 정회원이 있어야 창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연극협회로부터 회원명단을 받아 군포시 연극인을 찾아본 결과 9명의 거주를 확인하고 군포지부 창립 의사를 확인했다. 모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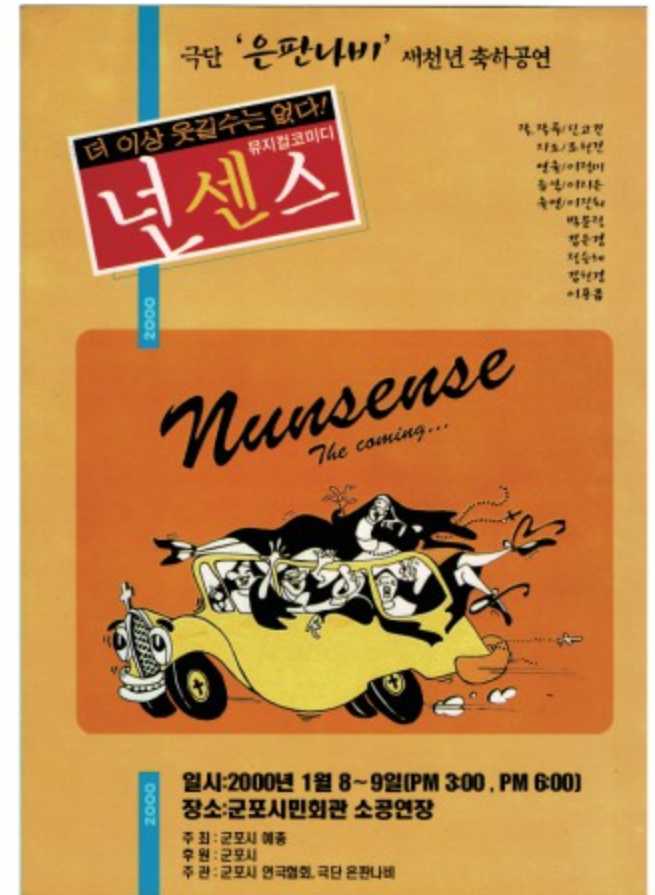
하고 협조하기로 하여 협회 창립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창립 발기 위원장을 맡은 조현건의 주도하에 아마추어 극단 수리산, 텔런트 서갑숙씨가 대표로 어린이 연극을 제작하던 극단 파란하늘,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정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연극단체 연극마을 이렇게 3개 단체 20여 명이 1998년 6월 산본 아트홀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했다.

발기총회에서 군포에 거주하며 안양연극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영화 촬영감독 조동관을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하여 1998년 12월12일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로 정식인준 받아 군포예총에 가입했다.

1999년 4월 19일 군포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군포연극협회 창립, 연극마을 창단 공연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공연했다. 군포연극협회 인준 후 아동극단 파란하늘의 서갑숙대표가 이사를 가면서 아동극단 파란하늘이 해체되었다.

연극마을과 아마추어극단 수리산 두 단체가 활동하던 중 평촌 뉴코아 연극교실 수강생이 주축이된 주부극단 은판나비가 창단되면서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연극마을은 제4회 군포태을예술제에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연극'강철 군단'을 공연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확실해졌다.

2000년에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정정인이 산본 중심상가에서 금시조라는 연기학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조현건이 찾아가 극단창단을 권유하여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각색한 '거투루트' 공연으로 창단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아마추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리산(대표 김송희), 주부극단 은판나비(대표 이진희)와 극단 금





시조(대표 정정인) 모두 해체되었다. 그러나 연극마을은 대표 조현건이 사재를 털어 작품활동을 계속했다. 그 후에도 군포연극협회의 연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05년 극단 청춘(대표 김동희)이 창단되지만 2006년 제16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마지막으로 해체되고 2017년 협회의 준회원들로 구성된 극단 청년(대

표 이승훈)이 창단되어 2016년까지 활동했다.

2011년에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극단 참사랑(대표 배귀향)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극의 특성상 연습 기간이 길고 공연에 필요한 제작비마련이 힘든 것이 아마추어들에게는 제약이 되어 참사랑 역시 2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후 군포시 연극협회는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를 위해 연극지망생과 준회원 들로 작품을 제작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아마추어연극제에 참가해오던 중 2016년에 시민연극단을 모집하여, 군포 시민연극단(대표 임동미)을 창단하여 2021년 현재까지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 준회원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부 인준에서 조동관 초대지부장 (1998년~2003년)

1998년 6월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추대된 조동관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2001년까지 1대 지부장, 2002년에 다시 2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지부장 조현건이 군포연극협회를 탈퇴하여 극단 연극마을 운영에 전념하는 사이 군포연극협회는 2002년 군포시 보조금 집행의 미숙으로 군포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군포시에서 한국연극협회로 발송하였다. 한국연극협회의 진상조사 후 한국연극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부장 제명, 극단 금시조대표(정정인)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고 사고지부 처리가 되어 군포연극협회는 활동이 정지되었다.

연극협회는 활동을 못했지만, 극단연극마을(대표 조현건)은 문화관광부의 2002년 2003년 문화관광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단체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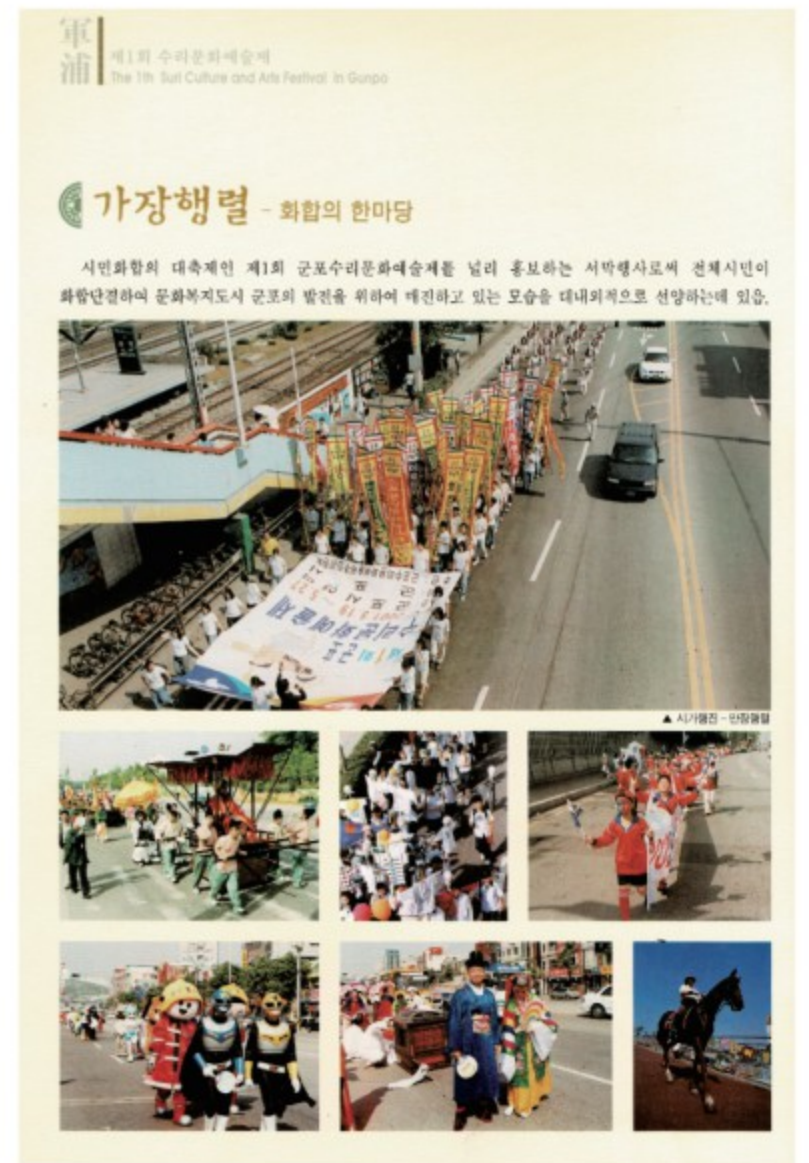
정되어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베스트 콘서트로 경기도와 대전시 등 9개 시,군을 순회공연을 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과 사비로 뮤지컬의 불모지인 경기도에서 대형 락뮤지컬 지저스크라 이스트 수퍼스타를 공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1대 2대 지부장인 조동관회장의 임기 중에 연극협회 군포지부는 창립공연과 태을예술제 공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군포시에선대회, 2000년 경기연극제, 2001년 경기도 희곡작가 연극제 등의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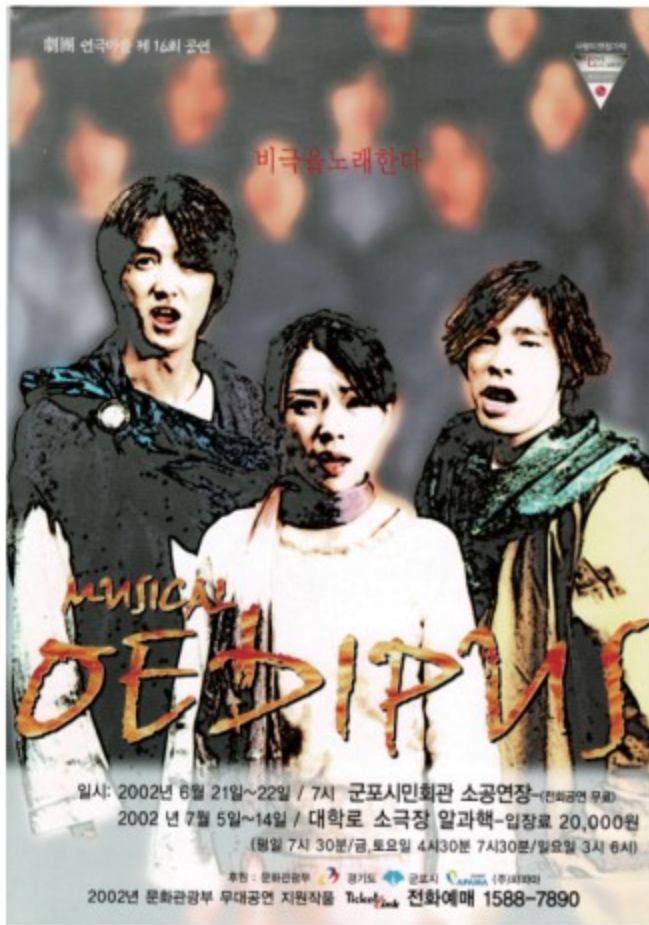


2001년 극단 연극마을이 창단 3년 만에 뮤지컬 유랑극단으로 제 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본선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군포 연극을 알리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마침 이때에 군포시에서는 예총 주관의 태을예술제와 문화원 주관의 웃내골 문화제를 통합하여 관 주도의 새로운 군포시 축제로 2001년 제1회 군포 수리문화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총에서는 태을예술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 참여를 거부할 때 19회 전국연극제에서 연출상을 받은 연극협회 부지부장 조현건이 적극적으로 축제기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축제기획에 참여한 조현건은 가장행렬을 연출하고 축제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2001년 5월 19일~5월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1회 군포 수리문화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축제기간 중 조현건의 아이디어





로 축제프로그램중 하나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최초로 기획하여 지금 군포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군포시민 대축제를 거쳐 군포시 대표 축제인 철쭉축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초대지부장 조동관은 재임 기간 중 99년 경기연극상(연출부문)을 수상하고 극단 연극마을 대표 조현건은 2001년 경기 연극대상(경기도지사) 군포시민대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했다.

[군포연극협회 창립 회원명단]

지부장 / 조동관 부지부장 / 조현건, 김송희

이사 / 임대일, 이영복, 정경철, 채민석

감사 / 강희, 김정숙 회원 / 김은림, 박준석, 김동수, 손민석, 김정숙, 김효숙, 이은미

|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의 정상화와 해외 교류 2003년~2006년

2003년 사고지부 처리로 2004년 활동이 중지되어 한국연극협회 군포시 지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군포연극협회를 탈퇴하고 연극마을 대표로 활동하던 조현건에게 금시조 대표 정정인과 회원 이은미가 찾아와 연극협회 군포시지부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다. 이에 조현건은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최종원)에 정상화를 간곡히 요청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 사고지부 처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5년 3대 지부장으로 조현건이 취임하여 정상화 된다.

그러나 2년간의 진통으로 많은 회원이 떠나고 금시조 극단은 한국연극협회의 대표 징계로 해산해서 결과적으로 극단 연극마을이 주도하는 협회 활동이 되었다.

연극마을은 2002년 군포시를 방문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아리랑 무용단 공연에 참여하며 연출과 합동공연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 인연으로 2003년 사)동북아 평화연대가 주관하는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 총체극 '연해주 길 마중'에 조현건이 연출, 극



단 연극마을, 아리랑 무용단, 군포 국악협회 소속의 풍물단 '누리'가 참여하여 인천, 의정부, 대구, 안산, 춘천을 순회공연하며 러시아 교류를 시작했다. 군포연극협회의 정상화 노력을 지켜본 군포시에서는 2007년 군포시에서 전국규모의 연극제를 기획해보라고 기회를 주어 제1회 창작 단편 뮤지컬 축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러시아 고려인 아리랑 무용단과 함께 교류를 하던 우수리스크 시립드라마극장의 초청으로 니콜스 우수리스크 국제클래식 연극제에 초청되어 체홉의 단막극 '곰, 청혼,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세 작품을 옴니버스로 공연했다. 연극마을의 활동으로 군포연극협회는 많은 연극적인 성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극단으로 발전했다.



|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의 침체 2007년~2010년

3대 지부장(조현건)은 2007년 임기를 마치고 경기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에 기획실장으로 공채되었다.

3대 지부장의 뒤를 이어 경기도립극단 지도위원으로 퇴직한 정운봉 선생이 4대 지부장으로 2008년부터 지부를 책임진다. 그러나 정운봉 지부장은 특별한 성과 없이 2009년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 그 해 경기도립극단을 퇴사한 조현건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으로 2020년까지 임기를 이어나간다. 2007년~2010년까지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는 1회와 2회 창작 단편 뮤지컬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2009년 3회 수리 뮤지컬 인큐베이팅 페스티벌로 대회명을 변경하여 4회까지 주관했다.



|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의 도약과 현재 (2011년~2020년)

2011년 정운봉 지부장의 직무대행인 조현건 부지부장이 5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2014년 6대 2017년 7대 2020년 8대까지 10년을 조현건이 연극협회 군포지부장으로 군포 연극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부를 이끌어 왔다. 2014년부터는 겸직하던 극단 연극마을의 대표직을 부지부장(이승훈)에게 넘겨주고 지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1년 예인예술제에 러시아 예술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러시아무용단을 초청하여 비주얼드라마와 B-BOY의 콜라보 공연에 러시아 나호트카 Fist Line 무용단까지 출연하는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극단 연극마을은 2010년 ~ 2014년까지 연속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로 선정되어 마당극과 약극으로 4년간 경기도 내에서 13회의 공연을 했다. 수리창작 뮤지컬 인큐베이팅 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회를 주관하고 예산 부족으로 시상금 규모가 적어 참가신청 단체가 없었다. 2012년부터 어린이 뮤지컬을 초청 공연하는 수리가족 뮤지컬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7년까지 주관했다.

10년간 창작 단편 뮤지컬 열다섯 작품을 발굴 공연하고 어린이 뮤지컬 21개 작품이 공연되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수리단편문학연극제로 진행되다가 보통의 전국규모의 연극제가 평균 일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2년간 어렵게 주관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군포시에 예산증액을 건의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군포시에 사업수행을 자진 포기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군포연극협회는 200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러시아 나호트카 Fist Line 무용단을 초청하여 철쭉동산에서 '꽃과 춤 그리고...' 공연을 진행했다. 2012년 제1회 한·러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러시아 청소년 무

용단 3팀, 군포시 청소년 무용단 6팀, 총 90여 명이 출연하여 군포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러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2013년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하여 군포시에서 공연했는데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이 군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자 공모에서 탈락했다. 2014년부터 용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17년까지 용인에서 공연했다.

연극교류는 2013년 제11회 예인예술제에 러시아의 람빠 극장을 초청하여 러시아 극작가 안톤체홉의 '청혼'을 군포문예회관 철쭉홀에서 공연하여 만석을 이루는 호응을 받았다. 2016년에는 우수리스크 드라마극장으로 한국연극 러시아어 공연프로젝트로 조현건이 연출로 초청되어 엄인희작가의 '그 여자의 소설'을 러시아어로, 러시아 배우가, 러시아극장에서, 한국과 러시아 최초로 공연하는 역사를 쓰며 한국과 러시아 방송과 신문에 소개되었으며 2017년 군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군포문예회관에서 초청공연을 했다.

2020년에는 문화관광부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모하는 2020년 지역 우수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사업에 한·러 수교 30주년 한·러역사창작연극 합동공연 '페치카 최재형' 공연이 선정되어 준비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합동영상공연으로 제작하여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 외에 군포연극협회는 연극을 매개로 군포시민과 호흡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2015년 2016년 군포문화재단의 우리동네 프로젝트로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와 함께 2015년 150년 '군포역전시장 구경 가세'라는 타이틀로 2016년 군포역전시장 큰잔치를 기획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이 사업을 계기로 군포 3.1 만세운동 기념식과 거리극 공연이 정례화 되도록 했다.





2017년 군포 여름 축제 한여름 예술마당극 오영진작가의 맹진사댁 경사를 각색한 마당극 '수릿골 잔칫날'과 2019년 춘향전을 각색한 '열녀춘향 수절가'를 공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0년부터는 군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연극마을 10년 장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명작연극 10선을 기획하여 2020년에 1962년 초연된 한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연극 차범석/작 '산불'을 공연하고, 2021년 1975년 민중극단에서 초연한 배우 윤석화의 출세작 '꿀맛'을 9월에 공연했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공연으로 한.러 합동공연 "아관파천"을 영상제작했다.

|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의 현재와 미래

연극은 기초순수예술이다. 여타의 다른 공연보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성이 없는 순수연극을 산업의 차원으로 본다면 2021년 12월이면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연극협회의 현재와 미래는 암담하다. 1999년 창립공연인 전국연극제 참가작품의 군포시 지원예산은 450만원으로 기억한다. 그 후 23년간 연극예술의 불모지인 군포시에서 매년 고군분투하며, 군포시보다 경기도,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매년 두 작품 이상의 연극을 무료로 군포시민들에게 공연해왔으나 아직도 군포시는 연극의 불모지이다.



사실 군포연극협회는 군포시보다 외부에서 더 실력을 인정받는 단체이다. 군포연극협회 산하 연극마을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에 예수 역할을 한 배우 송창의는 지금 TV 스타로 성장했고 배우 하미미는 일본 사계 극단에 발탁되어 일본에서 뮤지컬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혜원, 한세라 회원 역시 중견 뮤지컬 배우로 대학로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다. 2001년 연극마을의 '시민 우봉필'로 연극에 입문하여 2011년까지 회원으로 활동한 배우 김은우는 대한민국 연극상 중 가장 권위 있는 2020년 동아연극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군포연극협회의 이사로 활동 중인 배우 한기중은 영화 풍산개, 변호인, TV드라마 열혈사제등 영화,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23년 간의 군포연극협회 궤적에도 불구하고 22년 전 연극협회의 유일한 예산인 전국연극제 참가지원금 45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지원금으로 편성된 600만 원이 군포시에 편성된 연극협회의 유일한 지원예산이다. 군포시의 이러한 무관심이 많은 연극인들을 군포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군포의 젊은 연극인들이 생계를 위해 연극활동을 중단하거나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아픈 현실에 연극협회를 해산 해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지원예산이 기초자치단체와 문화재단으로 대부분 이관된 현실에서 문화도시 유치를 준비하는 군포시는 하드웨어 중심의 예술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극단 수리산 연혁

- 1993
07. 제3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원고지'
- 1994
05. 어린이날 기념공연 중앙공원에서 '숲속에 동물 나라'
08. 제4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환상 무대'
10. 군포시민의 날 가장행렬 '숲속 나라 동물들'
10. B.B.S주최 ROCK과 청소년의 밤 중앙공원에서 '환상 무대'
11. 군포시민의 모임 창립 2주년 마임극 '바빠요 바빠'
- 1995
05. 어린이날 기념공연 '토끼와 자라'
08. 제5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어디로 가나'
- 1996
03. 군포시 여성회관공연 '사의 찬미'
05. 어린이날 기념공연 '벌거숭이 임금님'
08. 제6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다리목'
- 1997
06. 제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 경연대회 '정의와 캔버스'
- 1998
06. 제3회 태을예술제 '떠나는 자와 남는 자'

군포연극협회 연혁

년도	날짜	행사명	공연작품	주관단체
1998	06.14	3회 태을예술제	떠나는자와 남는자	수리산
1999	04.19	17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	연극마을
1999	05.12	4회 태을예술제	강철군단	군포연극협회
1999	05.30	9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군포시 예선대회	극단 은판나비 '강신무' 극단 수리산 '씻'	군포연극협회
1999	07.04	9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강신무	은판나비
1999	11.20	정기공연	서툰사람들	군포연극협회
2000	01.08~09	주부극단 은판나비 정기공연	뮤지컬 년센스	은판나비
2000	03.17	18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누군들 광대가 아니라	연극마을
2000	04.18	10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군포시 예선대회극	극단 은판나비 '배비장전' 단 금시조 '거투르트'	군포연극협회
2006	07.18	태을단막극축제	연극마을 수업 금시조 '풍선껌' 수리산 '어머니'	군포연극협회
2000	07.06	10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거투르트	금시조
2000	07.21,22	2020 무대공연지원사업	뮤지컬 유랑극단	연극마을
2000	10.21	21회 경기종합예술제	뮤지컬 '가스펠'	연극마을
2001	04.10	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뮤지컬 유랑극단	연극마을
2001	04.26	군포태을제	뮤지컬 콘서트	연극마을
2001	05.19	1회 수리문화예술제	가장행열 총괄	군포연극협회
2001	06.05	19회 전국연극제 전국대회	뮤지컬 유랑극단	연극마을
2001	06.30	11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회장님 씻으셨습니까?	소나무
2001	11.12~14	경기문화재단 창작활성화 사업	시민 우봉필 외	경기연극협회
2001	12.26	군포연극협회 정기공연	굿닥터	수리산,금시조
2002	04.18	20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동승	금시조
2002	06.08	수원예술문화축전	뮤지컬 하이라이트	연극마을
2002	06.21,22	2002 무대공연지원사업	뮤지컬 오이디푸스	연극마을
2002	07.02	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이 세계 절반은 나	은판나비
2002	07.05~14	서울대학로 알과핵 재공연	뮤지컬 오이디푸스	연극마을
2002	10.25	러시아고려인아리랑가무단 초청공연	아! 까레이스키!	연극마을
2002	12.26	군포 예인송년예술제	단막극 생일선물	군포연극협회
2003	04.26	군포시민대축제	시민 가장행열	연극마을
2003	07.09	13회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노파의 오찬	은판나비
2003	07.10	문화관광부 찾아가는문화활동 2003	뮤지컬 베스트 콜렉션	연극마을

년도	날짜	행사명	공연작품	주관단체
2003	11.01~02	2003 무대공연지원사업, 예인예술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연극마을
2004	03.25	2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돌아서서 떠나라	연극마을
2004	04.24	군포시민대축제	가장행열	군포연극협회
2004	05.01	철쭉동산 축제	뮤지컬콘서트	연극마을
2004	06.13	14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달빛속으로 가다	수리산
2004	06.24~07.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공연	뮤지컬 유랑극단	연극마을
2004	09.09~20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총체극	연해주 길마중	연극마을
2004	12.10	2회 군포예인예술제	누가누구	연극마을
2005	03.29~30	2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달빛 속으로 가다	연극마을
2005	04.23	군포시민대축제	가장행열	군포연극협회
2005	05.01	철쭉동산공연	뮤지컬 갈라 콘서트	연극마을
2005	06.30	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뮤지컬 가스펠	극단 청춘
2005	07.15	군포문화예술회관 지역전문예술무대	이오네스코의 수업	연극마을
2005	12.18	3회 예인예술제	메밀꽃 필무렵	군포연극협회
2006	03.30	24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뮤지컬 투맨	연극마을
2006	06.01	군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투맨	연극마을
2006	06.26~07.04	2006 찾아가는 문화활동	여우와 요술할멈	연극마을
2006	07.07	16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메밀꽃 필무렵	극단 청춘
2006	09.16	4회 예인예술제	뮤지컬 하이라이트	군포연극협회
2007	03.28	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코메디클럽에서 울다	연극마을
2007	04.26	2007군포태을제	뮤지컬 콘서트	연극마을
2007	06.13	17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청혼소동	극단 청춘
2007	06.28~07.07	러시아 우수리스크 국제연극제	곰,청혼,의지할 곳 없는 신세	연극마을
2007	08.09~11	1회 창작단편뮤지컬 축제	콩각지,발자국,그린아띠	군포연극협회
2007	08.16~20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꾸러기와 악기대왕	연극마을
2008	03.28	26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연어는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연극마을
2008	06.13~14	17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군포권역대회	군포연극협회
2008	07.05	18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따오기	노랑바위
2008	09.03~06	2회 창작단편 뮤지컬 축제	단편 창작뮤지컬 5편 경연	군포연극협회
2008	09.21	6회 예인예술제	창작뮤지컬 뮤직레시피	군포연극협회
2009	04.01	27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물속에 엘렉트라	연극마을
2009	05.03	7회 예인예술제	경기도립극단 초청공연 사랑장터	군포연극협회
2009	07.04	19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칠수와 만수	레지스탕스

년도	날짜	행사명	공연작품	주관단체
2009	07.27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수상공연	칠수와 만수	군포연극협회
2009	09.03~05	3회 수리뮤지컬인큐베이팅페스티벌	창작뮤지컬 3편 경연	군포연극협회
2010	03.31	28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돌아서서 떠나라	연극마을
2010	05.02	한.러수교20주년 러시아무용단 초청	꽃과 춤 그리고...	군포연극협회
2010	06.03~19	2010 찾아가는문화활동	마당극 배비장 알비장	연극마을
2010	08.19	8회 예인예술제	다문화연극 엄마나라이야기여행	군포연극협회
2010	09.03~05	4회 수리뮤지컬인큐베이팅페스티벌	창작뮤지컬 3편 경연	군포연극협회
2010	08.20	20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산불	참사랑
2011	03.30	2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북어대가리	연극마을
2011	04.30	철쭉대축제	가장행열	군포연극협회
2011	04.~10.	2011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당놀이 뽕파전	연극마을
2011	09.01	21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B사감과 러브레터	참사랑
2011	08.26	9회 예인예술제	청소년을 위한 러시아예술여행	군포연극협회
2011	09.02~04	5회 수리뮤지컬인큐베이팅페스티벌	창작뮤지컬 3편 경연	군포연극협회
2012	03.30	30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성예꽃	연극마을
2012	05.04	철쭉대축제	시민 가장행열	군포연극협회
2012	05.03,05.07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억의 쏘쏘쏘	연극마을
2012	08.31~09.01	6회 수리가족뮤지컬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3편 공연	군포연극협회
2012	09.12	2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작은할머니	참사랑
2012	10.19,20	1회 한.러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공연 러시아 3팀 한국6팀	군포연극협회
2013	03.22	2013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억의 책가방	연극마을
2013	04.03	3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등신과 머저리	연극마을
2013	05.01	군포 철쭉축제	시민 퍼레이드	군포연극협회
2013	05.03,04	7회 수리 가족뮤지컬페스티벌	가족뮤지컬 3편 공연	군포연극협회
2013	07.05	11회 예인예술제	러시아 람빠극당 초청공연 청혼	군포연극협회
2013	08.16	11회 예인예술제	창극 배비장전	군포연극,국악
2013	10.04,06	2회 한.러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공연 러시아2팀 한국6팀	군포연극협회
2013	10.10	23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곰	극단 청춘
2014	04.02	3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아버지의 선물	연극마을
2014	08.15	12회 예인예술제	뮤지컬 환타스틱스	연극마을
2014	08.15	8회 수리 가족뮤지컬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3편 공연	군포연극협회
2014	09.28	성남 예술제	뮤지컬 환타스틱스	연극마을
2014	10.01	2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시극 암순이네 집 밥상머리	극단 청년

년도	날짜	행사명	공연작품	주관단체
2014	12.05	2014 찾아가는 문화활동	악극 여로	연극마을
2015	04.10	3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그래 우리 암스테르담으로 가자	연극마을
2015	05.03,04	9회 수리가족뮤지컬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3편 공연	군포연극협회
2015	10.07	13회 예인예술제	우리 가곡을 만나는 운수좋은날	군포연극협회
2015	09.18	2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그 여자의 소설	연사모
2015	11.13	2015 우리동네 프로젝트	150년 군포역전시장 구경가세	연극마을
2016	04.01	34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맨하탄 일번지	연극마을
2016	04.30,05.01	2016 우리동네프로젝트	군포역전시장 큰잔치	연극마을
2016	05.03,04	10회 수리가족뮤지컬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4편공연	군포연극협회
2016	09.03	14회 예인예술제	로미오와 줄리엣	군포연극협회
2016	09.07	26회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줄리엣의 사랑	극단 청년
2016	12.16	러시아 우수리스크 드라마극장 교류	그 여자의 소설 (연출)	연극마을
2017	04.01	35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플라스틱 휴먼	연극마을
2017	08.12~26	2017 한여름 예술마당극	마당극 수릿골 잔치날	군포연극협회
2017	09.17	러시아 우수리스크 드라마극장 초청	그 여자의 소설	군포연극협회
2017	09.20	광주 평화연극제	그 여자의 소설	러시아극단
2017	09.24	2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산국	시민연극단
2017	10.09	한가위 예술제	김유정 단막 봄봄 변사극 감자	연극마을
2018	03.29	36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게사니	연극마을
2018	08.19	15회 예인예술제	운수좋은날	군포연극협회
2018	09.06,07	수리 단편문학연극제	단막극 5편 공연	군포연극협회
2018	09.16	28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운수 좋은 날	시민연극단
2019	03.30	군포3.31만세운동100주년 거리공연	만세운동 재연 거리극	군포연극협회
2019	04.06	37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결혼의 진실	연극마을
2019	06.08	2019 지역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소나기	시민연극단
2019	07.26~08.03	2019 한여름 예술마당극	마당놀이 열녀춘향 수절가	군포연극협회
2019	09.05	16회 예인예술제	갯잎전쟁	군포연극협회
2019	09.29	29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봉숭아 꽃 물들일 때	극단 대작
2020	06.14	38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대한민국 명작연극 10선 산불	연극마을
2020	06.14	2020 군포예술활동지원사업	산불	연극마을
2020	06.16,19	17회 예인예술제, 연극협회정기공연	굿닥터	연극마을
2020	09.05	2020 군포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안톤 체홉의 재채기	시민연극단
2020	12.16	경기 연극 베스트 6	산불	연극마을3

년도	날짜	행사명	공연작품	주관단체
2020	12.22	2021 지역전문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페치카 최재형	군포연극협회
2021	03.27	3.31 군포만세운동 기념식	만세운동 재연 거리극	군포연극협회
2021	05.09	39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용띠위에 개띠	연극마을
2021	07.10	2021 군포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대한민국 명작연극10선 꿀맛	연극마을
2021	09.10	2021 지역전문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창작희곡 고종의길 쇼케이스	군포연극협회
2021	12.30	2021 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 교류지원사업	한·러 합동공연 '아관파천'	연극마을

수상경력

| 경기도 (소인극) 아마추어연극제

- 1994년 제4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환상 무대’ 우수상 (수리산)
- 1995년 제5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어디로 가나’ 동상 (수리산)
- 1996년 제6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다리목’ 특별상 (수리산)
- 2007년 제17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청혼 소동’ 은상 (극단청년)
- 2008년 제18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따오기’ 동상 (노랑바위)
- 2009년 제19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칠수와 만수’ 대상 (레지스탕스)
- 2013년 제23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곰’ 동상 (극단청년)
- 2014년 제24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얌순이네 밥상머리’ 동상 (극단청년)
- 2015년 제25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그 여자의 소설’ 장려상 (연사모)
- 2016년 제26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줄리엣의 사랑’ 동상 (극단청년)
- 2018년 제28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운수 좋은 날’ 은상 (군포 시민연극단)
- 2019년 제29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봉숭아꽃 물들일 때’ 은상 (극단 대작)

| 극단 연극마을

- 제17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김동기/작 조동관/연출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 우정상, 신인연기상 (금정숙)
- 제18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박평목/작 조동관/연출
‘누군들 광대가 아니라’ 장려상, 신인연기상 (정정인)
- 제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이근삼/작 조현건/연출
‘뮤지컬 유랑극단’ 대상, 연출상 (조현건) 신인연기상 (이은미)
- 제19회 전국연극제 이근삼/작 조현건/연출
‘뮤지컬 유랑극단’ 은상
- 제2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이만희/작 조현건/연출
‘돌아서서 떠나라’ 장려상, 신인연기상 (정종은) 특별연기상 (박비오)
- 제24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김동기/작 조현건/연출
‘뮤지컬 투맨’ 장려상, 인기상

- 제26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김태수/작 정운봉/연출
‘연어는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은상
- 제27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장성희/작 정운봉/연출
‘물속의 엘렉트라’ 은상, 연출상 (정운봉)
- 제30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권혁기/작 조현건/연출
‘성애꽃’ 금상, 최우수연기상 (이승훈)
- 제3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김상열/작 조현건/연출
‘등신과 머저리’ 동상, 연출상 (조현건)
- 제3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이만희/작 한기중/연출
‘그래 우리 암스테르담에 가자’ 은상, 최우수연기상 (조현건)
- 제36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이근삼/작 조현건/연출
‘게사니’ 은상, 무대예술상
-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차범석/작 조현건/연출
‘산불’ 동상, 최우수연기상 (김아영), 우수연기상 (김봉기), 신인연기상 (이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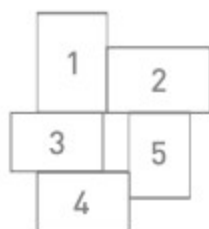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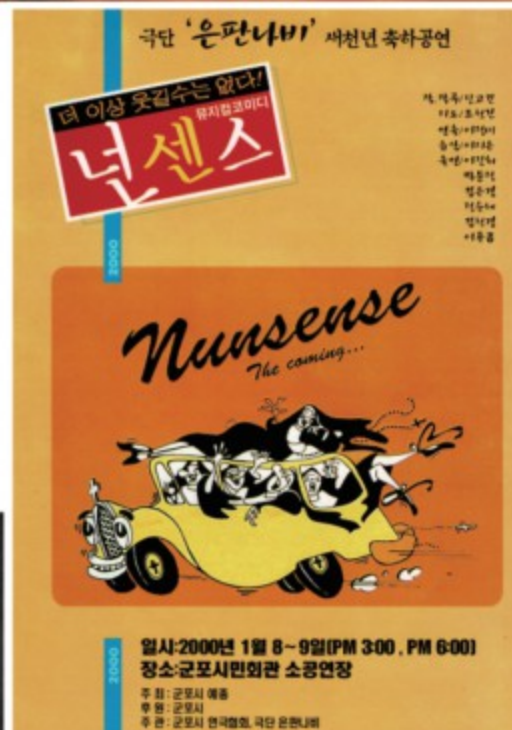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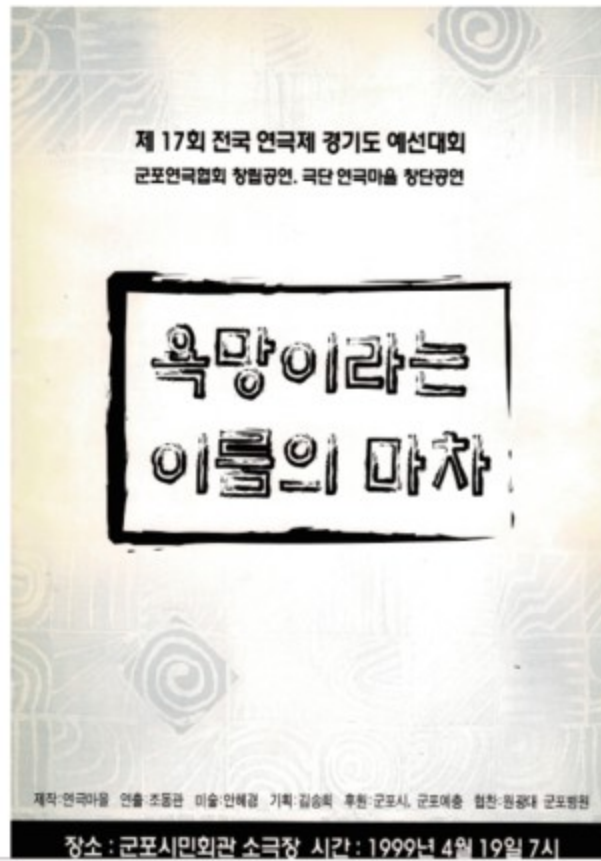
| 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장 조현건

- 2001년 제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연출상 (경기도지사)
- 2001년 경기연극대상 (연극부문) (경기도지사)
- 2002년 군포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 (군포시장)
- 2006년 경기예술 공로상 (연극부문) (경기도지사)
- 2008년 사)한국연극협회 자랑스런 연극인상 수상 (한국연극협회이사장)
- 2011년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장 감사장
- 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연출상 (경기예총회장)
- 2013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공로상 (연극부문) (경기도지사)
- 2015년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최우수 연기상
- 2015년 군포예술상
- 2016년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국립극장장 감사패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연출	조현건
2	부지부장	배우	김송희
3	이사	배우	한기중
4	이사	배우	조미선
5	정회원	배우	한세라
6	정회원	배우	하미미
7	정회원	배우	김혜원
8	감사	배우	금정숙
9	감사	배우	원태산
10	정회원	배우	남지수
11	정회원	배우	고은성
12	정회원	배우	이자민
13	정회원	배우	이평온
14	준회원	작곡	우지영
15	준회원	배우	공혜진
16	준회원	배우	김아영
17	준회원	배우	임동미
18	준회원	배우	박순옥
19	준회원	배우	김한규
20	준회원	배우	강민표

1999~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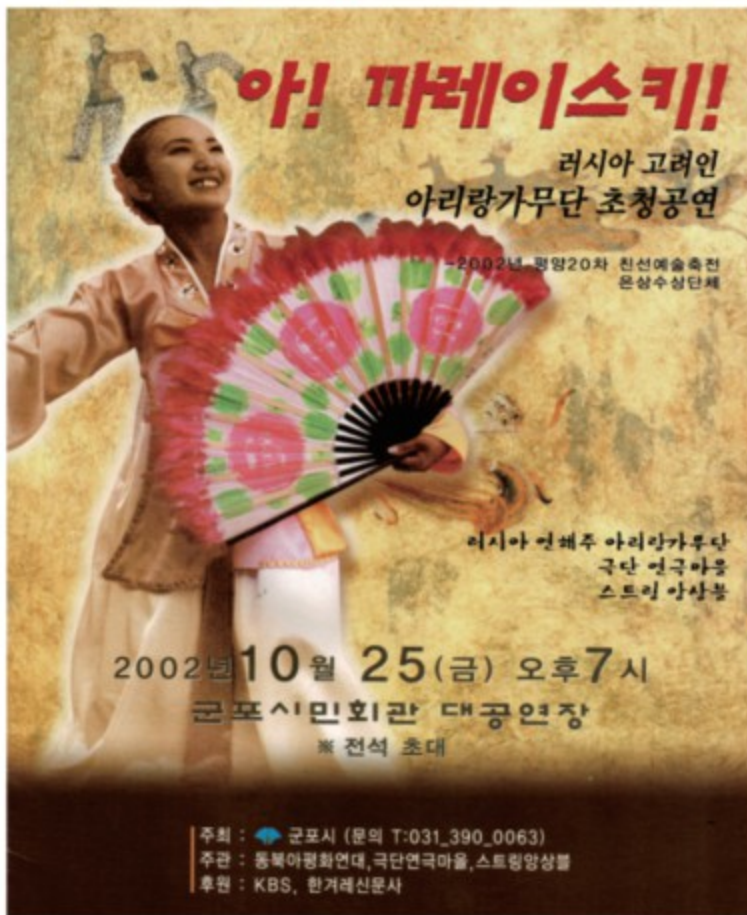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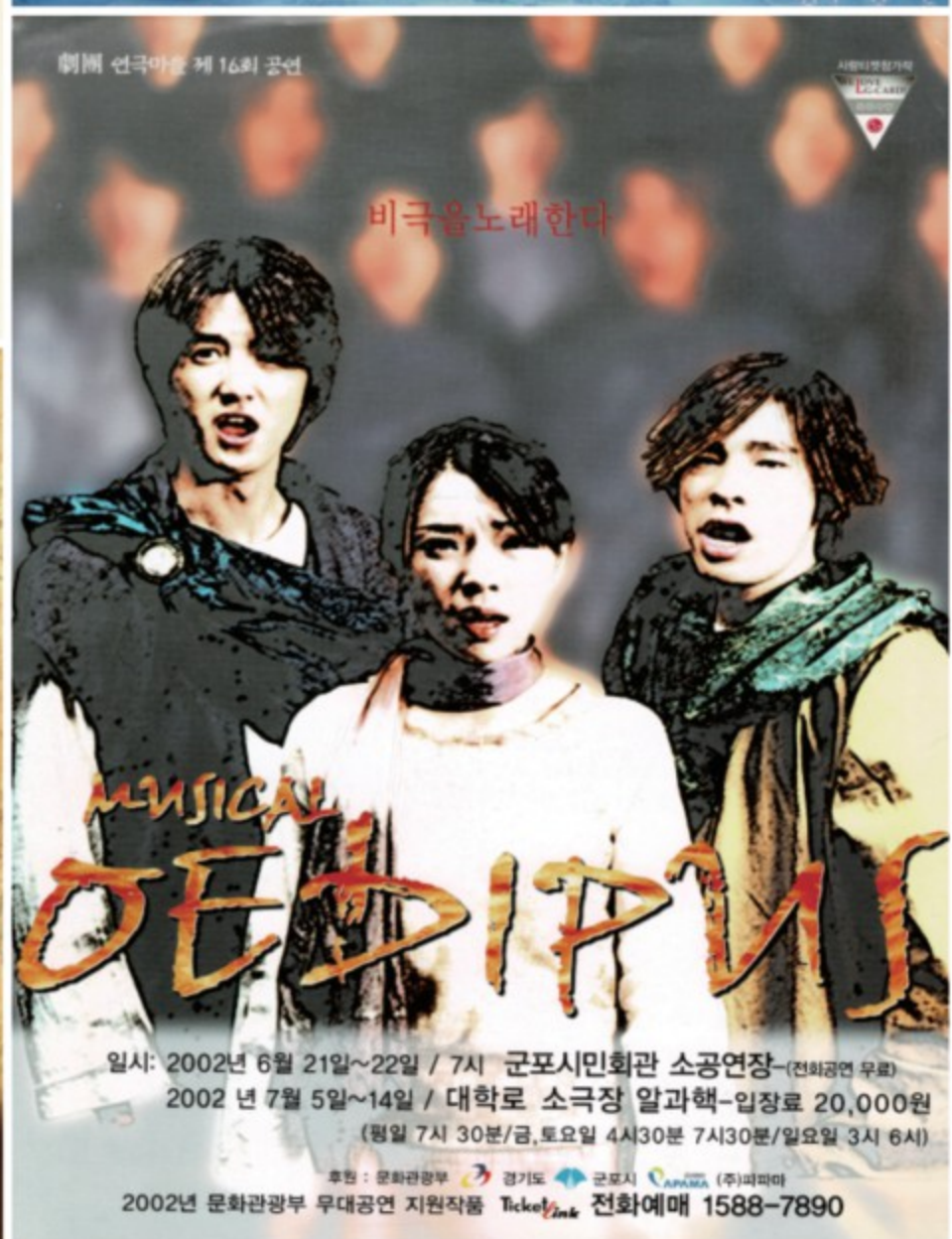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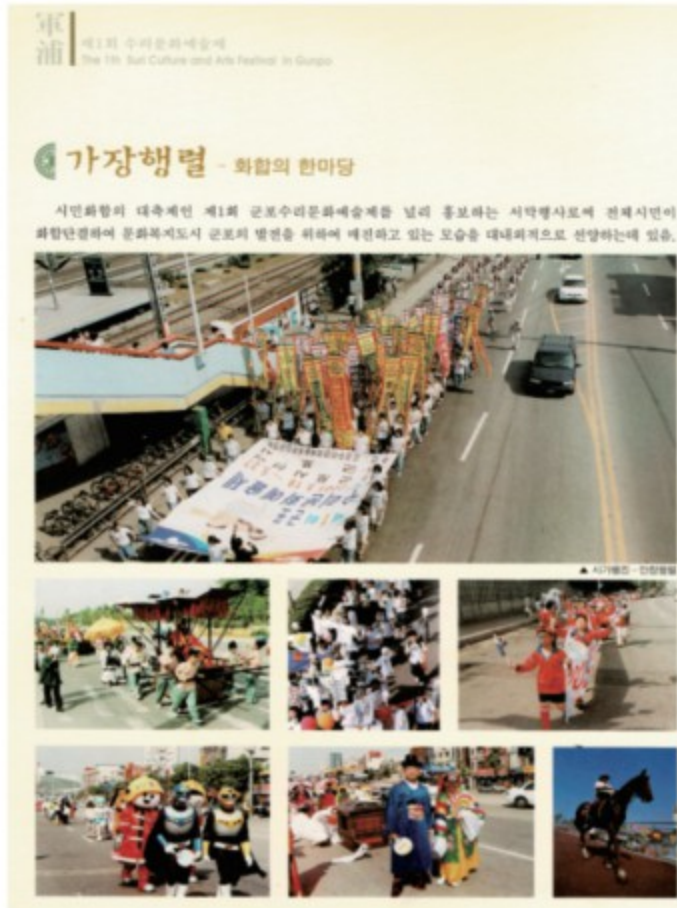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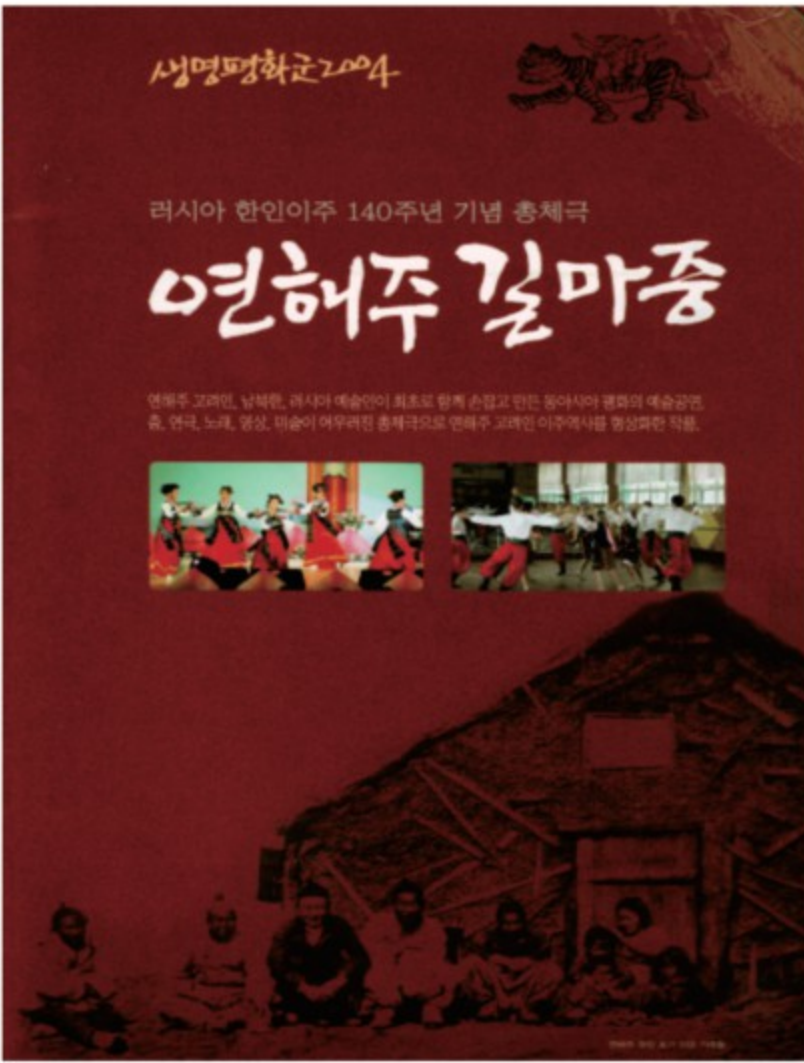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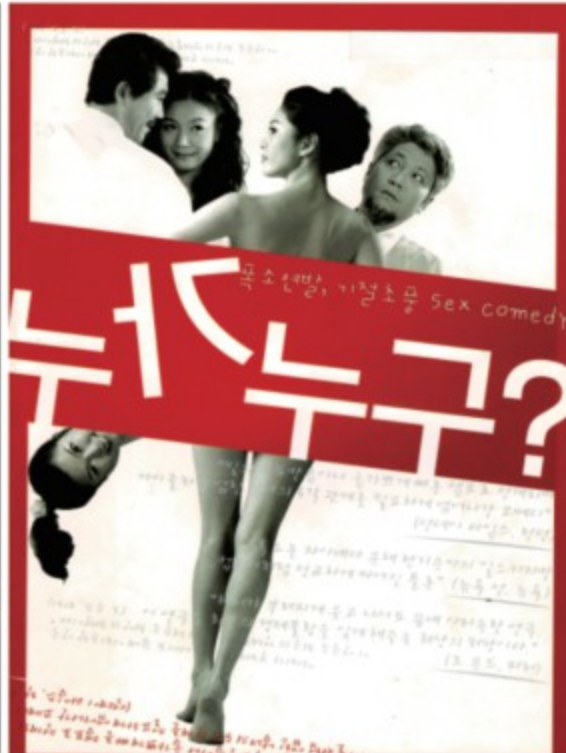
- 1 군포연극협회 창립공연
- 2 서툰사람들 공연
- 3 주부극단 은판나비 창단공연 '강신무'

2000

- 4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공연 누군들 광대가 아니라
- 5 뮤지컬 넌센스 주부극단 은판나비



2001~2004



1	2	5	6	7
3	4	8	9	10

2001

제1회 수리문화예술제 가장행열 연출
전국연극제 본선 경기도대표참가 은상 수상 유랑극단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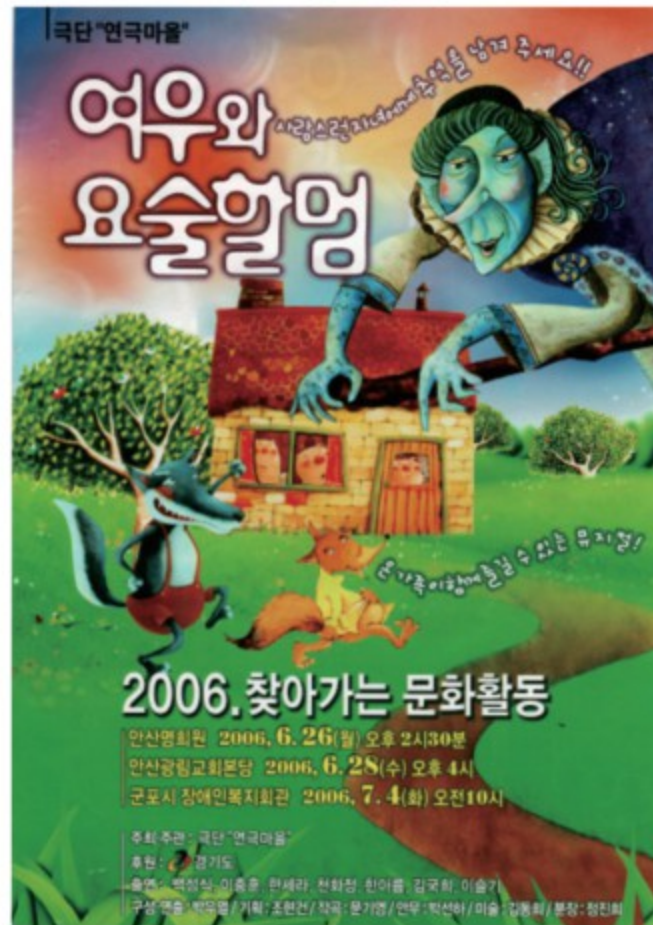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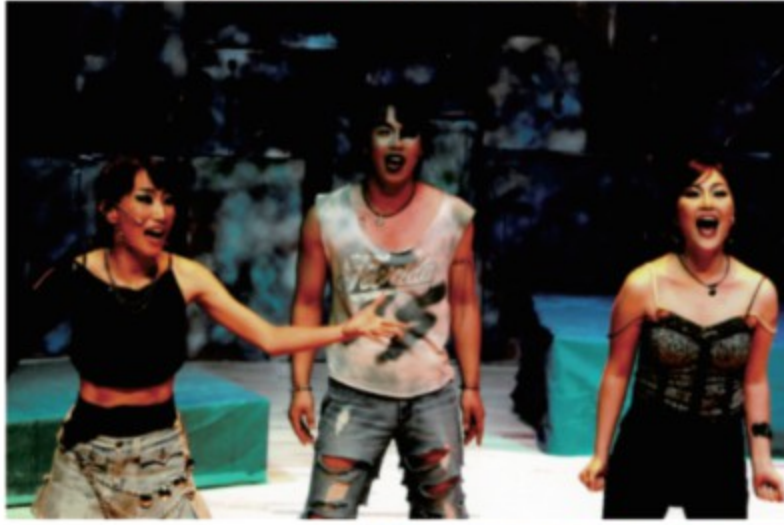
러시아 고려인아리랑가무단 합동공연 이! 카레이스키
오이디푸스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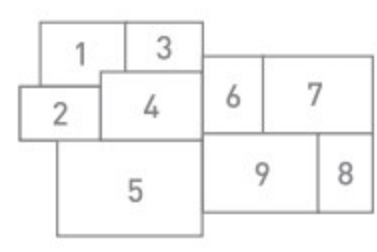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뮤지컬 갈라콘서트
락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2004

예인예술제 누가 누구
뮤지컬 유랑극단 전국 순회공연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 총체극 전국 순회공연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개관 축하공연 뮤지컬 갈라콘서트



2005~2011



- 2005
뮤지컬 갈라콘서트 철쭉동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극단 청춘 뮤지컬 가스펠
이오네스코의 수업
- 2006
뮤지컬 투맨
- 2007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 2005
뮤지컬 갈라콘서트 철쭉동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극단 청춘 뮤지컬 가스펠
이오네스코의 수업
- 2006
뮤지컬 투맨
- 2007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군포 시민과 러시아 예술의 만남!

제1회 한·러 청소년 종합예술제

2012. 10. 19(금) 19:00(개막공연)
10. 20(토) 16:00(예술공연)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청록홀

가족과 함께 오세요! **무료 관람**

- 러시아 공연팀
- 한국공연팀
- 발레
- G.Y.C 발레단
- 모던댄스
- G.Y.C 발라
- 러시아민속무용
- G.Y.C 방송댄스
- 상악(보컬)
- K-POP 프리 연발스
- 농내초등학교 연상팀

주최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 후원 | (사)군포시 문화예술회 | 군포시 | 군포예술



제11회 군포연극예술제

러시아 나옌카시립 "람바" 극단 초청공연

안본 재혼의 청혼

안본 재혼의 청혼

2013. 7. 5(금) 오후 7:30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청록홀
무료공연

주최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 시군문화예술회 후원

제2회 한·러 청소년 문화축제

2013년 10월 4일(금) ~ 6일(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극장

10월 4일(금) 한·러 청소년 문화체험워크숍 10월 5일(토) 한·러 청소년 교류공연 18:00
10월 6일(일) 한·러 청소년 한국문화탐방

주최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시지부, (사)군포시 문화예술회, (사)군포시 청소년수련관 후원

ИСТОРИЯ ОДНОЙ ЖЕНЩИНЫ

Режиссер-постановщик: Чо Хён Гон

Художники-постановщики: Светлана Зарубина, Мин Ён Гу

Ассистент режиссера: Борис Бекхарский

Консультант по гриму: Чон Ми Сук



2012~2016



1	2	7	8
		9	10
3	4		
6	5	11	12



2012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성예꽃
제1회 한러 종합청소년 예술제

2013

예인예술제 러시아 람빠극단 초청공연
제2회 한러 청소년문화예술제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등신과머저리

2014

예인예술제 뮤지컬 환타스틱스

2015

예인예술제 음악협회 합동공연 우리가국을 만나는 운수 좋은날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그래 우리 암스테르담으로 가자
군포역전시장 구경가세

2016

예인예술제 로미오와 줄리엣
러시아 우수리스크 드라마극장 국제교류 한국연극 그여자의소설 연출
군포역전시장 큰잔치





2017

한가위예술제 '감자'

2018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기사니

2019

한여름예술마당극 열녀춘향수절가

군포 3-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 만세운동 재연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결혼의 진실

1	2	6	
3	4	7	8
5		10	9
			11

2017~2021



2020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산불
한·러 합동 비대면공연 폐치가 최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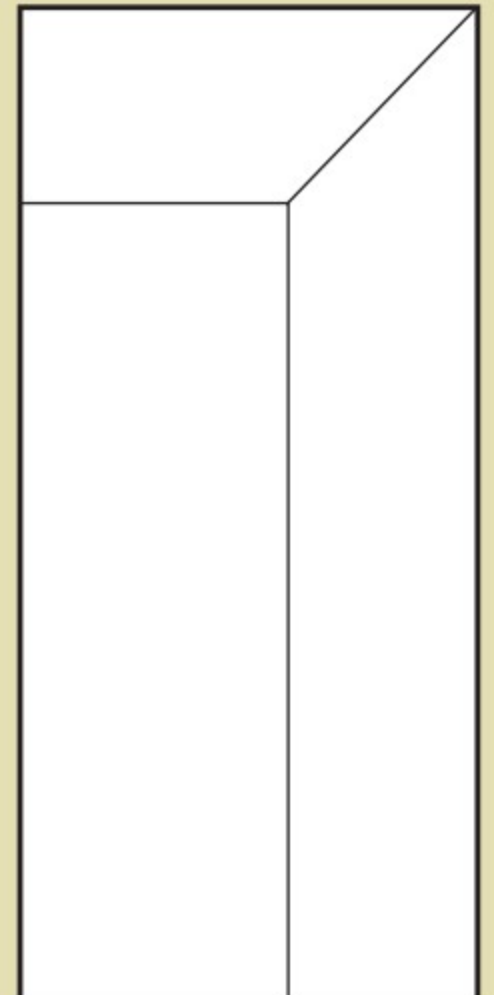
2021

한·러 합동교류 비대면 공연 아관파천
대한미국연극제 용띠위에 개띠
3.31 만세운동
대한민국명작연극 꿀맛

한국연예협회 군포지부

- 472 군포연예협회가 걸어온 길
- 487 군포연예협회 연혁
- 491 역대 지부장단
- 492 회원 명단
- 493 군포연예협회 화보

07



군포연예협회가 걸어온 길

| 창립기(1999~~2003)



군포에는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군포연예협회)가 창립되기 전부터 연예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산본 신도시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안영숙 군포연예협회 초대 지부장이 '가요교실'을 개설하였다. '가요교실'은 대중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독특하게 해냈다. 회원들은 신곡을 배우며 왕중왕을 뽑는 대회를 열 정도로 활기차게 활동했다. 이는 후에 왕중왕가요제로 이어졌다.

당시 안영숙 지부장은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 군포경찰서 청소년 선도단체 BBS(빅브라더스앤시스터즈) 연맹 군포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본드를 흡입하거나 단순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BBS수원연맹으로 데려가 교육을 받게 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 청소년들의 부모를 가요교실에 불러 부모 교육을 실행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권했다.

노래교실에는 이미 음향시설과 악기가 완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고, 점점 그 수가 많아졌다. 즐거워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싶어 생각 끝에 중심상가 상인회와 협의해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 청소년 댄스마당을 열어주었다. 이 활동은 후에 청소년 축제로 이어졌다.

안영숙 지부장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양대승 군포 무용협회 초대 지부장이 찾아와 함께 무대를 꾸며보자며 제의했다. 양대승 지부장과 안영숙 지부장은 중앙공원에서 무용과 더불어 가요교실 회원들이 참여한 노래 무대를 열어 협연을 했다.

1996년 박현태 시인, 양대승 무용가, 김영철 작곡가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군포예총)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군포신문 기자였던 이선복 군포연예협회 초대 사무국장은 예총 설립을 건의했던 터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래서 문인, 무용, 음악 3개 지부 중심으로 군포예총이 창립되었다.

안영숙 지부장과 이선복 사무국장은 군포예총의 창립을 도우면서 군포연예협회도 발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군포에 살고 있던 연예예술인들은 대부분 안양연예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을 군포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가요교실 활동자들과 작곡가, 연주가, 가수 등 회원을 확보해 군포연예협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안영숙 지부장은 성남연예협회 이영식 지부장의 추천서와 52명의 회원 명부를 갖추어 (사)한국연예협회 본부를 찾아 협회의 인준을 받았다.

드디어 1999년 7월 1일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 인준을 받아 안영숙 초대 지부장과 이선복 초대 사무국장이 취임하며 군포예총의 일원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안영숙 지부장은 당시 전국 연예협회 지부장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군포연예협회는 군포의 연예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지부와 힘을 합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군포연예협회는 창립된 다음 해에 군포시 최초로



‘근로자 가요제’(2000.5.1)를 열었다. 공장 지대가 있는 군포에는 많은 근로자가 근무했지만 근로자를 위한 마땅한 문화콘텐츠는 없었다. 때 마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지역 특수성과 잘 조합된 행사였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윤주 시장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한국노총에서도 참가자 모집과 상품 협찬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역 기업인 농심과 지역 상인들도 협찬에 동참해 주었다.



‘청소년 락페스티벌’(2001.7.27)은 군포 최초 청소년 축제였다. 군포연예협회가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했던 안영숙 지부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들의 호응으로 이루어졌다. 피시방 등 음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공인된 밝은 무대를 제공해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대중문화에 흥미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흥을 돋우어 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흥진고등학교, 수리고등학교, 군포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 스쿨밴드 학생들이 군포시민체육광장 무대를 장식했다. 박진영 초대가수는 시민들의 응원과 청소년들의 열기에 놀라워하며 청혼가 외 2곡을 멋지게 불러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에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

청소년들을 위한 SUMMER ROCK FESTIVAL ‘락과 청소년의 밤’(2001.8.24)도 열렸다. 청소년들이 ‘한여름 밤, 우리는 하나가 된다. 우리들만의 세상 속에서 꿈을 키운다.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는 축제였다. 군포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모여들었고, 시민들도 마음껏 응원하며 즐긴 밤이었다. 페스티벌에 출연한 팀은 나폴레옹(흥진고), HMP(용호고), 우라질(군포연합밴드) 세 팀이었고, 특별출연한 인디밴드의 지존 ‘Y-PROJECT’의 공연과 힙합댄스의 황제 ‘비홀더’의 댄스 공연도 진행되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그 후에도 청소년들의 무대 제 2회 ‘그린콘서트’(2002.6.15)가 열렸고, 제 3회 ‘그린콘서트’(2003.5.20)가 이어져 또래 청소년들과 더불어 자라나는 군포의 미래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함께 축제를 즐겼다.

또 하나의 큰 행사는 ‘군포시 장애인가요제’(2001.9.14)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참여확대 등 재활자립을 높이기 위한 기획이었다.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자신감과 협동심을 발휘하고, 전통적 편견과 차별의식 등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기를 바라는 취지였다. 형상우(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군포시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출전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모두 승리자’라며 용기를 주었다. 개그맨 박준형의 사회로 12명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장애인 가족들과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초대가수 전미경은 ‘해바라기’와 ‘장록수’를 불러 분위기를 띄웠다.

군포연예협회는 그동안 가요교실에서 왕중왕가요제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요제의 지경을 넓히기로 했다. 다양한 참가자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요제를 만들고 싶은 열망으로 제 1회 군포시 ‘왕중왕가요제’(2001.10.4)를 열었다. 산본 중심상가 원형광장 특설무대 주변은 발 디딜 틈 없이 시민들이 몰려 왔다. 중심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축제에 관심을 보였다. 안영숙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다.

지역의 문화는 과거부터 전해오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 새로이 만들고 개발하는 문화임을 주목해야하며,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MC 박근수의 사회로 대회 참가자 13명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초청가수 지니와 송만기가 축



하무대를 펼쳤고, 김진명(한국연예협회 무용분과 원로특별회원)국내 최고 원로 탭댄서의 춤도 무대를 꽉 채웠다.

제 1회에 이어 제 2회 ‘왕중왕가요제’(2002. 11.12)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안영숙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왕중왕가요제가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로 발전되어 군포시의 대중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MC 박근수의 사회로 15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는데 각각 의왕가구축제 입상자, MBC주부가요열창 대상자, 산본노래동아리 입상자들이었다. 초대가수는 현찰, 엄상금, 박상철, 임희종이었다.

| 성장기(2004-2008)

안영숙 군포연예협회 초대지부장에 이어 2004년 7월 7일 제 2대 강신웅 지부장이 취임했다. 군포시청 대회의실에는 석현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곽상원 군포예총회장,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하여 김부겸 국회의원, 김제길 군포시의회의장과 많은 내빈이 참여했다. 안재덕의 사회로 정탁, 김세형, 장기선, 최재훈, 우연이, 전철의 식전공연이 이루어졌다. 강신웅 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양질의 문화예술행사와 시민에 대한 봉사, 소외된 계층까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2004-2008년은 군포연예협회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시기였다. 초창기에 해오던 행사들을 더 알차게 진행하려 애썼으며 새로운 기획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결속에 집중했고 예총과 힘을 합해 나가려 노력했다.

먼저 그동안의 가요제를 통합해 제 1회 ‘군포 시민가요제’(2004. 12.21)를 개최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군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가요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실력이 있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이 정해졌다. 대상

의 영광은 ‘김준걸’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제 2회 ‘군포 시민가요제’ (2005.12.17)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쳐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초대가수 현당, 이지나, 정탁 그리고 제 1회 군포시민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김준걸이 시민들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제 3회 ‘군포시민가요제’ (2006.9.16)는 1, 2회와 달리 중심상가 야외무대에 장을 펼쳤다. 다른 해 보다 예선 참가자들이 많아 22명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현당, 신나, 정탁, 진욱이, 임종훈 초대가수가 무대에 섰다. 제 4회 ‘군포 시민가요제’ (2007.8)도 초대가수 심신과 양하영의 축하무대와 함께 화려한 막을 열었다. 제 5회 ‘군포시민가요제’ (2008.10.10)는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렸다. 군포연예협회가 여는 다섯 번째 행사라 더욱 높아진 관심 속에 참가자들도 많았고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북적였다. 참가자들이 노래할 때 무대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춤을 추며 모두 하나가 된 흥겨운 행사였다.

군포연예협회는 기존 가요제 외에 색다른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당시 T-broad 방송사에서 하는 ‘도전 가요열전’ (2005) 프로그램을 군포에서 열게 한 것이다. 강신웅 지부장이 ‘도전 가요열전’ 프로그램의 고정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군포로 유치하게 되었다. 개그맨 김형진의 사회로 실력과 유쾌함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끼를 발휘했다. 또 전국순회공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 (2008.3.2)을 군포에서 개최했다.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국적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05년엔 또 하나의 새로운 무대를 기획했다. 겨울철 특성상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에 시민들에게 겨울밤의 낭만 콘서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뜻을 높이 평가한 최경신 군포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전폭적 지원을 얻어 지역예술무대 ‘눈 내리는 겨울밤 추억의 포크 이야기

기'(2005.12.6)를 열었다. 티켓을 판매한 행사로 군포연예협회 회원 신나, 강진한 등이 꾸민 포크송, K포크송, 팝 무대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겼다.

지역예술무대 '눈 내리는 겨울밤 추억의 포크이야기' (2006.12.8)는 다음 해에도 진행되었다. 역시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었지만 인기가 좋았다. 군포연예협회 회원 신나, 정탁, 강신웅 등이 소공연장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 등 공연을 펼쳤으며 유심초가 초대가수로 와서 겨울밤을 따스하게 덤혔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썩썩 불었지만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는 아름다운 음악과 관객들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군포시의 명물 철쭉동산이 조성되면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열린 음악회는 '언덕 위 작은 콘서트'(2006.4.23)였다. 철쭉동산이 완전하게 단장되기 전이었지만 철쭉꽃들이 환하게 피어 철쭉꽃을 보러 온 시민들과, 음악회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철쭉동산에서는 '열창 시민가수왕'(2007.4.28)이 진행되기도 했다. 사회는 개그맨 김형진, 초대가수는 우연이, 이진관, 신나, 정탁이었다. 또 철쭉꽃이 흐드러진 날 밤 연예협회 회원들의 공연 무대와 문인협회 시인들의 시낭송도 곁들여져 봄밤의 정취를 더 해준 '꽃과 시와 음악의 밤'(2007.4.29)이 열렸다.



2007년 10월 6일 오후 4시 군포시는 전국 규모인 큰 행사로 떠들썩했다. 군포연예협회가 군포시와 군포연예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 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열기로 한 것이었다.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던 연예예술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소도시 군포시에서 최초로 열게 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군포연예협회는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화려한 전야제를 펼쳤다.

다음날 본 행사가 열리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 레드카펫을 깔고 연예예술인들을 맞이했다. 이날 연예예술발전 대상(문화훈장)에는 가수 최희준, 연예예술발전 공로상(대통령표창)에는 오민우 작곡가, 연예에

술발전 공로상(국무총리표창)에는 코미디언 임하룡, 서울예술종합학교이사장 김민성, 가수 강타 등이 수상했다. 특별히 노재영 군포시장도 역대 대상수상자가 선정한 연예예술발전상을 받았다. 가수 동방신기, 보아, 정재은은 연예예술발전 해외인기상을, 소녀시대는 신인가수상을, 슈퍼주니어는 댄스가수상을, 조항조, 현숙은 남녀 성인가요상을 받았다. 개그맨 변기수, 신봉선은 희극부분상, 작사상은 조은희 작사가, 작곡상은 정의송 작곡가였고, 그 외 무용가, 라디오 진행자 등도 있었다.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으며, 대외적으로 군포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어 군포연예협회의 보람도 컸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은 군포시 개최를 계기로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2008년엔 시민들이 세계음악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민속음악여행’(2008.10.16)을 기획했다. 첫 번째 행사라 여러 경로를 통해 러시아 무용단과 남미 ‘마리아치 라틴’ 팀을 초대했다. 소공연장에는 러시아의 섬세하고 웅장한 무용 무대가 이루어졌고, 독특한 남미의 악기 연주와 노래가 감성을 자극했다.

이 시기에 강신웅 지부장은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취임하던 2004년에는 제 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창작부문(작사, 작곡)인 가수 정탁이 부른 ‘사랑아! 이제는’으로 우수상(2004.11.3.)을 수상했고, 다음해엔 문화관광부 표창을 받았다.(2005.11.5)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품격 있는 예술 활동을 높이 평가 받은 뜻깊은 수상이었다. 또 강신웅 지부장은 한국연예인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주는 경기도민대상(2007.10.7.)도 받았다. 다양하고 유익한 공연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무대를 펼쳐 연예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였다. 이어 수상한 문화관광부 장관상(2007.12.12)은 예술인으로서 예술 발전에 앞장서고 소외된 곳에서 공연 봉사를 한 공로로

선행예술인 부분 표창이었다.

군포연예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 신나는 대한민국 선행 예술인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안재덕은 경기예총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8.12.23)

| 중흥기(2009-2019)

군포연예협회가 출발한지 10여년이 되면서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무대도 더욱 풍성해졌다. 다양한 무대를 기획하고 시민들이 즐거워 할 가수들을 초대하는 무대를 꾸몄다. 또한 군포연예협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무대를 많이 갖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포시민들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안겨 줄 수 있는 무대를 가질 수 있어서 무척 보람 있는 시기였다.

그동안 군포연예협회가 주관하는 ‘군포 시민가요제’는 계속되었다. 2009년에 열린 ‘군포 시민가요제’(2009.5.2)는 제 6회였다. 이마트 앞 특설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열창이 이어지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함께 어우러져 박수를 보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제 7회 ‘군포 시민

가요제’는 군포시민에 이어 타 지역 거주자도 참가 자격이 주어져 그 열기가 뜨거웠다.(2010.10.8)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는 군포시민체육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대상은 ‘비상’을 부른 유현정 참가자에게 돌아갔고 초대가수 신나, 오현재, 유미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제 8회 ‘군포 시민가요제’(2011.8.25)도 성황리에 열렸다. 군포연예협회 회원 개그맨 안재덕이 사회를 보았고, 연주는 최재훈 악단장이 천진철 한국연예협

회 경기도지부장, 손경태 색소폰 연주자, 강신웅 군포연예협회 지부장(기획, 연출)이 심사를 맡아 주었다. 대상의 영광은 최영숙 참가자에게



돌아갔고 초대가수는 신나, 이지나, 희승연, 영조, 임종훈, 제 7회 군포시 민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유현정이었다. 철쭉동산에서 열린 제9회 ‘군포 시민가요제’(2012.8.26)는 여름밤의 축제였다. 사회는 코미디언 이용식, 연주는 최재훈 악단장, 본선 심사는 김형 대한가수협회안양지부장, 김충



진 안양연예협회 수석부지회장, 강신웅 군포 연예협회 지부장(기획, 연출), 김다솜 노래강사가 담당했다. ‘부초 같은 인생’을 부른 오홍순 참가자가 대상을 받았으며 초대가수 신나, 유미, 임종훈, 제 8회 군포시 민가요제 대상 수상자 최영숙이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제10회 ‘군포 시민가요제’(2013.8.17) 도 철쭉동산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역시 코미디언 이용식의 사회, 최재훈 악단장의 연주로 18팀의 참가자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했다. 김형 대한가수협회 안양지부장, 김충진 안양 연예협회 지부장, 강신웅 군포연예협회 지부장(기획, 연출)이 심사를 담당했다. 권민혁 참가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초대가수 혜인, 유미, 임종훈, 제 9회 군포시 민가요제 대상 수상자 오홍순이 무대를 채워주었다. 제 11회 ‘군포 시민가요제’(2014.8.14)도 철쭉동산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군포연예협회 회원인 개그맨 안재덕의 사회로 언제나처럼 최재훈 악단장의 멋진 연주로 19명이 본선 무대에 섰다. 초대가수는 심신, 신나, 임종훈, 백건아, 제 10회대상 수상자 권민혁이었다. 제 12회 ‘군포 시민가요제’(2015.10.4)는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서 열렸다. 사회는 코미디언 이용식이, 연주는 최재훈 악단장이 맡아 주었으며 본선 진출자는 11명이었다. 김형 대한가수협회 안양지부장, 김충진 안양연예협회 지부장, 강신웅 군포 연예협회 지부장이 심사를 해주었고, 초대가수는 신나, 임종훈, 백건아였다. 제 13회 ‘군포 시민가요제’(2016.8.21)는 반월호수 수변무대에서 열렸다. 그동안 소공연장, 군포시민체육공원, 중심상가, 철쭉동산 등에서 열렸는데 수변무대에서 진행되어 더 특별했다. 강신웅 군포연예협회 지부장의 기획, 연출, 군포연예협회 회원인 안재덕의 사회가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역시 최재훈 악단장의 연주와 백승진 의왕연예협회 지부장, 정용배 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심사를 맡았으며 초대가수 신나, 레드로우 고니, 황명하가 흥겨운 시간을 연출했다.

철쭉동산에서 이루어진 잊지 못할 무대 중 하나는 철쭉축제 기간에 있었던 ‘인디밴드여행’(2011.5.5.)이었다.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초대 된 비트가 강한 흥대 클럽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팀의 음악은 시민들을 활력 있는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철쭉동산에서는 ‘슈퍼스타 군포 선발 노래대회’(2011.5.11)도 열렸다. 철쭉꽃 만발한 꽃동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철쭉가요제’(2012.5.12)는 2011년에 했던 ‘슈퍼스타 군포 선발 노래 자랑’을 이어받은 가요제였다. 철쭉동산 가득 피어난 철쭉꽃에 둘러싸여 참가자들도, 관람하는 시민들도 봄밤에 취한 시간이었다.

제 5회 ‘철쭉가요제’(2016.5.1)는 역시 철쭉꽃이 만발한 철쭉동산에서 열렸다. 코리안 재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이용식 코미디언이 사회를 맡았다. 본선 출전자는 모두 20명이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이 주어졌다. 심사위원은 김일 작곡가, 안진영 작사가, 강신웅 작곡가가 맡아주었고 초대가수는 전 ‘노찾사 멤버’인 김형철, ‘아모레 미오’의 유미, ‘철쭉 꽃비가 내리면’의 신나가 무대를 꾸며주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세계민속음악여행’(2009. 11.14) 은 이마트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날씨가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했다. 러시아퓨전재즈 ‘알렉스 밴드’의 재즈와 재즈블루스를 기본으로 팝, 컨트리, 가요 등 다양한 연주와 라

틴팝재즈 밴드 ‘차니 라피노’의 라틴팝재즈가 이어졌다.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을 통해 알려진 곡들과 제 3세계 음악으로 알려진 곡들이 연주되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부르는 운치 있는 음악여행이었다. 세 번째 열린 ‘세계민속음악여행’(2010.7.24) 도 이마트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마리아치 밴드’와 ‘오리손떼 밴드’의 독특한 음악을



들으며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09년 군포연예협회에 일어난 특별하고 신나는 일은 ‘G-folk Band’ 결성이었다. 연예협회 회원 중 가장 많은 연주분과와 가수 분과 회원들 (안재덕:MC & 개그맨, 신나:보컬 & 어쿠스틱기타, 강신웅:보컬& 어쿠스틱기타 & 하모니카, 최재훈:테너 & 소프라노 색소폰, 임종훈: 보컬 & 일렉트릭기타, 이정연: 연출, 박성배: 음향)이 마음을 합한 결과로 군포연예협회의 결속과 예술승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군포연예협회밴드’ 보다 더 알맞은 이름을 갖고 싶어 고심하던 중 이숙진 예총사무국장이 GUNPO 뿐 아니라 GREAT, GOOD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G를 넣은 ‘G-folk Band’가 어떠냐고 제의했다. 이숙진 사무국장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G-folk Band’ 이름이 탄생되었고 예술 감독은 강신웅, 대표는 이정연이 맡았다. ‘G-folk Band’는 밴드 결성 1주년에는 강신웅 작사.작곡, 신나 노래 ‘철쭉꽃비가 내리면’ 앨범을 제작했다.(2010) 이를 계기로 군포연예협회 ‘G-folk Band’는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G-folk Band’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해는 2011년도였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구리, 가평, 청평 등 경기도 지역과 군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6월에 찾아간 가평 자라섬 공연장은 캠핑촌이었다. 뜻밖에도 캠핑 온 젊은이,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뜨거운 무대가 되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관객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뒤편이를 즐기기도 했다. 9월에 찾아간 청평 오일장에서의 공연은 유쾌하고 행복했다. ‘공연에 도움을 주신 00상회, 00다방, 00옷집 사장님들께 감사합니다.’며 사회자 안재덕의 재치 있는 멘트로 인해 시장 안에 있는 다방에서 냉커피가 배달 오는 등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돌아올 때는 잣 선물을 듬뿍 받았을 정도였다. 그동안 군포연예협회 회원들은 시민가요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무대를 꾸미거나 유명 가수들을 초대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G-folk Band’ 활동 덕분에 군포연예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게 되었다. ‘G-folk Band’가 주는 큰 기쁨이었다.

‘G-folk Band’는 군포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철쭉동산에서, 경기도 금촌, 화성 등에서 즐겁고

유쾌한 공연을 이어갔다.(2012) 또한 가평 자라섬, 파주 주말농장,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꽃동네에서도 공연했다.(2013)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이 몸동작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군포연예협회의 활동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G-folk Band’ 외부 활동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2014) ‘G-folk Band’와 유사한 아마추어 단체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침체된 상태에서도 ‘G-folk Band’는 제 2 앨범(#우리 동네 이야기2) ‘우리 동네 수리산’을 제작 발표했다.(2015) 강신웅 작사.작곡 ‘수리 성당길’은 신나가 노래하고, ‘우리 동네 수리산’은 군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했다. 충주 무학시장 공연(2016)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로 트로트를 선호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하게 포크송, 올드팝으로 구성했는데 색다른 분위기가 좋라며 환호했다. 그 인연으로 충주 무학시장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G-folk Band’ 제 3앨범 (#우리 동네 이야기 3)은 (2017) 황혜리 작사, 강신웅 작곡 ‘철쭉 꽃잎 우체통’과, 서현민 작사, 강신웅 작곡 ‘반월호수 그 길에서’ 두 곡을 강신웅 지부장이 노래했다.

‘G-folk Band’는 철쭉동산 상설무대에서 특별한 ‘Pop & K-Pop 연주회’(2018. 8.16)를 열었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과 미국, 영국의 Pop음악을 중심으로 4리듬, 3브라스, 통기타, 하모니카, 보컬 등의 멤버로 구성된 군포연예인협회의 G-Folk & A브라스 Band(KBS악단 민병직:드럼, KBS악단 송선호: 키보드, KBS악단 서강철: 기타, 남귀수: 베이스, KBS악단 문재호: 트럼펫)의 협연으로 옛 노래의 정취와 최신 Pop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했다. K-Pop 트로트계의 활력소 구수경이 찬조 출연해 여름밤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산본로데오거리 특설무대에서 군포연예인협회 정기연주회 ‘낭만콘서트’(2019. 8.31)가 열렸다. 여름 끝,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오후에 연예인협회 회원인 개그맨 안재덕의 사회로 G-folk 멤버 강신웅과 신나가 ‘철쭉 꽃비가 내리면 2’, ‘Swing low sweet chariot’,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노래와 연주로 무대를 펼쳤다. 또 드림패밀리 홍순선(기타), 이동규(베이스), 배창규(키보드), 김경곤(드럼), 서병휘(엘토섹소폰), 한기만(트럼펫), 김상조(트럼본), 고인호, 홍주혜(보컬)가 ‘Unchanged

my heart', '한동안 뜸했었지', '얘기할 수 없어요', 'I feel good', 'I will always love you', 'Play that funky music'을 연주하고 노래했다. 한편 초대가수 심신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와 '그림자'를 열창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G-folk Band'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군포시립요양보호센터 등 소외지역 위문공연(2019)을 하는 등 군포연예협회의 명예를 걸고 공연을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 현재와 미래(2020~)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도 제약을 받았다. 대중 앞에 서야하는 연예예술인들에게는 암담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군포연예협회 정기연주회(2020.7.17)를 열었다.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펼쳤다. 안재덕(MC), 신나(보컬), 강신웅(보컬 기타, 하모니카), 정가인(보컬), 최재훈(색소폰), 민병직(드럼), 남귀수(베이스), 서강철(기타), 한범식(키보드), 문재호(트럼펫), 손기석(트럼본)이 참여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G-folk Band'는 군포역전시장과,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쳤다.(2020)

20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연에 많은 제약이 있어 2020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공연으로 철쭉홀에서 대중음악이야기(2021.6.2)와 정기연주회(2021.8.5)를 열었다.

또한 'G-folk Band' 제4앨범(#우리동네 이야기#4)이 제작발표되었다.(2021) 제4앨범의 '참 괜찮은 그곳'은 군포 8경의 하나인 밤바위를 좋아했던 같은 또래친구들의 어릴적 추억을 이야기한 노래이고, '벚꽃길에서'도 군포 8경의 하나인 금정역 3번출구 벚꽃길을 노래한 곡이다. 강신웅 작사·작곡의 곡으로 이야기를 통해 군포의 현재 지명과 옛 지명, 인물, 지역정서 등이 포함된 노랫말 창작을 통하여 지역민과 가수 등이 이어 부르는 릴레이 연주도 펼칠 예정이다.

언급한 것처럼 2020년, 2021년은 모든 예술 활동이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에서 언제쯤 벗어날지는 미지수다. 군포연예협회도 1999년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중과 소통해야하는 연예협회 특성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비대면 공연으로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시대에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연예협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껏 시도해 보지 못한 획기적인 무대,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는 즐거운 무대, 미래에 꼭 필요한 시도들을 군포연예협회 모든 회원들은 힘을 합해 연구하고 기획해 실행할 계획이다.



군포연예협회 연혁

- 1999
 - 07.01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 창립총회
- 초대지부장: 안영숙 사무국장: 이선복
- 2000
 - 05.01 근로자가요제
- 2001
 - 07.27 청소년 락페스티벌
- 청소년 축제
 - 08.14 SUMMER ROCK FESTIVAL '락과 청소년의 밤'
 - 09.04 제3회 군포시장애인가요제
 - 10.04 제1회 군포시왕중왕가요제
- 2002
 - 06.15 제2회 청소년 그린콘서트
 - 11.12 제2회 군포시왕중왕가요제
- 2003
 - 05.20 제3회 청소년 그린콘서트
- 2004
 - 05.02 2대 지부장 임명: 강신웅
 - 07.07 제2대 지부장 취임
- 지부장: 강신웅 수석부지부장: 엄주훈 부지부장: 백승진 사무국장: 홍수영
 - 11.03 경기도지사상 수상 _ 강신웅지부장
 - 12.21 제1회 군포시민가요제

● 2005

- 05. 도전! 가요열전
- 11. 05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_ 강신웅 지부장
- 12. 06 지역예술무대
'눈 내리는 겨울밤 추억의 포크이야기'
- 12. 17 제2회 군포시민가요제

● 2006

- 04. 23 언덕 위 작은 콘서트 _ 철쭉동산
- 09. 16 제3회 군포시민가요제
- 12. 08 지역예술무대
'눈 내리는 겨울밤 추억 만들기'

● 2007

- 04. 28 열창 시민가수왕
- 04. 29 꽃과 시와 음악의 밤 _ 철쭉동산
- 08. 제4회 군포시민가요제
- 10. 06 제14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및 전야제 _ 시민체육광장
- 10. 07 경기도민 대상 _ 강신웅 지부장
- 12. 11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_ 강신웅 지부장

● 2008

- 10. 10 제5회군포시민가요제
- 10. 15 2008세계민속음악여행
- 10. 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_ 신나
- 경기예총 공로상수상 _ 안재덕

● 2009

- 05. 02 제6회 군포시민가요제
- 02. 14 G-folk Band 결성
- 11. 14 2009 세계민속음악여행

● 2010

07. 24 2010 세계민속음악여행
10. 08 제7회 군포시민가요제
12. G-folk Band밴드 결성 2주년기념 앨범
'철쭉꽃비가 내리면' 제작

● 2011

04. ~ 10.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5. 05 인디밴드 여행 _ 중심상가 야외무대
05. 11 슈퍼스타군포선발노래자랑
- 제1회 철쭉가요제 - 철쭉동산
08. 25 제8회 군포시민가요제

● 2012

05. ~ 09.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5. 12 제2회 철쭉가요제
08. 26 제9회 군포 시민가요제

● 2013

03. ~ 10.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5. 03 제3회 철쭉가요제
08. 17 제10회 군포시민가요제

● 2014

08. 14 제11회 군포시민가요제
09. ~ 10.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 2015

05. 07 제4회 철쭉가요제
07. ~ 11.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11. 우리동네 이야기#2 노래만들기
10. 04 제12회 군포시민가요제

● 2016

05. 01 제5회 철쭉가요제
06. 12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8. 21 제13회 군포시민가요제

● 2017

08. 21 제14회 군포시민가요제
10. 08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 2018

08. 16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8. 16 Pop & K-Pop 연주회 / 반월호수

● 2019

06. 26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8. 30 낭만콘서트

● 2020

06. ~07. 찾아가는 문화 활동 G-folk Band 공연
07. 17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 2021

06. 02 대중음악이야기
08. 05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11. 군포의노래 제작 '벚꽃 길에서'
12. 15 7080 포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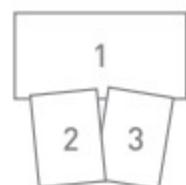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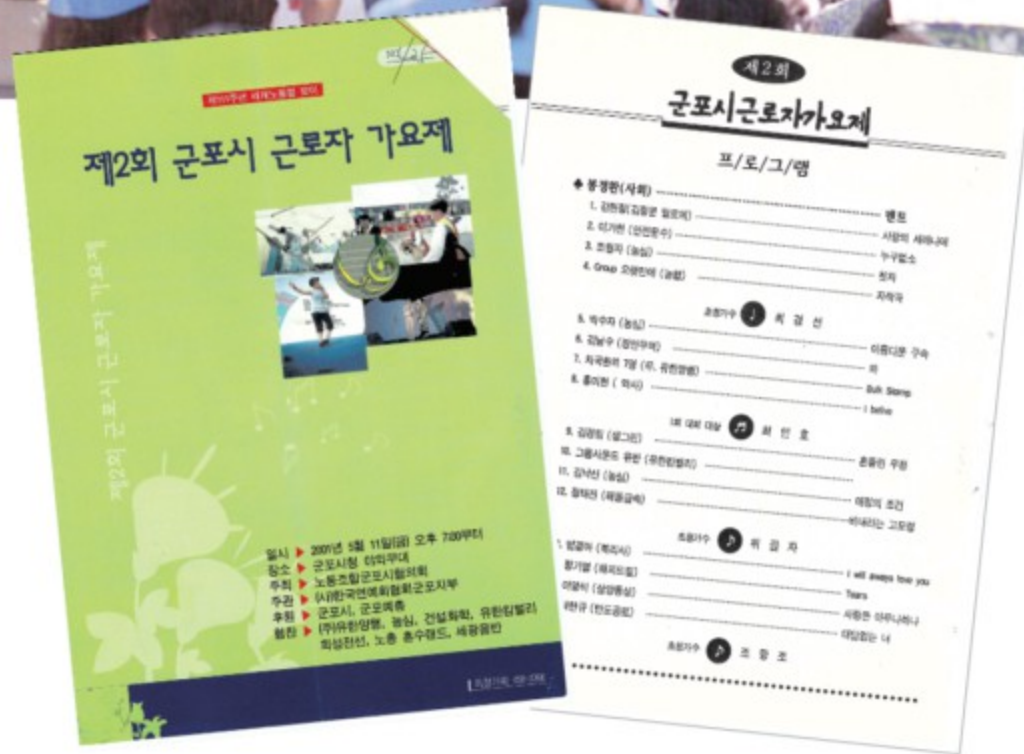
역대 지부장단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비고
초대	안영숙	1999 ~ 2004		이선복	
2대	강신웅	2004 ~ 2008	엄주훈, 백승진	홍수영	
3대	강신웅	2008 ~ 2012	정탁	이정연	
4대	강신웅	2012 ~ 2016	정탁, 안재덕	이정연	
5대	강신웅	2016 ~ 2020	정탁, 안재덕	이정연	
6대	신지균 (신나)	2020 ~ 현재	정탁, 안재덕	이정연	

회원 명단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가수	신지균
2	부지부장	가수	정재일
3	부지부장	MC	안재덕
4	사무국장	연주	이정연
5	고문	작곡	강신웅
6	회원	가수	이용국
7	회원	가수	송은하
8	회원	가수	서현민
9	회원	가수	김영세
10	회원	연주	주용열
11	회원	가수	윤경순
12	회원	가수	박영애
13	회원	가수	최민자
14	회원	연주	김광철
15	회원	연주	정재일
16	회원	가수	고남현
17	회원	창작	김 일
18	회원	창작	안진영
19	회원	가수	김형철
20	회원	연주	윤환수
21	회원	가수	권용철
22	회원	가수	유은정
23	회원	창작	최영애
24	회원	창작	황인경
25	회원	연주	어민수

NO.	직책	분야	성명
26	회원	연주	정성호
27	회원	연기	안병우
28	회원	가수	이원균
29	회원	연주	민영만
30	회원	연주	홍성취
31	회원	연주	남승상
32	회원	연주	김세형
33	회원	연주	홍수영
34	회원	가수	백광현
35	회원	연주	정진강
36	회원	연주	김완식
37	회원	가수	김미숙
38	회원	작사	이재남
39	회원	가수	이지산
40	회원	가수	은선영
41	회원	가수	윤경옥
42	회원	가수	김정원
43	회원	가수	정상희
44	회원	가수	최재언



- 2001
- 05. 27 열전가수왕
- 05. 11 제2회 군포시근로자가요제
- 제2회 군포시근로자가요제



2004~2009



2004

- 07.07 제2대 지부장 취임식
- 12.21 제1회 군포시민가요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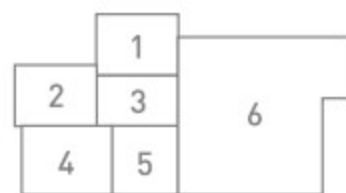
- 10.06 제14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2009

- 05.02 제6회 군포시민가요제
- 11.14 세계민속음악여행



2010~2011



2010

- 07. 24 세계음악민속여행
세계음악민속여행
- 10. 08 제1회군포시민가요제
제1회군포시민가요제
우리동네이야기 음반#1

2011

- 08. 25 제8회 군포시민가요제



2012~2014



2012

- 05. 12 제2회 철쭉가요제
- 07. 22 찾아가는7080포크뮤직
- 08. 26 제9회 군포가요제

2013

- 03. 30 파주공연
- 05. 03 제3회 철쭉가요제
- 08. 17 제10회 군포가요제

2014

- 07. 11 7080포크이야기
- 08. 14 제11회 군포가요제
- 12. 23 찾아가는7080포크뮤직



2015~2016



	1	6	7
2	3	8	9
4	5	10	11

2015

- 05. 01 제4회 철쭉가요제
- 07. 11 찾아가는7080포크뮤직
- 09. 02 가평공연
- 10. 04 제12회 군포가요제
- 10. 30 찾아가는7080포크뮤직

2016

- 04. 23 제5회 철쭉가요제 예심
- 05. 01 제5회 철쭉가요제
- 06. 12 충주공연
- 08. 21 제13회 군포가요제
- 제13회 군포가요제
- 10. 09 어쿠스틱콜라보



2017~2019



2017

- 04. 24 대중음악이야기
- 08. 21 제14회 군포가요제
- 12. 28 안양공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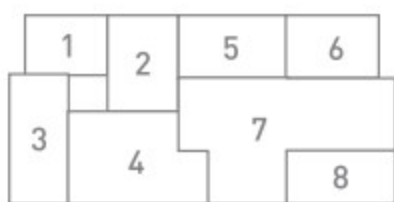
- 08. 16 POP&K-POP 연주회
- 10. 14 제22회 굿고리가요제

2019

- 06. 26 찾아가는7080포크이야기
- 08. 31 낭만콘서트
낭만콘서트



2020~2021



2020

- 06. 05 발코니콘서트
- 06. 12 어쿠스틱콜라보
- 07. 12 경기방방곡곡
- 07. 17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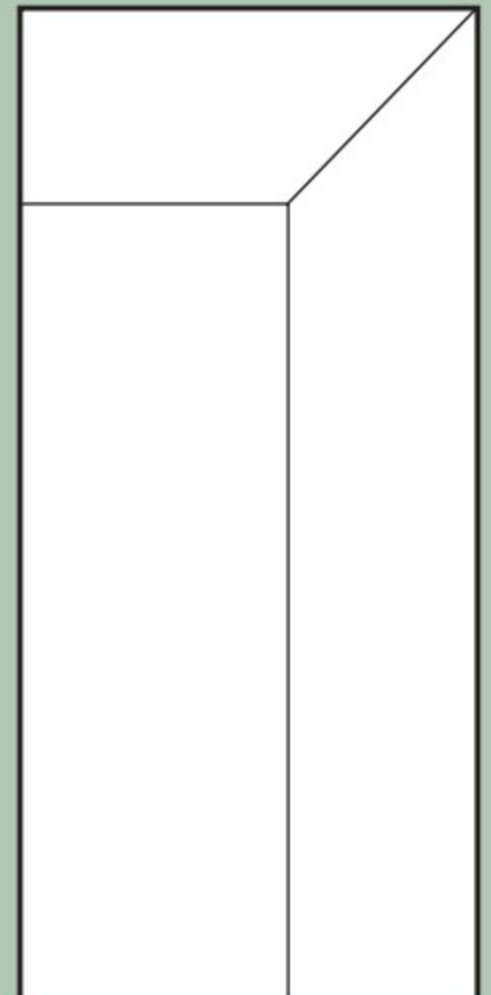
2021

- 06. 02 대중음악이야기
- 08. 05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 02. 15 7080포크이야기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 508 군포사진작가협회가 걸어온 길
- 514 군포사진작가협회 연혁
- 516 역대 지부장단
- 517 회원 명단
- 518 군포사진작가협회 화보

08



군포사진작가협회가 걸어온 길

1 태동과 창립배경

군포의 사진 문화는 1번 국도를 접하고 있는 안양 군포 의왕지역 기업체 사진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활동과 교류를 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결성된 군포사진연구회는 산본신도시가 생기기

이전인 1989년 5월 31일 군포지역에서 활동하던 (주)농심, (주)두산유리, 유한양행, 유한 김벌리, (주)대우전자, (주)서진다이킨, 범양냉동 등 기업체 동호회 회장단과 군포역 앞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故 유원식 대표를 창립회장으로 추대,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수리사우회는 1995년 5월 2일 산본신도시 입주 후에 창단되었다.



뒤를 이어 1995년 군포여성회관에 사진 강좌가 개설되어 1~3기 사진강좌를 수강한 회원들이 모여 군포사진사랑회를 창단했다. 그 후 군포여성회관 사진강좌를 수강한 회원들이 모여 기수별로 초록회, 무지개사우

회가 결성되었고 캐논사랑(현 사진을 사랑하는 모임), 에이스포토, 군포포토, 신산본자이 등의 동아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진 문화의 불모지인 군포시의 사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5년 군포사진연구회와 수리사우회가 군포사진연합회를 발족하면서 군포의 사진동호인 단체들이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각 동아리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6년 군포시에서 후원하고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군포예총 창립기념 제1회 시민예술제에 군포사진연합회의 명칭으로 군포사진연구회와 수리사우회 두 동아리가 첫 번째 연합 사진전시회에 참여했다. 1997년 제2회 태을예술제에 군포사진연구회, 수리사우회 동아리가 군

포사진연구회로 두 번째 연합전시
에 참여했다. 1998년 제3회 태을예
술제에는 보다 많은 동아리들이 함
께 참여하게 되었다. 제3회 태을예
술제 연합전시회에 참여한 동아리
는 군포사진연구회, 군포수리사우
회, 군포사진사랑회, 군포L.G파인
더멤버 였다. 군포사진연합회의 전
시회에 처음 참가한 군포사진사랑
회는 1995년 군포여성회관에 사진
강좌가 개설되어 1기~3기 사진강좌에서 수강한 회원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이다. 1999년 제4회 태을제 연합사진전시회에 참여한 동아리는
군포사진사랑회, 군포사진연구회, 군포수리사우회가 참여했다.
2000년 제5회 태을제에서 군포사진연구회, 군포수리사우회, 군포사진
사랑회, 초록사진회(처음 합류)가 연합전시회에 참여했다.



2000년 군포사진연합회 故 주승철 회장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를 창립하려고 추진했으나 협회 인준 작가 정회원 15명이 되
지 못해 불발되었다. 2,000년
IMF가 터지고 나서 여성회관
의 강좌는 무지개사우회까지
배출되고 폐강되었지만, 동아
리는 남아서 창작 활동과 전
시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
지부창립은 故 주승철 회장이
화성으로 이사 가면서 차질이
생겨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1년 군포시 후원, 군포문
화원 주최로 군포사진사랑회

(회장 이안순), 군포사진연구회(회장 전순만), 초록사진회(회장 김혜
숙), 무지개사우회(회장 김복선)가 모여 제1회 사진동호인 전시를 개최
했다. 2001년 사진을 사랑하는 모임(구 캐논사랑) 동호회가 결성되어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며 20회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



다. 2006년 오금정보화마을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사진 동호회가 골드홈이라는 동호회로 발족 되어 2015년까지 4회 전시회를 개최해오다 고령 회원들의 사망, 입원 등으로 현재 휴면상태가 되었다. 2006년 같은 해 당정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인을 중심으로 신산본자이 디지털사진동호회가 발족 되어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공업지역이었던 당정동에 사진 문화를 꽃피웠는데 현재는 휴면상태이다. 군포지역 초창기 사진을 사랑하는 동아리들의 활동으로 군포시의 사진 문화 활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2014년도 사진작가 신호가 강의한 군포 평생학습원에서 사진작가가 배출되면서, 필요 인원이 충족되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결성에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군포에 거주하면서도 지부가 없어 안양지부에서 활동하던 안양지부 회원 8명, 서울에서 활동하던 회원 3명, 평생교육원에서 배출된 작가 12명으로 23명이 모여 10월 22일 창단발기총회 (위원장 류재만)를 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20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가 정식으로 설립



인준을 받아 12월 임시총회에서 초대 오종두 지부장이 선출되었고 2015년 1월 창단식에서는 한응열회원이 입회를 하여 24명의 회원으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가 출범했다. 2015년 1월 30일 정관을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열고 경기도 31개 지부 중 25번째로 정식 출범했다. 창립회원은 박정식, 성주희, 임효례, 이안순, 김채수, 이정진, 조화제, 한종원, 송기서, 류재만, 김금순, 김영숙, 오종두, 윤순영, 윤혜영, 이영희, 이자경, 이해순, 정명렬, 홍현숙, 최현철, 한응열, 전병식, 한재수 등이다.

2015년 5월 1일 ~ 5일 군포철쭉축제에 참여하여 군포시민들에게 무료 촬영 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군포지부 창립 첫해의 활동을 시작했다. 7월 23일 임시총회에서 2대 성주희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10월

19일~25일 제1회 회원전 및 초대작가전시회를 개최하며 창립 첫해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2016년 1월 20일 제2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3월 30일~4월 4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 정기전시회를 개최했으며 4월 30일~5월 3일 군포철쭉축제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사진 촬영 봉사를 했다. 9월 2일~6일 제2회 회원전을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및 야외에서 개최하며 순조로운 창립 두 해째를 보냈다.



2017년 1월 31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5월 7일까지 회원정기전시회를 했다. 4월 29일~30일 군포철쭉축제에 참가하여 무료 촬영 및 인화 봉사를 하였고 9월 22일 제3회 작가전을 개최했다. 10월 1일~9일 한가위 예술제로 한숲 문화의 거리에서 사진, 미술, 시가 있는 3개 지부 연합 거리 전시회를 개최했다. 11월 1일~30일 찾아가는 전시회 '따뜻한 동행'을 군포경찰서, 원광대학병원, 롯데피트인 세 곳에서 한 달여를 전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2018년 1월31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3대 지부장으로 한응열지부장이 선출되었다. 4월 20일~30일 회원 정기전시회를 군포시민들과 함께 나누자 하는 마음에서 5단지 입구에서 철쭉동산 입구까지 전시를 했다. 4월 27일~29일 철쭉축제 기간에 사진협회가 처음 시도하는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진작가들과 사진애호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게 되어 전국행사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사진협회의 터닝포인트가 되었



다. 8월 16일~20일 제4회 작가전을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및 예술회관 야외 광장에서 전시했으며 11월 12일~2019년 1월 12일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를 원광대병원과 군포노인요양센터에서 전시했다.

2019년 3월 29일~4월 4일 제5회 정기전을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했으며 군포노인요양센터 전시를 계기로 4월 15일 군포노인요양센터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하고 회원 사진을 기증했다. 4월 27일~28일 제2회 군포철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1회 때보다 더 많은 작가 및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8월 30일~9월 6일 예인예술제 행사로 중앙공원 도로변에 야외 전시를 했다.

2020년 군포 문화 관광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들을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갤러리홀에서 전시했다. 같은 해 군포 옛 모습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을 군포시청에 전시했다. 10월 5일~23일 ‘쓰고, 그리고, 줌인’이라는 주제로 사진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3개 지부가 함께 2개월여 작업한 결과물을 초막골과 중앙공원에 전시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11월 10일~13일 제6회 정기전을 군포예술회관 제1,2전시실에서 전시했으며 11월 23일~28일 군포문화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12월 1일~12일 군포 옛 모습 공모전 수상작을 군포시청 로비에서 전시했다. 특히 사항은 2020년 공모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온라인 공모로 진행했다.



2021년 1월 23일 제7차 정기총회 및 4대 지부장 선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4대 지부장으로 임효레지부장이 선출되었다.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비롯하여 군포문화관광사진 공모전, 군포철쭉제에서 무료사진 봉사, 찾아가는 전시회,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전시회 등 매년 진행해오던 여러 전

시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팬데믹 상황이 조금 주춤해진 11월 27일 정기 출사 겸 송년회를 강화도에서 진행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회원들

이 함께 할 수 있었다. 12월 1일 ~5일 비대면으로 2021년 군포문화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를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군포지부는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협회의 각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어 긍정의 에너지로 함께 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길지 않은 지부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초대 오종두지부장, 2대 성주희지부장, 3대 한응열지부장, 4대 임효례지부장을 필두로 많은 일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매해 4월 군포 철쭉 축제에 무료사진 촬영과 인화 행사로 봉사, 11월에는 찾아가는 전시회 <따뜻한 동행>를 개최하여 군포경찰서, 롯데피트인, 원광대병원 3개 장소를 돌며 사진 전시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전시회 등 여러 행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회원 정기전시회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21년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비롯하여 군포문화관광사진 공모전, 군포 옛 모습 사진 공모전 등 여러 행사를 무리 없이 치러내는 저력을 보이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는 군포예총에 속해 있는 타 지부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도약할 것이다.



군포사진작가협회 연혁

● 2014

- 10. 22 (가칭) 한국사진작가협회 발기총회 / 추진위원장 류재만
- 11. 2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설립인준
- 12. 04 임시총회 / 초대지부장 오종두 선출

● 2015

- 01. 30 제1차 정기총회 및 창립식
- 05. 01~05. 05 군포철쭉축제 참가 (무료촬영, 인화 행사)
- 07. 21 임시총회 / 2대 지부장 성주희 선출
- 10. 19~10. 25 제1회 회원전_군포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야외

● 2016

- 01. 20 제2차 정기총회
- 03. 30~04. 04 2016년 사진 정기전시회_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04. 30~05. 03 2016년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참가 (무료촬영, 인화 행사)
- 09. 02~09. 06 제2회 회원전_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야외

● 2017

- 01. 31 제3차 정기총회
- 04. 22~05. 07 2017년 사진 정기전시회_8단지사거리~한숲사거리
- 04. 29~04. 30 2017 군포철쭉축제 참가 (무료촬영, 인화행사)
- 09. 22~09. 27 제3회 작가전_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 10. 01~10. 09 한가위 예술제_한숲문화의 거리, 미술, 사진, 시가 있는 거리
- 11. 01~11. 30 찾아가는 전시회 (3개소 전시)

● 2018

- 01. 31 제4차 정기총회 / 3대 지부장 한응열 선출
- 04. 20~04. 30 2018년 사진 정기전시회_5단지입구~철쭉동산 입구

04.27 ~ 04.29 제1회 철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_철쭉동산 일대
 08.16 ~ 08.20 제4회 작가전_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야외
 11.12 ~ 2019.01.12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 전시회_원광대 군포병원 외 3곳

● 2019

01.25 제5차 정기총회
 03.29 ~ 04.04 제5회 정기전_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04.15 군포 노인요양센타와 자매결연 협약식
 04.27 ~ 04.28 제2회 군포철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6월 전시회)
 08.30 ~ 09.06 예인예술제 _ 중앙공원

● 2020

01.30 제6차 정기총회
 07.14 ~ 07.19 예인예술제_문화예술의 거리
 10.05 ~ 10.23 제1회 아트콜라보 _ 초막골, 중앙공원
 11.10 ~ 11.13 제6회 정기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11.23 ~ 11.28 군포 문화 관광사진 공모전_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갤러리홀
 12.01 ~ 12.12 2020 군포 옛 모습 공모전 _ 군포시청 로비

● 2021

01.23 제7차 정기총회 / 4대 지부장 임효례 선출
 04.06 ~ 04.11 제7회 정기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11.27 정기출사 및 송년회 _ 강화도
 12.01 ~ 12.05 2021 군포 문화관광사진 공모전 전시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역대 지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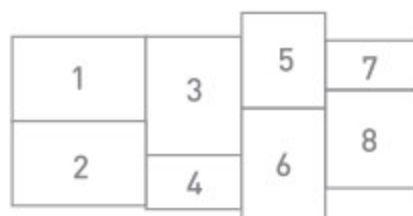
역대	지부장	기간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
1대	오종두	2014 ~ 2015	성주희, 이안순	윤혜영	한종원, 류재만
2대	성주희	2015 ~ 2018	이안순, 한응열	이종화	한종원, 류재만
3대	한응열	2018 ~ 2021	이준용, 임효례	송두상	김채수, 이상경
4대	임효례	2021 ~	오세충, 김영숙	최용자	이준용, 성주희

회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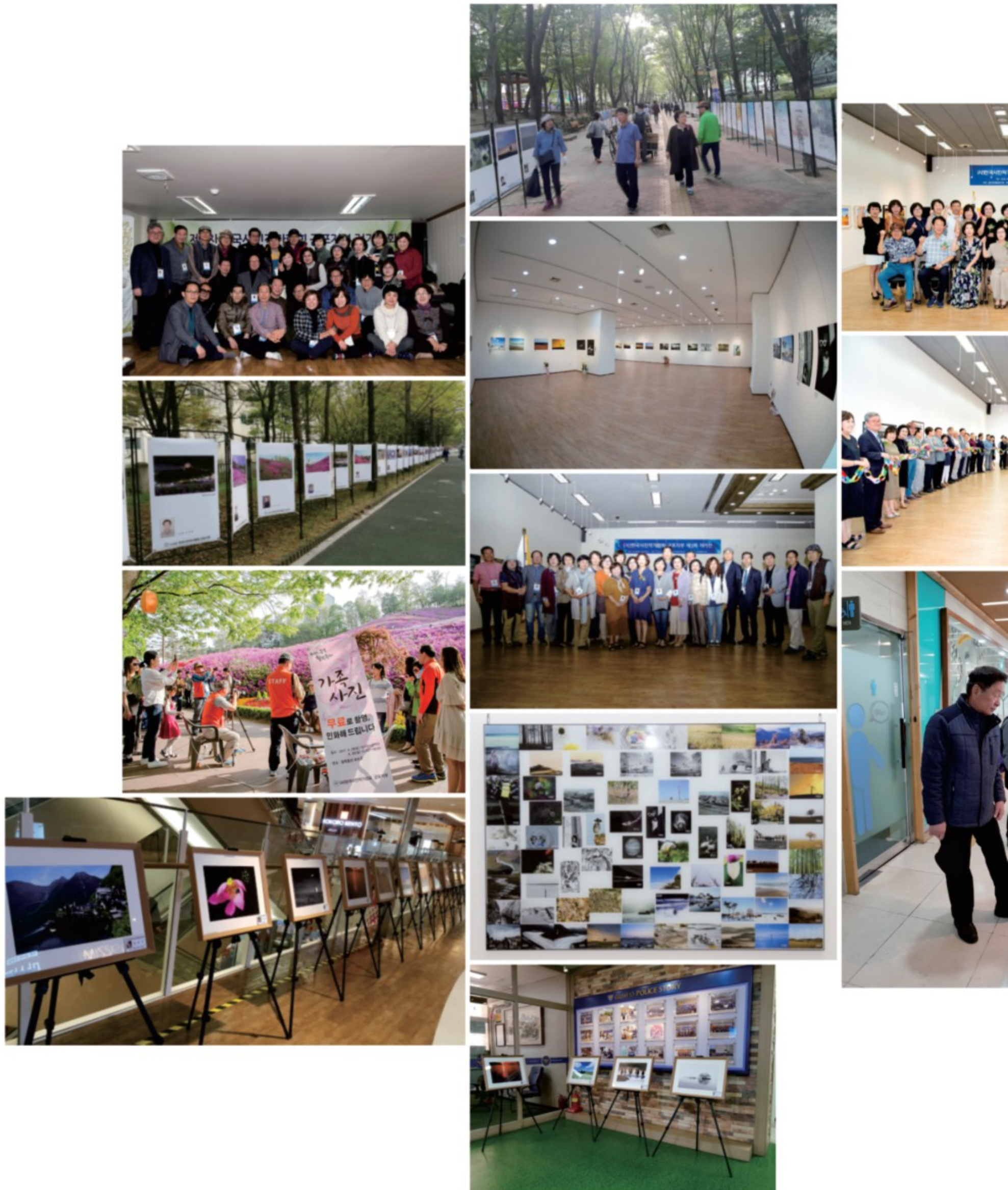
NO.	직책	분야	성명	NO.	직책	분야	성명
1	지부장	사진	임효례	27	회원	사진	이해순
2	부지부장	사진	오세충	28	회원	사진	정명렬
3	부지부장	사진	김영숙	29	회원	사진	홍현숙
4	감사	사진	이준용	30	회원	사진	최현철
5	감사	사진	성주희	31	3대지부장	사진	한응열
6	사무국장	사진	최용자	32	회원	사진	이상경
7	재무간사	사진	김향엽	33	회원	사진	고재실
8	홍보간사	사진	송두상	34	사진	사진	김용두
9	사업간사	사진	김채수	35	사진	사진	박삼수
10	기록간사	사진	조영수	36	사진	사진	양치소
11	교육간사	사진	윤순영	37	사진	사진	이경옥
12	운영간사	사진	윤세명	38	사진	사진	이영남
13	진행간사	사진	한재수	39	사진	사진	이영우
14	기획간사	사진	황해옥	40	사진	사진	강민주
15	회원	사진	박정식	41	사진	사진	정광호
16	회원	사진	이안순	42	사진	사진	윤석구
17	회원	사진	이정진	43	사진	사진	유영환
18	회원	사진	조화제	44	사진	사진	이석준
19	회원	사진	한종원	45	사진	사진	홍명춘
20	회원	사진	송기서	46	사진	사진	정연택
21	회원	사진	류재만	47	사진	사진	김이환
22	회원	사진	김금순	48	사진	사진	황진이
23	초대지부장	사진	오종두	49	사진	사진	한상택
24	회원	사진	윤혜영	50	사진	사진	정명호
25	회원	사진	이영희				
26	회원	사진	이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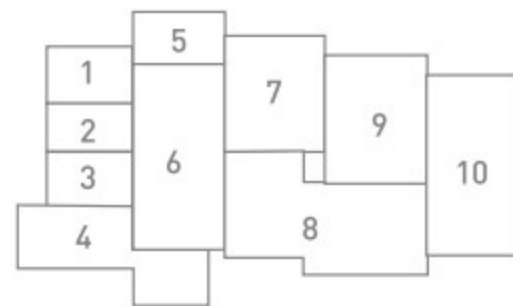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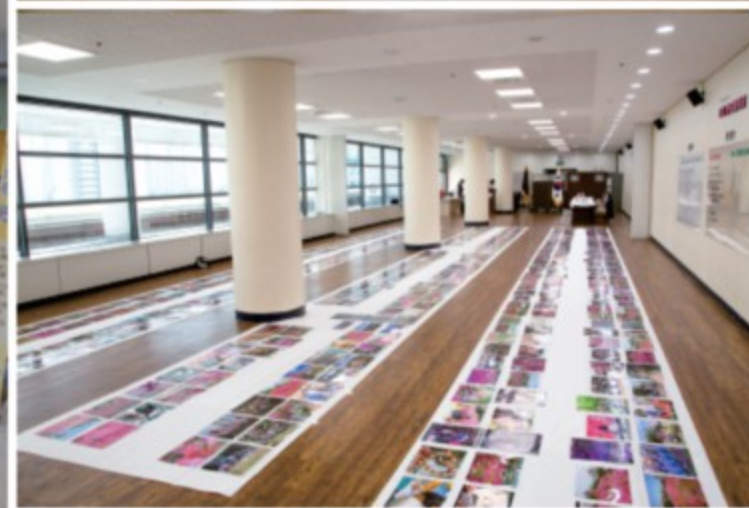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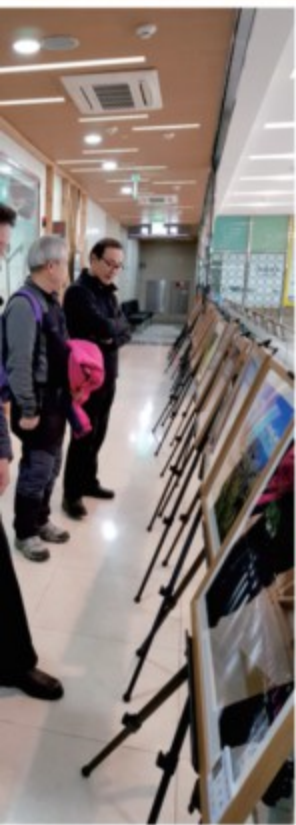


2014~2016



- 2014**
- 12. 04 임시총회
- 2015**
- 01. 30 제1차 정기총회
- 10. 19 ~ 25 제1회 회원전 야외전시
- 2016**
- 04. 29 ~ 05. 03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참가
- 09. 02 ~ 06 제2회 회원전
- 01. 20 제2차 정기총회
- 03. 30 ~ 04. 04 정기전시회





2017

- 01. 31 제3차 정기총회
- 04. 22 ~ 05. 07 정기전시회
- 04. 29 ~ 30 군포철쭉축제 참가
- 11. 01 ~ 30 찾아가는 전시회
- 10. 01 ~ 09 한가위 예술제
- 09. 22 ~ 27 제3회 회원전
- 11. 01 ~ 30 찾아가는 전시회

2018

- 08. 16 ~ 20
- 08. 16 ~ 20
- 11. 12 ~ 2019. 01. 12
- 04. 20 ~ 30
- 04. 27 ~ 29

제4회 작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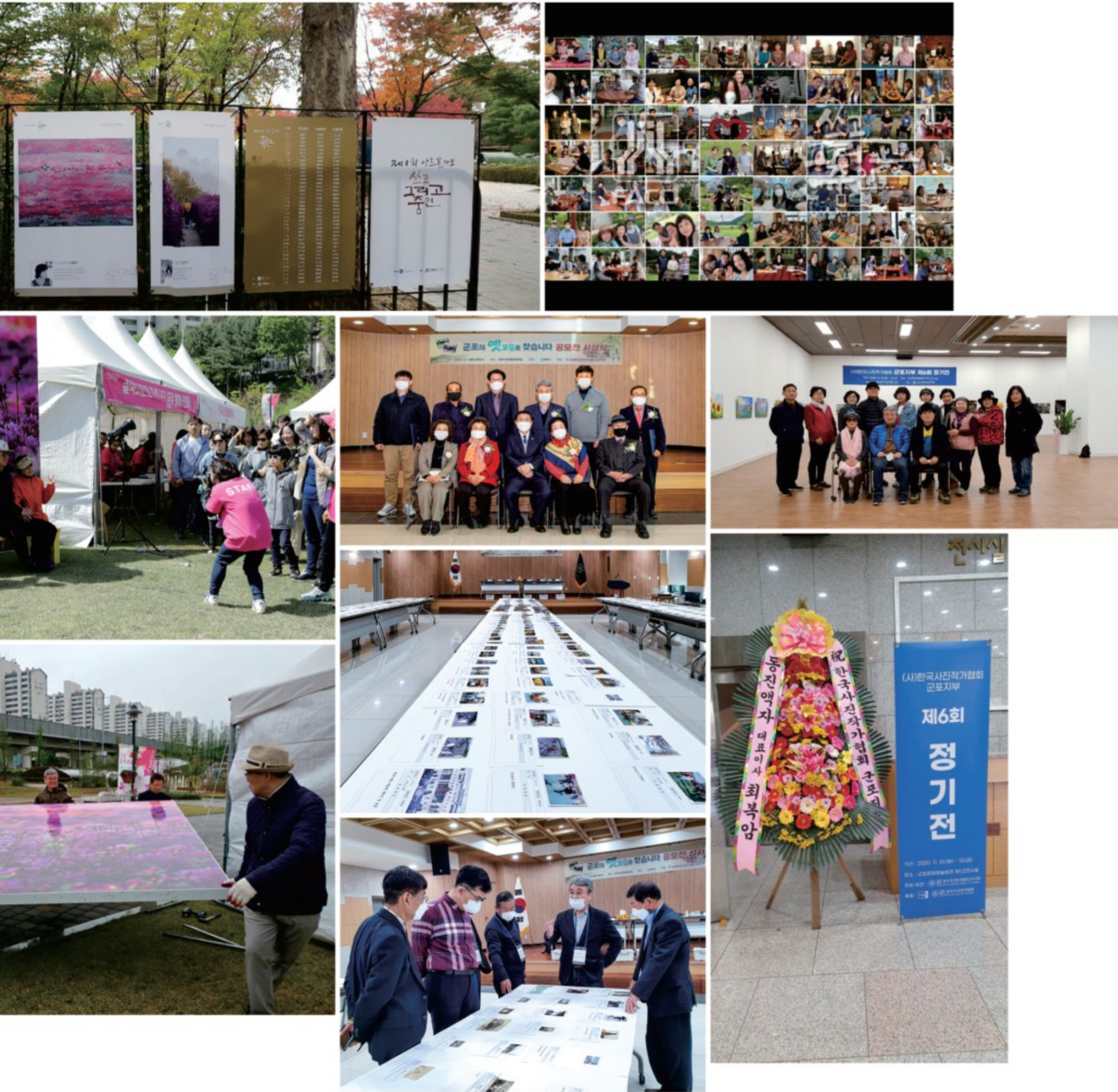
- 제4회 작가전
-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 전시회
- 2018년 사진 정기전시회
- 제1회 철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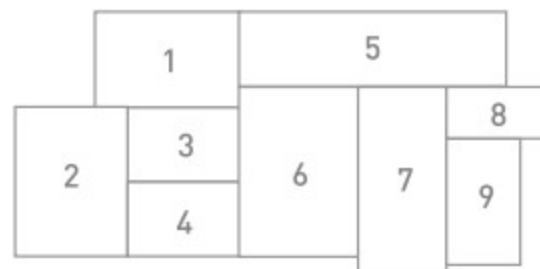
- 03. 29 ~ 04. 04 제5회 정기전
- 04. 15 군포 노인요양센터와 자매결연 협약식
- 03. 29 ~ 04. 04 제5회 정기전
- 04. 15 군포 노인요양센터와 자매결연 협약식
- 04. 27 ~ 28 제2회 군포철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_ 6월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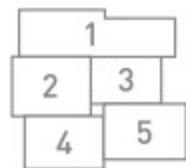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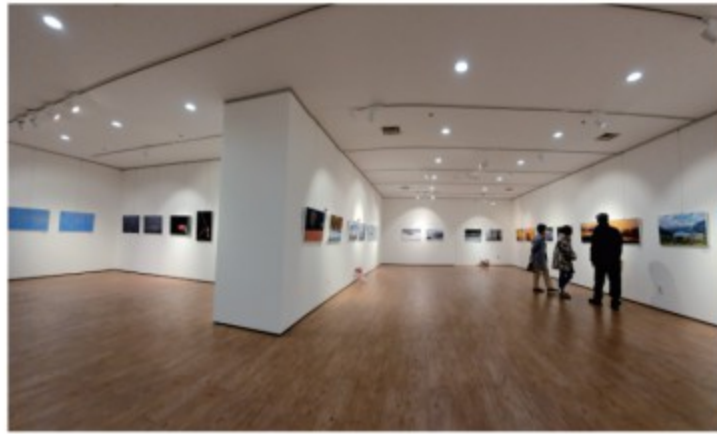
2019~2020



2020

- 10.05 ~ 23 제1회 아트콜라보
- 12.01 ~ 12 군포 옛 모습 공모전
- 11.10 ~ 13 제6회 정기전
- 12.01 ~ 12 군포 옛 모습 공모전
- 11.10 ~ 13 제6회 정기전
- 12.01 ~ 12 군포 옛 모습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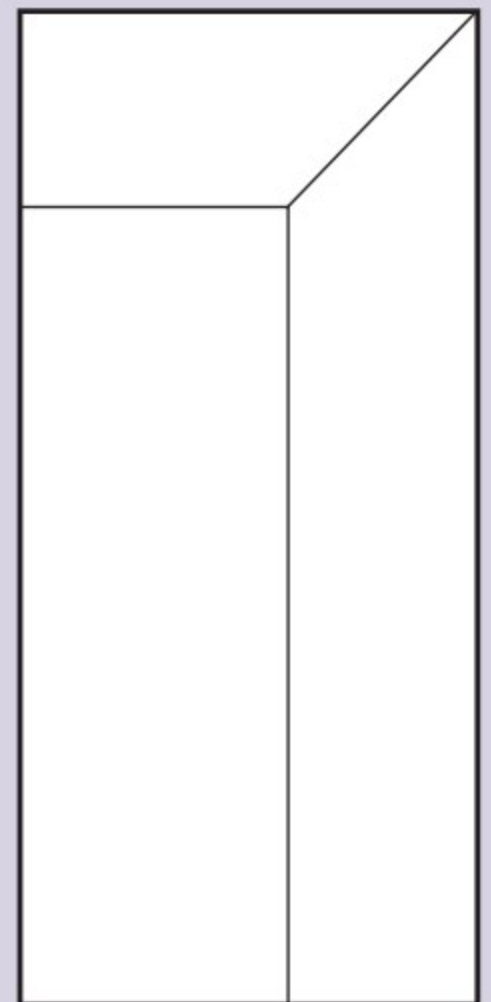


2021

- 04.06 ~ 11 제7회 정기전
- 08.04 찾아가는전시
- 11.12 군포문화관광사진공모전 심사
- 11.27 정기출사 및 송년회
- 12.01 ~ 05 군포문화관광사진공모전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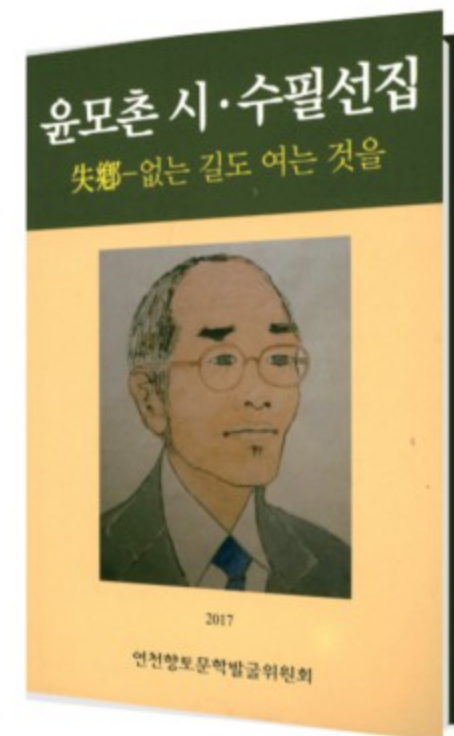
작고 예술인

- 526 대나무 수목화 같은 수필가 _ 윤모춘
- 530 학이 되어 훨훨 날지어다 _ 양대승
- 538 완행열차를 타고 떠난 시인 _ 송문정
- 546 세상 끝 정원에서 부르는 노래 _ 김영애
- 556 못 다 부른 노래 허공에 남기고 _ 임종훈





대나무 수묵화 같은 수필가 윤모춘



윤모춘 선생님(본명 甲炳)은 1923년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태어났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선생님은 고향에 갈 수 없었다. 휴전과 함께 북녘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실향의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고요히 수필 속에 녹이며 살았다.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필을 쓰게 된 것은 197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오음실 주인’이 당선되면서부터였다. 이때가 56세였으니 늦은 등단이었지만 피천득 선생님 이후 수필 문학의 대를 이은 수필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은 책은 수필집 『정신과로 가야할 사람』, 『서울 빼꾸기』, 『발자국』 등과 선집 『산마을에 오는 비』, 『오음실 주인』이 있고, 이론서 『수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있다. 1984년에 한국수필문학상, 1990년에 동포문학본상을 수상했다.

필자가 윤모춘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1996년 무렵이었고, 직접 만나게 된 것은 1998년도였다. 당시 필자는 군포문인협회 사무국장이어서 선생님을 자주 뵈었다. 선생님은 3단지 삼익아파트에 거주했다. 24층이라 전망이 좋고 특히 비 오는 날 고즈넉한 숲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선생님은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등단 작품인 ‘오음실 주인’이라고 했다. ‘오음실 주인’은 차양도 설치할 수 없는 선생님댁 좁은 뜰에 어느 날 오동나무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워 자란 이야기이다. 5년이 되자 하늘을 가릴 만큼 우거져 그늘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오동나무의 타고난 팔자를 삶과 연결시켰다.

바람을 타고 가던 씨가 좋은 집 뜰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왜 좁은 뜰에 내려왔는지 오동나무 그늘에 앉아 인연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돗가에서 빨래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오동나무 팔자가 당신 같소. 하필이면 왜 내 집 좁은 뜰에 와 뿌리를 내렸을까.” 이에 아내의 대답은 “그러게 말이오, 오동나무도 기박한 팔자인가 보오. 허지만 오동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남을 즐겁게 해주지요, 우리는 뭐요.” 하였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구차한 살림 속에서 오동나무의 현덕(玄德)만큼이나 드리워진 아내의 그늘을 의식한다.’ 며 인연에 대한 애뜻함을 표현했다. ‘오음실 주인’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무료하면 오동나무를 쳐다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찌든 내 집에 와 뿌리를 내린 오동나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필자는 당연히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표작이 ‘오음실 주인’ 일줄 알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본인이 좋다고 해서 대표작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고 겸손히 말했다.

필자에게는 선생님의 저서 『산마을에 오는 비』와 『밭자국』 두 권이 있다. 특유의 비뚤거리는 글씨체로 사인을 해주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산마을에 오는 비』 머리말에는 선생님이 늘 말씀하던 것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 한 대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이즈막의 수필계에는 수필론이 무성하다. 허구적 요소를 끼어 넣으라는 주장이 일반화돼 가는 듯도 하다. 하지만 내 글에는 그런 허구-거짓이 끼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이것은 나의 수필 본질에 대한 신념이요, 내 수필의 양심이다. 장르를 허물어 쓰는 시대가 됐다고도 하고, 그것이 후진성을 벗는 첨단적 자세라고도 한다. 하지만 나로선 어느 시대가



되건 수필은 인격적 삶의 실체이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믿을 따름이다.’

선생님은 수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필의 진정성을 전하는데 무척 힘을 기울였다. 필자와 만날 때마다 ‘수필만큼 반듯한 문학은 없어. 무엇보다 좋은 글은 군더더기가 없고 함축적이어야 해.’라며 반복해서 말했다.



또 선생님은 “수필에는 뜻이 담겨야 해. 이 뜻이 주제인데 이것이 없으면 잡담이 되고 말지. 주제는 보고 듣고 행동한 체험에서 생각과 느낌이 붙고, 이 생각과 느낌이 주제를 이루지. 수필의 소재는 신변의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 사회적 문제는 그것 자체가 주제의 성격을 드러내나 신변의 잡사를 다룰 때는 의미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어.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의미를 붙여야 해. 이것이 수필이 되게 하는 요소, 즉 주제지.”라며 주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수필이 녀두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필자는 윤모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선생님을 통해 수필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선생님도 아마 그런 이해를 원하며 수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다.

선생님은 모시적삼을 자주 입었다. 그 모습은 마치 대나무 수묵화 같았다. 글도 모습과 다르지 않은 소박함과 곳곳한 기상이 느껴진다. 선생님과도 그리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일산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2005년 영면했다. 벌써 돌아가신 지 16년이 되었지만 올곧은 수필가이며 수필 전도사인 윤모춘 선생님과 군포와의 인연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글 / 박소명(동화작가)



학이 되어
훨훨 날지어다

영원한 예인 양대승을 추억하며



흰칠하고 준수한 서구적 외모에 모델처럼 호리호리하고 길쭉한 몸피를 지닌 그는 한국 전통 무용을 하는 춤꾼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짧게 깎은 머리에 검은 롱코트를 휘날리며 고고하게 서서 마치 요즘 드라마의 실장님처럼 세련되면서도 독자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모습은 선뜻 다가갈 말을 걸기가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필자가 군포예총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하늘같은(?) 지부장님으로서 처음 마주쳤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회의자리에서 그는 따질 것은 확실히 따지는 ‘까칠한’ 지부장의 면모를 보이며 갖 사무국장 업무를 맡은 나를 기죽게 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잔을 건네며 두 눈을 반달로 접고 웃는 모습에 나의 무장은 금방 해제되었다.

무대에서 그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검은 갖에 옥색의 도포를 떨쳐입고 공간을 흐르듯 노니는 그의 춤은 손 동작 하나, 발끝의 움직임 하나 마다에 마치 전 우주를 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원래부터 한국 무용 중에서 남자 무용수가 추는 양반춤을 좋아한다. 힘차면서도 절제된 동작과 신



체의 끝부분에 머무는 정중동의 긴장감, 나긋하면서도 우아한 춤사위는 어린 시절, 아무 것도 모르는 내 눈에도 한 마리의 학처럼 보였다. 군포예술회관 수리홀 넓은 무대를 누비며 한량무를 추는 양대승 지부장의 공연을 보면서 저절로 숨이 멈춰졌다. 그의 춤은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춤에 관한 그의 지론을 보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또 하나 그의 무대를 기억한다. 2004년 무렵 군포시민대축제의 전야제 공연에서였다. 시민운동장에 모인 수천 명의 관객들 앞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북이 높다랗게 세워졌고 원형의 조명 속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질끈 띠를 묶은 그가 힘차고 리드미컬하게 북

“사람들은 춤을 육체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춤은 호흡의 예술이며 우리의 몸을 악기로 만들어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손끝과 발끝, 그 발끝의 하얀 버선코, 사분하게 내딛는 발디딤.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행위자의 정신과 영혼이 담깁니다. 이때 춤은 영혼과 혼연일체가 되어 삶의 깊은 의미를 담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들숨, 날숨의 호흡을 통해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됩니다.”

- 양대승,
‘군포무용협회가 걸어온 길’ 중에서,
2008

을 두드리고 있었다. 눈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힘들 것도 없어 보이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20여분을 서서 커다란 북채로 대북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그의 얼굴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어찌 보면 한 도시의 무용단체장으로서 안정적인 입지를 쌓으며 정착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나 제자들을 키우며 조금 쉬어도 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춤에 대한 그의 열정과 욕심은 그칠 줄을 몰랐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무대에 섰으며, 최고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체력관리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대북 공연을 위해서도 컨디션을 조절해가며 한참을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새삼 ‘아, 양대승은 무용협회 지부장이기 이전에 아직 한 사람의 무용수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예술인으로서의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천생 춤꾼인 양대승은 1964년에 출생하여 2012년 12월 지병으로 작고하기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던 사람이다. 군포무용협회 지부장이며 양대승 무용원 대표, (사)한국무용연구원 이사장 등 많은 직함이 있지만, 그에게는 사단법인 박병천류 진도북춤 보존회 부회장, 중요무형문화재 27(이매방류)호 승무 이수자라는 춤꾼으로서의 그를 설명하는 말들이 더 어울린다. 놀랍게도 그는 지병이 시작되기 직전, 50이 가까운 나이에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유의 큰 키와 길쭉한 팔다리로 북을 메고 신명나게 진도북춤을 추거나, 단정한 선비복장을 차려입고 학처럼 구부정한 특유의 자세로 무대를 날아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 되어 있다.

가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병이 깊어 거의 임종을 앞둔 즈음, 고통으로 기절했다가 잠시 정신이 돌아올 때면 두 팔을 휘이휘이 저으면서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한창때인 젊은 나이에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그의 의식은 무대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올해 8월 초막골 공원을 산책하다가, 예인예술제에 전시된 사진 작품을 통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젊은 날의 그를 보게 되었다. 그리움이 왈각 밀려들었다. 나 뿐만 아니라 아직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다. 작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시화전에서 문인협회의 한 시인이 쓴 추모시를 보기도 했다.

양대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특히 군포의 예술계는 그에게 커다란 지분을 신세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립무용단의 단원으로 한창 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1993년,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산본 신도시로 이주해 오면서 군포에서 새로운 춤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회색의 콘크리트 도시 군포에 본격적인 예술무대를 선보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여건에서 강당이나 빈 사무실을 빌려 공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상가 야외의 돌바닥에서도 공연을 이어갔다. 또한 소극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산본아트홀’이라는 작은 공연장을 운영하며 어린이극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열어 군포에 소극장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 문화공보실장의 권유로 군포의 예술인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문인협회를 첫 시작으로 음악협회도 창립 되었다. 그 역시 무용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서울시립무용단의 인맥을 통해 군포에서 거주하는 무용인들을 수소문하여 중앙의 인준을 받아 무용협회를 창립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협회를 만든 문인협회 박현태 지부장, 음악협회 김영철 지부장과 양대승 지부장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군포예총의 창립을 위해 밤낮을 매진하였다. 특유의 열정을 바탕으로 서울을 드나들며 한국예총의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나 서류작업 등은 전부 그의 손에서 해결되었다. 초창기 문화예술의 불모지 군포에서 예술단체를 창단하고 세 협회가 모여 군포예총을 창립하기까지 그의 추진력과 행동력은 큰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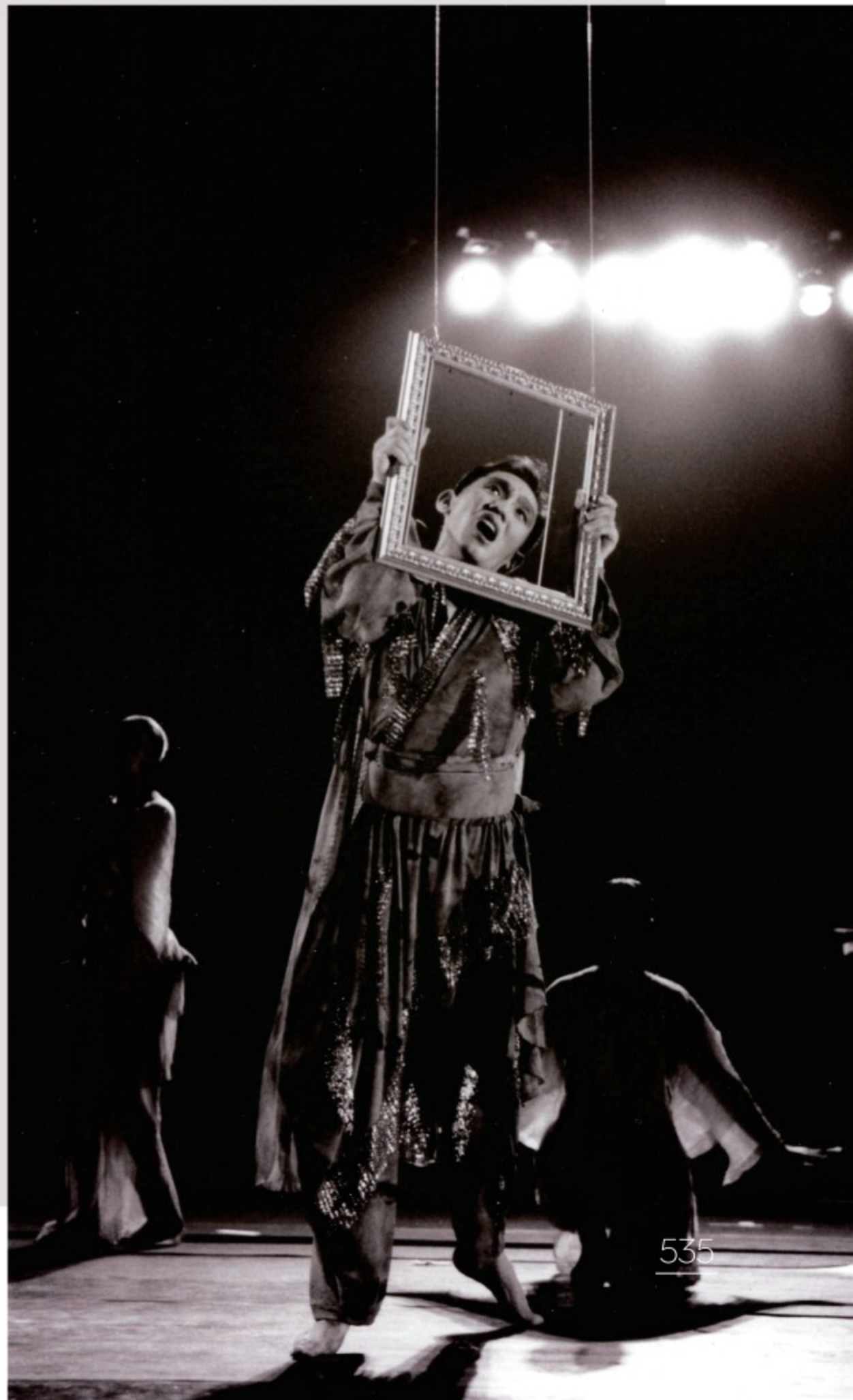
지난 4월 6일 군포예총에서는 25주년사 발간을 기념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당시의 예총 및 각 협회 창립 멤버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옛이야기들을 풀어 놓았다. 양대승 지부장에 관한 일화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

“95년도에 양대승씨를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무용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는 결혼을 앞둔 때라 저는 한참 같이 있고 싶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었는데 여기 김영철 선생님(음악협회장) 맨날 오시고, 박현태 선생님(문인협회장)도 오셔 가지고 세 분이 머리 맞대고 늘 예총, 예총 그 얘기만 하셔서, 저는 그 당시 저 분들 정말 다 미웠어요.(웃음).”

- 김은령(양대승 지부장 미망인)

“처음에 군포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서 전부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노란버스가 많이 다니는 거예요. ‘양대승 무용학원’. 가는 데마다 양대승 버스가 있어. 그 때는 내가 양대승을 몰랐는데 양대승 학원 버스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음악협회에 왔더니 그 양대승이 예총의 부회장인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양대승이란 글자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 장석기(군포예총 2대 회장)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을 하든 놀라운 추진력으로 일을 마무리 한다는 점이다. 부인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사생활도 반납한 채 군포예총 창립을 위해 동분서주한 그의 노고는, 오늘날 군포의 예술인들이 각 장르별 협회와 군포예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든직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 1995년 창립된 군포무용협회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양대승 지부장은 무용콩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당시 군포시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로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가 유일했다. 군포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포 무용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2003년 시의 지원을 받아 ‘제1회 전국수리무용콩쿨대회’를 시작하였다. 역시 추진력이 좋은 양대승 지부장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유치하며 대회의 품격을 높여 나갔다.

필자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그가 키워낸 수제자 김은희 현 군포무용협회 지부장이 막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진 무용수로 첫 발을 내딛던 시기로 기억한다. 정확한 행사명은 모르겠지만 우수한 신진 무용수를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다. 인터넷이 이제 막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던 시절이어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분야가 있었다. 양대승 지부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투표를 부탁하였다. 나도 당연히 한 표를 보탠 생각이 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인터넷에서 작은 도시 군포의 무용가가 표를 얻어 1위를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 뒤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김은희씨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물론 무용수로서의 실력이나 다른 요소들도 당연히 심사에 포함되었겠지만,



다. 물론 무용수로서의 실력이나 다른 요소들도 당연히 심사에 포함되었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양대승 지부장의 놀라운 행동력과 한번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매진하는 추진력에 감탄하게 되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그의 인간적인 존재감은 짙었고, 정겨운 남도 사투리로 함박 웃던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해주곤 했다.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니 것처럼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가 보기에 어리바리한 새내기 사무국장인 내가 처음에 얼마나 눈에 안 찼을까 싶다. 하지만 7년간 예총 사무국장을 하는 동안 친화력 좋은 양대승 지부장과는 곧 누님 동생 하는 무람한 사이가 되어서 군포 문화예술의 한 시절을 함께 흘러왔다.

처음 군포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가·무·악(歌舞樂)이 결합된 회색빛 도시 군포의 차가움을 깨트리려 그 예술적 갈증을 해소해주고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던 그의 말처럼, 지금 그는 유유자적하는 한 마리 학이 되어 우리의 추억 속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으리라.

글 / 최남희(시인)

완행열차를 타고 떠난 시인 송문정

좋은 벗과 더불어 삶과 문학을 이야기하다

송문정(본명 송현숙) 시인을 생각하면 낮고 명징했던 목소리가 떠오른다. 산본 12단지에 거주하다 청주로 내려간 후 주로 전화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지닌 시인을 처음 뵈게 된 것은 2013년 시민문학 21에 산수회에 대한 인터뷰 꼭지를 맡고 나서였다. 송문정 시인은 산수회의 총무 역할을 하며 군포문협 회원인 광민, 김동애, 김동호, 김용하, 박순녀, 박정희, 박현태, 임병용, 조병무(가나다 순) 선생님과의 문학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산수회는 총무인 송문정 선생님이 군포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왜 좋은 만남의 기회가 없느냐며 선두주창하여 만든 모임이지요. 두달에 한번씩 만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문학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하 시인의 회고대로 산수회를 만들고 한 분 한 분께 연락해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을 기꺼이 했다. 송문정 시인은 늘 회원들의 동정을 살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을 주선할 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으로 연세가 높은 회원들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산수회의 김동호 시인께서 군포시민대상을 수상하던 날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산수회 선생님들을 보고 일상을 문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송문정 시인께서 시집 『완행열차를 타고』(시문학사. 2013)에 친필 사인을 해 주었다. 『화려한 귀가』(새미. 2001), 『너무 좋은 햇살』(푸른사상사.2008)에 이어 세 번째 시집이었다. 1997년 「예술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송문정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은 ‘단시 형식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감의 시세계가 광범위한 사유의 폭을 넓히고 있다.’ 라고 소개되어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보름달』, 『번지점프』, 『뿌리』, 『저무는 길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곡이』, 『따라가면 좋겠다』 등 다수의 시가 수록되었다. “송문정 시인의 시세계는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영감과 유연하면서 따뜻한 이미지의 표상이다.” 라고 조병무 평론가는 분석했다.



외롭고 쓸쓸한 모퉁이 돌아
당신이 그리워지는 간이역에서 셧습니다

완행 열자는 늘 방랑의 길에 있었고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예정된 시간 지키지 않았지요

가슴 한가득 장미꽃 안고
당신 만나러 갈 때
그 간이역의 기다림은 기차보다 길었죠

우리가 이별하고
나의 방랑도 끝이 났을 때
슬픔의 무게
잊을 만큼 잊으려고
뜨거운 눈물의 힘으로
숨차게 달리는 기차를 보았죠

급행으로 달려온 이별의 아픔은
안개 속을 달리는
완행열차 갈아타고
추억의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흔적 없이 이름만 남았습니다

- 「완행열차-잊혀진 이름」 전문

“그는 잊혀진 이름이라는 부제를 붙여 지난 세월에 대한 무심함을 답답하면서도 애절한 소회(所懷)로 풀어낸다.” 며 박현태 시인은 시민문학20호 집중조명란에 실린 시인의 시에 대한 감상을 덧붙였다. 또한 송문정 시인의 시적 특징을 녁두리나 비틀림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필자가 느끼기에 또한 그랬다. 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후배 문인들을 대하던 송문정 시인의 따뜻함이 시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시상을 간결한 함축미로 구성해 내면서도 시적 어조에 해학과 유머가 느껴지는 시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 산책을 나가는데요
느닷없이
바람이 건달패처럼 몰려오더니
검은 나무가지 휘청휘청, 그때
멀리 동산 숲 너울너울 흰해요
“불이야!” 외치려다
놀란 가슴 쓸어내려 가만 보니
둥근 달이 쓰윽 이마를 내미는데
바람이 달빛을
이 나무 저 가지에 쏟아붓는 거예요

- 「바람에 속았는데」 부분

문학의 시원(始原), 아버지의 원고지

송문정 시인은 원고지를 인쇄해서 장롱 위에 쌓아놓고 한 장 한 장 글을 쓰시던 아버지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았다. 일제 말 어느 통신사에 근무하던 시인의 아버지는 어떤 복잡한 현실적 문제로 그곳을 그만두고 숨어지내다 6. 25를 맞았다. 식솔을 데리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영동으로 돌아와 소설을 쓰려고 했다. 글은 잘 되지 않았고 늘 술을 마셨다. 어린 송문정 시인은 글을 쓴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작업임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고지에 글짓기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들은 칭찬을 해주었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시인의 문학적 소양은 그때부터 길러진 것이 아닐까 싶다. 시인의 아버지는 그 후 문화원을 설립하고 영동의 초대문화원장이 되었다. 가난한 시절 농촌마을에서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고 문화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송문정 시인은 아버지가 초청한 노산 이은상, 팔봉 김기진 같은 분들을 보며 문학의 싹을 틔웠던 것이다.



하지만 송문정 시인은 결혼 후 생활과 자녀양육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문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기가 있었고 변화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서울 YWCA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며 문맥회라는 문학동아리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명지대학교 홍문표 교수가 지도하다 사정이 생겨 박재삼 시인이 오게 되었고 그 후로 채수영 시인에게 시작법을 배우게 되었다. 채수영 시인의 지도로 1997년 《예술세계》로 등단하게 되며 『새풀여섯』이라는 동인지를 발간하였다. 송문정 시인은 문맥회 회장을 역임하며 열심히 시를 썼고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에 들어가 다시 문학에 대한 열정을 쏟았다. 2001년에 첫시집 『화려한 귀가』를 펴냈다.

송문정 시인은 그렇게 들어선 시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방황하고 고뇌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영감을 건져 올려 시적 감수성을 입힐 것인가, 사물저 너머를 투시하고 싶은데 발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시를 몰랐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스스로 프로의식이 없다고 자책하며 언어의 직조와 발상에의 전환 등에 대해 고민했다. 게다가 첫 시집을 발표한 후 암이 발병되어 투병 생활을 했기에 시인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의 전화통화에서 시인은 말했다.

“병은 잘 달래서 함께 가면 돼요. 오히려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니 다행이지요.”

시인은 늘 변방에서 조심스럽게 문학적 자양분을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가 ‘시와 종교는 같다’고 한 영국의 비평가 M. 아놀드의 말을 떠올리고 시를 쓴 것도 구도의 길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송문정 시인은 투병생활을 잘 이겨내어 2008년에는 두 번째 시집 『너무 좋은 햇살』(푸른사상사)을 상재했다.

동짓달 어느 깜깜한 밤
바짝 마른 가랑잎 한 장

링거병 옆에 들고 그에게
슬픔을 선사했습니다

다 삭은 비단 같은 아내
견딜 수 있을 만큼 일어섰을 때
햇볕도 안 드는 심장에서
꽃 같은 물이 그렇게 피어날 줄 몰라
어떤 약초보다 힘센 밥과 사랑을
아내에게 바치고 있는 이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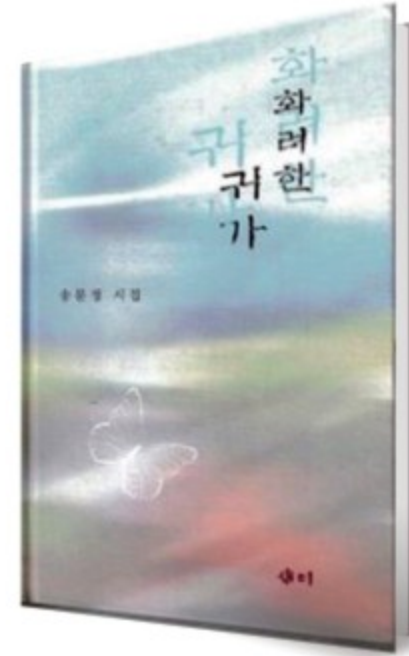
- 「어떤 행복」 부분

길 떠나는 시인의 모습

송문정 시인은 2012년에 청주에 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글을 쓰며 지내는 생활을 했다. 군포문협이 행사가 있거나 산수회 모임이 있을 때 올라와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었고 행사가 끝나면 기차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내려갔다. 그때는 완행열차가 아닌 KTX를 타고 갔다.

필자가 사무국장이었던 시기에는 군포시의 ‘책읽는 군포’ 정책이 활발하던 때라 군포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에게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다. 시에서 발간하는 『책이 열리는 나무』에 송문정 시인의 시를 수록하고자 연락하면 흔쾌히 보내주었고 독서대전에 시인의 책을 기증해주십사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사인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더불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까지 덧붙였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송문정 시인의 시는 난해하지 않은 시어에 깊은 생을 지나온 사람의 깊이가 느껴진다. 절제된 감정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말랑말랑한 서정에만 안주하지 않는 결기 같은 게 느껴져 시인의 시는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시를 쓰며 끊임없이 존재성을 묻고 자아와 세상의 조화를 꾀하는 시는 시집 여러 편에 나타나 있다. 송문정 시인의 말씀대로 시를 통해 삶의 숨은그림 찾기의 여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시집 『완행열차를 타고』 에는 유독 길 떠나는 이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늦가을 풍경에 젖어서 걸었습니다.

... 중략 ...

길 끝에 노부부 손잡고 아슬아슬 걸어갑니다.

햇살 몇 가닥

잡은 두 손 사이 적막을 다독이지만

마음 안쪽까지는 너무 멀어 보이는데

몸 비워줄 약속 가까운 듯

꿈꾸던 가슴이 낙엽 같습니다.

오는 길은 반가운데

가는 길은 쓸쓸함이 쌓입니다

- 「가는 길」 부분

송문정 시인은 다시 발명한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9년 8월 4일 우리곁을 떠났다. 흰칠하게 큰 키로 휘적휘적 다음 생을 찾아갔으리라 짐작한다.

글 / 오은희(소설가)

세상 끝 정원에서 부르는 노래

- 시인이자 소설가 김영애를 기리며

세상 끝의 정원으로 한 사람이 지나간다. ‘어서 눈알을 뽑으라. 잔인한 삶이여!’ 라고 소리쳤던,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데 너는 살아 좋겠다고, 살아먹을 수 있어 좋겠다고, 살아 슬퍼할 수 있어 좋겠다고 노래한 김영애 작가. 2018년 1월 24일, 유독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던 그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열여섯에 승모판폐색부전증으로 첫 수술을 하고 몇 번의 수술을 거친 후 늘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기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인은 말했다. ‘詩가 아닙니다. 至難한 몸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 이후 가슴에서 울리던 인공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푸른 멍울이 진 곳은 다시 희미해지지 못한 채 至難한 몸의 역사가 멈추었다.





작가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지역문화예술인으로, 여러 문학단체장으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매우 큰 나무같은 존재였다. 2008년 시전문지 <시현실>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고 군포예총 수석부회장, 군포문인협회 회장의 중책을 수행하는 한편 2010년부터 계간 『예술가』 편집인 및 군포문인협회 『시민문학』, 수리샘문학회 『수리문학』, 군포예총기관지 『군포예술』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글지문학회와 숙명문학회 동인으로 활동하며 2011년에는 군포노인복지관 시니어문학 강사와 군포중앙도서관 ‘행복한 시 읽기’ 강사 및 사람책으로 다양한 문학적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학시절 연극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최치언 시인이 이끄는 시인들의 연극 『누가 연극을 두려워하랴』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영애 작가, 그가 드리운 그늘이 매우 넓적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학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했다. 작가의 환했던 모습이 생생하여 아직 우리 곁에 있는 듯한데 이제 더이상 김영애 작가를 만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갑작스런 타계가 더욱 애석한 것은 그가 펼쳐나갔을 빛나는 문학적 성취를 더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김영애 작가가 생전에 남긴 글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으로 큰 그늘을 드리우다

작가는 1955년 대구 칠성동에서 출생하여 곧 서울 영등포 문래동으로 이주하여 유년기를 보냈다.

공터는 잡초들로 어지러웠다. 가시 달린 췌기풀 넝쿨이 사나웠다. 췌기풀이 종아리를 스치면 피가 얇게 배어 나왔다. 공터 구석에는 원형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었다. 날벌레들이 꼬였다. 빗물이 고여 있었다. 볼트, 너트, 쇠파이프들이 녹슬어가고, 빛이 비치면 무지개 색깔이 어른거리는 기름이 떠 있었다. 공장 안의 사택에서 살았으니 늘 혼자였다.

-작가의 산문 '예술가로 살 것인가' 중

공장 사택 안에서 터울이 큰 오빠들과 떨어져 혼자 그림을 그렸으며 늘 바쁜 엄마에게 손을 빌지 않는 아이였던 작가는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서울의 공립중학교 몇 군데에서 14년간 교편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학교를 퇴직하며 친구였던 강명희 작가와 함께 김승옥, 이문구, 이순원, 정찬 소설가에게 소설쓰기를 배웠다. 오랜 동안 소설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정작 등단은 시가 먼저였다. 2008년 시전문지 <시현실>에 「객사」 외 4편을 발표하며 시인이 된 김영애 작가는 시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란 계단을 밟아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날아오르거나 간단없이 추락하는 것이다.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양 선택이 아니고 전면적인 수용이다. 산산이 부서질 수 있어야 한다. 기꺼이 추락해야 한다. 삶의 중심축이 옮겨진 것을 알았으니 두렵다.(중략)

시가 무엇을 주는가. 시가 나를 치료하고 시가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는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나를 부순다. 시를 쓰면서 결국 인정하기 어려운 자신의 속물성, 추악성, 야만성이 드러난다. 나만이 아니라 인간 혹은 삶이, 생명이 갖고 있는 한계적 상황 앞에서의 두려움이 드러난다. 존재론적 각성으로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시인은 예언자라고 했다. 세상을 읽어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나란 존재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안다고 미련하게 예언자가 되려 했던 말인가. 시인이 예언자란 것을 오래전에 배웠건만 시인이 되려는 순간 그 사실을 깜박하고 말았으니 지금의 혼돈은 자처한 자리다. 지금이라도 시를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즐거운 인생을 구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럴 수만 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미 신 내림을 받은 무당처럼 시마에 썩어버렸다.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시인이 된 작가는 수리샘문학회, 군포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계간 <예술가> 편집인으로 문학과 관련된 일에 열정을 쏟았다. 또한 서울 및 타도시의 문인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했는데 시인들의 연극 <누가 연극을 두려워하라>(최치언 연출, 2012)에 출연해 대학에서 연극을 했던 경력을 살리기도 했다. 함께 출연했던 네 명의 시인(김상미, 조명, 천수호, 김개미)은 작가의 1주기 추모식 및 유고집 출간기념회에서 김영애 작가를 그리워하는 시를 써 낭독공연을 했다.

시인들이 연극을 만든다!
대한민국 대표 여성 시인들의 무대 점령기.


“누가 연극을 두려워하라”

시인 김상미, 조명, 천수호, 김산옥, 김영애와 시인이며 극작가인 최치언이 만났다. 2012년의 시작 시인들의 새로운 도전기 “시인들의 무대 만들기”가 공연된다.

2011년 “미친극”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최치언 작가가 연출을 맡은 “누가 연극을 두려워하라”는 시인과 배우, 라이브연주가 함께하며 시언어의 무대화, 시인과 배우간의 조우, 연극적인 볼거리를 함께 선사한다.

일시 2012년 1월 16일 (월) ~ 1월 20일 (금)
시간 **늦은 8시**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참여하는 단체
! 도서관판 나무발전소, 문학세계사, 북인, 실과 꿈, 열림원, 예당
! 노작용사용문학관, 이육사문학관, 헤이리예술마을
! 문학세계, 시산맥, 글로 여는 세상, 신생, 시와 반시, 시인세계, 시연실, 책선저널, 現代詩壇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위치안내
4호선 혜화역 1, 4번 출구에서 나와 혜화로터리와 5호선호수동역의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50m 직진 후 왼쪽 사거리에서

-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바랍니다.
- 매표소는 공연 1시간 전부터 오픈합니다.
- 본 공연은 12세 이상관람가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70-8759-07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 소지자: 50%할인 (2일전 전화예약 필수)

그녀의 연극을 보고 있다
귀신 앞에서 죽은 척하는 장면
귀신이 알아차리고 그녀의 입을 찢자
감자알 같은 그녀의 애드립이 쏟아진다
대본 사이로 굴러다니는 감자알맹이들
조명이 꺼져가는 무대 위에서 폭죽처럼 터진다

상미 넌 무슨 연극을 하자 그래 가지고...
상미 넌 무슨 연극을 하자 그래 가지고...

애드립을 위한 발라드-김영애 시인을 추모하며 -천수호

군포에서 서울 대학로 연습실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열정을 쏟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연극이 시고, 시가 연극이고, 그게 인생이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도, 연극도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업이죠.”

김영애 작가는 군포중앙도서관 사람책 강의 <행복한 시 읽기>로 시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글쓰기와 시낭독을 했으며 노인복지관 문학강사로 시니어 예비 작가들의 시와 수필 창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상자서전 쓰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니어들의 앨범 속, 혹은 스마트폰 속 사진과 관련된 에세이를 쓰고 책으로 묶어내는 일이다. 한정된 지원금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의 한계가 있었지만 당신들의 삶이 그대로 표현된 사진은 무한정으로 쌓였다. 모두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작가는 밤을 새워 포토샵 작업을 하고 퇴고작업을 거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후에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CD로 남기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김영애 작가의 문학 세계 _ 시집 『카스트라토』와 유고집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

작가의 첫 시집 『카스트라토』(도서출판 북인, 2014년)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인 자신의 존재론에 대한 깊은 ‘자기 인식’의 양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사물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지극한 ‘세계 탐색’의 양상을 보여주는, 서정의 이중주라고 한 유성호 평론가(한양대)는 시인의 시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따뜻한 온정이나 과장된 감상(感傷)보다는 모종의 열정과 격정에 훨씬 근접해 있다고 했다. 즉 세상과의 부드러운 화해나 융합이 아니라 날카롭고 소용돌이치는 파토스에 의해 시인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시집 카스트라토에 실려 있는 시들 전반에 걸쳐 존재에 대한 성찰과 사랑의 노래가 시인만의 단단한 미학적 해석과 형이상학적 사고에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시집 『카스트라토』에는 풍부한 테마와 선 굵은 스케일 그리고 다양한 수사 등 여러 시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시 안으로 끌어들이 시의 형식미학적 측면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집에서 좀더 근원적인 깊이를 담은 형이상학적 전율과 사물의 구체성을 향해 선명하고도 생동하는 리얼리즘의 세계로 이월해 가며 내적 감각의 섬세한 고백으로 자기 인식의 양상을 점증漸增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시인이 더 이상의 시세계를 펼칠 수 없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잠시 머물며 야만적으로 살아요
 햇볕에 녹아내릴 날개로 침탑까지 날아올라요
 어머니, 천사였던 나의 어머니
 나를 버린 건 아니겠죠
 굶지 말라 보내신 거죠
 나는 제단에 바쳐질 순한 양
 높은 천정, 하늘 문 여는 날
 발끝까지 늘어진 흰 옷을 입고
 고딕의 침탑 끝에서 반짝이고 싶어요
 다리 끝에 서면 들려오는
 생드니 대성당의 종소리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아니어요
 사람도 괴물도 아니어요

거세된 천사라고나 할까요
 아, 야만적으로 살아요
 지옥문을 지나가요
 어머니, 슬픈 나의 어머니
 버린 건 아니겠죠
 굶지 말라 보내신 거죠
 나는 제단에 바쳐진 순한 양
 종소리 너머 그레고리안 성가가 들리나요
 하늘의 영광을 지상에 세우는
 야만적, 경배를 위한
 나—는—카—스—트—라—토—입—니—다

— 「카스트라토」 전문

김영애 작가는 시인으로 등단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소설에 대한 애정이 컸다. 모두(冒頭)에 언급한 작가들에게 소설작법을 배우고 한 편 한 편 써서 모아둔 단편소설이 책 한 권 분량이 더 됐다. 2016년 계간 『문학의식』에 단편소설 「갯길에서 부르는 노래」로 신인상을 받아 소설가로 등단을 했으나 창작집을 출간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보존과 기억의 필요성을 공감해 준-에 의해 유작이 된 작품 여덟 편을 모아 소설집이 출간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쓴 것으로, 우수한 공모전의 최종심까지 갔던 「퀵트라이프」부터 소설 창작모임을 했던 문우가 가지고 있었던 원고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까지 총 여덟 편의 소설에 담긴 세계는 길을 잃고 삶을 살아가는 방황의 다층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의식』 주간인 김선주 평론가는 “김영애의 작품 세계는 삶의 보편성 자체를 문제로 제기한다. 작중 인물들의 고민과 생활은 독자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소설 밖의 우리 삶과 눈에 띄게 변별되지 않는다.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고 정감이 간다.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소설은 평범함의 서사로 뒤떨어질 것이다. 작가는 결코 자신의 소설을 그리 두지 않는다. 삶과 우리의 내면 깊이 자리매김한 슬픔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을 통감할 때 행복을 찾아 나서지 않고, 도리어 슬픔에 더욱 젖어들려는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했다.



시에 의지하여 내 생을 통과하려는 것이다. 그걸 시라고 쓰느냐는 말을 들을지언정 쓰는 동안에 무료한 내 생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쳐서 살아있음을 느끼니 그 아니 죽할까.

- 「갯길에서 부르는 노래」 중

소설 쓰기란 작가에게 상처와 대면하고 생을 통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김영애 작가는 작중 인물들의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고, 그 진실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며 상처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설 속 인물들처럼 작가 또한 의지적이고 열정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또한 유고집 발간을 위해 흠어진 원고를 모으며 알게 된 것은 작가가 소설에 베푼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작가의 작품은 그의 곁에서 함께 문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군포의 예술인 김영애 작가

김영애 작가는 시인이나 소설가로서의 작가적 소명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군포문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이전 사무국장으로서도 충분히 봉사했음은 물론이다. 김영애 작가를 사랑하는 친구와 예술인 100여명이 후원금을 내 유고소설집 『갯길에서 부르는 노래』를 출간하고 남은 기금은 (재)군포사랑장학회에 출연했다. 이 소설집으로 2019년 포럼 전통과 미래에서 열한번째 군포문학상을 수여했다. 수상자가 생존하지 않은 문학상 시상식장의 풍경은 낯설었으나 작가의 부군께서 대리수상을 하며 남긴 감사 인사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었다.

“집사람이 문학을 한다고 왔다갔다할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떠난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상을 주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군포문학상은 우수한 문학작품으로써 한국문학과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작가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작가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상의 의미와 함께 오래오래 군포예술인의 곁에 머물 것으로 본다.





김영애 작가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 문인,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협회를 아우르는 군포예총의 수석부회장의 임무 또한 충실히 해냈다. 6, 7대 회장을 지낸 강희진 예총회장과 함께 철쭉축제 자문 및 독서대전 준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군포예총에서 주최하는 예인예술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군포문인협회의 예인예술제 프로젝트로 첫 번째 사회집 『어어령차 수릿골』을 발간하고 ‘수릿골문학제’를 문학콘서트 형식으로 무대 위에 올렸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집 발간은 2021년 『오늘도 격리중입니다』로 일곱권이 되었다.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김영애 작가를 떠올리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천상 예술가였던 그이다. 또 군포시의 책읽는 정책에 기여한 공로 또한 크다. 독서대전 골든벨 출제위원, 군포신인문학상 심사위원(시부문)을 하며 ‘책 읽는 군포’를 널리 알리고 해마다 도서전시와 낭독극 공연으로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군포의 문화예술에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

작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여가 되어가는 지금 그의 소설처럼 ‘갯길에서 못다 부른 노래’는 ‘세상 끝 정원’에서 계속될 것이다. 작가의 환했던 모습이 생생하다.

글 / 오은희(소설가)

못 다 부른 노래 허공에 남기고

임종훈

기타 연주자이자 가수인 임종훈은 1966년 6월 4일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 충남 부여군 귀남리면 신리 39번지에서 태어났다. 3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임종훈이 네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린 5남매를 데리고 고향 땅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어머니는 살아갈 어떤 의지처도 없이 임종훈이 6~7세 무렵 5남매를 데리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

어린 그는 음악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당시 음악을 하는 형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했다. 기타와 노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의 자존감이자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앞날이 불안했다. 대학이라도 번듯한 곳에 들어가면 살길이 생길 거라 믿은 어머니는 임종훈에게 공부하기를 눈물로 권유했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던 임종훈은 하던 음악을 뒤로 두고 공부를하기로 진로 수정을 했다. 그때가 송실고등학교 1~2학년 때였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서 반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으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음악을 포기할 수 없는 임종훈은 공부를 내려놓고 다시 음악에 몰두했다.



▶ 한국 83. 2. B



임종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시에는 대중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지방을 전전하며 음악 생활을 했다. 그때 지금의 부인을 만났다. 경기도 광주의 야간업소에서 밴드 음악을 할 때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부인을 알게 되었다. 임종훈의 말수 없고 착한 모습에 반한 부인과 삼 년 동안 알고 지내다 결혼했다. 결혼 후 부인의 친정집이 있는 인천으로 이사했다. 결혼 5년 만에 인천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난 기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굴레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열심히 노래했지만 항상 우울했다.

30대 시절 임종훈은 클럽 음악을 했다.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나, 꿈, 같은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다.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마냥 노래만 부르다 보니 본인의 노래를 해야한다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추구하는 본인만의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가족과 소심함에 눌려 과감하게 자기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세상과의 불화를 달고 살았다.

밤무대에 나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소모되는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의 나날들이었다. 라이브카페에서 연주를 하면 그의 연주와 노래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술이었다. 밤무대에서 그의 노래가, 연주가, 애절하면 할수록 손님들이 원하는 술잔의 수가 많아졌다. 본인의 노래와 연주를 좋아해 주는 그들의 호의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술잔을 받아 마셨다. 밤무대는 그에게 술을 권하고, 그는 거기에 길들여지며 한편으로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 결혼 후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예술인으로서의 괴리감으로 인해 술로 도피하는 날들이 길어졌다.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도 열지 못한 채, 밤에 일하는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이런 남편을 보는 부인의 마음은 안타까움에 타들어 갔다. 돈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부인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울분을 술로 달래며 울었다.



그 무렵

2005년 안양소재 라이브클럽 테너에서 강신웅(군포예총회장)은 처음으로 임종훈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봤다. 기타연주는 물론 우수에 젖은 허스키 보이스의 노랫소리가 강신웅의 마음을 울려 마침 사는 곳도 군포여서 군포연예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군포에 공연이 있을 때 초대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2009년 G-포크(단원: 임종훈, 강신웅, 신나, 최재훈, 안재덕, 이정연)를 창단하여 연주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다. 클럽에서 소모하는 음악을 하다가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하는 G-포크 단원으로서 그의 연주와 노래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G-포크 활동 당시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G-포크 활동은 그의 인생에서 몇 되지 않는 선물이라 할만했다. G-포크 활동을 함께 했던 안재덕(MC)은 G-포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가평, 청평, 파주 등 여러 곳으로 야외연주 활동을 다닐 때 종훈이 형의 모습이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밝고 설레는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G-포크 단원들은 그와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순대국과 막걸리 한잔에 행복해하는 그를 추억했다. G-포크에서 함께 노래했던 가수 신나는 그의

찾아가는 7080 포크뮤직

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 오후6시30분~

장소 : 가평 설악도서관

주최 : 경기도, 가평군

주관 : G. Folk Music



병명을 알기 3~4개월 전부터 징조가 보였다고 한다. 연주 중 곧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춘천 자라섬에서 공연할 때는 기타를 쳐야 하는데 손이 굳어 기타를 치기 힘들었다고 했다.

G-포크 활동 당시, 무대에서 거친 음색으로 절규하듯 토해내는 그의 노래는 슬픔과 한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공연이 끝나면 거의 앵콜과 박수갈채를 독차지하고 관객들이 모두 임종훈에게 몰려갔다. G-포크 활동을 하던 단원들은 한목소리로 임종훈을 이렇게 추억했다. 함께 연주 활동을 하며 화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가는 날까지 순수하고 인간적이었고 욕심이 없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삶에 한이 있어 술을 마시면 우수에 젖어 말없이 우는 그의 모습을 회상했다.



원래도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그에게 2016년 식도암이라는 병마가 찾아왔다. 일산암센터에서 수술하고 한 달 뒤 군포소재 G샘 병원에서 2년여의 투병 생활을 했다. 투병 생활 중 그가 자주 했던 말이 빨리 나아서 기타도 치고 싶고, 드럼도 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었다. 죽음 앞에서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음악이었다. 평소에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생의 줄을 놓치고 싶지 않아했다. 하지만 암세포가 몸의 이곳저곳을 지배하자 이제 갈 때가 된 거 같다는 말을 남기고 2018년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52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났다.

함께 활동했던 G-포크 단원 중 막내인 안재덕은 ‘음악으로 소풍 와서 즐기다가, 하늘나라로 소풍 가 있다’ 는 말로 이 땅에서 그의 부재가 또 다른 곳에



서 존재하는 것으로 위로 받고 싶어했다. 임종훈이 떠나고 G-포크 팀에 맞는 음색의 보컬을 찾을 수 없어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단원들의 눈빛에서 임종훈에 대한 그리움이 엿보였다.

임종훈의 부인은 가장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은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을 하게 할 것 같으며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모든 기억이 추억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부인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고인에 대한 애뜻함과 한을 읽을 수 있었다.

글 / 이진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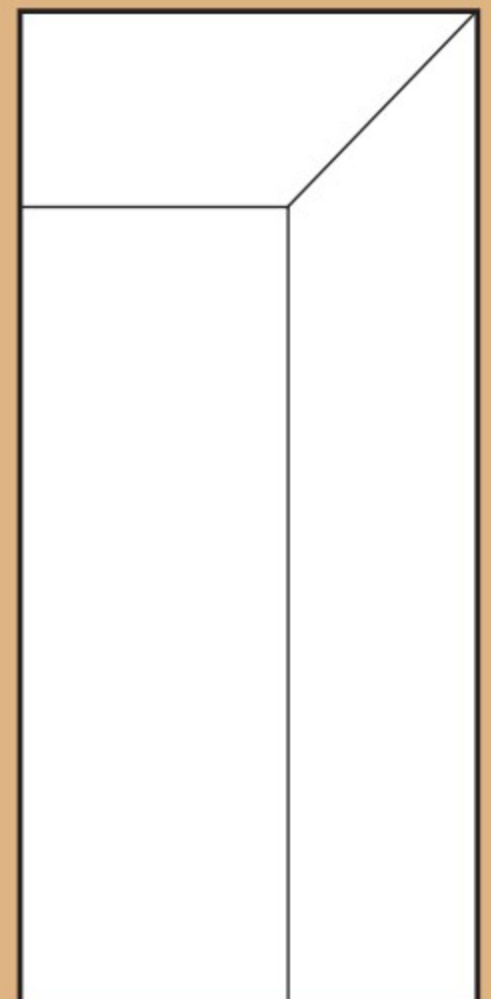
임종훈을 추억하며

- 음악과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참! 참! 참! 좋은 친구
(군포예총 회장 강신웅)
- 종훈 오빠! 그곳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맘 놓고 마시면서 아프지 말고 맘껏 노래 부르세요.
(군포연예협회 지부장 신나)
- 한평생 기타연주와 노래를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 온 예술인입니다.
(의왕연예협회 지부장 백승진)
-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했고, 그가 노래 할때는 역도 선수 같았다……우리의 심금을 들었다 났다 했다.
(MC 안재덕)

부록

예술단체 소개

- 564 군포시립여성합창단
- 568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청소년실내관현악단
- 572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576 세종국악관현악단
- 580 수리샘문학회
- 584 사사모
- 587 군포윈드오케스트라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군포시립 여성합창단은 1995년 군포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의 음악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창단하여, 이듬해인 1996년 '난파음악 콩쿨' 합창부문 대상, 삼성화재 주최 '전국여성 합창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음악회 출연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일반합창제 참가와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술의 전당 및 국립극장에서 개최되었던 2002년 '전국일반 연합합창제' 및 '한국합창제'에서는 국내·외 음악인들로부터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 인정받아 군포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경기 여성합창 콩쿨 대상을 수상하면서 2003년 정기연주회에서는 군포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최초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하였고 모차르트 '레퀴엠' 구노의 '장엄미사', 베토벤의 'C장조 미사', 푸치니의 '메사 디 글로리아' 등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포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했던 하이든의 '천지창조'연주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엔 국방부 주최 '군가 합창 대회'에 참가하여 국방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 유엔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음악회에 초청되어 공연을 갖기도 하였다.

다양한 장르와 최고의 음악으로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군포시립 여성합창단은 '교과서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는 합창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유흥창 지휘자



조명선 반주자



임익홍 단무장

| 연혁

- 1995 ● 군포시립어머니합창단 창단
난파음악콩쿨참가 우수상 수상
시민대화합을 위한 열린음악회 연합합창 출연
제1회 정기연주회 (군포시립 어머니합창단 연주회)
- 1996 ● 난파음악콩쿨 참가 대상 수상
제주도실시 50주년 축하 합창제 초청출연
제2회 정기연주회
제3회 정기연주회겸 송년음악회
- 1997 ● 제2회 삼성화제주최 전국여성합창대회 장려상 수상
제4회 정기연주회
제5회 정기연주회겸 송년음악회
- 1998 ●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음악회 출연
- 1999 ● 군포시립여성합창단으로 개명
제7회 정기연주회 '가을을 여는 합창의 밤'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8회 정기연주회 새천년 새군포 '희망의 노래'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0 ● 제9회 정기연주회 '가을 그리움의 노래'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1 ● 제10회 정기연주회 '가을...사랑의 노래'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2 ● 제11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합창음악'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12회 정기연주회 '메시아'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3 ● 제13회 정기연주회 '오월의 장미와 사랑' _ 군포시민회관 소공연장
제14회 정기연주회 'Christmas Festival'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4 ● 제15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6회 정기연주회 '봄의 왈츠'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7회 정기연주회 구노 '장엄미사'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6 ● 제18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9회 정기연주회 'Festival December'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7 ● 제20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1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서거 180주년 기념음악회 '불멸의 Beethoven'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8 ● 제22회 정기연주회 '재즈,가요,합창의 만남'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회 기획연주회 '한국환상곡'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23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 'Messa di Gloria'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9 ● 제24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 '천지창조'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회 기획연주회 들으며 배우는 '교과서 음악회' _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2010 ● 제25회 정기연주회 '즐거운 노래 & 아름다운 세상'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6회 정기연주회 'Falling in Love'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11 ● 제27회 정기연주회 'Pop's Concert'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3회 기획공연 '웨이브 잉글리쉬 콘서트' _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8회 정기연주회 '시월애'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2 ● 제29회 정기연주회 'Spring Festival'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0회 정기연주회 '어머니의 땅'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3 ● 제31회 정기연주회 '사랑 행복 나눔 콘서트'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2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Wedding' 웨딩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4 ● 제33회 정기연주회 '낭만(朗滿)'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5 ● 제34회 정기연주회 'Shall We Dance'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4회 기획공연 '싱싱 잉글리쉬 콘서트'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5회 정기연주회 광복70주년 기념 '광복 70'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6 ● 제36회 정기연주회 '가족이란...'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5회 기획공연 'Talk Talk English Connert'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제37회 정기연주회 '씨네뮤직'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7 ● 제6회 기획연주회 '얼썬 브라보'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제38회 정기연주회 가족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8 ● 제39회 정기연주회 '시의 노래'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7회 기획공연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19 ● 제8회 기획공연 슈베르트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제40회 정기연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그들의 숨결이 노래가 되어' _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20 ● 제41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 100년' _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연주회



제26회 정기연주회



제27회 정기연주회



제28회 정기연주회



제29회 정기연주회



제32회 정기연주회



제36회 정기연주회



제38회 정기연주회



제40회 정기연주회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청소년실내관현악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실내관현악단

1996년 시립으로 정식 발족하여, 음악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확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매해 2회씩 있는 정기연주와 다수의 연주를 통해 군포시를 알리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2001년 합창단 내에 청소년실내관현악단이 구성되어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합창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군포시민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함께하며 공연문화의 선두가 되고자 대내외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장르를 연구하여 혼신을 다하는 최상의 아름다운 선율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리의 전령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 희 지휘자



이미경 반주자



김상기 단무장

| 연혁

- 1993 ● 군포소년소녀합창단 창단
- 1996 ● 군포소년소녀합창단 시립으로 승격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_ 군포시청 대강당
호두까기인형 공연 _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1997 ●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_ 군포시청 대강당
미국공연 _ 디즈니랜드 공연, LA 한국문화센터 공연
- 1998 ● 제5회 정기연주회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한국합창제 출연 _ 국립극장 대공연장
- 1999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기념식
제6회 정기연주회 '초여름밤의 음악축제'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7회 정기연주회 '하늘나라 동화'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0 ● 제8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종소리'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1 ● 홍콩, 중국 심천 해외연주회(홍콩 1회, 중국 심천 1회)
제10회 정기연주회 '메리크리스마스' _ 군포시민회관 소공연장
청소년실내관현악단 창단
- 2002 ● 제11회 정기연주회 '천사의 요들'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12회 정기연주회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3 ● 제13회 '사계' 정기연주회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14회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_ 군포시민회관 대공연장
- 2004 ● 제15회 정기연주회 '드라마 영화속으로'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6회 정기연주회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5 ● 제17회 정기연주회 '디즈니 환상여행'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
제18회 정기연주회 '프렌즈'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6 ● 창단10주년(1996-2006)제19회 정기연주회 '소원'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0회 정기연주회 '기대'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7 ● 제21회 정기연주회 '지킬 앤 하이드'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2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음악회'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8 ● 제23회 정기연주회 '세계로 가는 기차'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4회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조이플 조이플 뮤지컬'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09 ● 제25회 정기연주회 '꽃보다 합창'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6회 '뮤지컬 맘마미아' 정기연주회 '뮤지컬 맘마미아'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10 ● 제27회 정기연주회 '으랏차차 코리아!!'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8회 정기연주회 '해피콘서트'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11 ● 제29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하모니' _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30회 정기연주회 'Dream'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2 ● 제31회 정기연주회 '행복의 열쇠'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2회 정기연주회 '군포 스타일'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3 ● 제33회 정기연주회 '군포 2013'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4회 정기연주회 '뮤직 & 스토리'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4 ● 제35회 정기연주회 '뮤직쉐프의 디너콘서트'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5 ● 제36회 정기연주회 'Song for You'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7회 정기연주회 '덩기덕 쿵덕'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6 ● 제38회 정기연주회 '꿈의 나래 펼쳐요'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39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이야기'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7 ● 제40회 정기연주회 '하루'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41회 정기연주회 '민요로 떠나는 국토순례'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18 ● 제42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 그 설렘으로'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43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음악산책'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19 ● 제44회 정기연주회 '해피 해피 씽스'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제45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2020 ● 제46회 '음악극 Someday' 정기연주회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21 ● 제47회 정기연주회 '풍경'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48회 정기연주회 창작뮤지컬 '신비한 마카롱'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연주회



2016년 한마음체육대회 애국가제창



2017년 한국소년소녀합창제



2017년 꾸러기음악회



2018년 철쭉축제



2019년 산본역만남음악회



2019년 경기합창제



2019년 3.1운동기념행사



2019년 철쭉축제공연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97년 2월 창단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정상급 지휘자를 영입하고 우수한 기량과 열의를 갖춘 연주자들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국내외 주요 오페라 및 발레공연,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등에 참여하고 있다. 1998년 유니버설 발레단과 뉴욕 및 워싱턴 공연 시 뉴욕타임즈로부터 '뛰어난 오케스트라(outstanding orchestra)'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2000년 영국 런던 새들러즈 웰즈 극장에서 지젤과 돈키호테를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2009년에는 태국 방콕에서 태국적십자사의 초청으로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일 전국연주회, 6.25전쟁 60주년 기념 월드오케스트라 콘서트 등의 기획공연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조수미, 홍혜경, 이네사 갈란테,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안드레아 보첼리, 호세 쿠라, 마르첼로 알바레즈, 베이스 르네파페, 플루티스트 패트릭 갈루아, 발터 아우어,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 프랑수아 르뢰,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펜잠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씨어터,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유니버설 발레단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및 단체들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롤 모델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0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약 2,200여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 하는 매력적인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오사카심포니 홀에서 오사카 한국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인 <K-CLASSIC CONCERT>를 선보여 오사카 재외동포 및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세계적인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가 연출한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라인의 황금>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이는 등 국내 교향악단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기 단장

| 연혁

- 1997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 1998 ● 유니버설발레단과 미국 뉴욕&워싱턴 공연
- 2000 ● 군포문화예술회관 상주(~현재)
김대진 베토벤 협주곡 1일 전곡 연주회
사단법인 설립
- 2002 ● 군포시와 공연제작 지원약정 체결 (~현재)
교향악축제 참가
제11회 전국수리콩쿠르입상자 연주회
- 2006 ● 경기도 전문예술법인 지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지원 사업 3년 약정 체결
- 2007 ●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제13회 전국수리콩쿠르입상자 연주회
- 2008 ● 제57회 정기연주회 백건우 초청음악회
안드레아 보첼리 내한공연 협연
- 2009 ● 정명화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한-태 수교 50주년 태국 방콕 연주
제15회 전국수리콩쿠르입상자 연주회
- 2010 ●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선정(~현재)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협연
제16회 전국수리콩쿠르입상자 연주회
- 2011 ●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예술상 수상
제17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 2012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콘서트
창단15주년 기념음악회 빈 필 수석 플루티스트 발터 아우어 초청음악회
제18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 2013 ● 베를린필 클라리넷 수석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초청
유럽 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제1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 2014 ● 로마오페라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사랑의 묘약”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 협연
제2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 2015 ● 2015 교향악축제
팀버튼 & 대니엘프만 영화음악 콘서트
홍혜경 & 라몬 바르가스 듀오 콘서트
제21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 2016 ● 유럽오페라극장 한국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협연
- 2017 ● 창단 20주년 기념 베를린필 수석 플루티스트 매튜 뒤포어 초청 콘서트
조수미 콘서트
디아나 담라우 내한공연 협연
르네파페 내한공연 협연
Pride of Korea G-10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 2018 ● 2018 평창 문화올림픽 기획공연 세계 가곡의 향연
오사카 심포니홀 K-Classic Concert
니벨룽의 반지 라인골드 연출: 아힘 프라이어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 2019 ●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 내한공연
조쉬 그로반 내한공연
순천만 국제 교향악축제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 2020 ● 제26회 전국수리콩쿠르입상자 연주회
희망의 봄 콘서트(온라인)
말러 in 군포
서울평화음악회
3개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 연주회



2009 김연아가 사랑하는 클래식



2013 철쭉별빛콘서트



2014 스쿨클래식 (옥천초)



2019 찾아가는 음악회 (G샘병원)



2019 찾아가는 음악회 (군포국민체육센터)



2020 교향악축제



2020 군포희망의봄 (생중계)



2020 프라임필정기연주회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 박호성 단장이 창단, 2015년부터 김혜성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 음악의 현대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음악으로써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간다.'라는 여민동락 정신 아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 음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를 위한 개척 정신으로 국내 최초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편성된 선도적 전문국악오케스트라이다. 오페라, 뮤지컬, 칸타타 등 다양한 장르의 접목으로 독창적인 레퍼토리 개발과 함께 명인명창, 성악가, 대중가수, 마술, 비보이, 샌드애니메이션, 드로잉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색을 찾아가고 있다.

2000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공연을 계기로 국내 민영국악관현악단 최초로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 2009년 정부에서 시행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국악관현악단으로써 유일하게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신년음악회', '신춘음악회', '대보름 음악회' '달달한 콘서트', '가족의 달 음악회', '해피콘서트', '한여름 쿨 페스티벌', '제야음악회' 등 군포시민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 공연을 선보이며 군포시의 문화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종국악심포니 군포가족오케스트라', 경기도 교육청 주최 '군포 국악오케스트라 꿈의 학교', 인문학 강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악 잡학지식' 등과 복지센터, 요양원, 학교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경기도 주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동행(同行)'으로 곳곳의 모든 군포시민과 문화예술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CCTV, '백두산 산상음악회', 일본 후쿠오카 사가현 '한일 음악의 어울림', 상해 국립극장 등의 초청공연과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년 월드컵 개막 등 국내, 외 주요공연을 통해 세계 속 한류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작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내 유일 3연속 선정, 창작곡 활성화 '지속연주' 프로젝트를 다년간 진행 등 창작 음악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차세대주역의 협연음악회 '젊은소리'를 진행하여 신진 연주자 발굴 및 무대기회 제공 등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등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 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김혜성 대표



박상우 지휘자

| 연혁

- 1992 ● 세종국악관현악단 창단 출범
- 1993 ● 제1회 정기 연주회 _ 국립국악원
중국 CCTV 초청 중국 순회공연 _ 북경, 상해, 연변, 백두산
광복절 기념 백두산 천지 산상음악회 '민족 통일 기원 음악회' _ 백두산 천지
- 1995 ● 미국 관 재한인회, 총영사관 초청 '95 한국인의 날' 공연
- 1998 ● 일본 후쿠오카 사가현 초청 공연 '98 한·일 음악의 어울림'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 위령제
- 2000 ● 중국 국립상해대극장 초청 마당놀이 오페라 '춘향전'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초청공연
- 2002 ● 창단 10년 기념 음악회 '新與民同樂'
- 2012 ● 창단 20년 기념 음악회 '세종 20년, 뿌리 깊은 나무'
- 2016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조관우 & 조통달 그때 그리고 지금' (전국 8회)
- 201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창작국악오페라 '이도, 세종' 제작
- 2018 ● 세종국악관현악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실황음반제작기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김경호와 함께하는 아리랑목동' (전국 9회)
경기도 상주단체 육성지원 신작개발 작은 창극 '친절한 돼지씨'
- 201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국악칸타타 '도적, 임꺽정'
8.15 광복 100주년 기념음악회
- 202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지금 속히 연주하라 주구장창'
창작국악오페라코미크 '인당수의 우렁총각, 용궁출신입니다만' SHOWCASE
작은 창극 '친절한 돼지씨' 경기공연예술페스타 Best Collection 선정
- 2021 ● 정월대보름 음악회 '달달한 콘서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선정
가정의 달 기념 '2021해피콘서트'
군포여름축제 한여름 쿨페스티벌 '신나는 국악FAN 콘서트'

2000
~현재

- * 브랜드 공연 :
신년음악회, 정월대보름 달달한 콘서트, 해피콘서트, 한여름 쿨 페스티벌, 제야음악회, 송년음악회
- * 교육프로그램 :
군포 국악오케스트라 꿈의 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문학 강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악 잡학지식'
세종국악관현악단 & 큰별쌤 최태성 렉처콘서트 썬(設)
- * 찾아가는 공연 :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동행(同行)'



한여름 축제 재즈 콘서트



군포 한여름 쿨페스티벌 반월호수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향비파와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 연주회



세종국악관현악단과 창단 박호성 전단장



중국 CCTV초청 중국 순회공연



일본 후쿠오카 사가현 초청공연



제100회 정기연주회



최초의 창작국악오페라 '이도, 세종'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작은 창극 '친절한 돼지씨'



창작국악 오페라코미크 '인당수의 우렁총각, 용궁출신입니다만'

수리샘문학회

수리샘문학회는 군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학 단체이다. 많은 문학 동아리와 단체들이 생겼다 사라지지만 수리샘은 25년 동안 오로지 글을 쓰고 배우는 순수 문학단체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6년 7월 군포문인협회 문예창작반 1기로 시작, 그해 11월에 수리샘문학회로 개칭하였다. 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글을 쓰고자 염원하는 뜻을 가진 수리샘문학회는 문학평론가이며 민족문제연구소장인 임헌영 교수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다.

군포초대 문협회장과 예총회장을 역임한 박현태 시인, 영문학자이며 시인인 김동호 교수, 문학평론가 조병무 교수, 추계예대 문예창작과 박찬일 시인, 대전대 문예창작과 김명원 시인, 백인덕, 이재훈 시인 등이 시창작을 맡았으며 고경숙, 유현중, 김연정, 이재웅, 신승철, 강희진 작가가 수필과 소설창작을 지도하였다. 현재는 길상호 시인과 은승완 소설가가 수리샘문학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1,3주 목요일에는 시론과 회원들의 창작시를 합평하고 2,4주 목요일에는 소설과 수필 합평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일년에 두 번 학기별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올해 47기를 맞았으며 지난해 20호 <수리샘>을 발간하였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특강'을 열어 만나고 싶었던 시인이나 소설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다. 그동안 고은, 안도현, 문정희, 성석제, 최수철, 송찬호, 정끝별, 이정록, 박정대, 유성호, 함기석, 이윤학, 전성태, 김미월, 고은규, 박정윤, 김이듬, 이용한 등 많은 시인, 작가, 평론가들이 특강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수리샘문학회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부, 은퇴한 교육자, 의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다. 글쓰기를 통해 은퇴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도 한다. 수업은 군포중앙도서관 4층 상생강의실에서 진행되며 1, 2학기로 나누어져 있다. 매주 목요일, 강사진의 강의와 회원들의 창작품을 중심으로 수업은 진행된다. 매주 회원들이 제출한 작품으로 열띤 토론과정을 겪고 나면 연말 무렵엔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수리샘문학회는 세대를 아울러 글이라는 매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회원들의 글에는 시대가 안고 있는 다

양한 문제의식이 녹아있다. 가족문제, 세대문제,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시와 수필, 소설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2007년까지 <내안의 작은방>이란 동인지를, 2008년부터는 <수리문학>으로 2018년부터 <수리샘>으로 제호를 바꾸어 현재까지 창작동인지 스무권을 발행했다. 일 년 동안 합평을 거쳐 퇴고한 회원들의 작품과 기존 회원들의 작품을 수록하며 초대석에는 수리샘문학회에 와서 열린 강연을 해 주신 여러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을 실는다.

수리샘문학회의 장점은 시와 산문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로 시작했던 회원들이 수필과 소설을 쓰고 산문을 주로 썼던 회원은 시적발상과 표현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이곳은 회원들이 쓴 글을 읽고 감동과 위로를 받는 문학적 울력의 힘이 크게 작동하는 곳이라 많은 회원들이 문단에 나아가 활동하며 시집과 수필집, 소설집을 묶어내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군포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예술인 중 많은 사람이 수리샘문학회를 거쳐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의 힘은 단지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곁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안아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문학의 힘이 아닌가 한다.

수리샘문학회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문학이 밥이 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요원하다. 하지만 문학은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세상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정교한 소통시스템인 글을 쓰고 서로를 들여다보는 일,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아름답다. 글사랑, 사람사랑, 자연사랑의 운영지침에 따라 여태껏 해왔던 대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시민으로 주변을 환하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문학적 성과는 그 다음이다.



| 연혁

- 1996 ● 군포문인협회 주관 문예창작반 개설
- 1999 ● 동인지 『내 안의 작은 방』 제1호 발간
- 2003 ●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엽서쓰기 개최
테마문집 『수리산 가는 길』 발간
- 2004 ● 시민과 함께하는 안동문화 문학기행
- 2005 ● 내포지역 문학기행
- 2006 ● 『수리샘 문학』 10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
- 2008 ● 동인지 제호 『수리문학』으로 변경
- 2011 ● 『수리문학』 11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 2012 ● 파로호 문학기행_오정희 작가의 파로호를 찾아서
군포 북 페스티벌 수리샘문학회 책속의 책 <책갈피 만들기>부스운영
『수리문학』 12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 2013 ● 이순원 작가와 함께하는 대관령 옛길 문학기행
『수리문학』 13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 정끝별시인 초청
- 2014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_박정대 시인, 김미월 소설가 초청
『수리문학』 14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 2015 ● 『수리문학』 15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 함기석 시인, 김미월 소설가 초청
- 2016 ● 수리샘 문학회 20주년 기념 및 『수리문학』 16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 이윤학시인 초청

- 2017 ● 『수리문학』 17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학강연_송찬호시인, 신승철 소설가 초청
- 2018 ● 동인지 제호 『수리샘』으로 변경
『수리샘』 18호 발간 축하 북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_이덕규시인, 박정윤 소설가 초청
- 2019 ● 『수리샘』 19호 발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학강연_이용한시인, 고은규 소설가 초청
- 2020 ● 『수리샘』 20호 발간
- 2021 ● 『수리샘』 21호 발간

| 활동 내용



2013년 수리문학 출간 기념



2018년 수리샘문학회 회원작품전



백인덕 시인의 특강



수리샘 18호 출간기념 송년북콘서트



수리샘문학회 야외회



유안진 시인의 특강



은승완 작가 소설 강의



회원 점심식사 후

사사모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사모)은 2002년 온라인 모임인 캐논클럽의 경기 지역모임으로 시작 됐다. 사진에 푹 빠진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하다가 사진전을 기획했다. 2003년 제1회 사진전을 대야미의 그림사랑 찻집 마당에서 시작했다. 옥외에서 오손 도손 모여 서로 전시작업을 했던 추억과 어느 해에는 추위에 덜덜 떨었던 적도 있고, 비가 와서 고생을 하기도 했다. 2008년 부터는 실내로 옮겨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정신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고, 그 해 한 해 동안 홍대 주변의 이야기를 촬영하여 “홍대 이야기”란 주제로 지하철 2호선 홍대역사 내에서 전시를 했다.

매년 전시장 내에 촬영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즉석 촬영과 인화를 해주고 있는데, 작가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사사모 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회원은 50여 명으로 온라인 www.iphotolove.com (<http://cafe.naver.com/isasamo>)를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와 스태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비가 없다. 정기모임으로 매달 한명의 회원이 돌아가면서 정기 촬영 모임을 갖고 있다. 온라인 모임이지만 ON/OFF의 구분이 모호할 만큼 회원들의 유대관계가 좋으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19년째 변함없이 매년 사진전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강현호 대표

| 연혁

- 2002 ● 동호회 창립모임
- 2003 ● 제1회 사진전 _ 대야미 그림사랑카페 옥외
- 2004 ● 제2회 사진전 _ 대야미 그림사랑카페 옥외
- 2005 ● 제3회 사진전 _ 대야미 그림사랑카페 옥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2006 ● 제4회 사진전 _ 대야미 그림사랑카페
- 2007 ● 제5회 사진전 _ 철쭉공원 야외공연장
- 2008 ● 제6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홍대이야기 전시 _ 지하철2호선 홍대역
- 2009 ● 제7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0 ● 제8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1 ● 제9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2 ● 제10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3 ● 제11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4 ● 제12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5 ● 제13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6 ● 제14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7 ● 제15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8 ● 제16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19 ● 군포생활문화제 전시회 참여
제17회 사진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20 ● 제18회 사진전 _ 군포생활문화센터
- 2021 ● 제19회 사진전 _ 군포생활문화센터

| 활동내용



2003 1회 사진전



2008 창립6주년기념 MT(소야도)



2008 흥대전시



2016 사진전 소개



2021 19회 전시전



전시장 스튜디오

군포윈드오케스트라



군포윈드오케스트라는 2005년 12월 군포지역 음악예술인으로 창단된 순수 민간 윈드 오케스트라로, 관악기와 타악기를 전공한 전문음악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안재찬 지휘자 겸 단장을 주축으로 군포윈드를 알리기 시작 했다. 2009년부터는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를 시작으로 군포시민과 소통하는 연주단체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후 꾸준한 연주 활동으로 황일화 단장을 영입하면서 명실상부한 군포윈드오케스트라로 군포시에서 자리를 잡았다. 군포문화재단 공모사업과 경기도 공모사업을 진행 하면서 다른 예술단체와 협업하는 공연들을 기획 연주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진영단장을 주축으로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며 새로운 공연기획을 하고 있다. 젊은 연주자들이 많이 영입되면서 파워있고 섬세한 공연단체로 거듭 변화하고 있다. 단원들의 90% 이상이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 회원들로 함께 활동하면서 성악, 피아노 파트와의 교류 확대와 문화소외계층에도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음악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군포윈드오케스트라의 모태가 된 군포고등학교 관악부는 전국에서 약 100여 개의 관악합주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관악합주 경연대회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도 매년 군포고를 졸업하고 사회 음악예술인이 되어서 귀향한 선배들이 정기연주회를 통해 관악음악 예술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 전수, 새로운 연주 기법을 통해 후배들의 연주 기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은 졸업생을 주축으로 관악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이 모여 '군포윈드오케스트라'라는 단체로 시작 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관악연주자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포 시민의 순수 음악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 공유하는 연주 단체를 표방한다. 더불어 군포시민오케스트라를 구성, 순수아마추어 관악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전문연주자의 기량을 바로 옆에서 느끼고 습득하는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으로 군포시 윈드 문화의 위상을 타 시도에 알리고 있다. 군포윈드오케스트라는 연주만 하는 단체가 아니고 교육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음악소비자 관람객을 양성하고 아마추어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전문예술인도 많이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공연기획자, 단체를 이끄는 단장, 공연을 수준을 높이는 지휘자, 연주기량이 높은 단원,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군포윈드오케스트라는 군포시를 대표하는 윈드오케스트라 완성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으고 있다.



이진영 단장

| 연혁

- 2005 ● 군포윈드오케스트라 창단
- 2006 ● 한여름밤의 시원한 음악회 _ 안양중앙성당
- 2009 ● 신년음악회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1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0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2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1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3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2 ● 철쭉축제 공연 _ 중심상가 야외무대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4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3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5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4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6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5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7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6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8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7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9 _ 중심상가 야외무대
영아보육교사 힐링캠프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군포시민윈드오케스트라 첫 발걸음 _ 당동중학교 시청각실
- 2018 ●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10 _ 중심상가 야외무대
군포 여름축제 -한여름 야외음악회 _ 중심상가 야외무대
- 2019 ● 군포3.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_ 군포역광장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11 _ 반월호수 야외무대
찾아가는 문화활동 _ 군포시 노인복지관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금빛연주회 _ 당정근린공원 야외무대
- 2020 ● '백만원의 기적' 지원사업 _ 군포역광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_ 평촌아트홀
군포윈드와 시민윈드와의 감성콘서트 _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2021 ● 찾아가는 문화활동 _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군포예술활동 지원사업 _ '트롯트 변신은 무죄' _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연주회



2014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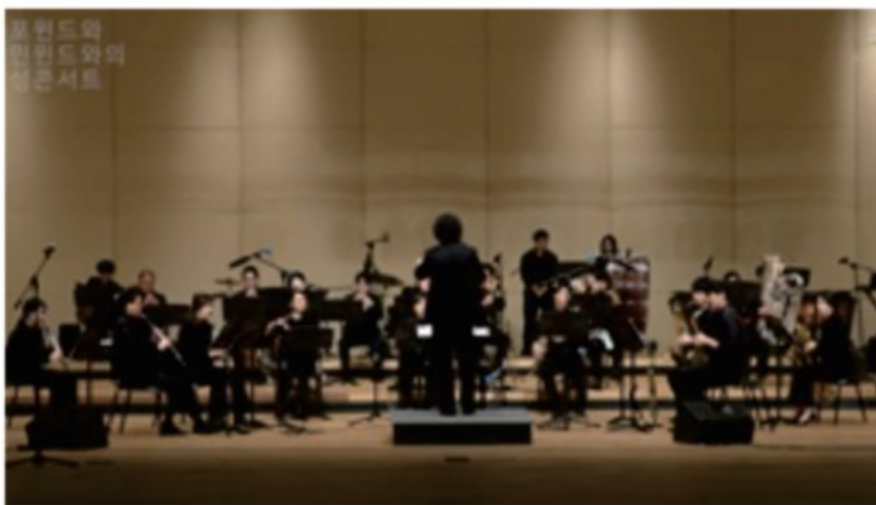
2016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2018 군포시민과의 만남 콘서트



2019 3.31 100주년 기념 행사



2020 군포윈드와 시민윈드와의 감성콘서트



2020 군포시민과의 만남



2020 한여름야외음악회



2020 한여름야외음악회2

| 편찬후기

군포예총의 역사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1996년 군포예총이 창립될 무렵의 군포는 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도시로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본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주해 온 초창기 예술인들은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각 협회와 예총 창립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무성한 숲을 이룬 군포예총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통은 10년 단위로 역사를 쓰게 마련인데, 20년사나 30년사가 아닌 『군포예총 25년사』를 발간하기까지 현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간 예총사를 발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랜 기간의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초창기 군포에서 활동하며 예총 설립에 참여한 원로 예술인들이 점점 연로하다보니 관련 기억이나 자료들이 소실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군포예총이 이룩한 성취를 보더라도 이 시점에서 군포예총사의 발간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편집위원회와 집필위원회가 구성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책의 전체 방향과 필요한 항목, 필진 등을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총의 초창기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자 8개 협회의 초대 회장단 및 예총 창립기의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진행한 ‘25년사 발간기념 좌담회’에서 초창기의 역사와 에피소드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총의 창립과 초기 관계자들의 고생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단단한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이 현장의 이야기로 재생되었고 귀중한 자료로서 책자에 그대로 담겨질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집필위원들이 영역을 나누어 예총 및 8개 협회의 역사와 연혁, 사진자료 취합 및 작고 예술인 추모 원고 집필 등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25년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 대다수의 자료들이 유실되었으며, 관계자들도 이사를 가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 등 자료 수집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집필위원들은 당사자 인터뷰, 총회자료, 행사 유인물, 시청 홈페이지, 회원 보유 자료, 인터넷 기록, 옛 신문 등을 뒤져가며 자료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한땀 한땀 예총과 각 협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책이 만들어져 2021년 12월 마침내 뜻 깊은 『군포예총 25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보람도 크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첫 걸음마에서 시작해 25살의 청년

이 되기까지 성장과정에 담긴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간 매 순간순간들이 그대로 책자에 담겨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계속 수정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빈 부분을 채우고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정확한 날짜를 찾아냈고, 당시 진행된 일들에 대해 행간에 숨은 진행자들의 노고와 정성, 시민들과 교감하려는 마음까지 고스란히 글에 담고자 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교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려 애썼지만,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수록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또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포예총 25년사』는 군포예총만이 아니라 군포시 문화예술 25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기록을 책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군포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군포예총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며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포예총이 오늘날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아 주신 초창기 예술인 분들과, 함께 걸으며 역사가 되어 주신 예총의 8개 협회 지부장님과 회원여러분, 자료수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포예총25년사 편집위원회 드림



군포예술총 25년사

1996년 ~ 2021년

발행일 2021. 12. 31

발행인 강신웅

감수 전현하 홍순창

편집자문 전현하 황일화 김은희 배선한 유형열 조현건 신지균 임효례

편집위원장 최남희

편집위원 이진옥 박소명 오은희

편집간사 이숙진 이상훈

사진제공 강민주 한재수 군포신문

발행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TEL 031-392-4511 FAX 031-392-3773

디자인·인쇄 **AND**

(재)군포문화재단 지역전문예술단체 협력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구로세계총 25년사

1996년 ~ 2021년